2011 경제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2012. 11.

통계청 STATISTICS KOREA

주 의

1. 이 보고서는 통계청에서 수행한 2011 경제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용역 결과 보고서입니다.

2. 이 보고서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통계청이 소유하며, 통계청은 정책상 필요시 보고서의 내용을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 출 문

통계청장 귀하

본 보고서를 “2011 경제총조사 자료 활용성 제고를 위한 심층분석 연구” 용역 과제의 최종 연구결과물로 제출합니다.

2012년 11월

계약기관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단 대표 ㊞

연 구 진

책 임 연 구 원	전용일(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연 구 원	이명선(이화여자대학교 보건관리학과 교수)
	김성태(청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임병인(충북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문선웅(명지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부교수)
	이용희(서울시립대학교 통계학과 부교수)
	김경아(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 조교수)
연 구 보 조 원	정원일(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박사수료)

차 례

제1장 서론 ·····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 3

제2장 자영업자 현황 및 규모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 ····· 10

제1절 서론 ····· 10

제2절 5인 미만 개인사업체와 음식 및 숙박업 현황 ····· 12

제3절 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의 규모별 특성 분석 ····· 18

제4절 우리나라 자영업과 음식 및 숙박업 비중 국제 비교 ····· 25

제3장 가공통계 개발방안 ····· 31

제1절 분석개요 ····· 31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 32

제3절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집중 분석 ····· 42

제4절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집중 분석 ····· 58

제4장 경제총조사와 연계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의 연계 ····· 94

제1절 경제총조사 자료와의 연계 필요성 ····· 94

제2절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관련 자료 결합과정 ····· 94

제3절 자료연계를 통하여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제 ····· 103

제4절 보건업 경제총조사 현황분석 ····· 105

제5절 건강보험 자료와 경제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통계분석 ····· 113

제5장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로 본 산업구조 변화 ····· 123
제1절 서론 ····· 123
제2절 총공급과 총수요 추이와 산업별 국내 산출액 비중 개요 ····· 124
제3절 부가가치 및 사업체수, 종사자수 추이로 본 산업구조 변화 ····· 127
제4절 소결 ····· 139

제6장 소지역 통계 제공방안 ····· 147
제1절 서론 ····· 147
제2절 R을 이용한 소지역 통계에 대한 지리정보 분석 ····· 147
제3절 음식점 및 숙박업에 대한 소지역 통계에 대한 지리정보 분석 ····· 151
제4절 사업체 매출액의 소지역 통계를 위한 회귀모형 분석 ····· 161

제7장 프랜차이즈 사업체 실태와 경쟁력 분석 ····· 178
제1절 서론 ····· 178
제2절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분석 ····· 180
제3절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 기여도 ····· 190
제4절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 분석 ····· 203
제5절 실증분석 ····· 219
제6절 프랜차이즈 사업실태 요약 ····· 232

제8장 결론 및 활용방안 ····· 239
제1절 연구 요약 ····· 239
제2절 연구결과 시사점 및 활용방안 ····· 246

참고문헌 ····· 251

표 차례

<표 1-1> 경제총조사의 유사 외국사례 비교 ····· 2

<표 2-1> 전체 사업체 대비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현황 ····· 13
<표 2-2> 5인 미만 사업체의 산업 및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 14
<표 2-3> 전체 사업체의 산업별 영업수지 현황 ····· 15
<표 2-4> 5인 미만 사업체의 산업별 영업수지 현황 ····· 16
<표 2-5>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업소수 분포 ····· 17
<표 2-6>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고용형태 분포 ····· 18
<표 2-7>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고용형태 비중 ····· 19
<표 2-8>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평균 급여액 ····· 20
<표 2-9>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규모별 영업수지 현황 ····· 21
<표 2-10> 숙박 및 음식점업 업소당 영업수지와 종사자 1인당 영업수지 ····· 22
<표 2-11>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수 규모별 지역분포 ····· 23
<표 2-12>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 추이(전체 사업체) ····· 26
<표 2-13> 산업 전체 자영업주 비중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 27
<표 2-14> 한국의 음식숙박업 자영업주 비중 추이 ····· 28
<표 2-15> 음식숙박업 자영업주 비중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 29

<표 3-1> 가공통계 산출에 활용된 연구 대상 산업 ····· 33
<표 3-2> 시장집중률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I ····· 37
<표 3-3> 시장집중률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II ····· 38
<표 3-4> HHI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 38
<표 3-5> 동등 규모 기업수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 40
<표 3-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중분류 산업별 분포 ····· 43

<표 3-7>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도(매출액 기준) ····· 45
<표 3-8>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도(종사자수 기준) ····· 46
<표 3-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의 비중 ····· 46
<표 3-10>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도(시장집중률 기반) ····· 49
<표 3-11>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도(시장집중률 외의 지수 기반) ····· 50
<표 3-12> 중분류 산업별 평균 집중도(CR3 기반) ····· 51
<표 3-13> 중분류 산업별 평균 집중도(HHI 기반) ····· 52
<표 3-14>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률(CR3)의 계층별 분포(%) ····· 53
<표 3-1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세세분류 산업의 시장집중률과 경쟁유형 ····· 54
<표 3-1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세세분류 산업의 HHI와 경쟁유형(%) ····· 55
<표 3-17> 서비스업 부문 산업의 CR3의 계층별 분포 ····· 59
<표 3-18> 서비스업 부문 산업의 HHI의 계층별 분포 ····· 59
<표 3-19>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산업수 분포 ····· 60
<표 3-20>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산업수 분포 ····· 60
<표 3-21>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매출액 분포 ····· 61
<표 3-22>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매출액 분포 ····· 61
<표 3-23>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규모별 평균 집중률(CR3 기반) ····· 62
<표 3-24>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별 집중도(CR3 기반) ····· 62
<표 3-25>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별 집중도(HHI 기반) ····· 63
<표 3-26> 서비스업 부문 중분류별 집중도(CR3 기반) ····· 63
<표 3-27> 서비스업 부문 중분류별 집중도(HHI 기반) ····· 64
<표 3-2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분야의 CR3의 계층별 분포 ··· 66
<표 3-2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분야의 HHI의 계층별 분포 ··· 66
<표 3-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분야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66
<표 3-31>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CR3의 계층별 분포 ····· 67
<표 3-32>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HHI의 계층별 분포 ····· 68
<표 3-33>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68

<표 3-34>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CR3의 계층별 분포 ····· 73
<표 3-35>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HHI의 계층별 분포 ····· 73
<표 3-36>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3
<표 3-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4
<표 3-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6
<표 3-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6
<표 3-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8
<표 3-41> 교육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8
<표 3-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79
<표 3-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80
<표 3-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 82
<표 3-4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세세분류 산업의 산업집중도 ····· 83

<표 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제총조사의 자료 현황 ····· 95
<표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협조 관련 협의 회의록 ····· 96
<표 4-3> 자료제공심의위원회 결과 ····· 99
<표 4-4> 자료제공 요청사항 및 관련 연구주제 ····· 100
<표 4-5> 자료요청에 대한 심평원 의견 ····· 101
<표 4-6> 시도별 병원/의원/공중보건기관 현황 ····· 105
<표 4-7> 시도별 병원 현황 ····· 106
<표 4-8> 시도별 의원 현황 ····· 107
<표 4-9> 시도별 공중보건 및 기타 보건업 현황 ····· 108
<표 4-10> 업종별 사업이익 추이 ····· 109
<표 4-11> 경제총조사 유형자산 분야 변수 현황 ····· 110
<표 4-12> 경제총조사 무형자산 분야 변수 현황 ····· 111
<표 4-13> 경제총조사 사업실적 분야 변수 현황 ····· 112
<표 4-14> 업종별 사업이익 추이 ····· 114

<표 4-15> 업종별 종사자 구성별 사업이익 추이 ····· 115
<표 4-16> 업종별 의사 1인당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비중 ····· 116
<표 4-17> 업종별 사업비용, 평균 심결급여액, 비용 대비 수익 ····· 118
<표 4-18> 병원의 비용구조와 평가등급의 관계 비교 ····· 119
<표 4-19> 사업비용별 평가등급 ····· 120
<표 4-20> 병원의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로짓분석 결과) ···· 121

<표 5-1> 총공급 및 총수요 추이 ····· 124
<표 5-2> 산업별 국내 산출액 비중의 추이 ····· 125
<표 5-3>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08) ····· 126
<표 5-4> 산업별 부가가치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추이: 전국 기준 ····· 129
<표 5-5> 산업별 사업체수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추이: 전국 기준 ····· 135
<표 5-6> 산업별 종사자수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추이: 전국 기준 ····· 136
<표 5-7>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부가가치의 1985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 140
<표 5-7-계속>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부가가치의 1985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 141
<표 5-8>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사업체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 142
<표 5-8-계속>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사업체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 143
<표 5-9>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종사자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 144
<표 5-9-계속>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종사자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 145
<표 5-10>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조사의 종사자수 비교 ····· 146

<표 6-1> "shapefile" 지도자료를 이용하여 R에서 지도를 그릴 때 필요한 패키지 ····· 149
<표 6-2> 추출단위 자료의 매출액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4인 이하 음식점업) ·· 163
<표 6-3> 추출단위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4인 이하) ····· 166
<표 6-4> 시군구 매출액 총합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4인 이하 음식점업) ··· 168
<표 6-5> 총합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4인 이하 음식점업) ··· 170
<표 6-6> 추출단위 자료의 매출액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4인 초과 음식점업) ··· 171

<표 6-7> 추출단위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4인 초과) …… 173
<표 6-8> 시군구 매출액 총합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4인 초과 음식점업) … 174
<표 6-9> 총합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4인 초과 음식점업) …· 177

<표 7-1> 소매업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 ……· 180
<표 7-2>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 ……· 181
<표 7-3>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 평균 매출액 ……· 183
<표 7-4>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 186
<표 7-5>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평균 사업체 건물면적 ……· 189
<표 7-6> 산업별 총매출액: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191
<표 7-7> 산업별 총매출액 비중: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192
<표 7-8>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종사자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194
<표 7-9> 산업별 평균 연간급여액: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196
<표 7-10> 산업별 고용형태 비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199
<표 7-11> 산업별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01
<표 7-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 vs 미가입사업체 …· 204
<표 7-13> 산업별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07
<표 7-14> 산업별 노동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11
<표 7-15> 행정구역별 노동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13
<표 7-16> 경제권역별 노동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14
<표 7-17> 산업별 자본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16
<표 7-18> 행정구역별 자본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17
<표 7-19> 경제권역별 자본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 218
<표 7-20> 전 산업(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함수 추정결과 ……· 221
<표 7-21a>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 222
<표 7-21b>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표 계속) ……· 223
<표 7-22> 음식점 및 주점업 세부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 224

<표 7-23> 사업체 규모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 225
<표 7-24> 전 산업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 228
<표 7-25a>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 229
<표 7-25b>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 230
<표 7-26> 음식점 및 주점업 세부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 231

그림 차례

[그림 2-1] 전체 사업체 대비 5인 미만 개인사업체 비중 ····· 12
[그림 2-2] 종사자별 숙박 및 음식점업 업소수 ····· 17
[그림 2-3]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고용형태 비중 비교 ····· 19
[그림 2-4]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와 고용형태에 따른 평균 급여액 ···· 20
[그림 2-5]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구성비(단위: %) ···· 21
[그림 2-6]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수별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위: 천 원) ···· 22
[그림 2-7]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수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비교: 전체 업체 ···· 24
[그림 2-8]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수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비교: 5인 미만 ····· 24
[그림 2-9] 연도별 자영업주 비중 변화(전체 사업장) ····· 26

[그림 3-1] 광업 및 제조업 전 기업의 매출액 분포 ····· 42
[그림 3-2] 광업 및 제조업 매출액 1억 원 초과 기업의 매출액 분포 ····· 42
[그림 3-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산업별 기업수 분포 ···· 44
[그림 3-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규모 ···· 44
[그림 3-5] 중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CR3 기준) ····· 48
[그림 3-6] 중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HHI 기준) ····· 48
[그림 3-7]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률(CR3)의 계층별 분포 ····· 53
[그림 3-8] HHI의 계층별 분포 ····· 54
[그림 3-9] CR3 기반 일반집중도와 평균 집중도 간의 상관관계 ····· 55
[그림 3-10] HHI 기반 일반집중도와 평균 집중도 간의 상관관계 ····· 56
[그림 3-11] 시장집중률지수들 간의 상관관계 ····· 57
[그림 3-12] 시장집중률 외의 산업집중도지수들 간의 상관관계 ····· 57
[그림 3-13] 시장집중률지수와 그 외 지수 간의 비교 ····· 58

[그림 5-1] 전국 기준 전 산업 대비 부가가치비중 추이 ····· 129
[그림 5-2] 전국 기준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 ····· 134

[그림 6-1] 통계청(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 지도자료 ····· 148
[그림 6-2] GADM database of Global Administrative Areas(http://www.gadm.org/) ····· 148
[그림 6-3] R에서 작성한 전국 시군구별 2010년 인구 지도 ····· 150
[그림 6-4] R에서 작성한 서울, 경기 시군구별 2010년 인구 지도 ····· 151
[그림 6-5]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음식점업 ····· 152
[그림 6-6]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 153
[그림 6-7]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 154
[그림 6-8]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음식점업-4인 초과 사업체 ····· 154
[그림 6-9]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서울, 경기 ····· 155
[그림 6-10]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한식 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 156
[그림 6-11]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서양 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 156
[그림 6-12] 시도별 총사업체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 157
[그림 6-13]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 158
[그림 6-14]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 158
[그림 6-15]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숙박업-4인 초과 사업체 ····· 159
[그림 6-16]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 159
[그림 6-17]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숙박업-4인 초과 사업체 ····· 160
[그림 6-18] 시군구별 총사업체수-관광숙박시설운영업-4인 이하 사업체 ····· 160
[그림 6-19] 시군구별 총사업체수-관광숙박시설운영업-4인 초과 사업체 ····· 161
[그림 6-20] 추출단위 자료에서 종사자수에 대한 매출액 분포(4인 이하 음식점업) ····· 164
[그림 6-21] 추출단위 자료에서 임차료, 사업비용합계와 매출액과의 관계(4인 이하 음식점업) ··· 164
[그림 6-22] 추출단위 자료에서 객석수와 종사자수, 매출액과의 관계(4인 이하 음식점업) ····· 165
[그림 6-23]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의 관계(4인 이하 음식점업) ····· 168
[그림 6-24] 시군구 매출액 총합, 종사자수 총합, 객석수 총합의 관계(4인 이하 음식점업) ··· 169

[그림 6-25] 업종에 따른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4인 이하 음식점업) ···· 169
[그림 6-26] 추출단위 자료에서 종사자수에 대한 매출액 분포(4인 초과 음식점업) ···· 172
[그림 6-27] 추출단위 자료에서 임차료, 사업비용합계와 매출액과의 관계(4인 초과 음식점업) ··· 172
[그림 6-28] 추출단위 자료에서 임차료, 사업비용합계와 매출액과의 관계(4인 초과 음식점업) ··· 173
[그림 6-29]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의 관계(4인 초과 음식점업) ····· 175
[그림 6-30] 시군구 매출액 총합, 종사자수 총합, 객석수 총합의 관계(4인 이하 음식점업) ··· 176
[그림 6-31] 업종에 따른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4인 초과 음식점업) ···· 176

[그림 7-1]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와 비중 ····· 181
[그림 7-2]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매출액 기준 ····· 182
[그림 7-3]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매출액 기준 ····· 184
[그림 7-4]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종사자수 기준 ····· 185
[그림 7-5]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종사자수 ····· 187
[그림 7-6]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건물면적 기준 ····· 188
[그림 7-7]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건물면적 ····· 190
[그림 7-8]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과 비중 ····· 193
[그림 7-9]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와 비중 ····· 195
[그림 7-10]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연간급여액 vs 일반사업체의 연간급여액 ····· 195
[그림 7-11]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연간급여액 vs. 일반사업체의 연간급여액 ··· 197
[그림 7-12]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고용형태 vs. 일반사업체의 고용형태 ····· 198
[그림 7-13]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평균임금 vs. 일반사업체의 평균임금 ····· 200
[그림 7-14]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 ····· 204
[그림 7-15]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 ·· 206
[그림 7-16]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률 ···· 207
[그림 7-17]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률 ··· 209
[그림 7-18]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vs. 일반사업체의 노동생산성 ···· 210
[그림 7-19]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vs. 일반사업체의 노동생산성 ··· 212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자영업자 및 산업구조에 관하여 생산된 양질의 자료이다. 경제발전과 기술혁신으로 산업구조가 빠르게 발전하고 변화하고 있어 산업구조통계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고급화 및 복합화되고 있는 추세에 반해, 조사되는 통계 간의 정합성과 일관성이 낮은 점을 극복하고자 경제총조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조사대상 사업체의 응답부담 경감과 예산절감을 위해 경제총조사가 진행되었지만,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심층적인 통계 및 경제학적인 분석을 통하여 관련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즉, 국내 전체 산업에 대한 고용, 생산, 투입 등의 총량 및 구조 등을 처음으로 파악하는 경제총조사 조사결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활용 또는 연구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심도 있는 고찰과 함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구체적인 실행방안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활용하여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점검하고, 정책적인 시사점 등을 발굴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입안자들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하여 정부기관의 정책수요자 및 학계 전문가, 산업구조와 자영업 현황 등에 관심이 많은 일반 이용자에게 다양한 분석결과를 제시하여 자료와 논거를 제공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총조사에 대한 이해 및 관심도를 제고하도록 한다.

해외에서도 경제총조사와 유사한 방식의 센서스 조사가 존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Department of Commerce에서는 5년 주기로 경제센서스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1967년부터 시작된 조사로서 여기에서는 광업, 제조업, 건설 및 서비스업 등 모든 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경제센서스는 사업체를 기본 관측치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종사자 1인 이상의 모든 기업을 조사대상에 포함하고 있다.[1)]

일본의 경우, 센서스 조사 혹은 대규모의 통계조사는 대분류의 산업별로 조사가 따로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즉, 농업, 임업, 수산업, 제조업, 도소매업

1) 한편, 이재형・양정삼・이상무(2011)에서는 미국의 산업분류를 북아메리카 산업분류체계(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가 적용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1992년까지는 표준산업분류체계(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SIC System)를 따랐으나 1997년 이후부터는 북아메리카 산업분류체계(NAICS)를 따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동 분류체계는 미국 이외에 캐나다 및 멕시코가 채택하고 있다.

및 서비스업이 서로 분절적으로(시점과 주기가 서로 다르게 구성되어 있음) 조사되고 있었다. 분절적인 조사의 진행으로 인하여 일본의 종합적인 산업구조에 대한 통계를 생산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기업에 대한 회계, 고용, 수익성 등에 대한 조사를 일괄적으로 조사하는 방식으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조사는 5년을 주기로 하여 주로 기업의 경제활동 중 회계 측면을 조사하고 있으며 경제센서스를 통하여 모든 기업에 대한 통계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다. 즉, 동일한 시점에서 모든 산업 부문의 모든 기업에 대한 정보를 담은 자료 조사를 2009년과 2011년에 실시하였다. 일본 경제센서스의 목적은, 첫째로 각종 산업별 관련 인구통계학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둘째로 지방소비세 및 보조금 배분 등 정책 입안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하며, 셋째로 서비스업종에 대한 포괄적인 통계 작성, 지역별 전출입 자료 생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행되었다.

<표 1-1> 경제총조사의 유사 외국사례 비교

	한 국	미 국	일 본
조사 범위	KSIC 21개 대분류 중 19개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가 제외)	NAICS 18개 대분류 (농림어업, 철도, 우편, 노동조합, 정치기구, 종교단체 제외)	JSIC 21개 대분류 중 18개 (가사서비스업,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개인경영 농림어가 제외)
조사 시기	조사구설정(2011.1월~2월) 본조사(2011.5월~6월)	당해연도 12월에 조사표를 우편발송(익년 2월 마감)	기초조사(2009.6.~7월) 활동조사('12.2월)
조사 주기	5년(2000년, 2005년)	5년(2002년, 2007년)	5년(2000년, 2005년)
조사표	15종	약식조사표(30종) 564종 정규조사표(515종) 조직관련조사표(19종)	기초조사(6종) 활동조사(40종)
조사 규모	330만 개	2,700만 개	600만 개
조사 방법	면접조사 인터넷조사 ※ 행정자료 일부 활용	행정자료대체(2,240만 개) 우편조사(460만 개) 전자조사(일부 대기업)	면접조사 우편조사

주: 중국은 5년 주기로 2005년에 1차, 2009년에 2차 경제센서스 실시
자료출처: 통계청, 경제총조사 종합시행계획안

중국도 경제센서스 자료가 구축되어 있는데, 중국의 3차 산업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조직, 산업구조, 산업기술 측면에서의 실제 현황을 파악하고 생산 요소의 구성과 함께 비즈니스 등록과 지리 정보 시스템의 사운드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한, 거시경제적 통제를 강화하고 개선을 위한 과학 및 정확한 통계 기록을 제공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개발이 계획되었다. 이 조사의 주요 내용은 사업체의 기본 특성인 고용자수, 재정 상황, 생산 및 비즈니스 운영 상황, 생산 능력, 에너지 소비뿐만 아니라 과학 기술활동이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경제센서스를 활용하여 여러 가지 분석을 진행할 수 있으며, 특히 지역별 업종별 산업별 사업체수 및 매출액 정보가 기재되어 있고, 이에 더하여 자산과 부채 등 기업의 재무정보까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다.

여러 해외 사례와 비교하여 한국에서는 경제총조사 자료가 구축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활용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향후 본 자료를 활용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를 이용하여 분석가능한 각 분야에 대한 시범 연구를 진행하도록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구성

본 연구는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산업구조 및 현황파악과 함께 정보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따라서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연구가 출발점이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경제총조사 자료의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섯 분야의 소주제를 위주로 진행하였다.

우선, 경제총조사에 관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구조를 파악하고 경제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2011년 최초로 실시한 경제분야 센서스로서, 국내 산업 전체의 생산·고용·비용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적합한 경제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전국의 사업체 전체를 동일시점에 통일된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제 분야 총조사를 말한다. 인구주택총조사(인구센서스)에 비유해 경제센서스라고도 불린다. 경제총조사는 서비스업총조사와 산업총조사를 통합한 조사로서, 농림어업·운수업·건설업 등의 업종이 종합적으로 포괄한 총량을 파악하고 있다. 즉, 모든 사업체의 산업구조 및 경영실패를 정확히 파악하며, 읍면동의 소지역 단위까지 작성하여 제공하고 있다.

경제총조사에서는 조사원이 대상 사업체를 직접 방문해 조사표를 작성하는

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되나, 사업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인터넷조사 및 응답자 직접 기입방식 등을 병행한다. 업종, 매출액,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등 45가지 항목에 대해 조사한다. 통계조사별로 상이한 조사기준, 조사 단위 등을 표준화 시켜 통계 활용성을 제고하였고, 겸업 부문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여 정확한 산업별 총량 파악이 가능하고, 부가가치 산정기준을 합산법으로 통일시켜 국제비교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제총조사 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작성되는 GDP, GRDP 등 가곡통계의 품질이 향상되고, 사업체의 모집단이 통합되고 정비되어 산업구조 관련 표본조사에 고품질의 표본틀 제공이 가능해진다. 경제총조사 결과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지역 발전, 산업정책 수립 등 각종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된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경제총조사 자료 중, 본 연구를 위해 통계청에서 제공받은 자료는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원시자료, 광제조업 12년간 집계표, 최근 5년간 시계열 자료(2005년 서비스업총조사와 경제총조사 자료연계), 서비스업총조사 교육 부문, 보건업의 원시자료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의 연계,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원시자료, 조사표1번 전체, 광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원시자료 등이다. 개별 정보보호를 위해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자료를 수령 받아 연구가 진행되었다.

경제총조사의 의미를 고려하여 활용가능한 여섯 가지의 소주제를 발굴하였고, 이러한 소주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실제 데이터를 분석하여 정책적인 함의가 있는 결과 도출을 시도하였다.

1. 자영업자 현황 및 규모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

자영업자는 스스로 사업주라는 점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경기변동 등 여러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다. 과거 임금근로자로서 경쟁력을 상실한 계층에게 자영업은 하나의 도피처로서 노동시장의 완충장치로 작동하기도 했으나, 세계화의 진전과 대형 서비스업체의 등장 등과 맞물려 산업 전반의 구조조정 바람으로 인해 한계 자영업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 특히, 음식숙박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한 영세한 자영업주의 몰락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바, 큰 사회적인 문제로 비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영세 자영업의 현황분석과 정책대안의 제시는 자영업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자료의 한계로 인해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자영업주(혹은 자영업자)란 '고용주'와 '자영자'를 결합한 개념으로서, 현실적으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부터

대기업 오너까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자로 정의하게 되면 소액대출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심리적인 거리감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념상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먼저 경제총조사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체야말로 정부가 실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세 자영업 정책의 집중관리 대상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사자수 기준으로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숙박 및 음식업종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분석과 별도로 숙박 및 음식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현재 영세 자영업 부문의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해당 분야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보완적인 활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2. 가공통계 개발방안

산업집중통계는 경제총조사와 같은 원시자료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공통계로서 경쟁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며 정책상황 점검 및 산업조직 연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되는 통계이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일반집중도, 단순 및 가중 평균 집중도 등이 있으며, 이들 통계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점유율(CR3)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등의 집중도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현재까지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 등을 기초로 광업 및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조사는 비전수조사이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산업집중통계는 정확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주산업만을 고려하여 기업 단위 자료를 집계하고 사업체의 총매출액을 주산업의 매출액으로 사용하는 등의 한계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작성된 사업체 전수자료인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원시자료로부터 '광업 및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여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

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 경제총조사의 원시자료로부터 가공통계를 산출할 때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주의할 사항들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가공통계를 개발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한다. 첫째, 원시자료가 여러 조사표로 조사되고 저장된 형태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파악한다. 둘째,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 사업체 단위의 원시자료를 기업 단위 자료로 집계하는 기존의 집계 방식의 한계점을 찾아보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고찰해본다. 셋째, 기존의 여러 집중도 통계량과 지표들을 기반으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해봄으로써 이들 통계량과 지표의 특성 및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집중도 지표와 같은 가공통계를 개발할 때 경제총조사 자료가 활용하여 그 성질을 고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3. 경제총조사의 다른 자료와의 연계방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 분석

일반적으로 독립적인 통계조사는 해당 조사의 범위와 대상이 개별적으로 한정되어 있다. 즉, 어떠한 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조사의 방향성에 적합한 문항만을 질문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추출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해당 분야의 정책방향 입안 및 연구에 있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으나, 융복합적인 이슈에 대한 대응이 어려운 경향이 있다. 따라서 상이한 주제를 다루는 자료를 결합한다면, 보다 심층적인 연구 및 정책입안의 기반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경제총조사와 같이 전국의 사업체를 전수조사한 자료를 활용하여, 각 분야별 혹은 업종별로 구축되어 있는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결합하여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조사비용 없이 확장된 통계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통계자료 간의 연계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즉, 경제총조사를 광업제조업조사(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기업활동조사, 도소매/서비스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의 자료와 연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 데이터베이스 중 보건업 사업장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연계하여 의료산업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결합과정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통해 향후 발생할 각 분야별 자료연계 수요에 대응하여 자료 결합시 필요한 행정적인 절차 및 결합방법 등에 대한 실무적인 예를 제시하였다. 또한 경제총조사만으로 분석하기 어려웠던 보건문제들에

대해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4.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로 본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 간의 구성비율과 구조·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의 국민경제의 구성상태와 경제활동 내에서 각 산업의 구성비율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양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또 그 구성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국민경제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 및 그 장래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나, 경제총조사 자료가 2010년을 기준으로 2011년에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산업구조 변화 또는 추이를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불가피하게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간 사업체수, 종사자수 연간자료와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부가가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추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본다.

5. 소지역 통계 제공방안

근래에 들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정책들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으며,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경제총조사를 활용한 소지역 통계 제공은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서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다양한 산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소지역에 대한 경제 정보로서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러한 소지역 경제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0년에 조사된 경제총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시군구에 대한 통계를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간편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고안함으로써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지도를 통하여 시군구 단위의 각종 통계들을 시각적인 정보로 제공하고, 지역적인 관계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2010년 경제총조사의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해서 매출액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제시하여 소지역 통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모형에 기반한 추정방법에 이용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경제총조사의 마이크로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6.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와 경쟁력 분석

21세기에 진입하며 경제 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이 자영업을 창업하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진출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총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경제활동인구 중 22.8%를 점하고 있으며, 취업자 중 23.1%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 출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건강과 평균여명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더 이상 급여소득자로 활동하기 어려워, 소득획득활동이 창업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다. 이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50세 이상 자영업주가 31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시장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자영업자 증가 현상은 경험부족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입이 증가하는 것과 연계되고 있다. 이와 함께 고학력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인 상권 및 업종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대두되는데,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바로 경제총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매업 경영 사업체 조사 중 프랜차이즈 관련 자료이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을 창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가장 많이 속한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에 진출하고 있는 각종 분야의 창업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실패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관한 가장 많은 표본수의 사업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

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생산함수와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지역별·산업별 분석은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진출하려고 계획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제2장 자영업자 현황 및 규모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

제1절 서론

최근 자영업 부문에서의 구조조정 진행상황과 관련하여 2003년의 신용대란 이후 자영업 종사자의 절대 숫자와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는 있으나, 한국의 경제 상황에 비하여 여전히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특히, 대형 서비스업체의 등장 등과 맞물려 한계 자영업주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타격을 받고 있어, 이는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음식 및 숙박업 등 전통적인 자영업을 중심으로 영세한 자영업주의 몰락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반면, 교육서비스, 금융 및 보험, 사업서비스, 보건 및 복지, 기타 공공·사회·개인서비스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에서는 자영업 부문의 사업 기회가 확충되고 있는 상반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자영업에 대한 모호한 정의와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영세 자영업의 현황분석과 적정규모 산정 및 정책대안의 제시는 단순한 작업은 아니다. 먼저 자영업 부문의 종사자별 정의와 관련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종사상 지위에 따라 고용주와 자영자를 '자영업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고용주'란 임금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체를 운영하는 하는 사람이며, '자영자'는 피고용인이 없는 고용주를 의미한다. 따라서 '자영업주'란 '고용주'와 '자영자'를 합친 개념이며, 경제총조사나 일부 연구에서는 자영업주를 자영업자란 용어와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부터 대기업 오너까지 종사상 지위에 따라 자영업자로 정의하게 되면 소액대출 등 정책적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영세자영업자들과 심리적인 거리감이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생활밀접사업자 등의 개념이다. 이처럼 자영업자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게 되면 일관된 정책 수립에도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자영업자의 개념적인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먼저 경제총조사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체야말로 정부가 실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세 자영업 정책의 집중관리 대상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종사자수 기준으로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가장 높은 음식 및 숙

박업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분석과 별도로 음식 및 숙박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2010년 통계청 경제총조사의 경우, 개인사업체란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서, 2인 이상의 개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정의한 자영업자의 정책적 차원에서의 개념상 모호성을 탈피하기 위해 5인 미만 개인사업체를 대상으로 분석의 범위를 한정하여 우리나라 소규모 개인사업체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2]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수는 약 256만 개로 조사대상 전체 개인사업체의 약 76.4%에 해당하는 반면, 종사자수는 약 450만 명으로 전체 개인사업체 종사자수의 25.7% 수준이고, 연간매출액은 270조 수준으로 전체 사업체 대비 6.2%에 불과한 수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5인 미만 소규모 개인사업체야말로 정부가 실제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영세 자영업 정책의 집중관리 대상에 보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특히 종사자수 기준으로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비중이 68.5%로 가장 높은 음식 및 숙박업종의 경우, 현재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은퇴자 중심의 생계형 영세사업자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전체 사업장에 대한 분석과 별도로 음식 및 숙박업종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다만 경제총조사의 경우 횡단면 자료로서의 한계가 있으므로, 적정규모 산정을 위해 본 연구는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OECD 30개 회원국의 국가별 시계열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중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세자영업 부문의 정책적 중요성에 비해 해당 분야 연구가 부족한 실정에서 본 연구는 횡단면 자료와 시계열 자료의 보완적인 활용을 통해 보다 현실적인 정책대안의 기초를 마련하고, 나아가 업종별로 차별화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가치가 있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2절에서는 통계청의 경제총조사를 활용하여 5인 미만 개인사업체와 더불어 최근 대표적인 영세업종으로 주목받고 있는 음식 및 숙박업의 주요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제3절에서는 5인 미만 음

2) 영세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확실히 통일된 규정은 없으나, 일부 연구에서는 고용보험법상의 정의에 따라 영세자영업자(=자영자+5인 미만 고용주)로 영세자영업자를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보다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의는 김복순(2009), “경제위기 최일선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일자리 추이 및 시사점”을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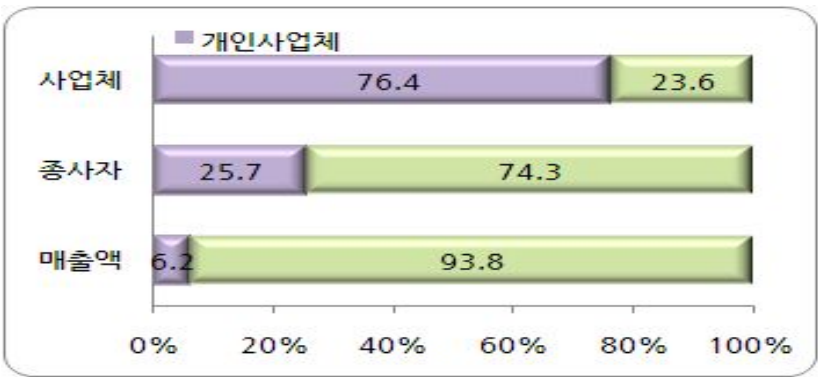
식 및 숙박업체의 규모별 고용 특성과 수익 특성 및 지역분포 특성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4절에서는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의 변화추세를 살펴보고, OECD 회원국과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의 자영업 과잉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제2절 5인 미만 개인사업체와 음식 및 숙박업 현황

본 절에서는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다수 자영업자가 속해있는 영세사업자라 할 수 있는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구성비가 가장 높고 최근 한계 자영업종으로 정책적 관심을 받고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현황

2010년 말 기준 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전체 사업체수는 335만 5천 개이며, 전체 종사자수는 1,764만 7천 명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5인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체수는 256만 3천 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76.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종사자수는 4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2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구성비 간의 비대칭성은 자영업 비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종사자 454만 1천 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이 71.9%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3)]



[그림 2-1] 전체 사업체 대비 5인 미만 개인사업체 비중

3) 이러한 비중은 우리나라 전체 종사자수 대비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수 비율에 비해 약 2배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로서,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높은 자영업 비중을 보여준다.

산업별로는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산업별 사업체수가 도매 및 소매업 78만 8천 개(28.8%), 숙박 및 음식점업 57만 8천 개(22.6%)의 순이며, 종사자수 역시 도매 및 소매업 130만 8천 명(28.8%), 숙박 및 음식점업 121만 1천 명(26.7%)의 순으로 두 업종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음식 및 숙박업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는 91.4%에 달해 전체 산업에서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76.4%) 대비 약 15% 이상 높을 뿐 아니라 도매 및 소매업의 동 비중(84.1%)에 비해서도 약 6% 이상 높다는 점에서 음식 및 숙박업종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다.

<표 2-1> 전체 사업체 대비 5인 미만 개인사업체 현황

(단위: 천 개, 천 명, 십억 원, %)

산업 대분류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전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	전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	전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
합 계	3,355	2,563	76.4	17,647	4,541	25.7	4,332,293	270,541	6.2
A 농업, 임업 및 어업	2	-	-	30	-	-	9,208	-	-
B 광업	2	1	60.1	16	3	16.1	3,650	61	1.7
C 제조업	327	201	61.5	3,418	419	12.3	1,464,337	31,735	2.2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	0	1.8	66	0	0.1	120,557	3	0.0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5	1	21.4	69	3	4.2	14,474	342	2.4
F 건설업	97	45	46.3	1,181	83	7.1	271,064	4,864	1.8
G 도매 및 소매업	877	738	84.1	2,618	1,308	50.0	819,828	143,546	17.5
H 운수업	347	321	92.6	993	341	34.3	147,571	11,761	8.0
I 숙박 및 음식점업	635	578	91.1	1,766	1,211	68.5	77,683	38,757	49.9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6	7	26.5	469	15	3.1	115,566	760	0.7
K 금융 및 보험업	39	5	11.6	707	7	1.0	744,139	313	0.0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6	90	71.5	441	135	30.7	64,306	3,580	5.6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1	36	50.9	750	81	10.8	117,678	3,717	3.2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	14	38.5	789	26	3.3	36,394	1,127	3.1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2	-	-	664	-	-	97,290	-	-
P 교육 서비스업	166	117	70.6	1,421	206	14.5	84,002	5,481	6.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07	48	45.2	1,085	155	14.3	69,553	9,094	13.1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3	94	91.2	323	164	50.9	34,229	4,681	13.7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76	267	70.9	842	384	45.6	40,765	10,720	26.3

자료: 통계청(2012),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결과로 본 개인사업체 현황과 특성 분석.

또한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체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의 비중은 총종사자 451만 1천 명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가 326만 5천 명(71.9%), 상용근로자가 66만 5천 명(14.6%), 임시 및 일용 근로자가 57만 명(12.6%), 기타 종사자가 4만 1천 명(0.9%)의 순으로 조사되었다. 5인 미만 사업체 중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중이 큰 업종은 운수업(95.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81.2%)의 순이었다. 한편 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체의 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비중은 69.3%로 전체 산업의 동 구성비(71.9%)와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구성비(19.7%)는 전 산업 평균(12.6%)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2-2> 5인 미만 사업체의 산업 및 종사상지위별 종사자수

(단위: 천 명, %)

산업	종사자 계		자영업자·무급가족 종사자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기타 종사자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합계	4,541.3	100.0	3,264.7	71.9	665.2	14.6	570.2	12.6	41.2	0.9
B	2.6	100.0	1.9	70.7	0.4	15.7	0.4	13.4	0.0	0.3
C	418.9	100.0	266.3	63.6	100.0	23.9	50.7	12.1	1.9	0.4
D	0.0	100.0	0.0	65.1	0.0	20.9	0.0	9.3	0.0	4.7
E	2.9	100.0	1.4	50.3	1.1	37.3	0.3	12.1	0.0	0.2
F	83.4	100.0	54.4	65.3	11.1	13.3	16.8	20.2	1.1	1.3
G	1,308.2	100.0	984.9	75.3	179.8	13.7	135.7	10.4	7.8	0.6
H	340.8	100.0	325.7	95.6	7.0	2.1	6.6	1.9	1.5	0.4
I	1,210.6	100.0	839.3	69.3	122.2	10.1	238.2	19.7	11.0	0.9
J	14.6	100.0	8.0	54.4	4.8	32.6	1.7	11.8	0.2	1.3
K	7.3	100.0	5.3	72.0	1.2	16.2	0.4	5.4	0.5	6.4
L	135.1	100.0	106.2	78.7	12.3	9.1	8.8	6.5	7.6	5.7
M	80.9	100.0	40.6	50.1	34.6	42.8	5.3	6.5	0.4	0.5
N	26.2	100.0	17.0	64.7	5.0	19.1	3.6	13.7	0.7	2.5
P	206.4	100.0	130.7	63.3	42.6	20.7	30.2	14.6	2.8	1.4
Q	155.0	100.0	49.6	32.0	98.1	63.3	6.9	4.5	0.4	0.3
R	164.3	100.0	121.8	74.1	9.3	5.7	32.0	19.5	1.2	0.7
S	384.0	100.0	311.7	81.2	35.6	9.3	32.4	8.4	4.3	1.1

주: 산업분류 명칭은 <표 2-1> 명칭 참조.

2010년 기준 전체 사업체의 연간매출(출하)액은 약 4,332조 원, 영업비용은 약 3,971조 원, 영업이익은 약 360조 원으로 영업이익률은 8.3%로 조사되었다. 산업

별 영업이익률은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숙박 및 음식점업이 22.4%로 가장 높고, 도매 및 소매업은 7.0%로 상대적으로 낮은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반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연간매출액은 약 271조 원, 사업체당 연간매출액은 1억 6백만 원, 영업비용은 200억 원, 영업이익률은 25.9%로 전체 사업체 대비 매출액은 1/16에 불과한 반면, 영업이익은 전체 사업체에 비해 약 3배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영업이익률 개념에 대한 응답자의 오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2-3> 전체 사업체의 산업별 영업수지 현황

(단위: 십억 원, %)

산업 대분류별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구성비		구성비		이익률
합 계	**4,332,293**	**100.0**	**3,971,480**	**100.0**	**360,813**	**8.3**
A 농업, 임업 및 어업	9,208	0.2	8,874	0.2	334	3.6
B 광업	3,650	0.1	3,100	0.1	550	15.1
C 제조업	1,464,337	33.8	1,299,306	32.7	165,031	11.3
D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0,557	2.8	117,669	3.0	2,888	2.4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14,474	0.3	13,587	0.3	887	6.1
F 건설업	271,064	6.3	259,404	6.5	11,660	4.3
G 도매 및 소매업	819,828	18.9	762,459	19.2	57,370	7.0
H 운수업	147,571	3.4	136,522	3.4	11,050	7.5
I 숙박 및 음식점업	77,683	1.8	60,306	1.5	17,376	22.4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115,566	2.7	104,902	2.6	10,664	9.2
K 금융 및 보험업	744,139	17.2	701,869	17.7	42,269	5.7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64,306	1.5	58,904	1.5	5,402	8.4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7,678	2.7	110,585	2.8	7,093	6.0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6,394	0.8	34,682	0.9	1,712	4.7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97,290	2.2	97,290	2.4	-	-
P 교육서비스업	84,002	1.9	79,394	2.0	4,607	5.5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69,553	1.6	58,439	1.5	11,114	16.0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4,229	0.8	29,967	0.8	4,262	12.5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0,765	0.9	34,220	0.9	6,545	16.1

<표 2-4> 5인 미만 사업체의 산업별 영업수지 현황

(단위: 천 개, 천 명, 십억 원, %)

산업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구성비	사업체당 (백만 원)	1인당 (백만 원)		구성비		이익률
합계	2,562.6	4,541.3	270,541.1	100.0	106	60	200,401.8	100.0	70,139.2	25.9
B	1.1	2.6	61.1	0.0	57	23	38.0	0.0	23.0	37.7
C	200.8	418.9	31,735.0	11.7	158	76	24,467.0	12.2	7,268.0	22.9
D	0.0	0.0	3.1	0.0	115	72	2.3	0.0	0.8	25.8
E	1.2	2.9	341.5	0.1	295	119	288.3	0.1	53.3	15.6
F	44.9	83.4	4,864.1	1.8	108	58	3,488.6	1.7	1,375.6	28.3
G	737.5	1,308.2	143,545.9	53.1	195	110	115,946.0	57.9	27,599.9	19.2
H	321.5	340.8	11,760.9	4.3	37	35	6,330.2	3.2	5,430.6	46.2
I	578.1	1,210.6	38,757.2	14.3	67	32	25,830.0	12.9	12,927.2	33.4
J	7.0	14.6	759.7	0.3	109	52	579.7	0.3	180.0	23.7
K	4.6	7.3	312.5	0.1	68	43	186.3	0.1	126.2	40.4
L	90.2	135.1	3,579.8	1.3	40	27	1,989.7	1.0	1,590.0	44.4
M	36.0	80.9	3,717.1	1.4	103	46	2,545.8	1.3	1,171.2	31.5
N	13.8	26.2	1,127.5	0.4	82	43	847.3	0.4	280.2	24.9
P	117.2	206.4	5,481.0	2.0	47	27	2,853.4	1.4	2,627.6	47.9
Q	48.4	155.0	9,093.9	3.4	188	59	5,721.1	2.9	3,372.8	37.1
R	93.9	164.3	4,681.0	1.7	50	28	2,913.7	1.5	1,767.3	37.8
S	266.6	384.0	10,719.9	4.0	40	28	6,374.5	3.2	4,345.4	40.5

주: 산업분류 명칭은 <표 2-1> 명칭 참조.

2. 5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 현황

통계청의 산업 분류기준에 따르면 음식 및 숙박업은 크게 숙박업(55)과 음식점 및 주점업(56)으로 분류된다. 숙박업(55)은 호텔업, 여관업, 휴양콘도 운영업,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기숙사 운영업, 그 밖에 기타 숙박업 등으로 구성된다. 한편 음식점업 및 주점업(56)은 한식 음식점업, 중식 음식점업, 일식 음식점업, 서양식 음식점업, 기관구내식당업,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출장음식 서비스업, 피자·햄버거·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치킨 전문점, 분식 및 김밥 전문점, 이동 음식업, 그 밖에 기타 음식점업, 제과점업 등으로 구성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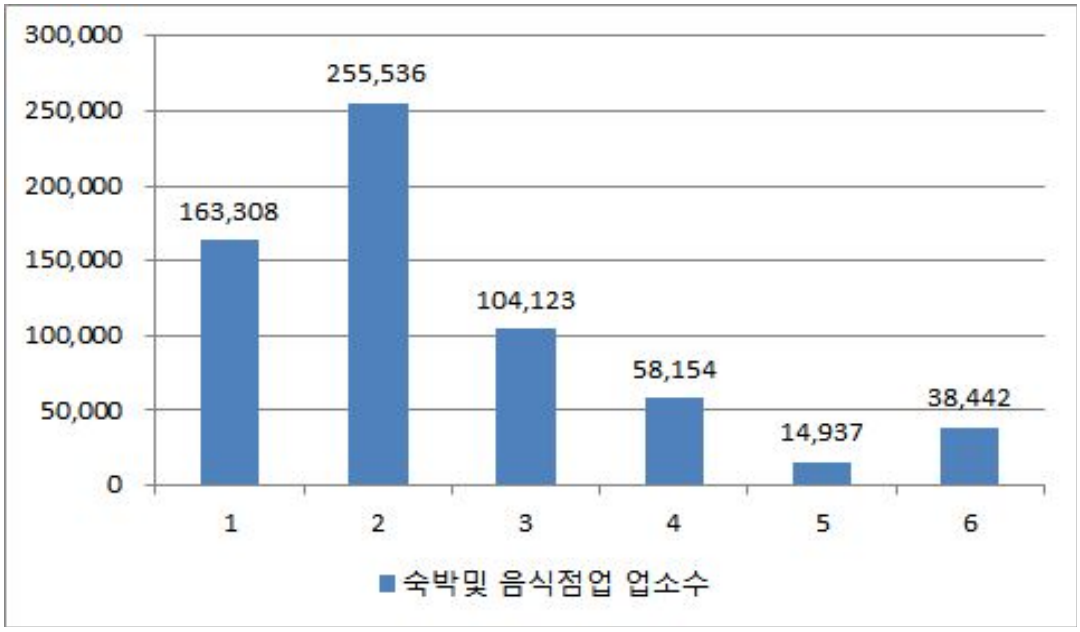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 자료에 의거하여 2010년 말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총종사자수 분포를 살펴보면 총 634,500명 중 2인 종사자의 비중이 40.3%(418,444명)으로 가장 높고, 이어 1인 종사자 25.7%(163,308명), 3인 종사자(104,123명), 4인 종사자(58,154명)의 순이었으며, 6인 이상 종사자의 비중은 6.1%(38,442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누적분포 기준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의 5인 미만 업소 비중 91.6%는 전체 개인사업자 중 5인 미만 사업체 비중 76.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치로,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비교적 소규모의 영세사업자가 대다수를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2-5>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업소수 분포

(단위: 개소)

업체당 종사자	누적업소수	업소수	누적업소수 구성비	업소수 구성비
1명	163,308	163,308	25.7%	25.7%
2명	418,844	255,536	66.0%	40.3%
3명	522,967	104,123	82.4%	16.4%
4명	581,121	58,154	91.6%	9.2%
5명	596,058	14,937	93.9%	2.4%
6명 이상	634,500	38,442	100.0%	6.1%



[그림 2-2] 종사자별 숙박 및 음식점업 업소수

제3절 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의 규모별 특성 분석

본 절에서는 앞서 살펴본 5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의 전반적인 현황분석에 추가하여 5인 미만 음식 및 숙박업의 규모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규모별 특성은 크게 업체당 종사자수에 따른 규모별 고용특성과 규모별 수익특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시도하였다.

1. 규모별 고용 특성 비교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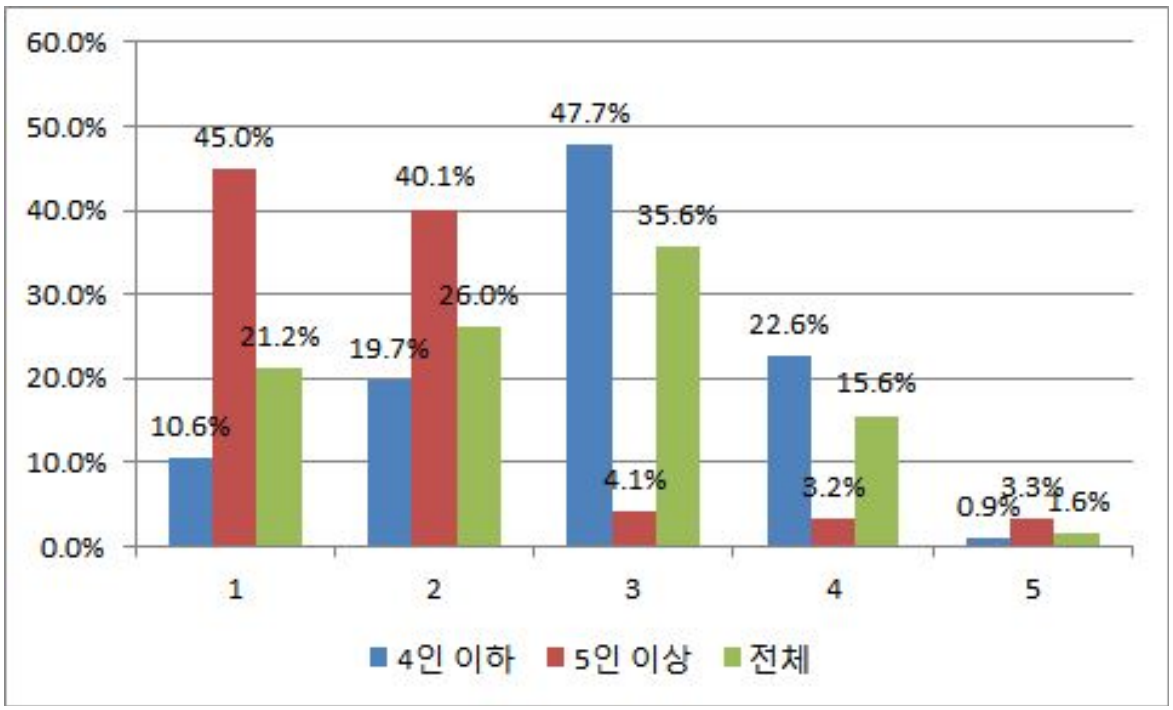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체당 종사자수에 따라 규모별 고용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 경제총조사 대상 종사자 총 1,764,503명 중 자영종사자가 628,199명(35.6%)로 가장 많았고, 이어 임시근로자 459,106명(26.0%), 상용근로자 374,209명(21.2%), 무급근로자 275,045명(15.6%), 기타 종사자 28,944명(1.6%)의 순이었다. 한편 업체당 종사자수에 따라 고용형태를 비교하여 보면, 4인 이하의 소규모 업체의 경우 자영종사자의 비중이 47.7%로 높고 상용종사자와 임시근로자가 각각 10.6%와 19.7%인 반면, 5인 이상의 경우 상용종사자(45.0%)와 임시근로자(40.1%)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표 2-6>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고용형태 분포

업체당 종사자	상용종사자수	임시근로자수	자영종사자수	무급근로자수	기타 종사자	총종사자수
1명	323	3	162,955	0	14	163,308
2명	27,798	59,940	256,538	163,493	3,303	511,072
3명	47,630	93,211	104,113	63,602	3,813	312,369
4명	52,941	87,025	58,024	30,570	4,056	232,616
4인 이하	**128,692**	**240,192**	**581,630**	**275,665**	**11,186**	**1,219,365**
5인 이상	245,517	218,914	22,345	17,380	17,758	546,138
전체	374,209	459,106	628,199	275,045	28,944	1,764,503

<표 2-7>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고용형태 비중

업체당 총종사자	상용종사자	임시근로자	자영종사자	무급근로자	기타 종사자
4인 이하	10.6%	19.7%	47.7%	22.6%	0.9%
5인 이상	45.0%	40.1%	4.1%	3.2%	3.3%
전체	21.2%	26.0%	35.6%	15.6%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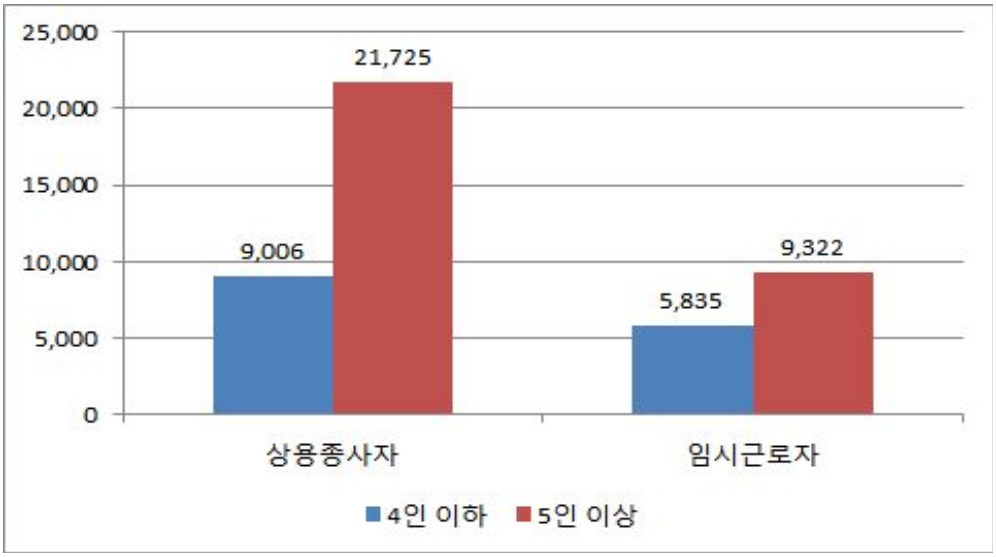
[그림 2-3]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고용형태 비중 비교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급여액은 업체당 종사자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먼저 업체당 규모면에서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5인 이상 음식 및 숙박업체의 급여가 4인 이하 업체에 비해 상용종사자의 경우 약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고용형태면에서도 상용종사자의 임금이 임시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약 2.3배 높은 바,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8>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별 평균 급여액

(단위: 개소, 천원)

업체당 종사자	업소수	상용종사자 평균급여	임시근로자 평균급여	종사자 평균급여 (자영/무급/기타 포함)
1명	163,308	30,842	11,688	62
2명	255,536	7,062	4,508	97
3명	104,123	8.292	5,039	2,775
4명	58,154	10,537	6,360	4,785
4인 이하	**581,121**	**9,006**	**5,835**	**2,016**
5인 이상	53,379	21,725	9,322	13,501
소계	634,500	17,351	7,262	5,569



[그림 2-4] 숙박 및 음식점업 업체당 종사자수와 고용형태에 따른 평균 급여액

2. 규모별 수익 특성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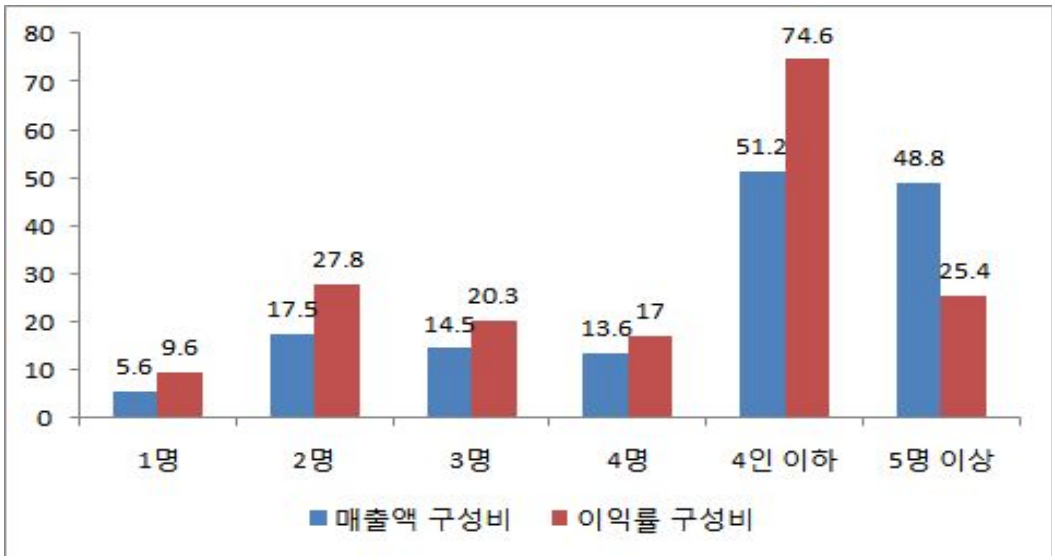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체당 종사자수에 따라 규모별 수익특성을 살펴보면, 2010년 말 기준 매출액 구성비는 4인 이하 업체(51.2%)와 5인 이상 업체(48.8%) 간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익률은 4인 이하 업체의 구성비(74.6%)가 5인 이상 업체의 구성비(25.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인당 매출액은 4인 이하 사업체(32,599천 원)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69,456천 원)가 2

배 이상 높은 반면 1인당 영업이익률은 4인 이하 사업체가 10,633천 원으로 5인 이상 업체의 8,076천 원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4인 이하 업체의 수익성이 5인 이상 업체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는 바, 업체 규모에 따른 이익률의 차이에 대한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2-9>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 규모별 영업수지 현황

(단위: 백만 원, %)

업체당 종사자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구성비		구성비		이익률
합계	**77,682,505**	**(100.0)**	**60,306,490**	**(100.0)**	**17,376,016**	**(100.0)**
1명	4,344,143	(5.6)	2,680,308	(4.4)	1,663,835	(9.6)
2명	13,603,421	(17.5)	8,777,472	(14.6)	4,825,949	(27.8)
3명	11,268,352	(14.5)	7,745,376	(12.8)	3,522,976	(20.3)
4명	10,534,090	(13.6)	7,581,711	(12.6)	2,952,379	(17.0)
4인 이하	**39,750,006**	**(51.2)**	**26,784,867**	**(44.4)**	**12,965,139**	**(74.6)**
5명 이상	37,932,500	(48.8)	33,521,623	(55.6)	4,410,877	(2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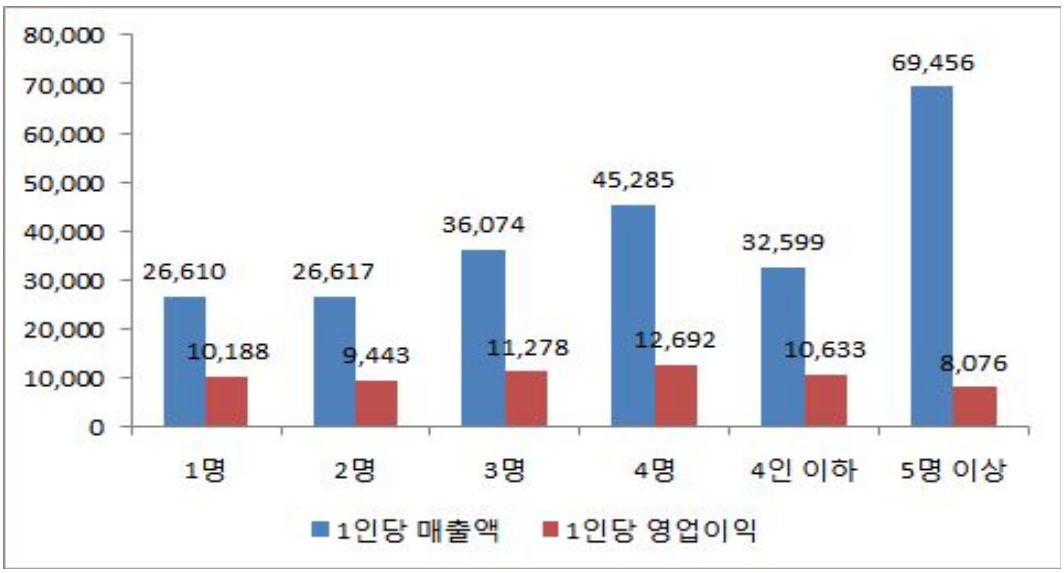


[그림 2-5]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별 매출액 및 영업이익률 구성비(단위: %)

<표 2-10> 숙박 및 음식점업 업소당 영업수지와 종사자 1인당 영업수지

(단위: 천 원)

업체당 종사자	매출액		영업비용		영업이익	
	업소당	1인당	업소당	1인당	업소당	1인당
합계	**122,431**	**44,000**	**95,046**	**34,158**	**27,385**	**9,842**
1명	26,610	26,610	16,413	16,413	10,188	10,188
2명	53,235	26,617	34,349	17,175	18,886	9,443
3명	108,222	36,074	74,387	24,796	33,835	11,278
4명	181,141	45,285	130,373	32,493	50,768	12,692
4인 이하	**68,402**	**32,599**	**46,092**	**21,966**	**22,311**	**10,633**
5명 이상	710,626	69,456	627,993	61,379	82,633	8,076



[그림 2-6]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수별 1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위: 천 원)

3. 규모별 지역분포 특성 비교

2010년 말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업체당 종사자수는 4인 이하 업체수가 581,121개(91.6%)로 5인 이상 업체수 53,379(8.4%)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가운데, 지역별로 상이한 분포 특성을 보이고 있다. 7개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와 9개 도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기준 5인 이상 업체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서 5인 이상 업체수 비중이 13.6%이며, 제주도 10.1%, 경기도 9.8%의 순

으로 5인 이상 업체수 비중이 높았다. 반면, 5인 이상 업체수가 가장 낮은 지역은 경상북도로 5인 이상 업체수가 불과 4.2% 수준이며, 강원도 4.6%, 전라남도 5.2%의 순으로 소규모 업체가 분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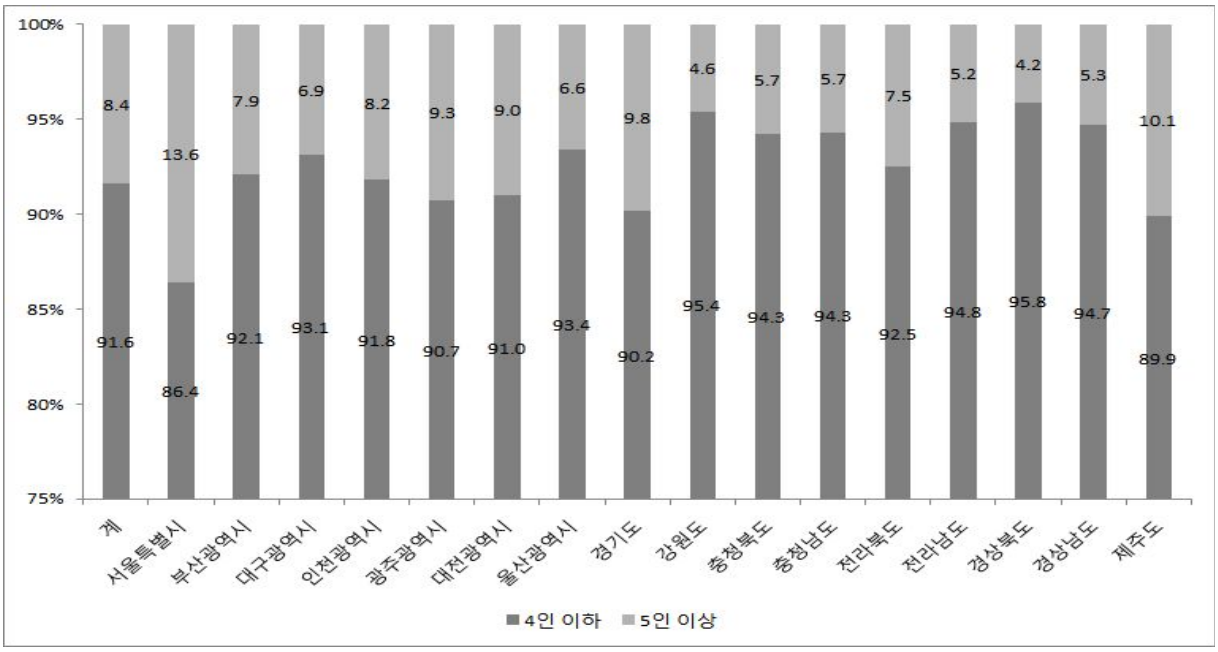
<표 2-11> 음식 및 숙박업 종사자수 규모별 지역분포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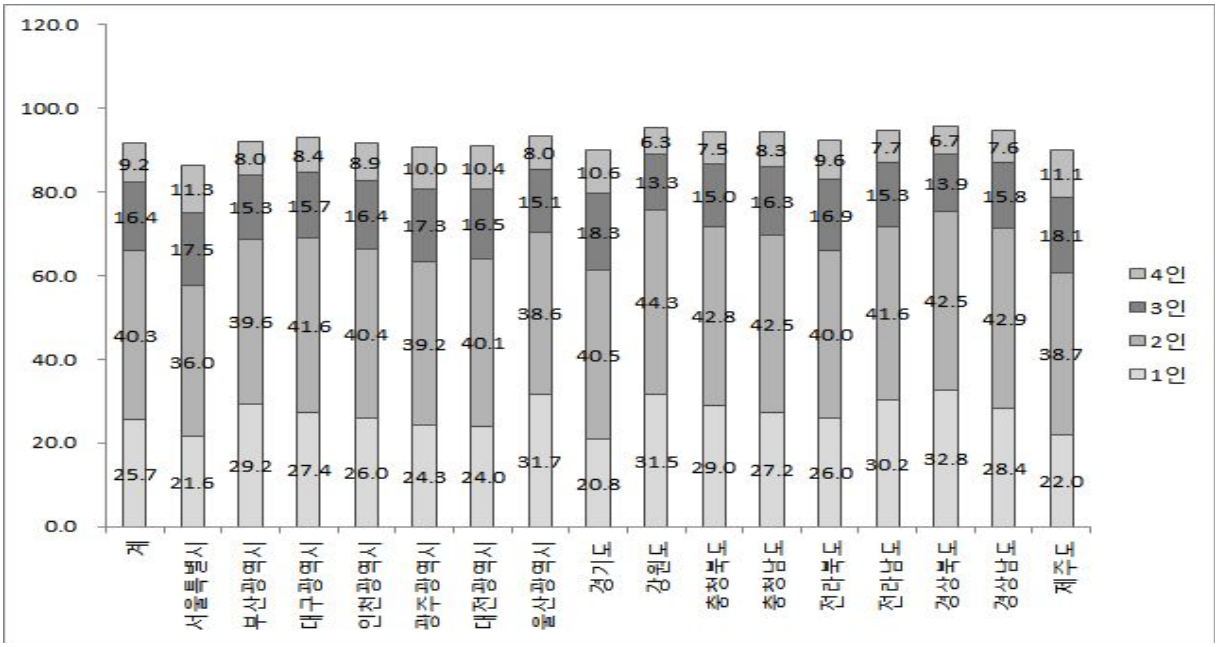
시도별	종사자수						종사자수 비중					
	1인	2인	3인	4인	4인 이하	5인 이상	1인	2인	3인	4인	4인 이하	5인 이상
계	163,308	255,536	104,123	58,154	581,121	53,379	25.7	40.3	16.4	9.2	91.6	8.4
서울특별시	24,924	41,543	20,174	13,082	99,723	15,692	21.6	36.0	17.5	11.3	86.4	13.6
부산광역시	13,994	19,012	7,335	3,828	44,169	3,806	29.2	39.6	15.3	8.0	92.1	7.9
대구광역시	8,462	12,858	4,837	2,606	28,763	2,117	27.4	41.6	15.7	8.4	93.1	6.9
인천광역시	7,728	12,025	4,885	2,661	27,299	2,440	26.0	40.4	16.4	8.9	91.8	8.2
광주광역시	4,085	6,596	2,918	1,676	15,275	1,564	24.3	39.2	17.3	10.0	90.7	9.3
대전광역시	4,158	6,968	2,870	1,799	15,795	1,562	24.0	40.1	16.5	10.4	91.0	9.0
울산광역시	5,024	6,130	2,391	1,274	14,819	1,047	31.7	38.6	15.1	8.0	93.4	6.6
경기도	25,583	49,745	22,437	12,981	110,746	12,080	20.8	40.5	18.3	10.6	90.2	9.8
강원도	10,520	14,824	4,438	2,108	31,890	1,538	31.5	44.3	13.3	6.3	95.4	4.6
충청북도	6,446	9,525	3,341	1,658	20,970	1,279	29.0	42.8	15.0	7.5	94.3	5.7
충청남도	8,029	12,551	4,819	2,448	27,847	1,679	27.2	42.5	16.3	8.3	94.3	5.7
전라북도	5,836	8,993	3,804	2,152	20,785	1,688	26.0	40.0	16.9	9.6	92.5	7.5
전라남도	7,863	10,841	3,986	2,012	24,702	1,343	30.2	41.6	15.3	7.7	94.8	5.2
경상북도	13,910	18,024	5,917	2,826	40,677	1,764	32.8	42.5	13.9	6.7	95.8	4.2
경상남도	14,375	21,722	8,020	3,849	47,966	2,690	28.4	42.9	15.8	7.6	94.7	5.3
제주도	2,371	4,179	1,951	1,194	9,695	1,090	22.0	38.7	18.1	11.1	89.9	10.1

한편 5인 미만의 업체로 한정한 구성비의 경우 전국적으로 1인 업체가 25.7%, 2인 업체는 40.3%, 3인 업체 16.4%, 4인 업체 9.2%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업체수 비중 역시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서울 지역의 경우에는 1인 업체의 비중이 21.5%에 불과하였으며, 경기도(20.8%)와 제주도(22.0%) 역시 1인 업체의 비중이 낮은 반면, 경상북도(32.8%), 강원도

(31.5%), 전라남도(30.2%)는 1인 업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 지역별 규모 특성이 5인 미만 업체의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림 2-7]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수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비교: 전체 업체



[그림 2-8] 숙박 및 음식점 종사자수별 지역별 업체수 비중 비교: 5인 미만

제4절 우리나라 자영업과 음식 및 숙박업 비중 국제 비교

본 절에서는 자영업 고용구조의 변화와 정책대응 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자영업 비중 변화 추세 및 OECD 회원국과의 국제비교를 통해 한국의 자영업 과잉 정도를 파악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영업 비중의 추세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나, 경제총조사 자료가 2010년을 기준으로 2011년에 최초로 이루어진 횡단면 조사라는 한계로 인해 불가피하게 경제활동인구조사 등 국내 시계열 자료와 OECD 및 ILO 등의 해외 시계열 자료를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국제비교를 하고자 한다.

1. 자영업주의 개념과 자영업 비중의 국제 비교

경제총조사에서 정의하는 개인사업체와 경제활동인구조사 등에서 정의하는 자영업주의 개념은 각각 정의하는 기준에 차이가 있다. 전자는 개인사업체를 소유하며, 자신의 책임 아래 사업체를 직접 경영하는 자를 의미하는 반면, 후자는 개인이 경영하는 사업체로 2인 이상이 공공경영하는 사업체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또한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자영업주를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자영자와 고용주로 구분하지만, 본 경제총조사의 경우 양자를 구분하여 조사되지 않았으며, 무급종사자의 기준 역시 차이가 존재한다.[4] 자영업주란 자기 혼자 또는 무급·유급종사자와 함께 자신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형태로 전문적인 업을 수행하거나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말하며, 자영업주는 유급근로자의 고용 여부에 따라 자영자와 고용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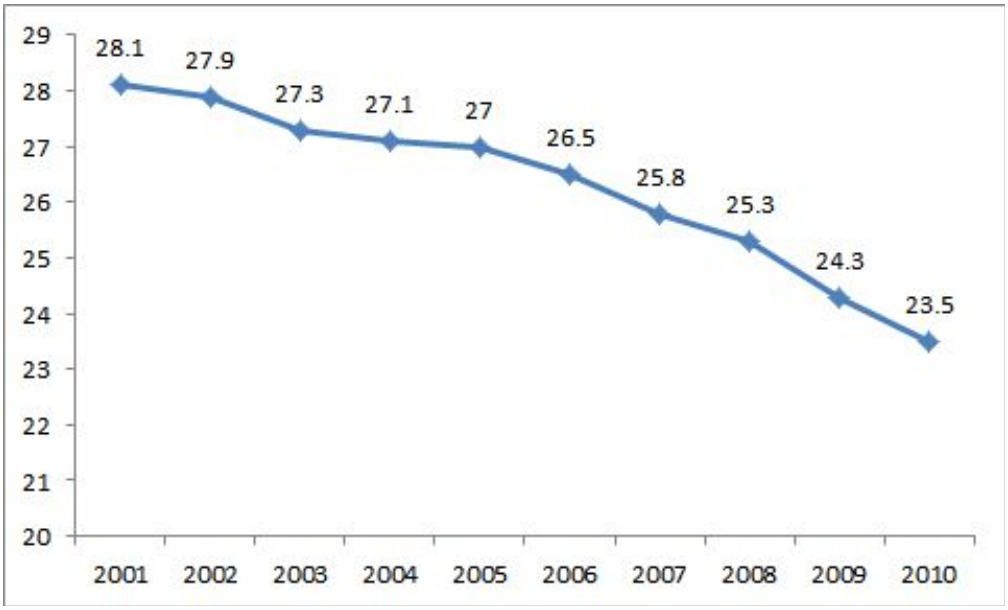
우리나라 전체 사업장에서 취업자수 대비 자영업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감소하였다가 1999년부터 증가하여 660만 명대 수준(2002~2006년)을 보이다가 2007년 이후 다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0년 현재 23.5%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영업주의 비중 감소는 주로 자영업자 비중의 하락에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구조조정 속에서 급속히 증가하였던 가족 단위의 자영업 부문에서 상당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음을 의미한다. 한편 경제총조사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 비중은 2010년 현재 25.7%로서, 자영업 비중과 약 2.2% 차이를 보이고 있다.

4)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 무급종사자를 18시간 이상을 근무한 자로 정의되는 반면, 경제총조사의 경우 정규근무시간의 1/3 이상을 근무한자로 정의하고 있다.

<표 2-12>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 추이(전체 사업체)

연도	전체 취업자 (천 명)	자영업주 (천 명)	자영업주 비중 (%)
2001	21,572	6,051	28.1
2002	22,169	6,191	27.9
2003	22,139	6,042	27.3
2004	22,557	6,110	27.1
2005	22,856	6,172	27.0
2006	23,151	6,135	26.5
2007	23,433	6,049	25.8
2008	23,577	5,970	25.3
2009	23,506	5,711	24.3
2010	23,829	5,592	23.5
연도	**전체 사업체 종사자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종사자수(천 명)**	**5인 미만 개인사업 종사자수 비중(%)**
2010	17,647	4,541	25.7

자료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총사업체통계조사」 각 연도.



[그림 2-9] 연도별 자영업주 비중 변화(전체 사업장)

<표 2-13> 산업 전체 자영업주 비중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국가명	취업자	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고용주	자영업자	자영업주 비중
OECD 평균						15.3%
Greece	4,939.7	3,163.3	1,352.0	382.8	969.1	27.4%[2]
Mexico	43,867.0	28,905.0	12,037.0	2,169.0	9,868.0	27.4%
Turkey	21,194.0	12,935.0	5,575.0	1,251.0	4,324.0	26.3%
Korea	23,432.8	15,970.1	6,049.2	1,562.0	4,487.2	25.8%[2]
Portugal	5,624.9	4,297.7	1,217.3	291.7	925.6	21.6%
Italy	23,404.7	17,445.9	5,056.2	285.0	4,771.2	21.6%
Spain	22,848.2	18,350.9	4,789.1	1,173.0	3,616.2	21.0%
Poland	17,011.0	12,904.0	3,012.0	651.0	2,361.0	7.7%[2]
New Zealand	2,188.2	1,811.2	353.8	110.5	243.3	16.2%
Ireland	2,101.6	1,749.2	339.3	122.7	216.6	16.1%[2]
Czech Rep.	5,232.3	4,346.0	782.6	179.0	603.6	15.0%
Canada	18,245.1	15,266.3	2,620.4	863.8	1,756.6	14.4%
Iceland	177.3	156.2	24.3	8.7	15.6	13.7%
Switzerland	4,375.4	3,674.2	593.1	263.8	329.3	13.6%[2]
Netherlands	8,457.0	7,310.0	1,107.0	1,107.0[1]	-	13.1%
Slovak Republic	2,700.4	2,243.9	348.7	79.5	269.2	12.9%
UK	29,099.9	25,237.3	3,763.1	3,763.1[1]	-	12.9%[2]
Belgium	4,779.6	4,117.8	590.5	188.3	402.2	12.4%
Finland	2,726.0	2,337.0	314.0	314.0[1]	-	11.5%
Australia	11,019.7	9,472.1	1,243.4	299.1	944.3	11.3%
Austria	4,252.3	3,683.5	471.8	196.8	275.0	11.1%
Hungary	4,208.6	3,645.0	467.6	202.7	264.9	11.1%
Sweden	4,593.0	4,115.0	466.0	466.0[1]	-	10.1%
Germany	41,875.0	33,492.0	4,143.0	4,143.0[1]	-	9.9%
Japan	63,850.0	55,240.0	6,060.0	1,610.0	4,450.0	9.5%
France	27,983.5	23,187.9	2,565.2	1,180.7	1,384.5	9.2%
Norway	2,524.0	2,328.0	189.0	52.0	137.0	7.5%
USA	154,287.0	142,936.0	10,455.0	10,455.0[1]	-	6.8%

주: 1. 자영업자 포함된 것임. 2. 2007년 기준임.
자료: ILO. 노동통계(http://laborsta.ilo.org/); OECD, Factbook, 각 연도.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을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2007년도 기준 자영업주 비중은 전체 취업자(산업 전체)의 25.8%를 차지하고 있어 OECD 국가의 평균 15.3%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주요 선진국의 산업 전체 자영업주 비중은 미국(6.8%), 프랑스(9.2%), 일본(9.5%), 독일(9.9%)로서, 이들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며, 한국과 1인당 GDP가 유

사한 수준의 국가들인 포르투갈(21.6%), 폴란드(17.7%), 헝가리(11.1%) 등과 비교해도 OECD 국가 중 매우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한편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터키 등 세 개의 국가뿐이며, 그나마도 그 차이가 0.5~1.6%에 불과하고,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 대비 한국의 자영업주 비중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형 자영업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크며, 이로 인해 국제적인 기준과 비교할 때 과잉공급된 측면이 있다고 사료된다.

2. 숙박 및 음식점업 자영업 비중 국제 비교

한국의 숙박 및 음식점업 자영업주 비중은 2000년 34.9%에서 완만한 감소세를 보여 2007년에는 32.0% 수준으로 축소되었다.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 완만하지만 자영업주의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경제총조사의 경우 5인 미만 숙박 및 음식점업에 종사하고 있는 종사자수 비중은 전체 종사자 대비 68.5%이며, 5인 미만 사업체 중 자영업주와 무급가족 종사자 구성비는 69.3%로서 자영업주 경제총조사의 자영업주 비중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여타 업종에 비해 자영업 비중의 과잉문제와 더불어 자영업의 영세성이 심각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표 2-14> 한국의 음식숙박업 자영업주 비중 추이

(단위: 천 명)

연도	취업자	임금 근로자	비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고용주	자영업자	무급 종사자
2000	1,924.0	981.0	944.0	672.0	279.0	393.0	272.0
2004	2,057.2	1,084.1	973.2	692.5	324.3	368.2	280.7
2005	2,058.0	1,114.0	944.0	676.0	327.0	349.0	268.0
2006	2,049.2	1,123.2	926.1	673.9	316.0	357.9	252.2
2007	2,049.3	1,132.6	916.6	654.8	293.0	361.8	261.8
구성비							
2000	100.0%	51.0%	49.1%	34.9%	14.5%	20.4%	14.1%
2004	100.0%	52.7%	47.3%	33.7%	15.8%	17.9%	13.6%
2005	100.0%	54.1%	45.9%	32.8%	15.9%	17.0%	13.0%
2006	100.0%	54.8%	45.2%	32.9%	15.4%	17.5%	12.3%
2007	100.0%	55.3%	44.7%	32.0%	14.3%	17.7%	12.8%

자료: ILO, 노동통계; OECD, Factbook, 각 연도.

이러한 영세성의 문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자영업주 비중 추이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 고용주 비중은 소폭 등락하는 가운데 소규모 한계 부문인 자영업자의 비중이 2000년 20.4%에서 2007년 17.7%로 크게 감소되어 이들 부문에서 구조조정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5> 음식숙박업 자영업주 비중의 국제 비교(2008년 기준)

국가명	취업자	임금 근로자	자영업주	고용주	자영업자	자영업주 비중
OECD 평균						16.7%
Mexico	2,837.0	1,607.0	910.0	242.0	668.0	32.1%
Korea	2,049.3	1,132.6	654.8	293.0	361.8	32.0%[2]
Spain	1,641.4	1,284.4	511.6	155.0	356.6	31.2%
Greece	355.0	218.1	98.6	47.9	50.8	27.8%[2]
Italy	1,179.4	786.1	321.8	19.8	302.0	27.3%
Belgium	160.0	112.0	42.1	20.1	22.0	26.3%
Portugal	355.7	257.0	91.3	45.1	46.2	25.7%
Turkey	999.0	716.0	232.0	119.0	113.0	23.2%
France	870.5	684.1	166.4	112.1	54.3	19.1%
Czech Republic	188.0	152.8	32.5	18.1	14.4	17.3%
Germany	1,460.0	1,103.0	241.0	241.0[1]	-	16.5%
Austria	267.9	215.9	44.3	30.8	13.5	16.5%
Sweden	148.0	124.0	23.0	23.0[1]	-	15.5%
New Zealand	101.0	85.5	14.6	6.3	8.3	14.5%
Japan	3,340.0	2,640.0	460.0	240.0	220.0	13.8%
Slovak Republic	112.0	97.5	14.5	9.5	5.0	12.9%
Netherlands	337.0	290.0	43.0	43.0[1]	-	12.8%
Hungary	169.6	146.7	21.7	15.9	5.8	12.8%
Ireland	132.3	116.5	14.9	10.7	4.2	11.3%[2]
Poland	335.0	295.0	37.0	21.0	16.0	11.0%[2]
Finland	96.0	85.0	10.0	10.0[1]	-	10.4%
UK	1,298.5	1,161.9	130.4	130.4[1]	-	10.0%[2]
Iceland	6.2	5.6	0.6	0.4	0.1	9.1%
Canada	1,154.2	1,063.0	88.8	64.1	24.7	7.7%
Australia	745.3	655.9	49.9	29.9	20.0	6.7%
Norway	68.0	64.0	3.0	2.0	1.0	4.4%

주: 1. 자영업자 포함된 것임. 2. 2007년 기준임.
자료: ILO. 노동통계(http://laborsta.ilo.org/); OECD, Factbook, 각 연도.

한편 한국의 숙박 및 음식점업의 자영업주 비중은 2007년 현재 32.0%로 OECD 평균 16.7%에 비해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음식숙박업에서의 자영업주 비중은 멕시코(32.1%)와 함께 OECD 최고수준으로서,

특히 선진국인 일본(13.8%), 영국(10.0%), 독일(16.5%) 등에 비해서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한국과 1인당 GDP가 비슷하거나 적은 국가군인 포르투갈(25.7%), 헝가리(12.8%), 폴란드(11.0%) 등에 비해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 할 수 있다.

3. 본 연구의 한계 및 추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의 횡단면 자료 특성상 과거의 시계열 자료와 고용형태상의 정의 차이로 인해 완벽한 매칭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영업이익률 등의 개념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한 통계적 유의성에 의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국내 고용통계에 비해 ILO 등 외국 고용통계의 경우 2010년 시점까지의 최신 자료로의 업데이트가 느리다는 한계로 인해 정확한 적정 자영업 규모 산정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여타 업종에서의 자영업 과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세부 업종별로 적정 자영업주 규모와 과잉 규모를 추정할 필요가 있다. 세부 업종별로 자영업주 규모의 결정 요인은 해당 업종이 가지는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는 바, 이러한 차이를 고려한 연구모형과 실증분석을 통해 자영업주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정책 대안의 발굴이 절실하다. 따라서 세분화된 업종 분류 및 업종 특성에 부합하는 맞춤형 자영업 정책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분화된 업종 차원에서의 자영업주 결정 요인 분석과 적정 규모 산정이 요구된다.

제3장 가공통계 개발방안

제1절 분석개요

산업집중통계는 경제총조사와 같은 원시자료로부터 산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가공통계로서 경제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며 정책상황 점검 및 산업조직 연구에 있어서 출발점이 되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로서 활용되는 통계이다. 대표적인 통계로는 일반집중도, 단순 및 가중 평균 집중도 등이 있으며, 이들 통계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점유율(CR3)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 등의 집중도 지표를 기반으로 산출된다. 또한 시장의 개념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산업집중도와 품목시장집중도로 구분할 수 있다. 산업집중도의 경우 '산업'의 개념이 공정거래법상 '시장' 개념보다 범위가 넓다는 한계를 가지며, 품목시장집중도의 경우는 매년 품목이 재분류되어 추이를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경쟁정책 목적상 품목시장집중도와 산업집중도를 개별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모두 한계가 있으므로 보완적으로 사용하거나 새로운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현재 통계청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활용하여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을 주요 대상으로 산업집중에 대한 KOSIS 제공 통계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산업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정책 수립 및 산업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산업집중통계 현황(통계청 e-나라지표: 시장집중도 현황 참고)을 살펴보면, 통계청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를 기초로 광업 및 제조업에 대한 시장집중도(품목 및 산업집중도)와 일반집중도 통계를 작성해 왔다.

서비스업 부문 산업집중통계(KDI, 시장구조조사 최종보고서 2011.10 참고)의 경우, 건설, 도소매, 금융, 통신 등을 제외한 일부 서비스업에 대한 산업집중도 통계가 2005년과 2009년 기준 통계청의 「도・소매업 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 등을 기초로 하여 일부 서비스업 분야에 대한 시장집중도가 시범적으로 산출되었다. 「도・소매업 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산업집중통계는 정확도가 높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서비스업 부문은 그 특성상 지역별 특성이 강한 부문이 존재하고, 산업별로도 집중도가 다르므로 지역별・산업별로 세분화된 집중도 제공이 필요하다. 특히,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 및 보건은 세분화된 항목 제공이

필요한 분야이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최초로 작성된 사업체 전수자료인 2010년 기준「경제총조사」의 원시자료로부터 '광업 및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여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의 현황과 실태를 파악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는 과정을 통해,「경제총조사」의 원시자료로부터 가공통계를 산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주의할 사항들을 고찰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가공통계를 개발할 때 참고가 될 수 있게 한다. 첫째, 원시자료가 여러 조사표로 조사되고 저장된 형태이므로 이러한 자료들을 병합하는 과정에서 주의할 사항을 파악한다. 둘째,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사업체 단위의 원시자료를 기업 단위 자료로 집계하는 기존의 집계방식의 한계점을 찾아보고 보다 정확한 통계를 산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고찰해본다. 셋째, 기존의 여러 집중도 통계량과 지표들을 기반으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여 봄으로써 이들 통계량과 지표의 특성 및 한계점들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개발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새로운 집중도 지표와 같은 가공통계를 개발할 때「경제총조사」자료를 활용하여 그 성질을 고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제2절 자료 및 분석방법

1.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기초자료는 2010년 기준「경제총조사」마이크로 데이터 중 '광업 및 제조업',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사업체의 산업편 통계 자료이다. 여기서 사업체란 개개의 공장, 작업장, 사업소 등과 같이 일정한 장소에서 단일 소유권 또는 단일 통제 하에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경제단위를 의미한다.

2010년 기준「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 최초로 모든 사업체를 조사한 전수 자료로서, 각 사업체별로 산업편 통계와 품목편 통계를 동시에 조사 또는 산출하였다. 여기서 산업편 통계는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상의 세세분류(5단위분류)에 따른 산업의 매출액, 종사자수 등을 포함한다. 품목편 통계는 품목별(8단위분류)에 따른 품목의 생산액, 출하액 등을 포함하고 광업 및 제조업에 한해 조사되었다.

1.1 조사 단위 및 조사 대상 산업

조사 단위는 2010년에 산업을 영위한 모든 사업체로서, '종사자 4인 이하의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와 그 외 사업체(주로 종사자수 4인 초과 사업체)로 나누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조사 대상 산업의 범위를 대분류 기준 광업과 제조업으로 하였고, '서비스업' 부문의 조사 대상 산업의 범위는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을 비롯하여 <표 3-1>에 표시된 11개 대분류산업으로 하였다. 특히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2009년 기준 「서비스업 조사」에서는 조사되지 않았던 분야로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표 3−1> 가공통계 산출에 활용된 연구 대상 산업

산업 부문	대분류산업	조사표
광업 및 제조업	B 광업	(2)
	C 제조업	(2)
서비스업	E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8)
	G 도매 및 소매업	(4)
	I 숙박 및 음식점업	(6)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
	L 부동산업 및 임대업	(8)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8)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8)
	P 교육 서비스업	(9)
	Q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9)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8)
	S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9)

참고로 광업 및 제조업의 경우 1999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실시된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에서 조사 단위는 2006년까지는 종사자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 전수조사, 2007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그리고 종사자 5~9인의 사업체에 대해서는 표본조사가 실시되었으며, 2008~2009년에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사업체에 한하여 조사가 실시되었다. 또한, 서비스업의 경우 2009년 기준 「도・소매업 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까지는 조사대상 산업이 도・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이며 세부 업종에 따라 표본조사(약 6만 3천여 개) 및 전수조사를 병행 실시하였다. 「서비스업 조사」는 「도・소매업 조사」와 마찬가지로 1988년에는 1986년 기준 총사업체통계조사 상의 모집단을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설계하여 실시되었으며 「서비스업 총조사」가 실시된 2002년과 2006년을 제외하고 매년 실시되었다. 조사대상 산업은 매년 조금씩 변동 또는 확대되었는데, 2009년 서비스업 조사(제19회)의 조사대상 산업은 제9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부동산 및 임대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및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 총 8개 부문이다. 「2009년 기준 서비스업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서비스업 조사의 표본사업체수는 약 6만여 개이다.

1.2 조사표와 원시자료의 형태

'종사자 4인 이하의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는 산업에 관계없이 동일한 조사표 (1)을 이용하여 조사되었고 원시자료가 단일 파일로 작성되었다. 반면, 그 외 사업체들은 주산업에 따라 다른 조사표가 사용되었고 조사된 원시자료들 역시 조사표에 따라 개별 파일로 작성되었다(<표 3-1> 참고). 예를 들어, 주사업이 광업이나 제조업인 사업체는 조사표 (2)에 응답하였고, 도매 및 소매업인 사업체는 조사표 (4)에 응답하였으며, 조사표 (9)는 주사업이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인 사업체의 조사에 사용되었다. 각 조사표의 조사항목들은 전 산업에 공통적인 항목들과 산업의 특성에 따른 항목들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다른 조사표를 사용하여 조사된 자료를 병합할 때 주의를 요한다.

1.3 기업 단위 집계

산업집중도 통계는 기본적으로 기업 단위를 기준으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제공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사업체 단위 자료를 기업 단위의 자료로 합산하였다. 이때 다품목생산기업(혹은 다품목생산사업체)과 다사업체기업에서 이종산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처리하는 방법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DI가 작성한 시장구조조사 최종보고서(2011. 10)에 따르면,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존재하고 2009년 기준 「광업·제조업 통계조사」와 「도·소매업 조사」 및 「서비스업 조사」에 대한 분석에서는 "방법 2"가 사용되었다.

① 방법 1: 기업의 주산업기준으로 산업집중도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하나의 기업이 다수 사업체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들 사업체의 출하액

을 품목별로 합산하여 이를 표준산업분류 5단위로 전환한다. 이렇게 전환된 5단위 산업분류에서 출하액이 가장 큰 산업을 그 기업의 주산업으로 간주하여, 이 기업의 모든 출하액은 주산업 부문의 출하액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할 경우 기업의 총체적인 시장지배력이라는 관점에서는 타당성을 갖지만, 당해 산업 내에 이질적인 산업이 너무 많이 포함된다는 문제점을 갖게 된다.

② 방법 2: 기업이 다수의 사업체를 거느리고 있을 때, 주산업이 동일한 사업체를 묶어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이 방법을 채택할 경우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산업에 진출해 있을 경우 각 산업에서 각각 다른 기업으로 간주된다. 이 방법은 산업 간 이질성이 상대적으로 적고, 또 광업 및 제조업통계조사 결과치와 일치하는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다수 사업체를 거느린 다변화된 기업의 경우, 전체로서의 시장지위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함께 산업집중도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기업의 정의가 너무 자의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③ 방법 3: 다수 사업체에서 다수의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에 대해 사업체별 출하액은 완전히 무시하고, 기업이 생산하는 각 품목을 표준산업분류 5단위로 묶어서 이를 하나의 산업으로 간주하고 시장집중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특정 상품 묶음의 시장에서 경쟁도를 파악한다는 의미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산업분석에 있어서 산업의 특징을 결정짓는 여러 가지 다른 요소와 결합하여 분석을 행하는 경우, 각 변수 간 일관성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품목생산기업(혹은 다품목생산사업체)과 다사업체기업에서 이종산업 제품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를 처리하기 위하여 방법 2를 개선하여 주산업 혹은 제1부 산업이 동일한 산업인 사업체들을 합산하여 기업으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을 먼저 정의하고 산업집중도를 산출하는 기존의 방식 대신, 산출대상 '산업'을 먼저 정의한 후 기업 단위의 자료로 합산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이때 사업체의 특정 '산업'의 매출액은 총매출액으로부터 주산업의 매출비중과

제1부 산업의 매출비중 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자세한 기업단위 집계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합산을 위한 첫 단계로 6개의 조사표에 의해 조사되고 작성된 '종사자 4인 이하의 개인사업체와 비법인단체', 그리고 그 외 사업체에 대한 원시자료 전체를 병합하여 통합자료를 만들었다. 이때 조사표별로 공통으로 조사된 항목을 중심으로 변수명의 차이에 유의하여 병합할 항목들을 선정하였다.

둘째,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할 대상 '산업'을 규정한 후 그 산업에 해당하는 매출이 주산업 혹은 제1부 산업에 존재하는 모든 사업체들의 자료를 통합자료로부터 추출한다. '산업'은 다양한 범위로 규정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문 및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대분류, 중분류(2단위) 그리고 세세분류(5단위) 산업 등을 '산업'으로 규정하여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였다. 추출한 자료에서 사업체의 산출대상 '산업'의 매출액은 주산업 또는 제1부산업의 매출비중 항목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마지막으로, 산출할 대상 '산업'별로 추출된 사업체 단위 자료를 통계청에서 제공한 법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기업 단위의 자료로 합산하였다. 이때 동일한 법인등록번호를 갖는 사업체들을 하나의 기업으로 간주하고, 사업체들의 해당 '산업'의 매출액을 합산하여 기업 단위 자료로 집계하였다. 따라서 하나의 기업이 여러 산업에 진출해 있을 경우 각 산업에서 각각 다른 기업으로 간주된다.

2.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지표

산업집중과 시장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산업집중도통계는 일반집중도, 단순 및 가중 평균 집중도 등이 있다. 이들 산업집중통계는 상위 3대 기업의 시장집중률(CR3)과 허쉬만-허핀달 지수(HHI)를 비롯한 다양한 지표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본 절에서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집중도 통계량/지표들을 소개하고 각 지표가 가지는 특성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2.1 집중도 산출에 사용되는 시장집중도 지수

시장점유율(Market Share)은 시장 전체에서 특정 기업이 차지하는 매출액/종사자수/판매량/영업이익 등의 비중으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S_i = \text{상위 } i\text{번째 기업의 시장점유율}$$

시장점유율은 산업집중 측정지표를 산출하는데 기본 단위로 사용되고 있다.

2.1.1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집중률(Concentration Ratio, CRk)

상위 k개 기업의 시장집중률은 산업 혹은 품목시장에서 상위 k개사 시장점유율의 합계로서 다음과 같이 정의되며 0과 1사이의 값을 가진다.

$$CR_k(\%) = 100\sum_{i=1}^{k} S_i$$

이 지수는 의미가 명확하여 이해하기 쉽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때 k는 전체 시장의 경쟁 상태를 고려하여 선정하지만 객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현재 한국의 독과점법은 CR3를 기준으로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미국 여론조사국에서는 CR4를 발표하며 시장구조 판단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지표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를 고려하지 않아 시장의 규모분포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따른다. 즉, 상위 k개 기업 안에서는 규모가 큰 기업이나 작은 기업이나 똑같은 비중으로 취급되어 기업 규모에 따른 가중치가 부과되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산업 내 기업의 수가 집중도에 미치는 영향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하여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률이 심함을 의미하며 시장구조를 판단하기 위해 <표 3-2>와 <표 3-3>에 있는 기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표 3-2> 시장집중률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I

시장형태	집중도
경쟁적 시장	$CR_4 \leq 40\%$
독점적 시장	$CR_4 \geq 90\%$
과점(Oligopoly)	$CR_3 \geq 75\%$
복점(Duopoly)	$CR_2 \geq 75\%$
독점(Monopoly)	$CR_1 \geq 50\%$

<표 3-3> 시장집중률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II

시장형태	집중도
경쟁적 시장	CR_3<60%
과점(Oligopoly)	CR_3>60%
복점(Duopoly)	CR_2>80%, S_1/S_2<5, S_3<5%
독점(Monopoly)	$CR_1 \geq 50\%$

2.1.2 허핀달-허쉬만 지수(Herfindahl-Hirschman Index, HHI)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는 산업에서의 시장 집중정도를 측정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 중 하나로 산업 내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제곱한 것을 합한 수치로 계산(단, N = 산업 내 기업의 수)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산식은 다음과 같다.

$$HHI = \sum_{i=1}^{N} S_i^2$$

HHI는 기업의 점유율의 절대량보다는 분포나 편차, 다시 말하면 시장점유율의 분포상태를 나타내며 산업 내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는 지수이다. HHI 값의 하한은 기업의 수에 의존하므로 시장 간 불균등 정도를 완벽하게 측정하는 완전한 지표가 되기에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두 시장이 공히 다수의 동일한 규모의 기업수로 구성되어 있어도 각 시장에 속한 기업의 숫자가 다르면 HHI가 각각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는 있지만 직관적인 이해가 어려운 현실이다. HHI는 시장이 완전경쟁일 경우 1/N 값을 완전 독점일 경우 1의 값을 가지며 시장구조를 판단하기 위해 <표 3-4>에 있는 기준들을 이용할 수 있다.

<표 3-4> HHI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시장형태	HHI 지수
경쟁형	HHI≤0.05
저위과점형	0.05<HHI≤0.10
중위과점형	0.10<HHI≤0.18
고위과점형	0.18<HHI≤0.40
준독점형	0.40<HHI≤0.90
완전독점형	0.90<HHI

HHI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정규화 허핀달 지수(Normalized Herfindahl Index, NHI)가 개발되었는데, NHI는 HHI 값의 하한이 기업의 수에 의존하는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소개되었으며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수식은 다음과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NHI = \frac{HHI - \frac{1}{N}}{1 - \frac{1}{N}}$$

2.1.3 홀-타이드만 지수(Hall-Tideman Index, HTI)

시장집중도를 측정하는 지수 중 홀-타이드만 지수(HTI)가 있는데, 또 다른 시장집중도지수인 로젠블러스지수(Rosenbluth Index)와 동일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HTI = 1/\left(2\sum_{i=1}^{N} iS_i - 1\right)$$

HTI는 지수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TI는 시장이 완전 경쟁일 경우 1/N 값을 완전 독점일 경우 1의 값을 갖는다. HHI보다 총기업의 수와 점유율이 낮은 기업의 점유율의 영향을 고려하는 면이 장점이다.

2.1.4 포괄집중지수(Comprehensive Concentration Index, CCI)

포괄집중지수(CCI)는 Horvath 지수라고도 하는데, CRk의 절대적인 점유율과 HHI의 상대적인 불균등도를 동시에 고려하며, 카르텔 시장에서의 집중도에 적합한 지수라 할 수 있다. 산업별로 최대기업의 점유율을 기준으로 나머지 기업들의 불균등도 측정할 수 있으며 지수의 값이 클수록 산업의 집중률이 심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수식은 아래와 같으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CCI = S_1 + \sum_{i=2}^{N} S_i^2\{1 + (1 - S_i)\}$$

2.1.5 동등 규모 기업수(Numbers Equivalent, Ne)

동등 규모 기업수(Ne)는 시장이 동일한 규모의 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가

정할 때 시장 내에 몇 개의 기업이 존재하는 가를 나타내는 지수로서 CRk, HHI, HTI 등을 이용하여 구한다. 즉, Ne=k/CRk, Ne=1/HHI 또는 Ne=1/HTI로 HHI의 역수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동등 규모 기업수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용이하며, 이를 기초로 경쟁의 유형을 분류하고 시장구조를 측정할 수 있다(<표 3-5> 참고).

<표 3-5> 동등 규모 기업수에 기반한 시장구조 판단기준

시장형태	동등규모 기업수
경쟁형	20≤Ne
저위과점형	10≤Ne<20
중위과점형	5≤Ne<10
고위과점형	2≤Ne<5
준독점형	1.1≤Ne<2
완전독점형	Ne<1

2.1.6 상위 k개 기업의 HHI(HHIk)

본 연구에서는 HHI가 산업 내 기업의 수에 영향을 받는 한계점을 해결하고 HHI를 보완적인 정보를 주는 새로운 지수로 아래와 같이 정의되는 '상위 k개 기업의 HHI'(HHI_k)를 고려해보았다.

$$HHI_k = \sum_{i=1}^{k} S_{ki}^2 \text{ (단, } S_{ki} = \text{상위 } k\text{개의 기업 중 } i\text{번째 기업의 점유율)}$$

HHI_k는 시장점유율 상위 k개 기업의 점유율의 분포상태를 나타내며 산업 내 기업의 수에 영향을 적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로운 가공통계인 HHI_k가 실제 산업집중통계에 이용되는 지수로서 사용가능한 지는 그 성질과 의미 및 유용성 등에 대한 깊은 연구와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가공통계를 개발할 때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그 성질 및 특징을 고찰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예시하는 데 의의를 두고자 한다.

2.2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에 사용되는 집중도 지표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측정에 사용되는 집중도 지표는 크게 일반집중도, 산업집중도, 품목집중도 등이 있다.

2.2.1 일반집중도(Overall Concentration)

일반집중도는 경제 부문 전체의 시장집중에 대한 지표로서,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초월하여 경제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비중을 가리킨다. 예를 들어,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경우 이 부문에 해당하는 모든 기업 중 상위 10대, 100대 및 200대 기업이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매출액/종사자수의 비중(CR10, CR100, CR200)이나 HHI 등으로 나타낸다.

2.2.2 산업집중도(Industrial Concentration)

산업집중도는 특정 산업에서 시장집중을 알아보는 지표로 산업집중률과 평균집중률이 있다. 산업집중률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1단위), 중분류(2단위), 또는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한 특정 산업에서의 시장집중도지수를 나타내며, 평균 집중률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혹은 중분류 상의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세분류 기준 산업들의 시장집중도지수(주로 CR3와 HHI를 사용)를 단순 및 가중 평균한 값으로 표현된다. 이때 매출액 규모가 가중치로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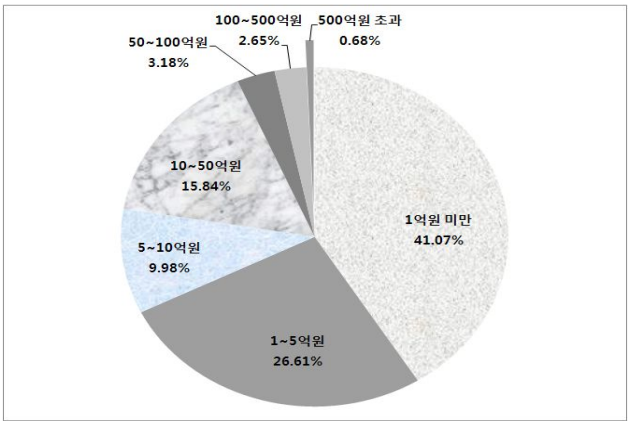
2.2.3 품목집중도(Commodity Concentration)

품목집중도는 특정 품목시장에서 시장집중을 알아보는 지표로 품목집중률과 평균 집중률이 있다.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8단위 품목(2010년 기준 총 2,690개)을 기준으로 특정 품목시장에서 산정한 시장집중도지수(주로 CR3과 HHI를 사용)를 산정하는데, 품목집중률은 특정 품목에서의 시장집중도지수를 나타내고, 평균 집중률은 표준산업분류 대분류 혹은 중분류 상의 특정 산업에 생산하는 품목들의 시장집중도지수(주로 CR3와 HHI를 사용)를 단순 및 가중 평균한 값으로 계산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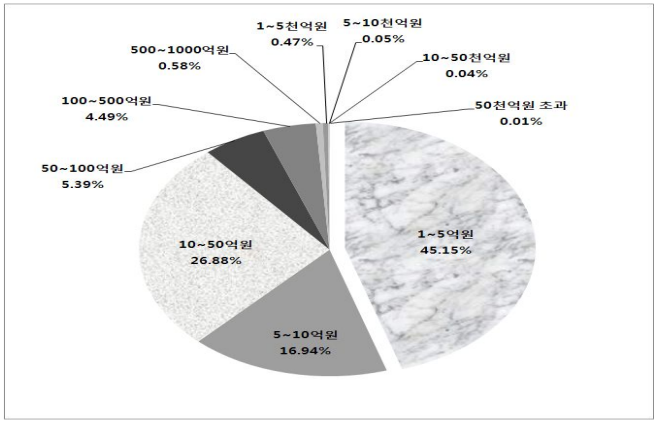
제3절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산업집중 분석

1. 산업구조의 개요

광업 및 제조업 부문 기업의 매출액 분포를 살펴보면, 매출액 1억 원 미만의 기업이 전체의 41.1%인 반면 500억 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0.68%였다([그림 3-1], [그림 3-2] 참고).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의 중분류 산업별 기업수와 매출액 규모의 분포(<표 3-6>, [그림 3-3], [그림 3-4] 참고)를 기업수와 살펴보면 가장 매출 규모가 큰 산업은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으로 22개 기업이 분포하고 있다. 가장 많은 27개 기업이 분포한 산업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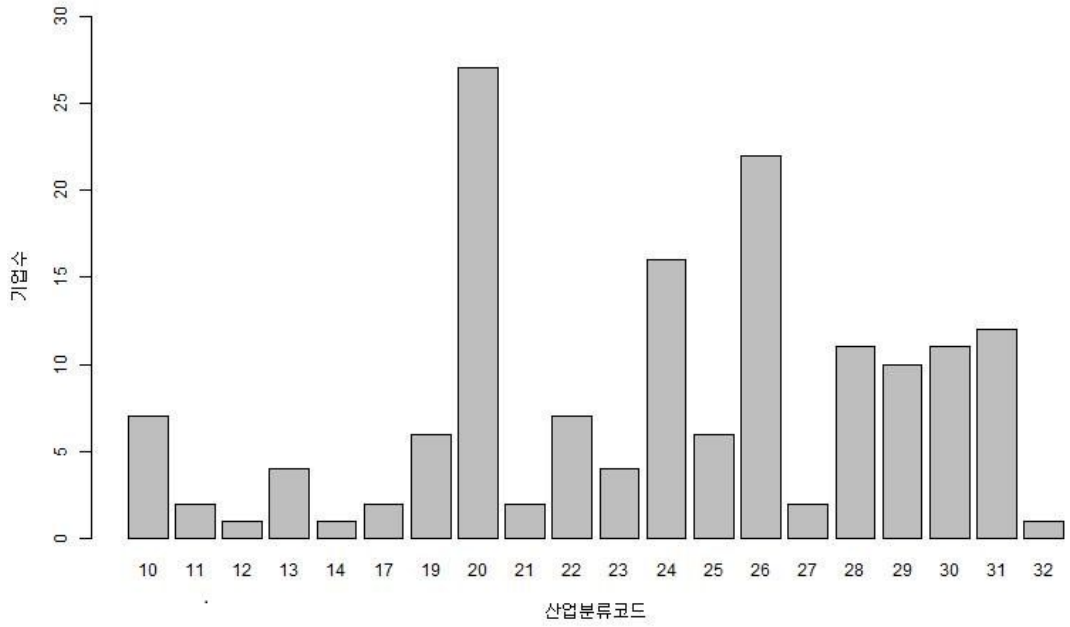
[그림 3-1] 광업 및 제조업 전 기업의 매출액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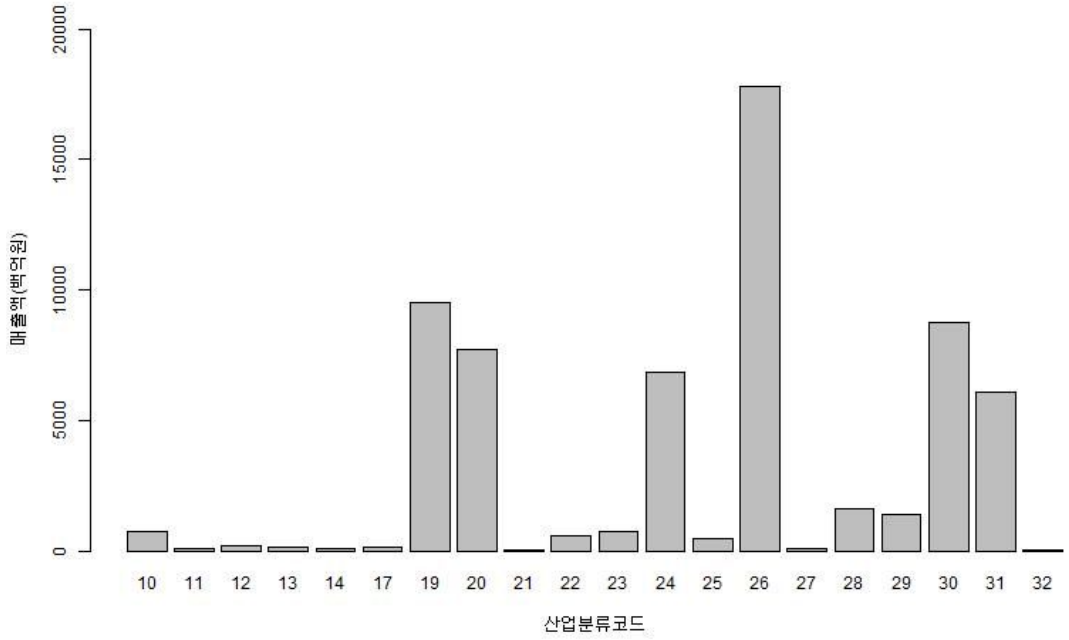
[그림 3-2] 광업 및 제조업 매출액 1억원 초과 기업의 매출액 분포

<표 3-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중분류 산업별 분포

산업분류 코드	산업명	기업수 (개)	매출액 (백억 원)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22	17,794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6	9,547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11	8,76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7	7,726
24	1차 금속 제조업	16	6,835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12	6,124
28	전기장비 제조업	11	1,657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10	1,430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	761
10	식료품 제조업	7	739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7	589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	487
12	담배 제조업	1	236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4	15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2	139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	139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2	135
11	음료 제조업	2	122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2	68
32	가구 제조업	1	56
합계		100	63,499



[그림 3-3] 광업 및 제조업 부문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산업별 기업수 분포



[그림 3-4] 광업 및 제조업 부문 매출액 상위 100대 기업의 산업별 매출액 규모

2. 일반집중도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의 시장집중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특정 산업이나 시장을 초월하여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에서 차지하는 소수기업의 비중을 나타내는 일반집중도를 매출액 기준(<표 3-7> 참고) 및 종사자수 기준(<표 3-8> 참고)으로 각각 산출하였다.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HHI가 0.01로 개괄적으로는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진 것으로 파악된다. 매출액 상위 50개 기업의 매출액 비중이 40.6%, 상위 200개 기업의 비중은 51.6%를 차지하는 점을 함께 고려하여 산업구조를 이해해야 할 것이다. 시장점유율 상위기업이 전체 매출액과 종사자수에 기여하는 비중을 <표 3-9>에서 살펴보면, 매출액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종사자수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약간 낮은 것으로 보인다.

<표 3-7>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도(매출액 기준)

집중도 지표	집중도	동등 규모 기업수
CR3(%)	12.61	23.8
CR5(%)	16.71	29.9
CR10(%)	24.00	41.7
CR50(%)	40.56	123.3
CR100(%)	46.35	215.8
CR200(%)	51.62	387.5
HHI	0.010	103.0
NHI	0.010	103.0
HTI	0.000	19,253.9
CCI	0.082	-

<표 3-8>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일반집중도(종사자수 기준)

집중도 지표	집중도	동등 규모 기업수
CR3(%)	3.97	75.5
CR5(%)	5.26	95.1
CR10(%)	7.60	131.5
CR50(%)	12.27	407.4
CR100(%)	14.45	692.1
CR200(%)	16.93	1,181.3
HHI	0.001	1,033.3
NHI	0.001	1,033.3
HTI	0.000	84,401.1
CCI	0.024	-

<표 3-9>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시장점유율 상위 기업의 비중

(단위: %)

시장점유율	매출액 기준 상위 기업		종사자수 기준 상위 기업	
	매출액 점유율	종사자수 점유율	매출액 점유율	종사자수 점유율
상위 3대 기업	12.61	3.36	11.39	3.97
상위 5대 기업	16.71	4.07	14.60	5.26
상위 10대 기업	24.00	6.02	19.74	7.60
상위 50대 기업	40.56	11.19	32.44	12.27
상위 100대 기업	46.35	13.49	40.76	14.45
상위 200대 기업	51.62	15.83	40.76	16.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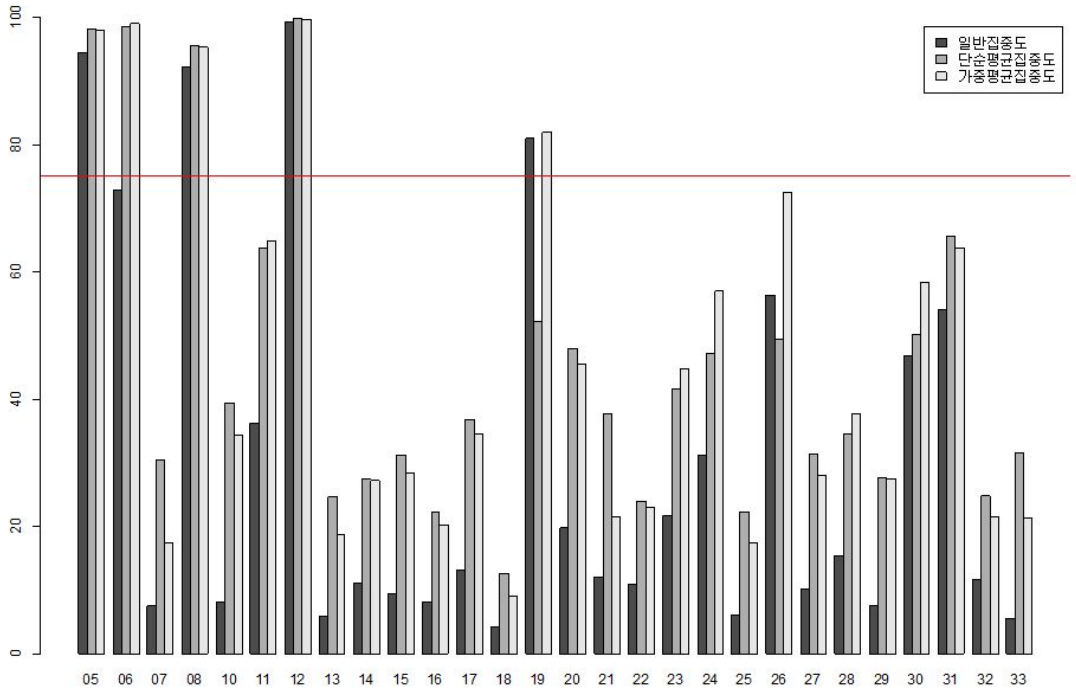
3. 산업집중도

앞 절에서 살펴본 일반집중도는 산업 간 특성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전체의 시장집중에 대한 현황만을 알려주는 통계였다. 본 절에서는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산업집중도를 매출액 기준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때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률(CR3)과 허핀달-허쉬만 지수(HHI)를 비롯한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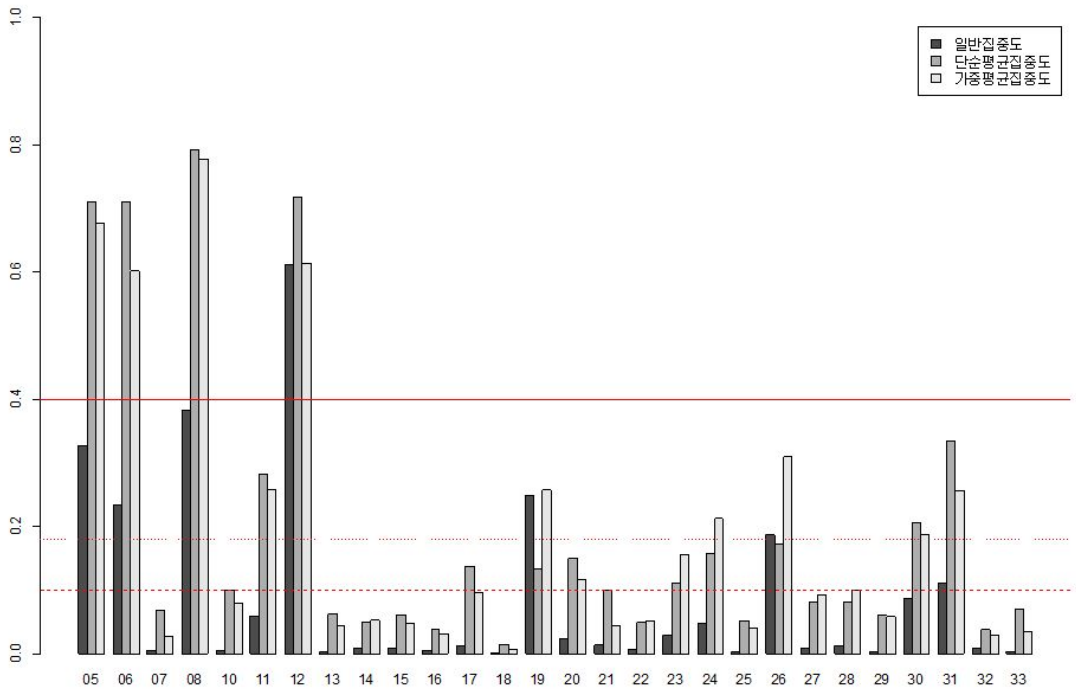
양한 집중률 지표들을 사용하고, 산출 대상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2단위)와 세세분류(5단위)를 기준으로 한 특정 산업으로 하였다.

3.1 중분류 산업별 집중도 현황

개개의 중분류 산업을 산출 대상 ‘산업’으로 일반집중도를 산출하고, 중분류 상의 특정 ‘산업’에 포함되는 세세분류 기준 산업들의 집중률 지표를 단순 및 가중 평균한 값으로 평균 집중도를 산출하였다(<표 3-10>~<표 3-13> 참고). 먼저 중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의 현황을 [그림 3-5]와 [그림 3-6]에서 살펴보면 일반집중도, 단순 및 가중 평균 집중도는 전체적으로는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평균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은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과 ‘담배 제조업’, ‘음료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이다. 이들 산업들은 대체로 단순 평균 집중도에 비해 가중 평균 집중도가 높으며,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과 유사하다. 가중 평균 집중도와 단순 평균 집중도 간의 격차는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재형(2008)이 지적한 바와 같이 광업과 제조업 전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소수의 대규모 산업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한, ‘담배 제조업’ 등 집중도가 높은 산업들은 해당 산업에 진출해 있는 기업의 수가 작은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림 3-5] 중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CR3 기준)



[그림 3-6] 중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HHI 기준)

<표 3-10>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도(시장집중률 기반)

산업코드 중분류	산업명	CR3	CR5	CR10	CR20	기업수 (개)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94.5	99.9	100	100	6
06	금속 광업	72.8	91.2	99.5	100	17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7.5	10.4	16.0	23.3	1,735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92.2	98.4	100	100	8
10	식료품 제조업	8.2	11.6	17.9	26.2	52,759
11	음료 제조업	36.1	49.1	60.7	73.4	1,174
12	담배 제조업	99.4	99.9	100	100	8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6.0	8.0	10.7	14.0	19,45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1.1	14.4	20.8	29.4	22,51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9.4	13.9	22.2	33.7	4,321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8.1	11.2	16.5	22.0	5,99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3.2	18.7	26.7	36.0	5,39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4.2	5.3	7.3	10.7	16,352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81.0	96.2	98.1	98.8	27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19.8	28.8	40.2	54.5	7,11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12.1	17.9	28.5	43.4	82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10.8	13.7	17.1	21.2	16,79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1.6	26.0	33.9	42.1	8,998
24	1차 금속 제조업	31.2	38.2	47.1	55.4	6,326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6.1	7.3	9.2	12.2	54,647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56.3	63.2	70.0	74.9	9,58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10.2	12.6	17.0	22.0	7,895
28	전기장비 제조업	15.4	21.2	28.1	34.4	16,65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7.6	10.4	14.6	19.0	32,91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6.9	54.5	60.3	64.7	6,93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54.0	64.8	78.7	87.0	2,561
32	가구 제조업	11.5	16.7	25.0	35.0	10,285
33	기타 제품 제조업	5.6	7.7	11.0	14.7	16,665

<표 3-11> 중분류 산업별 일반집중도(시장집중률 외의 지수 기반)

산업코드 중분류	산업명	HHI	HTI	CCI	HHI5	기업수 (개)
0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327	0.357	0.670	0.327	6
06	금속 광업	0.232	0.233	0.537	0.275	17
07	비금속광물 광업;연료용 제외	0.005	0.003	0.043	0.228	1,735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384	0.382	0.735	0.396	8
10	식료품 제조업	0.006	0.000	0.050	0.234	52,759
11	음료 제조업	0.060	0.020	0.222	0.228	1,174
12	담배 제조업	0.611	0.604	0.818	0.613	8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002	0.000	0.037	0.274	19,45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08	0.001	0.073	0.283	22,51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08	0.002	0.053	0.211	4,321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04	0.001	0.041	0.225	5,993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011	0.001	0.075	0.222	5,396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01	0.000	0.026	0.287	16,352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249	0.187	0.575	0.269	277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024	0.003	0.126	0.222	7,11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014	0.009	0.072	0.211	82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06	0.000	0.060	0.267	16,79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029	0.001	0.163	0.388	8,998
24	1차 금속 제조업	0.047	0.002	0.208	0.300	6,326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02	0.000	0.030	0.283	54,647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86	0.003	0.444	0.463	9,585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08	0.001	0.078	0.391	7,895
28	전기장비 제조업	0.012	0.001	0.073	0.216	16,656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03	0.000	0.042	0.237	32,910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087	0.002	0.294	0.291	6,936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112	0.010	0.339	0.253	2,561
32	가구 제조업	0.009	0.001	0.061	0.215	10,285
33	기타 제품 제조업	0.002	0.000	0.025	0.216	16,665

<표 3-12> 중분류 산업별 평균 집중도(CR3 기반)

산업코드 중분류	산업명	단순평균	가중평균	세세분류 산업수	기업수 (개)
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98.23	98.03	2	6
6	금속 광업	98.60	99.13	4	17
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30.55	17.45	8	1,747
8	광업 지원 서비스업	95.70	95.39	2	8
10	식료품 제조업	39.47	34.42	39	56,036
11	음료 제조업	63.82	64.89	10	1194
12	담배 제조업	99.89	99.79	2	9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24.69	18.83	31	19,76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27.45	27.22	17	22,67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31.25	28.41	7	4,35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2.33	20.31	15	6,06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36.74	34.45	15	5,46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2.61	8.89	7	16,466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52.17	82.02	5	28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48.06	45.49	30	7,32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37.81	21.45	6	84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3.92	22.98	18	17,02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1.58	44.90	32	9,168
24	1차 금속 제조업	47.24	57.08	24	6,43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2.35	17.38	29	54,98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49.31	72.63	27	9,85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31.38	28.13	19	7,971
28	전기장비 제조업	34.56	37.75	24	16,89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27.66	27.53	45	33,32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50.16	58.37	11	7,1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5.67	63.83	15	2,585
32	가구 제조업	24.76	21.45	8	10,421
33	기타 제품 제조업	31.63	21.35	25	16,688

<표 3-13> 중분류 산업별 평균 집중도(HHI 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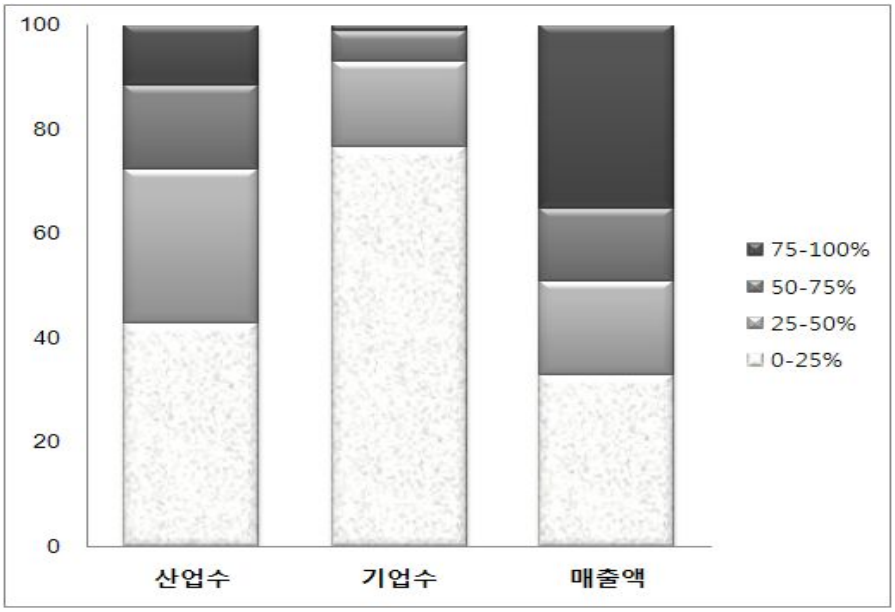
산업코드 중분류	산업명	단순평균	가중평균	세세분류 산업수	기업수 (개)
5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71	0.68	2	6
6	금속 광업	0.71	0.60	4	17
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0.07	0.03	8	1,747
8	광업 지원 서비스업	0.79	0.78	2	8
10	식료품 제조업	0.10	0.08	39	56,036
11	음료 제조업	0.28	0.26	10	1194
12	담배 제조업	0.72	0.61	2	9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0.06	0.04	31	19,767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0.05	0.05	17	22,675
15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0.06	0.05	7	4,350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04	0.03	15	6,065
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0.14	0.10	15	5,460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01	0.01	7	16,466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0.13	0.26	5	283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0.15	0.11	30	7,327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0.10	0.04	6	840
22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0.05	0.05	18	17,024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0.11	0.16	32	9,168
24	1차 금속 제조업	0.16	0.21	24	6,438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0.05	0.04	29	54,980
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0.17	0.31	27	9,851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0.08	0.09	19	7,971
28	전기장비 제조업	0.08	0.10	24	16,899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0.06	0.06	45	33,326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0.21	0.19	11	7,100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0.33	0.26	15	2,585
32	가구 제조업	0.04	0.03	8	10,421
33	기타 제품 제조업	0.07	0.04	25	16,688

3.2 세세분류 산업별 산업집중도 현황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모든 세세분류 산업들에 대해 산업집중도를 CR3과 HHI로 산출하였다. 먼저 CR3의 계층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3-14>, [그림 3-7] 참고), CR3가 25% 이하인 산업수의 비중이 42.8%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477개의 세세분류 산업의 11.7%가 CR3 75% 이상인 고위집중형 산업이었으며, 해당 기업들은 비중은 1.2%이나 매출액이 35.6%를 차지하므로 규모가 큰 산업이 고집중화 되어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한편 상위 1개 기업이 산업 총매출의 50% 이상을 점유하는 독점이 형성된 산업의 비중이 9.2%이며, 약 1%의 기업이 매출액의 15.1%를 점유하고 있다(<표 3-15> 참고). 또한 경쟁적 시장이 형성된 산업의 비중은 58.1%를 차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표 3-14>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률(CR3)의 계층별 분포(%)

CR3(%)	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매출액 비중
0~25	42.77	76.46	32.70
25~50	29.56	16.43	18.14
50~75	15.93	5.93	13.84
75~100	11.74	1.19	35.33
합계	100	100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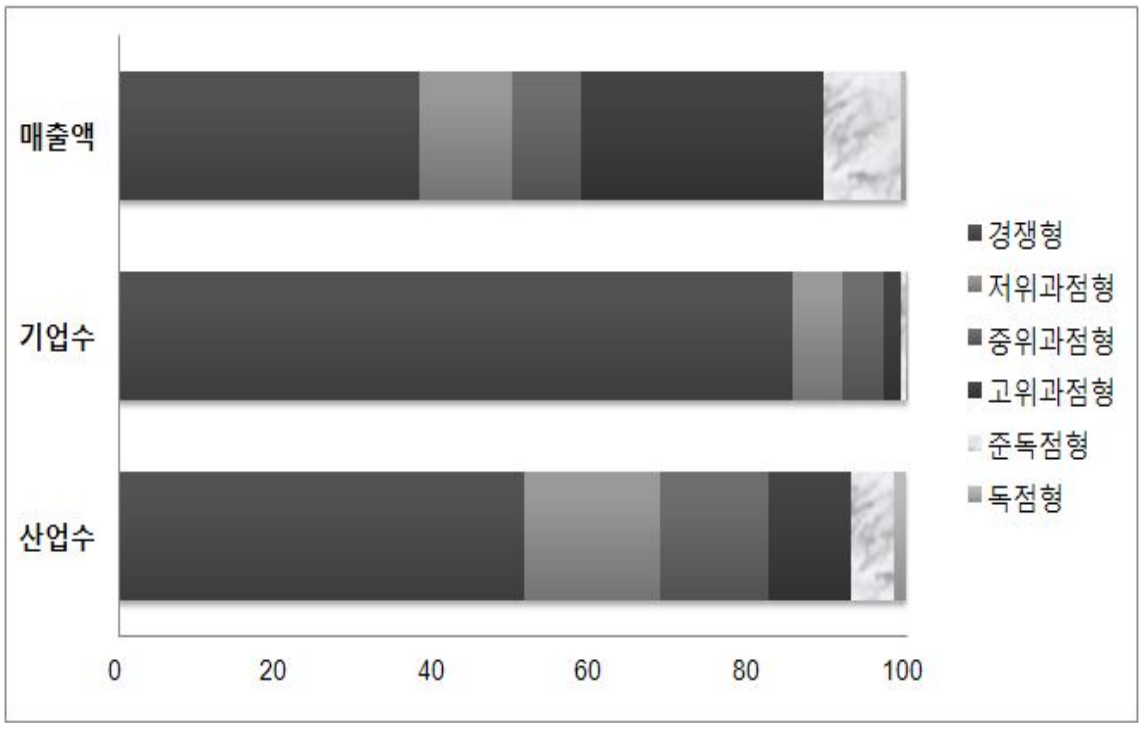


[그림 3-7] 상위 3개 기업의 시장집중률(CR3)의 계층별 분포

<표 3-1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세세분류 산업의 시장집중률과 경쟁유형(%)

기준	경쟁유형	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매출액 비중
CR1>50	독점시장	9.22	0.95	15.05
CR2>75	복점시장	0.84	0.11	1.29
CR3>75	과점시장	2.73	0.39	26.90
CR4<40	경쟁적 시장	58.07	98.32	53.26
미확정		29.14	0.23	3.50
합계		100	100	100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모든 세세분류 산업들에 대해 산출한 HHI을 살펴보면(<표 3-16>, [그림 3-8] 참고), 독점형 또는 준독점형 산업의 비중이 7.1%이며, 약 0.6%의 기업이 매출액의 10.5%를 점유하고 있다. 한편 경쟁형 산업의 비중은 51.6%이며 매출액 비중은 38.1%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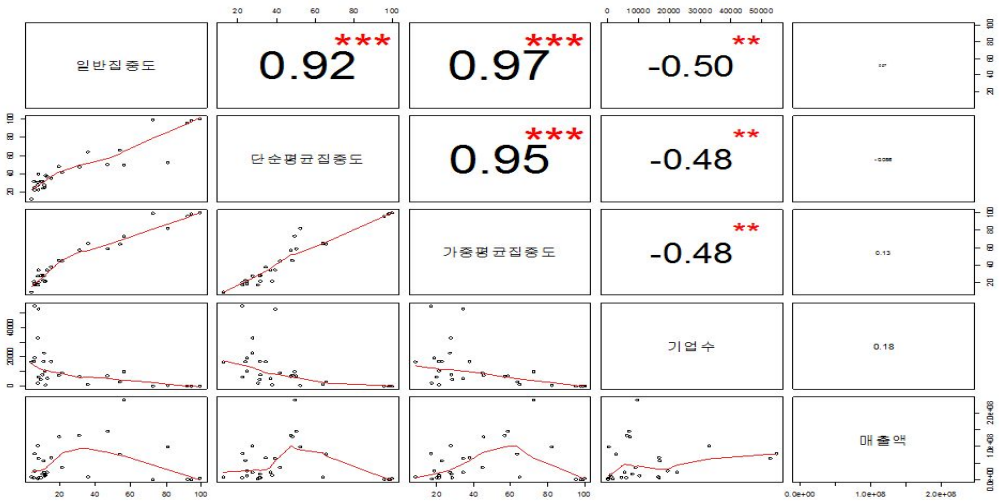
[그림 3-8] HHI의 계층별 분포

<표 3-16>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세세분류 산업의 HHI와 경쟁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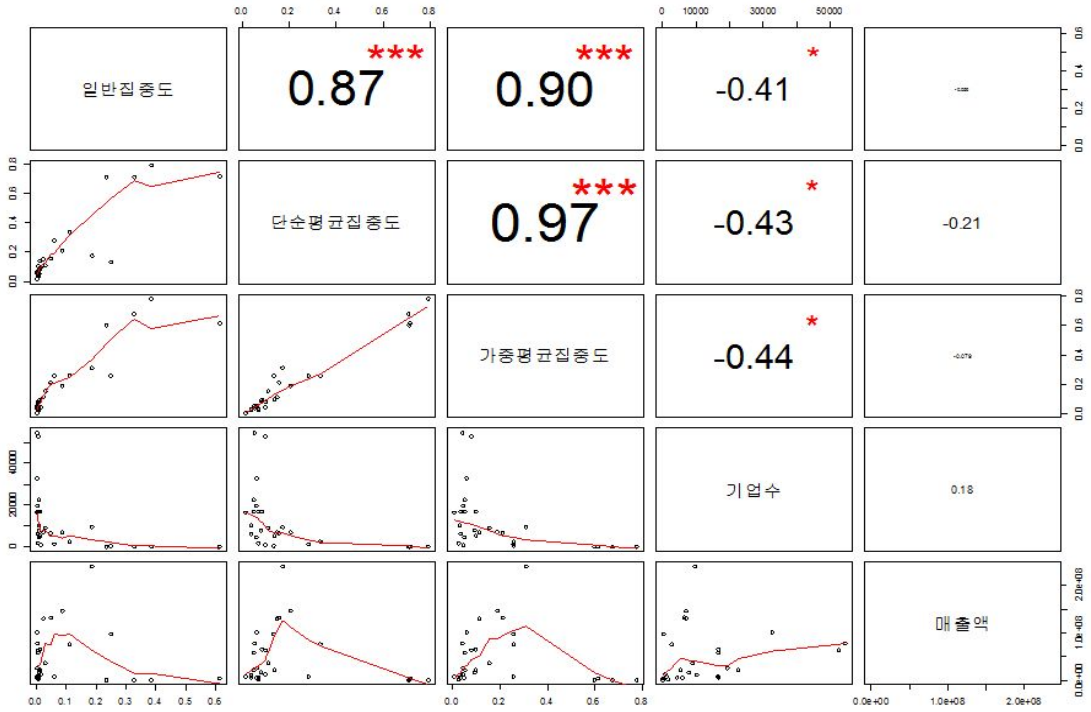
HHI	Ne	경쟁유형	산업수 비중	기업수 비중	매출액 비중
0~0.05	20개 이상	경쟁형	51.57	85.44	38.05
0.05~0.1	10~20개	저위과점형	17.19	6.52	11.91
0.1~0.18	5.6~10개	중위과점형	13.63	5.20	8.64
0.18~0.4	2.5~5.6개	고위과점형	10.48	2.19	30.87
0.4~0.9	1.1~2.5개	준독점형	5.45	0.61	9.83
0.9~1.0	1.1개 미만	독점형	1.68	0.04	0.70
합계			100	100	100

4. 산업집중통계에 사용되는 집중도 지수/지표들 간의 상관관계

본 절에서는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중분류 산업들에 대해 매출액 기준으로 산출한 산업집중통계들과 사용된 다양한 집중도 지표들의 특성 및 관계를 고찰하였다. 먼저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들인 일반집중도, 단순 평균 집중도 및 가중 평균 집중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그림 3-9], [그림 3-10] 참고), 지표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산업집중도를 나타내는 지표들과 기업수 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매출액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HHI 기반 지표들에서 보다 CR3 기반 지표들에서 다소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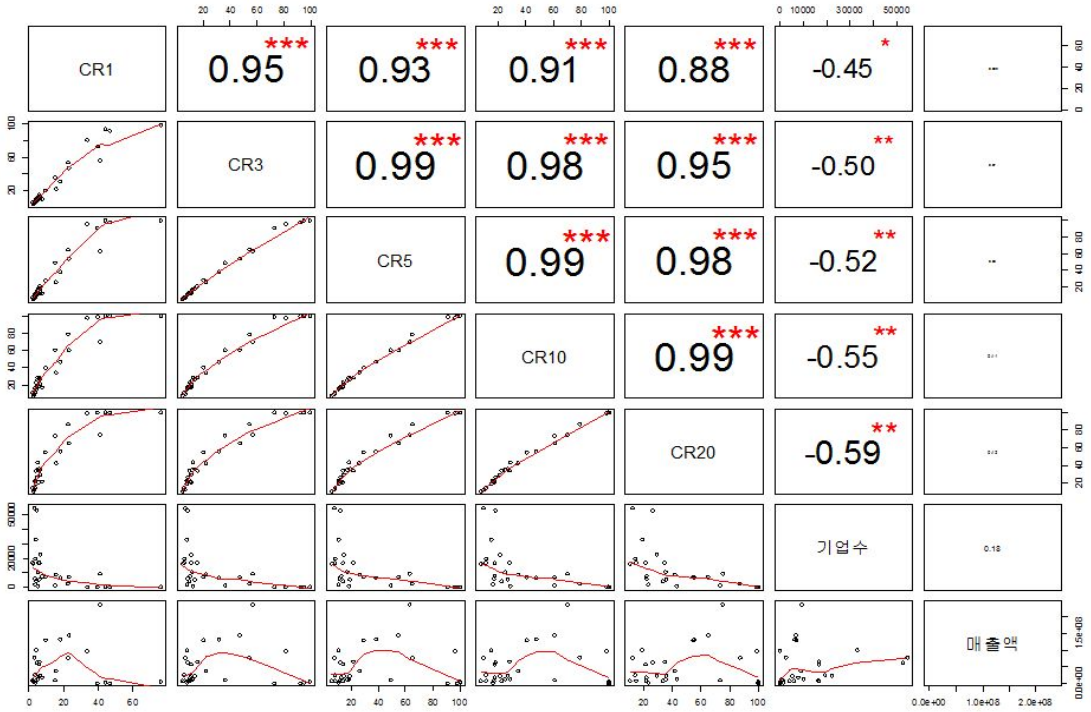
[그림 3-9] CR3 기반 일반집중도와 평균 집중도 간의 상관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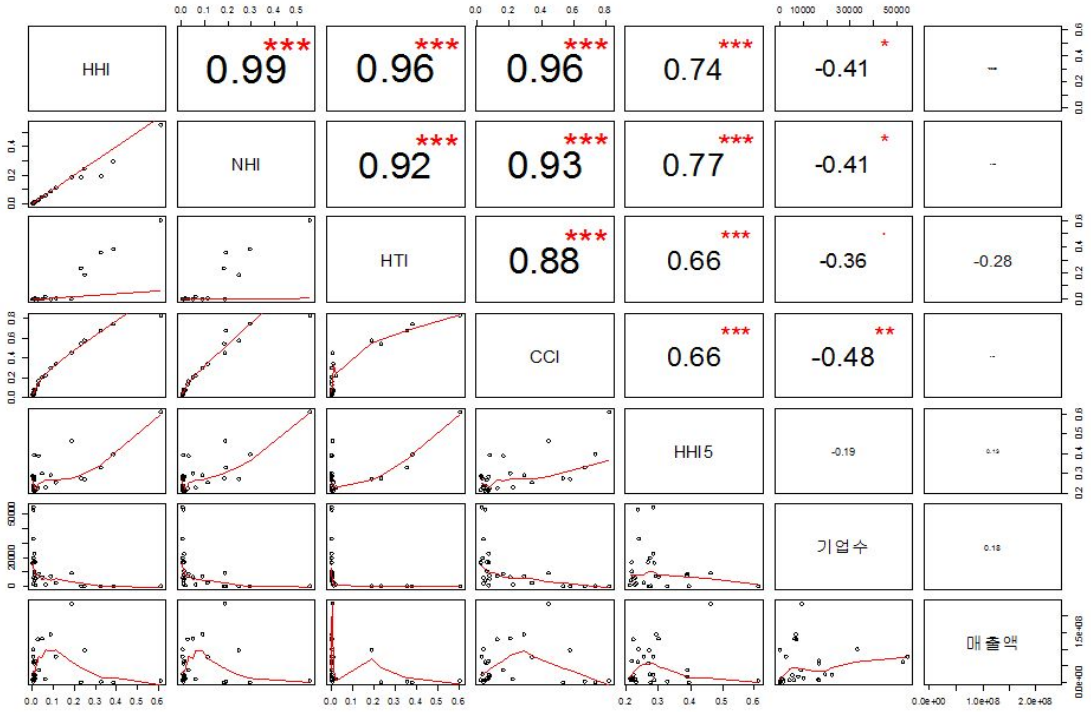
[그림 3-10] HHI 기반 일반집중도와 평균 집중도 간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집중도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먼저 [그림 3-11]을 보면 CR1, CR3, CR5, CR10, CR20 등의 시장집중률지수들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시장집중률지수들과 기업수 사이에는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매출액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그림 3-12]에서 나타나 있는 것처럼 시장집중률 외에 산업집중도를 측정하는 여러 지수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으며, 특히, HHI는 다른 지수들과 매우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시장집중률지수들과 마찬가지로, 기업수와 약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고 매출액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게 나타났다. 끝으로 [그림 3-13]을 보면 CR3와 HHI 간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CR3에 비해 HHI가 기업수와 다소 낮은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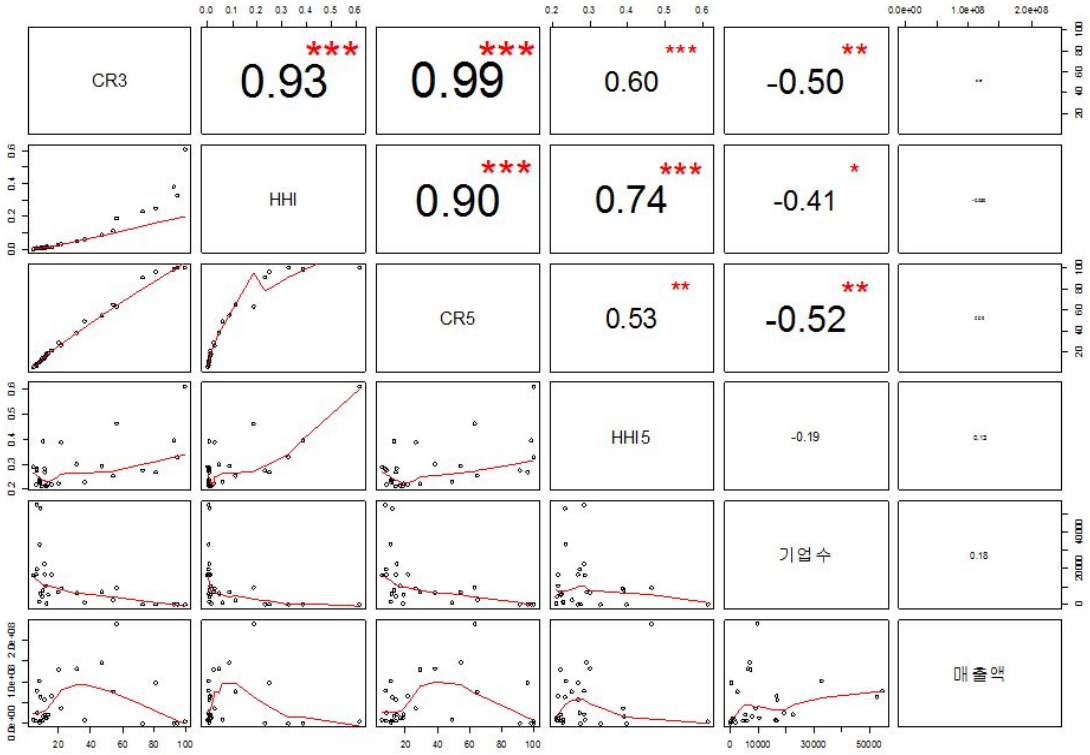
HHI5의 경우 NHI, HHI, HTI, CCI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며 CR3, CR5 등의 시장집중률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그림 3-12], [그림 3-13] 참고). 그러나 기업수와 매출액 규모와는 상관관계가 없는 모습이었다.



[그림 3-11] 시장집중률지수들 간의 상관관계



[그림 3-12] 시장집중률 외의 산업집중도지수들 간의 상관관계



[그림 3-13] 시장집중률지수와 그 외 지수 간의 비교

제4절 서비스업 부문의 산업집중 분석

1. 산업구조의 개요

1.1 세세분류기준 산업별 산업집중도 현황

총 467개의 세세분류산업에 대해서 구한 집중률지수 CR3와 HHI를 층화하여 계층별 산업수 및 매출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 2011년 기준 CR3의 분포는 매우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 (<표 3-17> 참고). CR3 25% 미만의 경쟁적인 산업의 수는 115개로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4.6%이고 매출액의 비중은 19.5%이다. 또한 CR3 75% 이상의 과점형 산업의 수는 101개로 전체 서비스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6%이고 매출액의 비중은 26.0% 이다. 서비스업은 전반적으로 집중도가 높은 과점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HHI의 분포 역시 CR3과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3-18> 참고). 이는 2009년

기준 조사에서와 전혀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에 많이 기인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표 3-17> 서비스업 부문 산업의 CR3의 계층별 분포

CR3(%)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조 원)	비중(%)
25 미만	115	24.6	284.2	19.5
25~50	136	29.1	345.2	23.7
50~75	115	24.6	446.6	30.7
75 이상	101	21.6	378.7	26.0
합계	467	100.0	1,454.7	100.0

<표 3-18> 서비스업 부문 산업의 HHI의 계층별 분포

동등 규모 기업수(개)	HHI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조 원)	비중(%)
> 20	0~0.05	137	29.3	355.0	24.4
10~20	0.05~0.1	67	14.3	132.1	9.1
5.5~10	0.1~0.18	62	13.3	167.3	11.5
2.5~5.5	0.18~0.4	96	20.6	395.1	27.2
1.1~2.2	0.4~0.9	99	21.2	366.7	25.3
< 1.1	0.9~1.0	6	1.3	35.8	2.5
합계		467	100.0	1,452.1	100.0

매출액 수준별로 CR3을 계층화하여 산업수 및 매출액의 분포를 살펴보았다(<표 3-19>~<표 3-22> 참고). 매출액 수준별 산업수의 분포는 큰 차이가 없고 매출액 규모의 분포 역시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또한 매출액 수준별로 산출한 평균 집중도도 매출액 수준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3-23> 참고).

<표 3-19>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산업수 분포

(단위: 개)

매출액	CR3(%)				합계
	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100억 원 미만	14	17	11	12	54
100~500억 원	28	36	31	19	114
500~1,000억 원	22	15	10	19	66
1,000~5,000억 원	35	53	39	33	160
5,000억 원~1조 원	7	7	12	6	32
1조 원 이상	9	8	12	12	41
합계	115	136	115	101	467

<표 3-20>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산업수 분포

(단위: %)

매출액	CR3(%)				합계
	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100억 원 미만	25.9	31.5	20.4	22.2	100
100~500억 원	24.6	31.6	27.2	16.7	100
500~1,000억 원	33.3	22.7	15.2	28.8	100
1,000~5,000억 원	21.9	33.1	24.4	20.6	100
5,000억 원~1조 원	21.9	21.9	37.5	18.8	100
1조 원 이상	22.0	19.5	29.3	29.3	100
합계	24.6	29.1	24.6	21.6	100

<표 3-21>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매출액 분포

(단위: 조 원)

매출액	CR3(%)				합계
	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100억 원 미만	8.1	9.0	4.0	4.7	25.8
100~500억 원	74.5	99.9	85.2	62.1	321.7
500~1,000억 원	152.6	110.2	68.6	141.5	473.0
1,000~5,000억 원	685.1	1276.7	945.6	906.6	3814.1
5,000억 원~1조 원	495.3	483.8	841.7	415.8	2236.6
1조 원 이상	1426.7	1472.2	2521.3	2255.9	7676.1
합계	2,842.4	3,451.8	4,466.4	3,786.6	14,547.2

<표 3-22>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및 집중률 CR3의 계층별 매출액 분포

(단위: %)

매출액	CR3(%)				합계
	25 미만	25~50	50~75	75 이상	
100억 원 미만	31.6	34.8	15.5	18.2	100
100~500억 원	23.2	31.0	26.5	19.3	100
500~1,000억 원	32.3	23.3	14.5	29.9	100
1,000~5,000억 원	18.0	33.5	24.8	23.8	100
5,000억 원~1조 원	22.1	21.6	37.6	18.6	100
1조 원 이상	18.6	19.2	32.8	29.4	100
합계	19.5	23.7	30.7	26.0	100

<표 3-23> 서비스업 부문 매출액 규모별 평균 집중률(CR3 기반)

매출액 규모	산업수(개)	평균 집중률(%)
100억 원 미만	54	48.1
100~500억 원	114	46.7
500~1,000억 원	66	48.1
1,000~5,000억 원	160	48.2
5,000억 원~1조 원	32	49.6
1조 원 이상	41	55.2

1.2 대분류기준 산업별 산업집중도 현황

서비스업 부문 11개 대분류산업별로 일반, 단순평균, 가중평균 집중도를 구하여 각 대분류산업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았다(<표 3-24>, <표 3-25> 참고). 경쟁적 구조를 가진 산업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있고, 과점형 구조를 가진 산업으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있다.

<표 3-24>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별 집중도(CR3 기반)

대분류	집중도(%)			산업수	총기업수	총매출액 (조 원)
	일반	단순평균	가중평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22.7	22.8	30.4	14	3,233	14.0
도매 및 소매업	53.0	38.5	57.1	162	802,133	825.2
숙박 및 음식점업	17.4	18.9	20.1	23	627,149	7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84.5	71.4	89.1	42	11,516	10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53.2	44.7	58.0	21	112,233	6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61.8	48.9	69.0	50	50,452	11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0.8	49.9	63.5	21	20,470	36.5
교육 서비스업	12.7	22.2	18.0	29	156,458	8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7.3	15.7	12.0	21	101,723	69.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56.7	42.7	55.7	43	282,344	3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29.1	25.1	40.1	43	30,981	28.1

<표 3-25>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별 집중도(HHI 기반)

대분류	집중도			산업수	총기업수	총매출액 (조 원)
	일반	단순평균	가중평균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30	0.102	0.054	14	3,233	14.0
도매 및 소매업	0.217	0.207	0.284	162	802,133	825.2
숙박 및 음식점업	0.023	0.084	0.072	23	627,149	77.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662	0.581	0.715	42	11,516	107.7
부동산업 및 임대업	0.152	0.275	0.226	21	112,233	6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70	0.317	0.362	50	50,452	117.2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301	0.314	0.337	21	20,470	36.5
교육 서비스업	0.010	0.120	0.056	29	156,458	84.0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4	0.085	0.025	21	101,723	69.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128	0.000	0.000	43	282,344	33.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37	0.121	0.134	43	30,981	28.1

1.3 중분류기준 산업별 산업집중도 현황

서비스업 부문 30개의 중분류산업별로 일반, 단순평균, 가중평균 집중도를 구하여 각 중분류 산업의 구조를 간단히 살펴보았다(<표 3-26>, <표3-27> 참고).

<표 3-26> 서비스업 부문 중분류별 집중도(CR3 기반)

대분류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집중도 (%)			산업수	총 매출액
			일반	단순평균	가중평균		
E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26.5	40.6	34.6	4	216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22.8	28.3	29.1	8	1,169
E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62.3	75.1	73.9	2	13
G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73.3	50.3	74.2	7	5,803
G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55.9	58.3	60.0	87	50,351
G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44.7	33.9	47.8	68	26,366
I	55	숙박업	48.2	31.8	53.1	7	982
I	56	음식점 및 주점업	13.6	25.4	15.3	16	6,782
J	58	출판업	83.1	80.1	86.8	11	2,890
J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84.1	76.6	87.2	10	462

대분류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집중도 (%)			산업수	총 매출액
			일반	단순 평균	가중 평균		
J	60	방송업	78.6	85.4	84.7	5	760
J	61	통신업	89.4	82.3	90.9	6	4,395
J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89.0	82.8	90.0	4	1,578
J	63	정보서비스업	89.2	90.6	90.9	6	689
L	68	부동산업	52.8	61.3	57.6	10	5,652
L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59.6	51.3	62.0	11	476
M	70	연구개발업	67.2	59.7	73.4	8	3,434
M	71	전문서비스업	62.1	64.3	69.5	18	5,339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60.2	60.9	64.2	11	2,491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3.5	60.2	58.1	13	452
N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51.4	46.2	52.9	5	696
N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63.2	65.2	66.0	16	2,950
P	85	교육 서비스업	12.7	30.3	18.0	29	8,400
Q	86	보건업	8.6	26.7	-	12	5,752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8.1	19.0	-	9	1,192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27.3	44.0	38.8	16	389
R	91	스포츠 및 오락 관련 서비스업	61.3	-	-	27	3,008
S	94	협회 및 단체	39.1	41.8	47.1	12	983
S	95	수리업	38.9	51.2	43.2	13	1,295
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17.4	28.7	20.0	18	536

<표 3-27> 서비스업 부문 중분류별 집중도(HHI 기반)

대분류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집중도			산업수	총 매출액
			일반	단순 평균	가중 평균		
E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0.041	0.094	0.073	4	216
E	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0.030	0.047	0.047	8	1,169
E	39	환경 정화 및 복원업	0.175	0.339	0.321	2	13
G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0.455	0.209	0.497	7	5,803
G	46	도매 및 상품중개업	0.233	0.264	0.279	87	50,351
G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0.152	0.134	0.247	68	26,366
I	55	숙박업	0.170	0.105	0.253	7	982
I	56	음식점 및 주점업	0.013	0.075	0.046	16	6,782

대분류	중분류 코드	중분류명	집중도			산업수	총 매출액
			일반	단순 평균	가중 평균		
J	58	출판업	0.633	0.538	0.650	11	2,890
J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0.631	0.554	0.663	10	462
J	60	방송업	0.372	0.555	0.460	5	760
J	61	통신업	0.770	0.658	0.840	6	4,395
J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0.694	0.571	0.699	4	1,578
J	63	정보서비스업	0.522	0.654	0.536	6	689
L	68	부동산업	0.144	0.285	0.213	10	5,652
L	69	임대업; 부동산 제외	0.320	0.266	0.380	11	476
M	70	연구개발업	0.221	0.234	0.289	8	3,434
M	71	전문서비스업	0.347	0.368	0.431	18	5,339
M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0.285	0.253	0.321	11	2,491
M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245	0.350	0.338	13	452
N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0.206	0.163	0.213	5	696
N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0.327	0.361	0.366	16	2,950
P	85	교육 서비스업	0.010	0.120	0.056	29	8,400
Q	86	보건업	0.004	-	-	12	5,752
Q	87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4	-	-	9	1,192
R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0.047	0.148	0.128	16	389
R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0.148	-	-	27	3,008
S	94	협회 및 단체	-	0.107	0.200	12	983
S	95	수리업	-	0.175	0.122	13	1,295
S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	0.092	0.040	18	536

2. 서비스업 대분류산업별 집중도

이 절에서는 서비스 산업을 대분류로 구분하여 각 대분류산업별로 집중률의 계층별 추이와 각 산업의 집중률을 살펴보도록 한다.

2.1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하수,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은 CR3 25% 미만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으로는 14.3%, 매출액 기준으로도 11.3%로 나타나고 있다 (<표 3-28> 참고). 특히m CR3 50% 미만의 비중이 산업수로는 85.7%, 매출액 기준으로는 99.0%에 달할 정도로 동 산업의 경쟁도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HHI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같은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표 3-29> 참고).

<표 3-28>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분야의 CR3의 계층별 분포

CR3(%)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 (백억 원)	비중(%)
25 미만	2	14.3	158.5	11.3
25~50	10	71.4	1,226.6	87.7
50~75	1	7.1	9.0	0.6
75 이상	1	7.1	4.2	0.3
합계	14	100.0	1,398.3	100.0

<표 3-29>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분야의 HHI의 계층별 분포

동등 규모 기업수(개)	HHI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 (백억 원)	비중(%)
>20	0~0.05	5	35.7	815.4	58.3
10~20	0.05~0.1	5	35.7	502.2	35.9
5.5~10	0.1~0.18	2	14.3	67.6	4.8
2.5~5.5	0.18~0.4	2	14.3	13.1	0.9
1.1~2.2	0.4~0.9	0	0.0	0.0	0.0
<1.1	0.9~1.0	0	0.0	0.0	0.0
합계		14	100.0	1,398.3	100.0

개별 산업의 집중률을 살펴보면,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과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은 과점형 시장이 형성되어 있으며 산업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3-30> 참고). 그 밖의 산업들은 경쟁적인 산업구조를 가고 있다. 가장 규모가 큰 산업은 '금속원료 재생업'으로 산업구조는 경쟁적이다.

<표 3-30>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분야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37011	폐수 처리업	28.0	0.050	286	1,422
37012	분뇨 처리업	48.5	0.118	139	480
37021	축산분뇨 처리업	46.7	0.127	369	196
37022	지정외 폐기물 수집운반업	39.0	0.082	45	65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38110	지정 폐기물 수집운반업	40.9	0.069	360	1,760
38120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23.1	0.029	159	252
38130	지정 외 폐기물 처리업	33.0	0.051	184	350
38210	지정 폐기물 처리업	37.6	0.075	207	1,424
38220	건설 폐기물 처리업	26.1	0.050	98	393
38230	방사성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업	12.2	0.017	224	1,333
38301	금속원료 재생업	28.4	0.042	600	4,735
38302	비금속원료 재생업	25.4	0.040	519	1,441
39001	토양 및 지하수 정화업	72.0	0.291	18	90
39009	기타 환경 정화 및 복원업	78.1	0.387	25	42

2.2 도매 및 소매업

도매 및 소매업은 CR3 25% 미만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으로는 20.4%, 매출액 기준으로는 8.5%로 나타나고 있다(<표 3-31> 참고). CR3 50% 미만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으로는 56.2%, 매출액 기준으로는 40.6%로 절반 정도의 산업들이 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CR3 75% 이상의 과점적 구조를 보이는 산업들도 전체의 16%(매출액 비중 23.9%)를 차지하고 있다. HHI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고위과점 및 독점형 구조를 가지는 산업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 42.6%, 매출액 기준 57.8%에 달한다(<표 3-32> 참고, 개별 산업의 집중률은 <표 3-33>에 있다).

<표 3-31>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CR3의 계층별 분포

CR3(%)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 (백억 원)	비중(%)
25 미만	33	20.4	69.9	8.5
25~50	58	35.8	265.1	32.1
50~75	45	27.8	292.9	35.5
75 이상	26	16.0	197.3	23.9
합계	162	100	825.2	100

<표 3-32>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HHI의 계층별 분포

동등 규모 기업수(개)	HHI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 (백억 원)	비중(%)
>20	0~0.05	38	23.5	118.2	14.3
10~20	0.05~0.1	22	13.6	90.2	10.9
5.5~10	0.1~0.18	33	20.4	140.6	17.0
2.5~5.5	0.18~0.4	42	25.9	268.7	32.6
1.1~2.2	0.4~0.9	27	16.7	207.5	25.2
<1.1	0.9~1.0	0	0.0	0.0	0.0
합계		162	100	825.2	100

<표 3-33> 도매 및 소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45110	자동차 신품 판매업	90.5	0.694	1,405	34,733
45120	중고 자동차 판매업	38.6	0.086	3,439	4,391
45211	자동차 타이어 및 튜브 판매업	48.7	0.172	2,602	2,532
45219	기타 자동차신품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53.8	0.248	9,794	15,622
45220	자동차중고 부품 및 내장품 판매업	37.6	0.067	1,136	266
45301	모터사이클 및 부품 도매업	50.7	0.147	212	264
45302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	31.9	0.051	1,474	217
46101	산업용 농축산물 및 산동물 중개업	61.9	0.187	182	493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34.3	0.068	1,378	2,896
46103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중개업	86.6	0.439	411	1,898
46104	기계장비 중개업	69.9	0.343	507	1,184
46105	상품종합 중개업	82.0	0.559	1,006	5,978
46109	기타 상품 중개업	70.7	0.429	505	2,537
46201	곡물 도매업	17.3	0.020	1,253	1,711
46202	종자 및 묘목 도매업	51.3	0.180	442	281
46203	사료 도매업	47.1	0.103	1,036	3,239
46204	화초 및 산식물 도매업	10.7	0.007	3,048	679
46205	산동물 도매업	37.8	0.068	166	211
46209	기타 산업용 농산물 및 산동물 도매업	47.3	0.189	1,290	1,119
46311	과실 및 채소 도매업	35.6	0.089	10,476	16,451
46312	육류 도매업	42.2	0.130	5,862	15,471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46313	수산물 도매업	46.9	0.111	7,854	13,662
46319	기타 비가공 식품 도매업	20.8	0.021	1,330	992
46321	육류 가공식품 도매업	39.3	0.116	657	1,347
46322	수산물 가공식품 도매업	69.7	0.396	579	1,194
46323	빵 및 과자 도매업	68.5	0.346	1,040	2,751
46324	낙농품 도매업	49.1	0.121	3,100	3,877
46329	기타 가공식품 도매업	45.9	0.119	7,114	16,335
46331	주류 도매업	47.0	0.112	986	9,812
46332	비알콜음료 도매업	59.8	0.308	2,399	3,490
46333	담배 도매업	96.3	0.481	119	3,070
46411	가정용 섬유 및 실 도매업	75.5	0.436	756	1,145
46412	커튼 및 침구용품 도매업	58.8	0.297	826	442
46413	셔츠 및 외의 도매업	73.7	0.400	13,160	14,452
46414	유아용 의류 도매업	82.2	0.433	159	553
46415	내의 도매업	78.7	0.574	523	891
46416	가죽 및 모피제품 도매업	76.5	0.503	249	447
46417	의복액세서리 및 모조장신품 도매업	53.3	0.238	5,713	3,088
46419	기타 가정용 섬유 및 직물제품 도매업	47.5	0.172	903	483
46420	신발 도매업	81.6	0.324	1,743	3,564
46431	가정용 가구 도매업	58.7	0.155	1,043	2,226
46432	전구·램프 및 조명장치 도매업	45.9	0.161	1,616	1,939
46433	가정용 요업제품, 비전기식 주방용품 및 날붙이 도매업	48.2	0.167	2,080	2,621
46439	기타 비전기식 가정용 기기 및 기구 도매업	66.4	0.285	256	306
46441	의약품 도매업	65.5	0.321	783	28,685
46442	의료용품 도매업	68.5	0.398	850	2,890
46443	화장품 도매업	76.5	0.331	2,461	5,116
46444	비누 및 세정제 도매업	57.3	0.231	773	1,408
46451	종이제품 도매업	55.8	0.269	1,672	3,175
46452	문구용품 도매업	56.1	0.266	2,525	4,161
46453	서적, 잡지 및 신문 도매업	41.5	0.139	1,758	2,157
46461	음반 및 비디오물 도매업	85.2	0.569	95	215
46462	악기 도매업	77.4	0.408	169	366
46463	장난감 및 취미용품 도매업	63.6	0.297	1,202	1,506
46464	운동 및 경기용품 도매업	78.4	0.548	701	3,264
46465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도매업	71.7	0.282	183	379
46491	가방 및 여행용품 도매업	82.2	0.537	999	1,796
46492	시계 및 귀금속제품 도매업	80.9	0.617	1,852	3,030
46493	사진장비 및 광학용품 도매업	78.7	0.500	633	3,097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46499	그 외 기타 가정용품 도매업	45.6	0.177	2,144	2,415
46510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도매업	86.0	0.492	2,273	18,767
46521	가전제품 및 부품 도매업	73.9	0.471	2,232	11,068
46522	통신장비 및 부품 도매업	69.1	0.327	1,100	9,434
46531	농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24.0	0.026	1,355	1,770
46532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0.2	0.176	1,140	2,788
46533	공작기계 도매업	39.4	0.088	1,965	3,673
46539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57.1	0.210	1,500	3,526
46591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62.4	0.243	1,914	2,459
46592	의료, 정밀 및 과학기기 도매업	61.1	0.315	3,604	10,088
46593	수송용 기계 및 장비 도매업	67.0	0.298	406	1,276
46594	전기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56.6	0.260	6,526	27,656
46599	그 외 기타 기계 및 장비 도매업	43.2	0.128	6,553	10,461
46611	원목 및 건축 관련 목재품 도매업	47.7	0.084	2,524	3,799
46612	골재, 벽돌 및 시멘트 도매업	40.8	0.086	1,524	3,753
46613	유리 및 창호 도매업	41.1	0.105	1,182	1,202
46621	배관 및 냉·난방장치 도매업	39.5	0.100	1,948	3,274
46622	철물 및 수공구 도매업	28.4	0.035	5,778	5,430
46691	도료 도매업	38.9	0.065	2,074	2,381
46692	벽지 및 장판류 도매업	39.7	0.103	1,196	1,315
46699	그외 기타 건축자재 도매업	46.2	0.151	4,795	7,169
46711	고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83.9	0.324	136	1,163
46712	액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64.4	0.205	1,230	23,742
46713	기체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84.8	0.675	403	12,031
46721	금속제품 도매업	63.2	0.235	4,162	44,746
46722	금속광물 도매업	66.5	0.267	140	1,034
46731	염료, 안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	59.1	0.251	328	1,099
46732	비료 및 농약 도매업	26.1	0.058	3,017	3,353
46733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 도매업	66.1	0.288	988	7,235
46739	기타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도매업	71.7	0.445	1,542	15,066
46741	방직용 섬유 및 사 도매업	69.7	0.334	541	2,999
46742	직물 도매업	63.2	0.273	4,263	8,021
46791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	19.9	0.018	12,908	15,825
46799	그 외 기타 상품 전문 도매업	55.1	0.217	2,532	5,846
46800	상품 종합 도매업	89.7	0.672	673	23,563
47111	백화점	95.7	0.855	19	15,126
47119	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	96.4	0.730	31	31,065
47121	슈퍼마켓	34.8	0.092	6,072	19,857
47122	체인화 편의점	36.0	0.116	16,740	7,912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47129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	9.9	0.009	78,557	9,056
47190	그 외 기타 종합 소매업	68.1	0.319	2,814	1,543
47211	곡물 소매업	20.1	0.028	6,706	906
47212	육류 소매업	9.3	0.006	22,137	4,609
47213	수산물 소매업	6.6	0.002	20,442	1,992
47214	과실 및 채소 소매업	5.3	0.002	22,833	2,122
47215	빵 및 과자류 소매업	44.0	0.151	2,361	360
47216	건강보조식품 소매업	44.0	0.096	7,697	1,328
47219	기타 식료품 소매업	23.6	0.040	14,393	1,534
47221	음료 소매업	39.0	0.104	1,874	287
47222	담배 소매업	17.9	0.022	3,377	114
47311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59.9	0.324	5,782	2,426
47312	통신기기 소매업	56.2	0.168	19,432	14,006
47320	가전제품 소매업	75.6	0.263	4,639	9,639
47411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17.8	0.027	10,305	819
47412	한복 소매업	9.0	0.005	1,644	94
47413	남녀용 정장 소매업	43.6	0.142	19,663	5,597
47414	유아용 의류 소매업	38.3	0.129	3,516	667
47415	내의 소매업	20.0	0.031	7,632	844
47416	셔츠 및 기타 의복 소매업	34.1	0.099	65,120	13,482
47419	기타 섬유, 직물 및 의복액세서리 소매업	37.9	0.107	10,979	1,008
47420	신발 소매업	39.1	0.086	10,634	2,234
47430	가방 및 기타 가죽제품 소매업	78.8	0.564	3,359	1,547
47511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3.6	0.001	14,842	1,154
47512	기계공구 소매업	7.9	0.004	2,591	562
47513	벽지 및 장판류 소매업	4.9	0.002	10,365	597
47519	페인트, 유리 및 기타 건설자재 소매업	15.0	0.016	8,839	1,248
47520	가구 소매업	16.9	0.021	10,430	2,790
47591	전기용품 및 조명장치 소매업	22.0	0.041	5,239	665
47592	식탁 및 주방용품 소매업	25.0	0.047	5,487	819
47593	악기 소매업	27.6	0.044	1,147	241
47599	그외 기타 분류안 된 가정용품 소매업	28.1	0.039	2,257	312
47611	서적 및 잡지류 소매업	46.1	0.193	4,809	2,314
47612	문구용품 소매업	17.8	0.025	16,965	1,600
47620	음반 및 비디오물 소매업	43.5	0.095	509	57
47631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38.5	0.094	5,453	2,464
47632	자전거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	26.2	0.050	2,739	330
47640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39.1	0.142	4,415	585
47711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32.4	0.046	9,898	41,504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47712	차량용 가스 충전업	29.4	0.058	1,139	7,449
47721	가정용 고체연료 소매업	16.1	0.019	262	18
47722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	12.6	0.011	2,484	1,061
47723	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9.1	0.005	3,258	1,379
47811	의약품 및 의료용품 소매업	2.7	0.001	22,920	12,001
47812	의료용 기구 소매업	31.7	0.069	3,469	688
47813	화장품 및 방향제 소매업	49.8	0.164	14,893	3,563
47821	사무용 기기 소매업	26.7	0.061	1,418	464
47822	안경 소매업	3.6	0.001	7,616	1,306
47823	사진기 및 사진용품 소매업	70.9	0.414	470	577
47829	기타 광학 및 정밀 기기 소매업	48.4	0.125	196	74
47830	시계 및 귀금속 소매업	37.1	0.111	11,115	1,772
47841	예술품 및 골동품 소매업	72.1	0.479	2,615	481
47842	관광 민예품 및 선물용품 소매업	27.3	0.050	3,289	456
47851	화초 및 산식물 소매업	12.5	0.014	17,115	1,148
47852	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12.4	0.008	2,881	233
4785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상품 전문 소매업	21.9	0.028	4,331	544
47861	중고가구 소매업	6.6	0.004	878	85
47862	중고 가전제품 소매업	7.4	0.004	3,226	235
47869	기타 중고상품 소매업	12.9	0.011	4,565	167
47911	전자상거래업	78.9	0.575	4,409	11,324
47919	기타 통신 판매업	94.4	0.840	238	3,909
47991	노점 및 유사이동 소매업	53.9	0.173	355	148
47992	자동판매기 운영업	45.8	0.204	5,332	2,028
47993	방문 판매업	63.2	0.335	3,835	5,131

2.3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 및 음식점업은 CR3 25% 미만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으로는 56.5%, 매출액 기준으로는 69.4%로 나타나고 있다(<표 3-34> 참고). CR3 50% 미만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으로는 78.2%, 매출액 기준으로는 82.5%로 대부분의 산업들이 경쟁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CR3 75% 이상의 과점적 구조를 보이는 산업들은 전체 8.7%(매출액 비중 11.1%)를 차지하고 있다. HHI를 기준으로 살펴보아도 고위과점 및 독점형 구조를 가지는 산업의 비중이 산업수 기준 13%, 매출액 기준 13.3%에 불과하다(<표 3-35> 참고). 개별 산업의 집중률은 <표 3-36>에 있다.

<표 3-34>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CR3의 계층별 분포

CR3(%)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 (십억 원)	비중(%)
25 미만	13	56.5	538.7	69.4
25~50	5	21.7	101.6	13.1
50~75	3	13.0	49.7	6.4
75 이상	2	8.7	86.3	11.1
합계	23	100	776.4	100

<표 3-35>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HHI의 계층별 분포

동등 규모 기업수(개)	HHI	산업수		매출액	
		개	비중(%)	액수 (십억 원)	비중(%)
>20	0~0.05	14	60.9	573.3	73.8
10~20	0.05~0.1	2	8.7	11.1	1.4
5.5~10	0.1~0.18	4	17.4	88.7	11.4
2.5~5.5	0.18~0.4	1	4.3	16.9	2.2
1.1~2.2	0.4~0.9	2	8.7	86.3	11.1
<1.1	0.9~1.0	0	0.0	0.0	0.0
합계		23	100	776.4	100

<표 3-36> 숙박 및 음식점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55111	호텔업	78.1	0.421	267	5,027
55112	여관업	1.7	0.000	25,653	2,009
55113	휴양콘도 운영업	64.3	0.207	107	1,692
55114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업	18.7	0.019	408	212
55119	기타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4.8	0.011	15,284	400
55901	기숙사 운영업	42.8	0.077	76	130
55909	그 외 기타 숙박업	2.3	0.001	6,076	350
56111	한식 음식점업	3.8	0.001	280,717	32,385
56112	중식 음식점업	7.8	0.004	20,921	2,570
56113	일식 음식점업	16.9	0.022	5,997	1,756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56114	서양식 음식점업	54.8	0.123	7,218	3,106
56119	기타 외국식 음식점업	22.6	0.046	985	258
56120	기관구내식당업	75.9	0.489	2,641	3,603
56131	출장 음식 서비스업	58.7	0.164	433	174
56191	제과점업	26.3	0.029	13,183	3,455
56192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및 유사 음식점업	48.3	0.105	11,757	3,052
56193	치킨 전문점	3.7	0.001	27,772	2,013
56194	분식 및 김밥 전문점	3.4	0.001	44,460	2,373
56199	그 외 기타 음식점업	37.4	0.085	3,889	984
56211	일반유흥 주점업	1.4	0.000	30,060	3,113
56212	무도유흥 주점업	6.7	0.006	1,472	451
56219	기타 주점업	1.5	0.000	98,088	5,983
56220	비알콜 음료점업	37.4	0.130	29,685	2,542

2.4 그 외 서비스업 부문 대분류 산업별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외의 8개 대분류 산업별로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을 산출하였다(<표 3-37>~<표 3-44> 참고).

<표 3-3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58111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	77.1	0.475	512	1,727
58112	만화 출판업	95.5	0.809	21	72
58119	기타 서적 출판업	64.5	0.363	1,273	1,411
58121	신문 발행업	85.6	0.595	116	2,089
58122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	78.4	0.536	653	861
58123	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	40.8	0.077	228	386
58190	기타 인쇄물 출판업	74.4	0.259	159	216
58211	온라인·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5.5	0.844	154	3,273
58219	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90.4	0.603	73	343
58221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9.5	0.692	557	11,906

산업 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58222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89.4	0.666	466	6,613
59111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95.6	0.893	122	492
59112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7.7	0.724	123	291
59113	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80.1	0.558	266	460
59114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	93.2	0.723	156	937
5912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	92.4	0.764	60	127
59130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91.0	0.725	42	383
59141	영화관 운영업	85.1	0.659	144	1,506
59142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2.0	0.001	990	53
59201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90.0	0.321	131	320
59202	녹음시설 운영업	48.5	0.171	228	52
60100	라디오 방송업	71.4	0.283	17	122
60210	지상파 방송업	89.2	0.347	17	3,368
60221	프로그램 공급업	96.8	0.833	29	963
60222	유선방송업	70.4	0.336	234	2,474
60229	위성 및 기타 방송업	99.3	0.978	31	676
61100	우편업	11.7	0.010	2,239	3,644
61210	유선통신업	98.4	0.950	169	20,901
61220	무선통신업	98.7	0.928	54	13,499
61230	위성통신업	100.0	0.737	3	32
61291	통신 재판매업	97.4	0.825	59	4,800
61299	그 외 기타 전기 통신업	87.9	0.499	50	1,073
62010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79.8	0.552	1,033	2,649
62021	컴퓨터시스템 통합 자문 및 구축 서비스업	93.3	0.750	175	12,040
62022	컴퓨터시설 관리업	80.4	0.494	108	651
62090	기타 정보기술 및 컴퓨터운영 관련 서비스업	77.6	0.488	141	439
63111	자료 처리업	82.0	0.443	73	454
63112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93.8	0.697	30	366
63120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 서비스업	93.6	0.488	286	4,302
63910	뉴스 제공업	90.6	0.752	108	209
6399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	84.8	0.619	167	1,512
63999	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	98.8	0.924	19	44

<표 3-38> 부동산업 및 임대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68111	주거용 건물 임대업	55.6	0.124	1,302	470
68112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66.4	0.371	4,180	6,657
68119	기타 부동산 임대업	64.4	0.212	96	114
68121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65.3	0.193	332	20,834
68122	비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74.8	0.314	130	3,848
68129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74.7	0.270	276	6,870
68211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16.1	0.015	15,695	8,249
68212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54.1	0.265	4,933	3,789
68221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	43.2	0.129	75,420	5,011
68222	부동산 감정평가업	98.3	0.959	109	678
69110	자동차 임대업	72.1	0.420	293	1,376
69190	기타 운송장비 임대업	72.4	0.252	161	103
69210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용품 임대업	16.8	0.020	881	60
69220	음반 및 비디오물 임대업	18.2	0.019	1,241	53
69291	서적 임대업	30.6	0.084	2,705	124
69292	의류 임대업	16.4	0.020	1,323	108
69299	그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임대업	91.7	0.811	597	804
69310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장비 임대업	32.0	0.077	1,488	1,132
69320	컴퓨터 및 사무용 기계장비 임대업	55.7	0.281	647	279
69390	기타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4	0.526	400	682
69400	무형재산권 임대업	82.2	0.412	24	37

<표 3-39>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70111	물리,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73.4	0.293	182	1,817
70112	농학 연구개발업	35.0	0.058	249	1,270
70113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63.1	0.211	139	1,141
70119	기타 자연과학 연구개발업	70.5	0.294	85	723
70121	전기·전자공학 연구개발업	86.5	0.359	323	20,634
70129	기타 공학 연구개발업	50.2	0.150	346	7,025
70201	경제학 연구개발업	79.2	0.476	100	793
70209	기타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19.4	0.031	424	935
71101	변호사업	47.3	0.086	2,833	2,810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71102	변리사업	38.6	0.063	435	641
71103	법무사업	2.7	0.001	5,193	730
71109	기타 법무 관련 서비스업	38.6	0.084	1,352	195
71201	공인회계사업	56.6	0.168	942	1,789
71202	세무사업	11.9	0.006	6,928	2,321
71209	기타 회계 관련 서비스업	86.6	0.641	19	12
71310	광고 대행업	93.9	0.846	742	4,463
71391	옥외 및 전시 광고업	75.4	0.490	467	590
71392	광고매체 판매업	96.5	0.544	67	384
71393	광고물 작성업	52.9	0.236	2,970	949
71399	그 외 기타 광고업	70.6	0.404	334	172
71400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90.0	0.532	124	542
71511	제조업 회사본부	71.5	0.439	146	26,163
71519	기타 산업 회사본부	74.2	0.429	91	3,548
71520	비금융 지주회사	95.1	0.826	10	2,918
71531	경영컨설팅업	75.1	0.408	1,008	4,983
71532	공공관계 서비스업	79.2	0.425	69	177
72111	건축설계 및 관련 서비스업	69.6	0.412	5,253	4,935
72112	도시계획 및 조경설계 서비스업	69.4	0.395	236	593
72121	건물 및 토목엔지니어링 서비스업	70.1	0.400	874	7,254
72122	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59.6	0.187	145	596
72129	기타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69.2	0.347	1,325	5,860
72911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40.7	0.076	237	1,117
72919	기타 기술 시험, 검사 및 분석업	40.3	0.092	456	3,291
72921	측량업	70.5	0.227	798	897
72922	제도업	45.9	0.148	217	114
72923	지질조사 및 탐사업	65.1	0.288	59	136
72924	지도제작업	69.0	0.207	78	118
73100	수의업	9.7	0.005	3,059	439
73201	인테리어 디자인업	79.0	0.524	504	605
73202	제품 디자인업	61.0	0.255	673	619
73203	시각 디자인업	64.3	0.379	887	555
73209	기타 전문 디자인업	74.8	0.407	497	366
73301	인물사진 및 행사용비디오 촬영업	11.1	0.011	7,177	493
73302	상업용 사진 촬영업	47.1	0.177	329	79
73303	사진 처리업	56.9	0.284	1,312	163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73901	매니저업	95.0	0.874	56	392
73902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63.8	0.227	309	111
73903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88.7	0.737	141	247
73904	물품감정, 계량 및 견본 추출업	79.8	0.564	150	54
7390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2.1	0.111	102	397

<표 3-4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74100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55.9	0.233	699	4,420
74211	건축물 일반 청소업	53.7	0.232	1,118	1,459
74212	사업시설 및 산업용품 청소업	37.0	0.078	408	523
74220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	50.5	0.189	639	266
74300	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34.0	0.080	336	288
75110	고용알선업	36.0	0.068	5,183	733
75120	인력공급업	58.1	0.256	1,887	9,681
75211	일반 및 국외 여행사업	77.6	0.547	1,196	1,820
75212	국내 여행사업	47.8	0.152	363	244
75290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78.5	0.263	1,177	961
75310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	78.4	0.504	600	1,761
75320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94.2	0.858	103	1,589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85.8	0.547	14	2
75911	문서 작성업	75.5	0.324	309	102
75912	복사업	21.6	0.023	1,986	204
75919	기타 사무지원 서비스업	35.9	0.071	543	477
75991	콜센터 및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83.4	0.522	336	3,033
75992	전시 및 행사 대행업	74.9	0.488	1,409	1,398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 대행업	96.0	0.812	47	1,284
75994	포장 및 충전업	44.6	0.103	764	1,052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사업지원 서비스업	55.4	0.240	1,353	5,157

<표 3-41> 교육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85110	유아교육기관	1.7	0.000	8,074	2,239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85120	초등학교	0.8	0.000	6,130	14,563
85211	중학교	2.9	0.001	2,667	9,199
85212	일반 고등학교	6.5	0.004	1,168	10,049
85221	상업 및 정보산업 고등학교	7.9	0.011	170	1,229
85222	공업 고등학교	6.7	0.009	158	1,122
85229	기타 기술 및 직업 고등학교	11.0	0.013	120	593
85301	전문대학	18.4	0.025	94	3,762
85302	대학교	22.0	0.031	201	15,098
85303	대학원	29.9	0.048	297	2,385
85410	특수학교	9.4	0.011	129	588
85420	외국인학교	47.8	0.106	53	191
85430	대안학교	36.3	0.073	42	40
85501	일반 교과학원	20.7	0.037	41,534	5,852
85502	외국어학원	30.5	0.067	16,989	3,910
85503	방문 교육 학원	90.1	0.541	1,111	3,154
85504	온라인 교육 학원	92.9	0.833	217	753
85509	기타 일반 교습학원	64.9	0.301	295	224
85611	스포츠 교육기관	7.7	0.003	17,683	860
85612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27.3	0.051	3,762	222
85620	예술학원	3.8	0.001	40,180	1,600
85630	사회교육시설	21.5	0.030	1,577	750
85640	직원훈련기관	45.1	0.159	384	1,726
85651	운전학원	8.3	0.008	416	527
85659	기타 기술 및 직업훈련학원	29.7	0.036	5,332	1,266
85691	컴퓨터학원	63.4	0.331	1,443	377
856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교육기관	32.7	0.083	5,113	634
85701	교육 관련 자문 및 평가업	87.6	0.504	333	790
85709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51.4	0.160	786	295

<표 3-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86101	종합병원	23.3	0.029	210	19,396
86102	일반병원	2.2	0.002	1,646	10,086
86103	치과병원	61.8	0.328	175	1,238
86104	한방병원	24.0	0.033	116	421
86201	일반의원	0.9	0.000	25,962	13,266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86202	치과의원	0.8	0.000	14,263	5,902
86203	한의원	0.8	0.000	11,678	3,016
86204	방사선진단 및 병리검사 의원	36.3	0.065	289	1,505
86300	공중 보건의료업	2.7	0.004	3,457	1,953
86901	앰뷸런스 서비스업	64.8	0.315	43	25
86902	유사 의료업	9.1	0.005	2,274	142
86909	그 외 기타 보건업	94.0	0.752	85	567
87111	노인 요양 복지시설 운영업	5.1	0.003	2,291	1,523
87112	노인 양로 복지시설 운영업	34.8	0.058	282	136
87121	신체 부자유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11.9	0.014	408	386
87122	정신질환, 정신지체 및 약물중독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9.4	0.013	242	346
87131	아동 및 부녀자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26.0	0.032	340	450
87139	그 외 기타 거주 복지시설 운영업	34.1	0.054	87	60
87210	보육시설 운영업	1.1	0.000	30,395	5,291
87291	직업재활원 운영업	23.4	0.038	502	378
87299	그 외 기타 비거주 복지 서비스업	25.8	0.037	6,978	3,347

<표 3-4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90110	공연시설 운영업	24.8	0.038	347	551
90121	연극단체	55.3	0.130	142	61
90122	무용 및 음악단체	33.0	0.062	325	108
90123	기타 공연단체	66.0	0.185	23	10
90131	공연 예술가	27.7	0.047	45	1
90132	비공연 예술가	25.8	0.044	567	21
90191	공연 기획업	69.4	0.370	268	344
90192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92.6	0.543	28	62
90199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70.3	0.446	370	347
90211	도서관 및 기록보존소 운영업	19.8	0.018	1,044	661
90212	독서실 운영업	11.8	0.007	4,844	249
90221	박물관 운영업	42.3	0.099	707	806
90222	사적지 관리 운영업	18.4	0.028	164	142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42.6	0.091	69	162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41.7	0.087	232	356
90290	기타 도서관, 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62.5	0.174	18	10
91111	실내 경기장 운영업	46.6	0.104	92	64
91112	실외 경기장 운영업	38.4	0.092	74	113
91113	경주장 운영업	96.3	0.539	8	3,335
91121	골프장 운영업	40.8	0.098	104	3,438
91122	스키장 운영업	100.0	0.987	2	4
91131	종합 스포츠시설 운영업	46.1	0.163	438	880
91132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26.9	0.051	4,715	673
91133	수영장 운영업	33.9	0.054	177	135
91134	볼링장 운영업	17.3	0.021	524	88
91135	당구장 운영업	0.4	0.000	17,008	596
91136	골프연습장 운영업	16.5	0.016	6,340	1,034
91139	그 외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32.4	0.052	1,828	158
91191	스포츠 클럽 운영업	64.5	0.254	24	454
91199	그 외 기타 스포츠 서비스업	33.9	0.066	270	561
91210	유원지 및 테마파크 운영업	87.7	0.683	95	853
91221	전자 게임장 운영업	21.9	0.022	1,064	61
91222	컴퓨터 게임방 운영업	0.4	0.000	16,116	1,058
91223	노래연습장 운영업	0.4	0.000	35,200	1,618
91229	기타 오락장 운영업	16.9	0.024	1,737	97
91231	낚시장 운영업	10.6	0.007	743	38
91239	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15.9	0.015	447	31
91241	복권발행 및 판매업	96.7	0.470	2,747	4,933
91249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96.9	0.414	19	9,206
91291	무도장 운영업	4.0	0.004	669	32
91292	체육공원 및 유사 공원 운영업	69.1	0.338	118	378
91293	기원 운영업				91
912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오락 관련 서비스업				91

<표 3-4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분야의 세세분류 산업의 집중률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94110	산업 단체	70.2	0.372	761	4,746
94120	전문가 단체	31.0	0.054	303	499
94200	노동조합	27.6	0.036	388	115
94911	불교 단체	17.8	0.023	1,252	195
94912	기독교 단체	11.1	0.006	5,347	1,800
94913	천주교 단체	42.3	0.082	345	335
94914	민족종교 단체	68.3	0.201	149	29
94919	기타 종교 단체	61.0	0.168	162	37
94920	정치 단체	63.5	0.145	120	60
94931	환경운동 단체	39.9	0.074	138	47
94939	기타 시민운동 단체	36.7	0.070	255	86
94990	그외 기타 협회 및 단체	32.2	0.053	2,013	1,877
95111	건설·광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40.8	0.078	260	593
95119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	33.7	0.049	979	2,479
95121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수리업	70.9	0.402	676	735
95122	통신장비 수리업	70.8	0.330	124	620
95123	전기 및 정밀기기 수리업	45.6	0.139	206	527
95211	자동차 종합 수리업	35.6	0.081	2,240	4,110
95212	자동차 전문 수리업	30.1	0.040	2,695	2,023
95213	자동차 세차업	28.8	0.036	224	52
95220	모터사이클 수리업	78.2	0.455	214	27
95310	가전제품 수리업	69.0	0.235	554	1,620
95391	신발,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29.4	0.053	344	53
95392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68.2	0.190	69	6
95399	그 외 기타 개인 및 가정용품 수리업	64.1	0.188	502	102
96111	이용업	22.8	0.041	51	4
96112	두발미용업	9.1	0.005	2,604	942
96113	피부미용업	23.0	0.039	735	151
96119	기타 미용업	55.0	0.280	256	68
96121	욕탕업	15.6	0.014	1,843	917
96122	마사지업	8.9	0.007	673	153
96129	기타 미용 관련 서비스업	40.4	0.131	150	46
96911	산업용 세탁업	20.4	0.026	166	102
96912	가정용 세탁업	17.9	0.017	368	100
96913	세탁물 공급업	14.7	0.017	262	142
96921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26.2	0.033	534	710
96922	화장, 묘지분양 및 관리업	13.6	0.019	200	293
96991	예식장업	27.4	0.053	593	1,108
96992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31.7	0.058	85	5
96993	개인 간병인 및 유사 서비스업	7.9	0.004	1,557	440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10억 원)
96994	맞선주선 및 결혼 상담업	85.1	0.676	123	84
96995	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 서비스업	50.8	0.123	61	4
96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개인 서비스업	47.0	0.111	400	91

<표 3-45> 광업 및 제조업 부문 세세분류 산업의 산업집중도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05100	석탄 광업	96.5	0.420	5	282
0520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업	100.0	1.000	1	225
06100	철 광업	100.0	0.579	2	40
06291	금·은 및 백금 광업	98.2	0.487	8	19
06292	연 및 아연 광업	100.0	1.000	1	4
06299	그 외 기타 비철금속 광업	96.2	0.778	6	7
07111	석회석 광업	33.1	0.059	77	518
07112	고령토 및 기타 점토 광업	39.5	0.082	38	41
07121	건설용 석재 채굴업	19.6	0.031	75	145
07122	건설용 쇄석 생산업	9.0	0.009	279	1,166
07123	모래 및 자갈 채취업	15.7	0.020	200	711
07210	화학용 및 비료원료용 광물 광업	72.7	0.219	12	23
07220	소금 채취업	7.0	0.004	1,039	55
07290	그외 기타 비금속광물 광업	47.8	0.112	27	36
08010	원유 및 천연가스 채굴관련 서비스업	100.0	1.000	1	1
08090	기타 광업 지원 서비스업	91.4	0.586	7	1
10110	도축업	17.4	0.026	231	4,614
10121	가금류 가공 및 저장 처리업	17.6	0.020	321	1,425
10129	기타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	11.7	0.011	905	4,564
10211	수산동물 훈제, 조리 및 유사 조제식품 제조업	23.0	0.034	416	1,370
10212	수산동물 건조 및 염장품 제조업	9.3	0.007	1,332	1,198
10213	수산동물 냉동품 제조업	31.7	0.043	175	770
10219	기타 수산동물 가공 및 저장처리업	19.8	0.026	150	375
10220	수산식물 가공 및 저장 처리업	8.2	0.006	919	1,036
10301	과실 및 채소 절임식품 제조업	15.3	0.017	1,104	1,348
10309	기타 과실·채소 가공 및 저장처리업	11.0	0.011	1,087	1,206
10401	동물성 유지 제조업	40.8	0.090	32	320
10402	식물성 유지 제조업	61.6	0.153	3,970	762
10403	식용 정제유 및 가공유 제조업	64.2	0.183	74	1,381
10501	액상시유 및 기타 낙농제품 제조업	55.5	0.133	88	4,815
10502	아이스크림 및 기타 식용빙과류 제조업	78.1	0.225	46	1,641
10611	곡물 도정업	4.4	0.003	3,311	4,489
10612	곡물 제분업	53.8	0.120	2,043	1,543
10613	제과용 혼합분말 및 반죽 제조업	59.8	0.175	165	375
10619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41.1	0.069	582	427
10620	전분제품 및 당류 제조업	73.5	0.194	145	1,176
10711	떡류 제조업	7.4	0.003	14,291	958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10712	빵류 제조업	53.6	0.135	511	1,924
10713	코코아 제품 및 과자류 제조업	54.8	0.132	762	2,967
10720	설탕 제조업	99.9	0.346	4	1,157
10730	면류, 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67.3	0.271	537	2,109
10741	식초, 발효 및 화학 조미료 제조업	78.8	0.460	64	191
10742	천연 및 혼합조제 조미료 제조업	33.7	0.047	4,014	2,175
10743	장류 제조업	48.3	0.107	658	943
10749	기타 식품 첨가물 제조업	30.3	0.049	166	597
10791	커피 가공업	72.1	0.225	139	891
10792	차류 가공업	30.9	0.053	361	453
10793	수프 및 균질화식품 제조업	65.5	0.166	138	338
10794	두부 및 유사식품 제조업	18.7	0.021	1,598	623
10795	인삼식품 제조업	45.0	0.136	988	804
10796	건강보조용 액화식품 제조업	17.3	0.014	12,818	526
10797	건강기능식품 제조업	22.4	0.036	331	463
10798	도시락 및 식사용 조리식품 제조업	18.1	0.021	984	1,913
10799	그 외 기타 식료품 제조업	53.1	0.127	83	349
10800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	24.4	0.034	493	8,562
11111	탁주 및 약주 제조업	30.1	0.058	635	456
11112	청주 제조업	100.0	0.666	2	60
11113	맥아 및 맥주 제조업	99.8	0.668	13	1,300
11119	기타 발효주 제조업	65.3	0.349	98	131
11121	주정 제조업	43.0	0.112	11	440
11122	소주 제조업	77.7	0.289	20	1,408
11129	기타 증류주 및 합성주 제조업	92.0	0.382	36	228
11201	얼음 제조업	25.6	0.035	117	45
11202	생수 생산업	50.5	0.113	71	377
11209	기타 비알콜음료 제조업	54.1	0.141	191	3,631
12001	담배 재건조업	100.0	0.833	2	145
12002	담배제품 제조업	99.8	0.604	7	2,956
13101	면 방적업	36.5	0.082	65	1,122
13102	모 방적업	19.6	0.033	74	328
13103	화학섬유 방적업	32.3	0.051	193	468
13104	연사 및 가공사 제조업	6.4	0.006	1,297	1,284
13109	기타 방적업	84.7	0.318	10	5
13211	면직물 직조업	11.1	0.012	664	811
13212	모직물 직조업	32.9	0.059	121	374
13213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5.3	0.004	1,385	3,493
13214	견직물 직조업	15.8	0.026	120	96
13219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31.4	0.048	186	576
13221	침구 및 관련제품 제조업	13.3	0.013	2,047	1,010
13222	자수제품 및 자수용재료 제조업	5.7	0.004	2,178	342
13223	커튼 및 유사제품 제조업	7.9	0.007	1,663	337
13224	천막 및 기타 캔버스 제품 제조업	20.4	0.021	2,315	1,090
13225	직물포대 제조업	21.6	0.029	232	237
13229	기타 직물제품 제조업	21.2	0.024	700	1,067
13310	편조원단 제조업	7.1	0.008	881	1,328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13320	편조제품 제조업	67.9	0.353	29	20
13401	솜 및 실 염색가공업	16.6	0.020	280	524
13402	직물 및 편조원단 염색 가공업	6.1	0.005	1,096	3,170
13403	날염 가공업	13.6	0.014	767	1,095
13404	섬유사 및 직물 호부처리업	18.9	0.029	91	147
13409	기타 섬유제품 염색, 정리 및 마무리 가공업	10.5	0.009	714	467
13910	카펫, 마루덮개 및 유사제품 제조업	52.0	0.117	64	284
13921	끈 및 로프 제조업	35.3	0.060	211	359
13922	어망 및 기타 끈가공품 제조업	12.2	0.013	370	327
13991	세폭직물 제조업	11.4	0.011	587	360
13992	부직포 및 펠트 제조업	24.9	0.038	342	1,461
13993	특수사 및 코드직물 제조업	95.0	0.488	57	1,212
13994	적층 및 표면처리 직물 제조업	11.5	0.013	328	610
1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16.2	0.015	700	781
14111	남자용 정장 제조업	59.3	0.183	1,963	3,518
14112	여자용 정장 제조업	15.3	0.018	4,220	5,287
14120	내의 및 잠옷 제조업	36.4	0.060	579	779
14130	한복 제조업	6.1	0.003	3,777	162
14191	셔츠 및 체육복 제조업	19.6	0.021	4,789	5,592
14192	근무복, 작업복 및 유사의복 제조업	14.7	0.012	2,015	1,196
14193	가죽의복 제조업	22.6	0.034	230	205
14194	유아용 의복 제조업	39.6	0.082	443	599
14199	그외 기타 봉제의복 제조업	16.7	0.021	911	237
14201	원모피 가공업	39.4	0.082	41	34
14202	천연모피제품 제조업	24.8	0.037	162	288
14203	인조모피 및 인조모피 제품 제조업	54.3	0.128	52	65
14300	편조의복 제조업	33.3	0.050	1,159	1,805
14411	스타킹 및 기타양말 제조업	15.0	0.017	718	519
14419	기타 편조의복 액세서리 제조업	23.5	0.029	648	345
14491	모자 제조업	28.1	0.037	298	167
14499	그외 기타 의복액세서리 제조업	18.1	0.019	670	551
15110	원피가공 및 가죽 제조업	24.2	0.034	333	1,525
15121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44.2	0.099	713	836
15129	가방 및 기타 보호용 케이스 제조업	21.3	0.023	805	636
15190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58.8	0.182	121	217
15211	구두류 제조업	29.9	0.042	916	1,231
15219	기타 신발 제조업	28.0	0.039	352	828
15220	신발부분품 제조업	12.3	0.010	1,110	645
16101	일반 제재업	7.1	0.007	664	1,005
16102	표면가공목재 및 특정 목적용 제재목 제조업	16.8	0.018	369	439
16103	목재 보존, 방부처리, 도장 및 유사 처리업	21.0	0.031	177	187
16211	박판, 합판 및 유사적층판 제조업	29.9	0.039	329	774
16212	강화 및 재생 목재 제조업	47.7	0.112	88	815
16221	목재문 및 관련제품 제조업	14.4	0.014	1,559	502
16229	기타 건축용 나무제품 제조업	25.0	0.033	347	468
16231	목재 깔판류 및 기타 적재판 제조업	12.4	0.011	434	758
16232	목재 포장용 상자, 드럼 및 유사용기 제조업	8.5	0.009	489	599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16291	목재 도구 및 기구 제조업	15.4	0.018	232	54
16292	주방용 및 식탁용 목제품 제조업	16.5	0.020	247	51
16293	장식용 목제품 제조업	15.0	0.014	721	98
16299	그외 기타 나무제품 제조업	12.9	0.017	273	111
16301	코르크 제품 제조업	59.3	0.158	11	4
16302	돗자리 및 기타 조물제품 제조업	32.9	0.055	125	29
17110	펄프 제조업	99.4	0.967	11	315
17121	신문용지 제조업	87.2	0.384	11	1,292
17122	인쇄용 및 필기용 원지 제조업	63.1	0.167	57	3,433
17123	크라프트지 및 상자용 판지 제조업	28.0	0.056	72	3,265
17124	적층, 합성 및 특수표면처리 종이 제조업	19.5	0.022	377	1,425
17129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51.2	0.108	125	404
17210	골판지 및 골판지상자 제조업	12.1	0.009	1,806	5,157
17221	종이 포대 및 가방 제조업	15.2	0.020	232	507
17222	판지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3.2	0.013	457	593
17223	식품 위생용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32.5	0.056	103	383
17229	기타 종이 상자 및 용기 제조업	16.0	0.017	428	584
17901	문구용 종이제품 제조업	11.9	0.010	746	1,081
17902	위생용 종이제품 제조업	52.0	0.160	347	2,156
17903	벽지 및 장판지 제조업	30.0	0.057	73	344
17909	그 외 기타 종이 및 판지 제품 제조업	19.8	0.020	615	970
18111	경 인쇄업	5.9	0.003	6,925	1,578
18112	스크린 인쇄업	8.9	0.006	2,248	890
18119	기타 인쇄업	8.4	0.005	4,118	3,598
18121	제판 및 조판업	12.0	0.009	872	625
18122	제책업	9.8	0.007	1,136	598
18129	기타 인쇄관련 산업	9.7	0.008	1,074	296
18200	기록매체 복제업	33.7	0.058	93	160
19101	코크스 및 관련제품 제조업	71.0	0.209	9	47
19102	연탄 및 기타 석탄 가공품 제조업	24.2	0.038	49	225
19210	원유 정제처리업	83.4	0.264	23	94,901
19221	윤활유 및 그리스 제조업	46.1	0.092	119	2,514
19229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6.2	0.062	83	512
20111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64.0	0.177	29	28,516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화학물질 제조업	55.2	0.194	105	98
20119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30.0	0.059	127	19,828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47.2	0.096	121	1,993
20129	기타 기초무기화학물질 제조업	30.2	0.045	264	3,743
20131	무기안료 및 기타 금속산화물 제조업	53.3	0.112	45	550
20132	합성염료, 유연제 및 기타착색제 제조업	23.0	0.030	254	1,475
20201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90.9	0.414	25	450
20202	복합비료 제조업	70.2	0.212	62	734
20209	기타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	10.7	0.010	644	1,017
20301	합성고무 제조업	90.2	0.566	68	2,990
20302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45.6	0.089	692	33,580
20303	가공 및 재생 플라스틱원료 생산업	18.4	0.016	1,057	2,604
20411	가정용 살균 및 살충제 제조업	38.9	0.087	89	189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20412	농약 제조업	44.7	0.107	48	1,019
20421	일반용 도료 및 관련 제품 제조업	31.1	0.057	404	4,844
20422	요업용 유약 및 관련 제품 제조업	52.7	0.129	36	109
20423	인쇄잉크 제조업	32.3	0.054	172	938
20424	회화용 물감 제조업	69.4	0.235	14	26
20431	계면활성제 제조업	28.4	0.048	177	1,167
20432	치약, 비누 및 기타 세제 제조업	49.0	0.113	574	1,545
20433	화장품 제조업	61.9	0.195	592	5,048
20434	표면광택제 및 실내가향제 제조업	22.4	0.031	172	247
20491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제조업	33.4	0.059	131	570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58.3	0.152	53	106
20493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31.5	0.055	393	1,970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97.2	0.704	16	633
204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23.1	0.030	803	8,606
20501	합성섬유 제조업	46.4	0.106	154	4,414
20502	재생섬유 제조업	92.1	0.318	6	28
21101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30.8	0.055	74	917
21102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66.0	0.187	51	372
21210	완제 의약품 제조업	14.9	0.019	206	9,873
21220	한의약품 제조업	25.4	0.039	207	284
21230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64.5	0.257	52	834
21300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제품 제조업	25.3	0.038	250	636
22111	타이어 및 튜브 제조업	89.7	0.320	52	6,849
22112	타이어 재생업	67.9	0.199	49	166
22191	산업용 비경화고무제품 제조업	12.6	0.012	1,715	4,758
22192	고무의류 및 기타 위생용 고무제품 제조업	35.8	0.071	73	129
22199	그외 기타 고무제품 제조업	15.3	0.015	485	711
22211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9.3	0.008	840	2,495
22212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제조업	18.4	0.018	1,343	7,932
22213	플라스틱 합성피혁 제조업	39.6	0.078	71	634
22221	벽 및 바닥 피복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8.2	0.050	107	880
22222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9.5	0.010	469	570
22223	플라스틱 창호 제조업	6.9	0.007	871	1,232
22229	기타 건축용 플라스틱 조립제품 제조업	7.8	0.009	391	589
22231	플라스틱 포대, 봉투 및 유사제품 제조업	14.2	0.012	1,394	1,782
22232	포장용 플라스틱 성형용기 제조업	11.4	0.007	1,816	4,359
22240	기계장비 조립용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6.1	0.004	3,713	14,321
22250	플라스틱 발포 성형제품 제조업	10.0	0.008	911	2,725
22291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제조업	31.8	0.044	855	4,579
22299	그 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16.2	0.013	1,869	2,297
23110	판유리 제조업	98.2	0.407	9	1,492
23121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제조업	50.3	0.101	98	532
23122	판유리 가공품 제조업	27.5	0.033	1,137	2,444
23129	기타 산업용 유리제품 제조업	84.8	0.394	198	9,089
23191	가정용 유리제품 제조업	64.0	0.266	138	150
23192	포장용 유리용기 제조업	49.4	0.106	64	542
23199	그외 기타 유리제품 제조업	54.5	0.132	120	82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23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업	27.7	0.038	1,167	295
23212	위생용 도자기 제조업	53.9	0.130	87	167
23213	산업용 도자기 제조업	24.5	0.039	157	397
23219	기타 일반 도자기 제조업	47.2	0.099	68	41
23221	구조용 정형내화제품 제조업	58.3	0.174	77	348
23229	기타 내화요업제품 제조업	62.1	0.176	66	659
23231	점토 벽돌, 블록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19.0	0.031	137	295
23232	타일 및 유사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41.4	0.092	57	276
23239	기타 구조용 비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56.2	0.133	20	14
23311	시멘트 제조업	50.3	0.126	56	3,073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36.4	0.078	61	295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55.9	0.176	81	359
23322	레미콘 제조업	13.9	0.012	746	7,032
23323	플라스터 제품 제조업	85.9	0.336	19	447
23324	섬유시멘트 제품 제조업	44.3	0.112	17	25
23325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13.6	0.011	851	1,204
23326	콘크리트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17.3	0.018	444	1,807
23329	그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제품 제조업	50.3	0.123	52	77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7.6	0.005	1,395	697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10.7	0.010	770	245
23991	아스콘 제조업	5.1	0.005	406	1,765
23992	연마재 제조업	44.9	0.078	190	432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16.9	0.022	164	563
23994	석면, 암면 및 유사제품 제조업	34.2	0.057	129	312
23999	그외 기타 분류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4.0	0.033	187	605
24111	제철업	46.7	0.122	30	141
24112	제강업	86.0	0.253	26	759
24113	합금철 제조업	67.7	0.194	40	1,708
24119	기타 제철 및 제강업	46.3	0.124	32	69
24121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75.6	0.237	211	40,710
24122	냉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78.3	0.372	95	12,726
24123	철강선 제조업	22.9	0.036	240	3,172
24131	주철관 제조업	43.1	0.089	121	410
24132	강관 제조업	24.5	0.026	1,208	11,101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강재 제조업	58.2	0.143	296	9,048
24199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8.9	0.010	1,352	9,844
24211	동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96.7	0.824	47	8,160
24212	알루미늄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21.7	0.031	218	3,133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91.1	0.543	48	4,332
24219	기타 비철금속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50.1	0.110	87	1,074
24221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43.1	0.075	216	10,281
24222	알루미늄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39.6	0.099	500	6,459
24229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67.3	0.179	130	2,298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23.6	0.036	209	866
24311	선철주물 주조업	16.1	0.020	347	2,785
24312	강주물 주조업	19.2	0.023	250	1,421
24321	알루미늄주물 주조업	28.9	0.043	446	1,147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24322	동주물 주조업	51.2	0.134	126	396
24329	기타 비철금속 주조업	27.0	0.041	163	284
25111	금속 문, 창, 셔터 및 관련제품 제조업	7.3	0.004	6,879	2,972
25112	구조용 금속판제품 및 금속공작물 제조업	5.3	0.003	2,794	4,763
25113	금속 조립구조재 제조업	25.4	0.047	2,636	10,414
25119	기타 구조용 금속제품 제조업	6.6	0.007	1,067	2,084
25121	중앙난방보일러 및 방열기 제조업	17.3	0.023	216	412
25122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 제조업	19.3	0.022	682	3,121
25130	핵반응기 및 증기발생기 제조업	85.5	0.601	123	2,370
25200	무기 및 총포탄 제조업	64.7	0.169	106	2,555
25911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39.2	0.076	126	311
25912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21.2	0.029	522	2,786
25913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4.4	0.003	4,628	9,236
25921	금속 열처리업	18.2	0.022	769	1,218
25922	도금업	6.7	0.004	1,577	1,944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3.7	0.002	2,175	2,855
25924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4.7	0.002	15,697	9,788
25929	그외 기타 금속가공업	11.8	0.011	4,495	2,486
25931	날붙이 제조업	36.4	0.077	332	393
25932	일반철물 제조업	7.3	0.005	1,504	2,303
25933	비동력식 수공구 제조업	18.8	0.019	462	286
25934	톱 및 호환성공구 제조업	29.7	0.043	820	1,846
25941	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 제조업	11.2	0.008	2,173	3,951
25942	금속 스프링 제조업	33.1	0.070	601	911
25943	금속선 가공제품 제조업	18.7	0.018	724	1,541
25991	금속캔 및 기타 포장용기 제조업	18.5	0.022	812	2,679
25992	금고 제조업	42.4	0.099	37	103
25993	수동식 식품 가공기기 및 금속주방용기 제조업	20.5	0.023	690	968
25994	금속위생용품 제조업	19.2	0.026	224	325
25995	금속표시판 제조업	23.5	0.029	379	439
2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27.6	0.034	1,730	2,564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87.5	0.444	320	51,740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33.4	0.051	657	8,869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75.9	0.213	338	78,459
26219	플라즈마 및 기타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88.2	0.282	74	4,524
26221	인쇄회로기판 제조업	22.6	0.034	1,213	9,345
26222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19.2	0.024	829	2,406
26291	전자관 제조업	69.4	0.377	89	439
26292	전자축전기 제조업	57.0	0.151	108	1,487
26293	전자저항기 제조업	48.0	0.099	100	361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56.9	0.134	95	288
26295	전자코일, 변성기 및 기타 전자유도자 제조업	24.3	0.039	258	865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59.0	0.138	44	133
26299	그 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27.7	0.037	1,048	3,619
26310	컴퓨터 제조업	57.9	0.142	128	1,004
26321	기억장치 제조업	89.4	0.738	92	3,960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19.6	0.028	166	583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	0.042	124	491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5.0	0.031	362	1,297
26410	유선 통신장비 제조업	19.2	0.020	599	2,816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1	0.037	612	3,154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86.3	0.551	842	43,250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59.8	0.178	682	9,449
26511	텔레비전 제조업	88.1	0.360	224	7,408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7.9	0.044	195	979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 기기 제조업	45.5	0.090	161	660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6.1	0.043	453	1,590
26600	마그네틱 및 광학 매체 제조업	65.3	0.317	38	127
27111	방사선 장치 제조업	39.9	0.101	103	411
27112	전기식 진단 및 요법 기기 제조업	42.2	0.077	193	1,087
27191	치과용 기기 제조업	33.5	0.055	138	168
27192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25.6	0.030	1,992	952
27193	의료용 가구 제조업	34.5	0.064	95	158
27199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10.4	0.010	634	1,103
27211	항행용 무선기기 및 측량기구 제조업	29.9	0.046	293	1,665
27212	전자기 측정, 시험 및 분석기구 제조업	19.0	0.020	481	843
27213	물질 검사, 측정 및 분석기구 제조업	8.0	0.007	992	2,692
27214	속도계 및 적산계기 제조업	50.8	0.121	202	905
27215	기기용 자동측정 및 제어장치 제조업	17.2	0.019	469	749
27216	산업처리공정 제어장비 제조업	12.0	0.010	1,026	2,091
27219	기타 측정, 시험, 항해, 제어 및 정밀기기 제조업	33.0	0.053	128	173
27310	안경 제조업	23.3	0.028	408	481
27321	광학렌즈 및 광학요소 제조업	21.5	0.031	320	1,607
27322	사진기, 영사기 및 관련장비 제조업	84.8	0.664	165	1,563
27329	기타 광학기기 제조업	36.9	0.077	130	314
27401	시계제조업	33.1	0.054	136	165
27402	시계부품 제조업	40.5	0.071	66	19
28111	전동기 및 발전기 제조업	22.3	0.030	831	5,505
28112	변압기 제조업	50.5	0.186	638	2,649
28113	방전램프용 안정기 제조업	20.9	0.033	120	267
28119	기타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25.3	0.031	662	2,903
28121	전기회로 개폐, 보호 및 접속 장치 제조업	14.6	0.015	1,545	7,247
28122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제조업	23.9	0.022	3,824	7,048
28201	일차전지 제조업	59.5	0.153	25	272
28202	축전지 제조업	74.6	0.273	114	6,588
28301	광섬유 케이블 제조업	80.0	0.283	31	426
28302	기타 절연선 및 케이블 제조업	29.2	0.052	879	10,028
28303	절연 코드세트 및 기타 도체 제조업	19.4	0.026	373	809
28410	전구 및 램프 제조업	33.4	0.060	345	1,180
28421	운송장비용 조명장치 제조업	36.4	0.070	195	1,786
28422	일반용 전기 조명장치 제조업	10.5	0.007	1,171	1,828
28423	전시 및 광고용 조명장치 제조업	8.9	0.006	3,564	1,095
28429	기타 조명장치 제조업	45.2	0.101	95	125
28511	주방용 전기기기 제조업	79.0	0.282	349	8,073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28512	가정용 전기 난방기기 제조업	13.6	0.016	375	543
28519	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제조업	30.1	0.054	590	3,202
28520	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 기구 제조업	45.9	0.088	254	1,202
28901	전기경보 및 신호장치 제조업	30.2	0.049	163	399
28902	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제품 제조업	38.4	0.083	121	441
28903	교통 신호장치 제조업	24.2	0.035	122	292
28909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13.7	0.013	513	806
29111	내연기관 제조업	52.1	0.114	673	6,656
29119	기타 기관 및 터빈 제조업	89.6	0.669	45	1,027
29120	유압기기 제조업	14.0	0.013	1,174	2,754
29131	액체 펌프 제조업	32.2	0.051	401	1,293
29132	기체 펌프 및 압축기 제조업	42.4	0.083	366	2,579
29133	탭, 밸브 및 유사장치 제조업	7.2	0.006	1,258	4,097
29141	볼베어링 및 롤러베어링 제조업	42.3	0.093	286	1,680
29142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0.2	0.021	953	2,009
29150	산업용 오븐, 노 및 노용 버너 제조업	17.7	0.018	582	1,370
29161	산업용 트럭 및 적재기 제조업	43.8	0.127	108	546
29162	승강기 제조업	47.4	0.099	516	2,383
29163	컨베이어장치 제조업	8.5	0.007	830	1,913
29169	기타 물품취급장비 제조업	40.1	0.074	525	2,459
29171	산업용 냉장 및 냉동 장비 제조업	11.0	0.011	689	2,350
29172	공기조화장치 제조업	35.9	0.060	800	5,588
29173	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제조업	18.4	0.017	792	1,101
29174	기체 여과기 제조업	30.0	0.039	595	1,631
29175	액체 여과기 제조업	18.5	0.020	740	2,008
29176	증류기,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 제조업	20.7	0.032	325	2,835
29180	사무용 기계 및 장비 제조업	36.4	0.053	363	1,769
29191	일반저울 제조업	24.0	0.038	124	142
29192	용기세척, 포장 및 충전기 제조업	15.9	0.016	405	635
29193	자동판매기 및 화폐교환기 제조업	63.3	0.200	59	93
29194	분사기 및 소화기 제조업	28.3	0.038	211	654
29195	동력식 수지공구 제조업	29.7	0.048	169	266
29199	그 외 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제조업	17.8	0.016	756	1,570
29210	농업 및 임업용 기계 제조업	32.3	0.047	1,083	2,325
29221	전자응용 공작기계 제조업	21.5	0.028	234	563
29222	금속 절삭기계 제조업	53.8	0.133	1,072	4,422
29223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16.3	0.018	782	1,780
29229	기타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9.1	0.007	1,213	1,525
29230	금속 주조 및 기타 야금용 기계 제조업	28.0	0.042	195	487
29241	토목공사 및 유사용 기계장비 제조업	56.7	0.167	814	8,084
29242	광물처리 및 취급장비 제조업	14.3	0.019	191	349
29250	음·식료품 및 담배 가공기계 제조업	12.5	0.013	590	632
29261	산업용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32.8	0.044	268	416
29269	기타 섬유, 의복 및 가죽 가공 기계 제조업	23.7	0.038	618	619
29271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2.1	0.010	1,449	9,064
29272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 제조업	19.6	0.033	166	3,645
29280	산업용 로봇 제조업	39.2	0.086	241	1,472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29291	펄프 및 종이 가공용 기계 제조업	22.8	0.028	166	338
29292	고무, 화학섬유 및 플라스틱 성형기 제조업	21.4	0.023	525	1,192
29293	인쇄 및 제책용 기계 제조업	12.8	0.015	296	477
29294	주형 및 금형 제조업	3.5	0.002	7,943	8,926
29299	그 외 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5.1	0.003	1,735	3,339
30110	자동차용 엔진 제조업	97.7	0.741	29	2,830
30121	승용차 및 기타 여객용 자동차 제조업	89.7	0.301	26	67,300
30122	화물자동차 및 특수목적용 자동차 제조업	99.7	0.663	12	3,648
30201	차체 및 특장차 제조업	14.5	0.017	441	1,513
30202	트레일러 및 세미트레일러 제조업	44.6	0.095	37	104
30203	운송용 컨테이너 제조업	63.9	0.236	49	86
30310	자동차 엔진용 부품 제조업	24.7	0.034	1,348	13,172
30320	자동차 차체용 부품 제조업	21.7	0.024	1,165	15,521
30391	자동차용 동력전달장치 제조업	27.5	0.042	958	11,440
30392	자동차용 전기장치 제조업	45.1	0.085	456	5,948
30399	그 외 기타 자동차 부품 제조업	22.9	0.029	2,579	24,122
31111	강선 건조업	65.0	0.185	58	52,981
31112	합성수지선 건조업	47.4	0.152	73	115
31113	비철금속 선박 및 기타 항해용 선박 건조업	78.4	0.439	23	33
31114	선박 구성부분품 제조업	18.9	0.019	1,617	9,212
31119	기타 선박 건조업	96.6	0.920	82	6,650
31120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45.2	0.109	22	11
31201	기관차 및 기타 철도차량 제조업	98.4	0.901	10	1,630
31202	철도차량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	22.5	0.028	230	699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99.6	0.984	15	822
31321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100.0	NA	1	0
31322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	69.4	0.232	124	1,164
31910	전투용 차량 제조업	95.3	0.323	14	2,292
31920	모터사이클 제조업	73.9	0.252	113	365
31991	자전거 및 환자용 차량 제조업	46.6	0.090	74	74
31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운송장비 제조업	27.7	0.049	129	130
32011	운송장비용 의자 제조업	30.6	0.054	383	4,427
32012	매트리스 및 침대 제조업	35.3	0.054	155	210
32019	소파 및 기타 내장가구 제조업	13.0	0.011	783	290
32021	주방용 및 음식점용 목재가구 제조업	28.6	0.034	3,936	1,300
32022	나전칠기가구 제조업	50.4	0.110	34	8
32029	기타 목재가구 제조업	11.3	0.007	3,834	3,723
32091	금속 가구 제조업	14.5	0.012	1,035	1,491
32099	그 외 기타 가구 제조업	14.4	0.017	261	295
33110	귀금속 및 관련제품 제조업	37.1	0.059	1,326	869
33120	모조 귀금속 및 모조 장신용품 제조업	15.1	0.014	678	345
33201	피아노 제조업	88.2	0.399	7	9
33202	현악기 제조업	58.2	0.147	64	44
33203	전자악기 제조업	38.4	0.084	39	105
33204	국악기 제조업	32.5	0.057	51	15
33209	기타 악기 제조업	37.0	0.071	75	64
33301	체조, 육상 및 체력단련용 장비 제조업	17.2	0.022	200	269

산업분류	산업명	CR3	HHI	기업수	매출액 (억 원)
33302	놀이터용 장비 제조업	28.7	0.042	114	181
33303	낚시 및 수렵용구 제조업	23.0	0.031	259	255
33309	기타 운동 및 경기용구 제조업	18.7	0.026	222	242
33401	인형 및 장난감 제조업	19.4	0.024	358	299
33402	영상게임기 제조업	63.1	0.175	45	47
33409	기타 오락용품 제조업	40.7	0.081	48	37
33910	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	3.1	0.001	8,237	1,445
33920	사무 및 회화용품 제조업	21.3	0.027	1,524	420
33931	가발 및 유사 제품 제조업	34.0	0.071	131	95
33932	조화 및 모조장식품 제조업	24.8	0.037	162	44
33933	표구 및 전사처리 제조업	12.0	0.011	1,398	116
33934	교시용 모형 제조업	9.2	0.011	384	308
33991	우산 및 지팡이 제조업	45.6	0.098	55	28
33992	단추 및 유사 파스너 제조업	28.1	0.058	595	508
33993	라이터, 연소물 및 흡연용품 제조업	58.5	0.143	96	229
33994	비 및 솔 제조업	18.6	0.023	291	337
33999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18.1	0.021	329	216

제4장 경제총조사와 연계분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의 연계

제1절 경제총조사 자료와의 연계 필요성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적인 통계조사들은 해당 조사의 범위와 대상이 개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황진단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 추출과 통계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장 기본 단위인 사업장의 개별 자료를 중심으로 분석한 경제총조사와 다양한 연계자료를 구축하는 것은 보다 심도 깊은 연구와 정책개발에 필수적이다. 이미 조사가 이루어진 기존의 통계자료를 경제총조사와 연결함으로써 추가적인 조사비용 없이 확장된 통계자료를 구축할 수 있으며, 통계자료간의 연계 활용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 예를 들면, 경제총조사를 광업제조업조사(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기업활동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 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등의 자료와 연계하거나, 패널자료를 구축하여 장단기적인 정책목표의 유효성 검증에 활용할 수 있다.

의료산업은 전반적으로 시장구조의 정보가 부족하며, 지역 내 병원 및 개별 환자의 개인적 정보에만 의존하여 국소적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의료산업 분석에 사용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는 각 병원의 매출액, 수익과 같은 회계정보가 없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정보는 이윤추구가 목적의 일환인 사립병원을 분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경제총조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결여되어 있는 회계자료 및 사업체자료(종사자수, 모기업 정보, 기업연령 등)를 연계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정책적으로 의미 있게 활용가능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다.

제2절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관련 자료 결합과정

1.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 자료의 현황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단일 보험자 시스템이며 각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함으로써 전 국민의 의료이용 자료가 축적되어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최근 환자의 의료이용 양상 및 결과(outcom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 서

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하여 보건의료산업의 전반적인 자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총조사와 심평원에서 조사하고 있는 의료기관 현황자료는 <표 4-1>과 같다.

<표 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경제총조사의 자료 현황

	경제총조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료기관 관련 자료
일반 현황	· 사업체명, 대표자명, 창설연월, 소재지, 사업자 등록번호, 조직형태	· 의료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명, 요양종별, 설립구분, 표시과목, 세부표시과목, 개설일, 폐업일
인력 현황	· 종사자수, 급여액 · 상용근로자, 임시 및 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요양보호사, 특수교사, 기타 직종 종사자수 조사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등 종사자수
시설현황		· 입원병상수, 특수병실수
장비보유 현황		· 유방촬영용 장비, CT, MRI, 골밀도 검사기, PET, 레이저수술기, 체외충격파쇄석기 등
자산/ 수익/ 비용현황	· 유형자산: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선박, 기타로 구분하여 연초 잔액, 연간 증감액, 연간 감가상각비, 연말 잔액 · 무형자산: 산업재산권, 저작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기타로 구분하여 연초 잔액, 연간 증감액, 연간 감가상각비, 연말 잔액 · 사업수익, 보조금(정부, 개인, 단체 및 기관, 상부기관), 주사업 이외 수익 · 재료매입비, 급여총액,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경상연구개발비, 대손상각비, 기타 영업비용	
청구 현황		· 청구건수, 환자수, 내원일수, 건강보험 청구금액, 건강보험 심결금액(최종 의료기관 지급액) 등 의료기관 진료내역 전체 · 진료내역을 토대로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수익, 환자 구성, 진료 행태 등을 파악할 수 있음.

2010년 12월 현재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337개, 병원급(치과병원, 한방병원 포함) 2,843개, 의원(치과의원, 한의원 포함) 54,800개, 약국 21,463개로 사업체수가 매우 많지만 의원이나 약국의 경우는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할 수 있으며, 대부분 민간기관으로 자료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다. 한편, 현재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매년 '병원경영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재무상태, 생산성, 수익 등을 분석하고 있으나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만을 대상으로 표본조사를 수행하기 때문에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결국 심평원과 통계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경제총조사와의 자료연계를 추진하였다. 협의과정은 <표 4-2>와 같다.

<표 4-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협조 관련 협의 회의록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본입장은 연구주제에 꼭 필요한 항목만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꼭 필요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어려운 것인가요? 아니면 연계에 기초하여 주제를 발굴하여야 합니까?

- 꼭 필요한 주제를 제시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경제총조사 자료를 외부 자료와 연계하는 것이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했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자료를 분석하다보면 좋은 연구 주제에 대한 직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요약하면, 현재 예측하고 있는 주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며 자료를 분석하면서 다른 주제는 더 발굴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방법을 통하여 경제총조사의 활용도가 높아지는 것입니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구항목에 관한 질의 내용입니다.

1. 인력 현황, 의료장비 현황, 시설현황, 환자수 현황이 꼭 필요한 항목입니까?

   - 경제총조사에는 없는 자료이며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 정보입니다.

2. 일반적인 현황: 병원별 표시과목과 세부 표시과목의 차이점을 검토해 주십시오

   - 예를 들어 설명하면 내과는 표시과목이고 소화기내과, 순환기내과 등은 세부 표시과목입니다. 종합병원 이상에서는 표시과목 내에 세부표시과목이 중요하지만 자료의 분량이 많아지거나 산출이 어렵다면 표시과목만으로도 분석은 가능합니다.

3. 환자수 현황 - 외래 환자수, 입원환자수(총수, 진료과목별 수, 초진 환자수, 재진

환자수)

- 환자수 현황 자료는 병의원의 생산성(생산 규모)과 관련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환자수가 진료과목을 구분하여 필요한 이유는 각 병의원의 수익구조를 분석하는데 있어 주 진료 분야를 알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업체도 주력 생산 분야가 있는 것처럼 병의원도 주 진료 분야가 있습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진료과목이라는 대리변수(proxy)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4. 청구금액 현황

○ 청구건수(총수, 외래, 입원)

- 현재 경제총조사 자료에 투입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전체 생산량(volume), 수입에 대한 자세한 자료가 있어야만 병의원의 생산성에 대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생산량에 대한 자료는 청구건수와 환자수이다. 따라서 청구건수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입니다.

○ 재원기간별 입원건수(총수, 진료과목별)

- 입원에 대한 분석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산업에서 점유율이 높다고 판단되는 종합병원 이상의 대형 병원을 분석하는데 특히 중요한 자료이다. 입원건수는 이러한 병원의 생산량 분석의 기본 자료이며 진료과목은 주 생산 분야를 나타낸다.

5. 병원평가정보

○ 병원평가정보 맨 위의 항목 급성심근경색을 예로 들면
- 병원별 항생제 처방률
- 병원별 항생제 투약일수율
- 병원별 급성상기도감염항생제처방률
- 주사제 처방률
- 주사제 투약일수율
- 약품목수
  · 처방건당 약품목수(개)
  · 6품목 이상 처방비율
  · 소화기관용약처방률(%)
- 투약일당 약품비

- 고가약 처방비중
- 고가약 처방약품비 비중

- 홈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급성심근경색의 지표는 ① 평가대상 건수, ②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③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④ 병원도착 시 아스피린 투여율, ⑤ 퇴원시 아스피린 투여율, ⑥ 퇴원시 베타차단제 투여율, ⑦ 생존자 수입니다. 이미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 내용이며 모든 평가항목에 대해서 모든 병의원이 평가를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료의 양이 많지 않습니다. 병원 평가정보는 병의원의 비용과 질을 분석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경제총조사에는 심평원의 자료로는 알 수 없는 비용 부분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질에 대한 자료만 확보된다면 비용-질이라는 중요한 주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질 수 있다.

2.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입수 과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의 통합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자료 간의 연계과정의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한다. 통계청의 적극적인 주도로 심평원에 자료협조를 수차례 요청하였으나, 자료의 통합과정은 느리게 진행되었다. 특히, 통계청은 의료산업 전반의 시장구조 분석 등을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경제총조사 자료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다. 심평원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였으나, 실제 연계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국정감사 등의 내부사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료통합에는 4개월이 소요되었다. 즉, 연구초기에 자료연계 협상이 시작되었으나, 자료의 통합은 연구가 끝나가는 시점에 완료되었다.

입수과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통계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자간의 1차 실무회담이 2012년 6년 27일(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층 회의실에서, 통계청 1인, 심평원 3인, 연구자 1인이 참석하여 자료통합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회의목적은 자료입수 가능 여부와 필요한 절차를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주요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많은 예산과 인력이 동원된 경제총조사의 활용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자료와 연계의 필요성 강조
- 심평원 자료는 개별 병원의 민감한 자료가 많기 때문에 좀 더 논의가 필요

함 ⇒ 활용성 측면에서 가능하면 협조하는 방안으로 검토

통계청의 자료제공에 대한 심의는 자체적으로 2012년 7월 16일(월), 정부대전청사 3동 12층 소회의실에서 열린 **자료제공심의위원회**(참석자: 통계자료제공심의회 위원장 및 위원 등 21명)에서 통과하였다**.**

<표 4-3> 자료제공심의위원회 결과

요청부서	심의 안건	심의결과
경제총조사과	•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연계 분석을 위해, 식별가능 형태의 경제총조사 마이크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반출 - 목적: 성균관대학교와 공동연구 - 반출자료: 2010년 경총 산업중분류 87의 보건업 마이크로데이터 (사업체명, 대표자명,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종사자수 및 연간급여액, 영업기간, 유형자산, 무형자산, 사업실적 및 각 항목)	**원안 의결**

1차 실무회담이 열린 후 1개월이 지난 시점인 2012년 7월 27일(금)에 2차 실무회담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층 회의실에 열렸다. 참석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명과 통계청 6명이 참석하였다. 주요 회의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자료 요구가 너무 광범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전체를 요구하는 것과 같음 ⇒ 요구자료를 좁히는 작업을 지난주에 1차로 했고, 계속 심평원과 의논하여 필요한 항목으로 좁힐 예정

2012년 8월 20일(월)에 통계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는 방대하므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만 요청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제발굴과 관련하여 경제총조사 자료와 외부 자료를 연계하는 것은 처음하는 시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했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실제 자료를 분석하다보면 좋은 연구주제에 대한 직관을 가지게 될 수도 있음.

<표 4-4> 자료제공 요청사항 및 관련 연구주제

구분	내용	연구주제
일반적인 현황	- 요양기관명 - 대표자명 - 요양기관 종별 - 설립구분 - 표시과목 - 주소 - 개설일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인력 현황	- 의사수(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과목별 전문의) - 간호사수, 간호조무사수 - 한의사수, 치과의사수 - 기타 인력의 종류와 수(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장비 현황	-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수 - 기타 의료장비의 수	
시설 현황	- 병상총수 - 일반입원실의 병상수(총수, 상급병실 병상수, 일반병실 병상수) - 중환자실 병상수 - 특수진료실 병상수	
환자 수 현황	- 실환자총수 - 환자연령 분포 - 외래환자수(총수, 진료과목별 수, 초진 환자수, 재진환자수) - 입원환자수(총수, 진료과목별)	병원의 생산성(생산규모) 파악, 수익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요, 주진료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청구금액 현황	- 심결진료비(총금액, 외래, 입원) - 청구건수(총수, 외래, 입원) - 입원일수(총수, 환자당 입원일수) - 수술건수(총수, 진료과목별) - 4대 분류별 심결진료비 - 10항별 심결진료비 - 재원기간별 입원건수(총수, 진료과목별)	- 청구건수는 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므로 병원의 생산성 분석에 필요 - 입원건수 대형병원의 점유율을 분석하는데 필요, 병원의 생산량 분석의 기본자료 - 수술건수는 병원전체의 수술건수 - 재원기간별은 7일 이하, 7일 초과 14일 이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1일 초과
병원 평가 정보	- 급성 심근경색(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급성기뇌졸중(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고혈압(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혈액투석(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의료급여 정신과(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수술별 진료량(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제왕절개 분만(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관상동맥우회술(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항생제 처방률(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주사제 처방률(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약품목수(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처방약품비(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요양병원(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병의원의 비용과 질을 분석하기 위함 - 지표별 결과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지표 - 급성심근경색의 지표는 예를 들면 ① 평가대상건수 ②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③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④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⑤ 퇴원시 아스피린 투여율 ⑥ 퇴원시 베타차단제 투여율 ⑦ 생존자수

이러한 통계청의 요청에 대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답변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4-5> 자료요청에 대한 심평원 의견

구분	내용	연구주제	심사평가원 의견
일반 현황	- 요양기관명 - 대표자명 - 요양기관 종별 - 설립구분 - 표시과목 - 주소 - 개설일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미제공 · 요양기관을 파악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기로 협의
인력 현황	- 의사수(일반의, 인턴, 레지던트, 전문과목별 전문의) - 간호사수, 간호조무사수 - 한의사수, 치과의사수 - 기타 인력의 종류와 수(약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제공가능 · 인력(시설)의 현황 작성시점 협의 필요 (2010년 12월 말 기준) ※ 인력과 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이 수시로 발생하여 작성시점에 따라 수치가 달라질 수 있음[5]
의료 장비 현황	- CT, MRI 등 **고가의료장비의** 수 - 기타 의료장비의 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제공가능 · 장비의 현황 작성시점 협의 필요 (2010년 12월말 기준) · CT, MRI와 기타 장비로 구분 ※ 고가장비의 개념이 불분명하고 구분할 수 없음
시설 현황	- 병상 총수 - 일반입원실의 병상수(총수, 상급병실 병상수, 일반병실 병상수) - 중환자실 병상수 - 특수진료실 병상수	의료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	- 제공가능 · 인력(시설)의 현황 작성시점 협의 필요(2010년 12월 말 기준)
환자 수 현황	- 실환자 총수 - 환자연령분포 - 외래환자수(총수, 진료과목별 수, 초진환자수, 재진환자수) - 입원환자수(총수, 진료과목별)	병원의 생산성(생산규모) 파악, 수익구조를 분석하는데 필요, 주진료 분야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	- 제공가능
청구 금액 현황	- 심결진료비(총금액, 외래, 입원) - 청구건수(총수, 외래, 입원) - 입원일수(총수, 환자당 입원일수) - 수술건수(총수, 진료과목별) - 4대 분류별 심결진료비 - 10항별 심결진료비 - 재원기간별 입원건수 (총수, 진료과목별)	- 청구건수는 생산량에 대한 자료이므로 병원의 생산성 분석에 필요 - 입원건수 대형병원의 점유율을 분석하는데 필요, 병원의 생산량 분석의 기본자료 - 수술건수는 병원전체의 수술건수 - 재원기간별은 7일 이하, 7일 초과 14일 이	- 4대분류별 및 10항별 심결진료비 미제공 - 재원기간별 입원건수(총수, 진료과목) 미제공 ※ 자료가 방대함

구분	내용	연구주제	심사평가원 의견
		하, 15일 초과, 30일 이하, 31일 초과	
병원 평가 정보	- 급성심근경색(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급성기뇌졸중(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고혈압(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혈액투석(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의료급여 정신과(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수술별 진료량(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제왕절개 분만(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관상동맥우회술(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항생제 처방률(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주사제 처방률(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약품목수(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처방약품비(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요양병원(지표별 결과, 종합결과)	- 병의원의 비용과 질을 분석하기 위함 - 지표별 결과는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대국민에게 공개하는 지표 - 급성심근경색의 지표는 예를 들면 ① 평가대상건수 ② 병원도착 30분 이내 혈전용해제 투여율 ③ 병원도착 90분 이내 primary PCI 실시율 ④ 병원도착시 아스피린 투여율 ⑤ 퇴원시 아스피린 투여율 ⑥ 퇴원시 베타차단제 투여율 ⑦ 생존자수	- 제공가능 ·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수준 ※ 처방약품비는 2010년 이후 평가한 내용으로 해당사항 없음

3차 실무회담은 2012년 9월 5일(수)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11층 회의실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4명과 통계청 3명이 참석하였다. 회의내용은 다음과 같다.

- 4대분류별 심결진료비와 10항별 심결진료비는 병원의 주요 수입구조를 파악하는 중요 자료이고 재원기간은 환자를 오래 입원시켜 수입을 도모하는 영세병원의 잘못된 경영형태파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함.
  ⇒ 위 3가지 항목의 중요성은 이해하지만 내부적으로 집계하는데 많은 시일과 작업이 요구되어 제공불가

자료통합이 늦어지고, 연구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가는 시점에서, 통계청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2012년 10월 9일(화)에 4차 방문하였다. 통계청에서 심평원에 연락을 취하면, 담당자의 교체이유 등으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통계청이 주도적이며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때 자료연계 일시가 늦어지는 이유를

5) 인력현황의 정확한 신고일자는 매월 15일이며, 일자가 달라진다면 이에 대한 변동이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의사수의 차이에 따라 심결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석에서의 주의를 요함.

파악하고 조속한 연계 일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방문결과는 2012년 10월 17일(수)에서 19일(금)까지 연계하기로 잠정 결정하였다.

자료연계는 2012년 10월 18일(목)~19일(금)의 2일간에 통계청 3인이 심평원을 방문하여 자료연계를 시도하였다. 자료연계율은 55,770개 중 93%이고, 연계키는 사업자등록번호이었으며, 식별자료를 제외하고 엑셀형태로 반출하였다.

제3절 자료연계를 통하여 가능해진 보건의료 분야 관련 주제

1. 건강보험 재정 관련 거시적 분석

1.1. 진료비 증가요인 분석

건강보험 진료비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2009년 대비 2010년에는 12.1%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건강보험 진료비가 증가하는 요인에 대하여 이용자 측면, 공급자 측면의 분석이 필요한데 현재까지는 인구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 내원일수 증가 등의 이용자 측면에 초점을 두어 실증분석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하면 공급자 측면에서 수익구조, 경쟁구조 등의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할 수 있으며, 자료의 축적을 통해 시계열 자료가 생성된다면 건강보험 재정 추계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1.2. 비급여 비중 분석

현재 건강보험 진료비는 급여 부문의 진료비와 비급여 부문의 진료비로 구분할 수 있다. 비급여 부문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에서 청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가입자 대상의 표본조사를 통하여 전체 의료비 중 비급여 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을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제총조사에서 수익변수가 있기 때문에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급여 진료비를 제외하면 각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가 산출되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전체 비급여 진료비 총액을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2. 보건의료 시장 분석

2.1 의료기관의 수익구조 분석

보건의료 시장은 병원 등 의료기관과 제약회사를 포함하는 공급자와 환자 등 소비자로 구성된다. 현재 환자의 의료이용(소비행태)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로 설명할 수 있으나 공급자에 대해서는 파악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병상수, 인력의 종류 및 수, 장비의 종류 및 수, 건강보험 수입자료 등을 보유하고 있으나 비용이나 수익에 대한 자세한 자료는 조사하지 않는다. 따라서 경제총조사의 기관별 매출액 자료와 인구특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환자수 및 내원일수 자료 등을 연계한다면 의료기관 경영상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이와 같은 분석은 지역별로도 실시할 수 있으며 특정 종별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최근 요양병원의 급증, 병의원 경영난 등의 현상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할 수 있다.

2.2 의료기관의 진료행태 관련 분석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와 관련해서는 많은 주제의 분석이 가능한데, 예를 들면 고가의료장비 도입과 관련하여 현재 매출액과 지역 내에서의 경쟁도 등을 이용하면 관련 요인을 도출할 수 있다. 진료행태 관련 분석을 통하여 향후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3. 보건의료정책 효과 분석

시계열 자료가 축적된다면 시사성이 있는 분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다. 특히, 건강보험진료비(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경제총조사에서 산출되는 비용과 수익을 결합한다면, 보건의료정책이 의료기관 수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 실시하고 있는 7대 질병 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를 분석하여 포괄수가제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밖에도 각종 정책에 대한 향후 전망 측면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제시해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진료비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을 진행하는 것이 유용하게 작용할 수 있다.

제4절 보건업 경제총조사 현황분석

본 절에서는 경제총조사 자료 중 보건업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각 사업체의 지역별 현황과 수익성 지표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표 4-6> 시도별 병원/의원/공중보건기관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인구 (단위: 천 명)	병원급		의원급		공중보건 및 기타		합계
서울	9,631	386	(2.51)	14,480	(94.26)	495	(3.22)	15,361
부산	3,393	261	(5.87)	4,008	(90.09)	180	(4.05)	4,449
대구	2,432	166	(5.09)	2,929	(89.79)	167	(5.12)	3,262
인천	2,632	114	(4.22)	2,454	(90.89)	132	(4.89)	2,700
광주	1,466	119	(6.56)	1,585	(87.38)	110	(6.06)	1,814
대전	1,490	86	(4.32)	1,794	(90.02)	113	(5.67)	1,993
울산	1,072	79	(6.32)	1,089	(87.12)	82	(6.56)	1,250
특별/광역시 계	22,116	1,211	(3.93)	28,339	(91.92)	1,279	(4.15)	30,829
경기	11,196	515	(4.27)	10,826	(89.74)	723	(5.99)	12,064
강원	1,464	77	(4.64)	1,242	(74.77)	342	(20.59)	1,661
충북	1,496	76	(4.31)	1,362	(77.3)	324	(18.39)	1,762
충남	2,000	119	(4.92)	1,813	(75.01)	485	(20.07)	2,417
전북	1,766	146	(5.87)	1,870	(75.22)	470	(18.91)	2,486
전남	1,729	139	(6.16)	1,518	(67.32)	598	(26.52)	2,255
경북	2,575	173	(5.8)	2,170	(72.75)	640	(21.45)	2,983
경남	3,120	222	(6.31)	2,744	(77.98)	553	(15.71)	3,519
제주	528	17	(2.47)	566	(82.39)	104	(15.14)	687
도별 계	25,874	1,484	(4.97)	24,111	(80.82)	4,239	(14.21)	29,834
총계	47,991	2,695	(4.44)	52,450	(86.46)	5,518	(9.1)	60,663

시도별 병원과 의원 및 공중보건기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병원급은 전체 의료기관 중 약 4%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원급은 약 86%, 기타 의료기관은 약 10%의 비율로 분포되어 있다. 특별시 및 광역시와 도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는데, 특별시와 광역시는 상대적으로 병원 혹은 기타 의료기관에 비하여 의원급의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으며, 도 지역은 공중보건 및 기타 의료기관의 비중이 높은 것을 볼 수 있다.

<표 4-7> 시도별 병원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종합병원		일반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서울특별시	59	(15.28)	239	(61.92)	62	(16.06)	26	(6.74)
부산광역시	27	(10.34)	219	(83.91)	10	(3.83)	5	(1.92)
대구광역시	12	(7.23)	131	(78.92)	16	(9.64)	7	(4.22)
인천광역시	12	(10.53)	90	(78.95)	3	(2.63)	9	(7.89)
광주광역시	21	(17.65)	68	(57.14)	6	(5.04)	24	(20.17)
대전광역시	9	(10.47)	67	(77.91)	4	(4.65)	6	(6.98)
울산광역시	5	(6.33)	67	(84.81)	4	(5.06)	3	(3.8)
특별/광역시 계	145	(11.97)	881	(72.75)	105	(8.67)	80	(6.61)
경기도	57	(11.07)	395	(76.7)	36	(6.99)	27	(5.24)
강원도	14	(18.18)	59	(76.62)	2	(2.6)	2	(2.6)
충청북도	9	(11.84)	63	(82.89)	1	(1.32)	3	(3.95)
충청남도	10	(8.4)	95	(79.83)	9	(7.56)	5	(4.2)
전라북도	14	(9.59)	118	(80.82)	5	(3.42)	9	(6.16)
전라남도	23	(16.55)	109	(78.42)	3	(2.16)	4	(2.88)
경상북도	18	(10.4)	143	(82.66)	5	(2.89)	7	(4.05)
경상남도	24	(10.81)	185	(83.33)	12	(5.41)	1	(0.45)
제주도	6	(35.29)	10	(58.82)	0	(0)	1	(5.88)
도별 계	175	(11.79)	1,177	(79.31)	73	(4.92)	59	(3.98)
총계	320	(11.87)	2,058	(76.36)	178	(6.6)	139	(5.16)

시도별 병원급 분포 현황 분석결과, 서울의 경우에는 일반병원보다 종합병원과 치과병원의 비중이 높았으며, 광주는 한방병원이 더 많이 분포하고 있었다.

<표 4-8> 시도별 의원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구분	일반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방사선/병리검사	
서울특별시	6,832	(47.18)	4,322	(29.85)	3,210	(22.17)	116	(0.8)
부산광역시	1,996	(49.8)	1,032	(25.75)	939	(23.43)	41	(1.02)
대구광역시	1,453	(49.61)	717	(24.48)	732	(24.99)	27	(0.92)
인천광역시	1,274	(51.92)	669	(27.26)	498	(20.29)	13	(0.53)
광주광역시	795	(50.16)	478	(30.16)	293	(18.49)	19	(1.2)
대전광역시	908	(50.61)	442	(24.64)	422	(23.52)	22	(1.23)
울산광역시	505	(46.37)	310	(28.47)	263	(24.15)	11	(1.01)
특별/광역시 계	13,763	(48.57)	7,970	(28.12)	6,357	(22.43)	249	(0.88)
경기도	5357	(49.48)	3,133	(28.94)	2,271	(20.98)	65	(0.6)
강원도	629	(50.64)	304	(24.48)	295	(23.75)	14	(1.13)
충청북도	733	(53.82)	302	(22.17)	317	(23.27)	10	(0.73)
충청남도	963	(53.12)	422	(23.28)	416	(22.95)	12	(0.66)
전라북도	996	(53.26)	435	(23.26)	418	(22.35)	21	(1.12)
전라남도	854	(56.26)	361	(23.78)	300	(19.76)	3	(0.2)
경상북도	1129	(52.03)	495	(22.81)	538	(24.79)	8	(0.37)
경상남도	1389	(50.62)	688	(25.07)	640	(23.32)	27	(0.98)
제주도	298	(52.65)	142	(25.09)	123	(21.73)	3	(0.53)
도별 계	12,348	(51.21)	6,282	(26.05)	5,318	(22.06)	163	(0.68)
총계	26,111	(49.78)	14,252	(27.17)	11,675	(22.26)	412	(0.79)

시도별 의원급 의료기관 분포를 살펴보면, 특별/광역시에 비하여 도 지역에 일반의원급 의료기관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치과병원은 특별시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한의원은 시도별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표 4-9> 시도별 공중보건 및 기타 보건업 현황

(단위: 개소(%))

지역 구분	공중보건		앰뷸런스		유사의료		그 외 기타	
서울특별시	43	(8.69)	10	(2.02)	387	(78.18)	55	(11.11)
부산광역시	31	(17.22)	5	(2.78)	126	(70)	18	(10)
대구광역시	30	(17.96)	2	(1.2)	124	(74.25)	11	(6.59)
인천광역시	57	(43.18)	2	(1.52)	65	(49.24)	8	(6.06)
광주광역시	20	(18.18)	2	(1.82)	81	(73.64)	7	(6.36)
대전광역시	21	(18.58)	1	(0.88)	87	(76.99)	4	(3.54)
울산광역시	24	(29.27)	2	(2.44)	53	(64.63)	3	(3.66)
특별/광역시 계	226	(17.67)	24	(1.88)	923	(72.17)	106	(8.29)
경기도	327	(45.23)	11	(1.52)	354	(48.96)	31	(4.29)
강원도	247	(72.22)	6	(1.75)	82	(23.98)	7	(2.05)
충청북도	263	(81.17)	4	(1.23)	52	(16.05)	5	(1.54)
충청남도	406	(83.71)	3	(0.62)	69	(14.23)	7	(1.44)
전라북도	401	(85.32)	6	(1.28)	55	(11.7)	8	(1.7)
전라남도	557	(93.14)	3	(0.5)	31	(5.18)	7	(1.17)
경상북도	557	(87.03)	9	(1.41)	72	(11.25)	2	(0.31)
경상남도	405	(73.24)	11	(1.99)	130	(23.51)	7	(1.27)
제주도	64	(61.54)	0	(0)	32	(30.77)	8	(7.69)
도별 계	3,227	(76.13)	53	(1.25)	877	(20.69)	82	(1.93)
총계	3,453	(62.58)	77	(1.4)	1,800	(32.62)	188	(3.41)

시도별 공중보건 및 기타 의료기관의 분포를 살펴보면, 도 지역에 공중보건 의료기관이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었다. 이는 보건소 등의 의료기관이 기초지방자치단체별로 분포되어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라 볼 수 있다.

<표 4-10> 업종별 사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원)

	경제총조사 전체		경제총조사(근로자 1명)		
	영업이익 평균	표준 편차	1인당 영업이익 평균	표준 편차	관측치
종합병원	2,211.14	8,918.19	2.91	9.07	317
(일반종합)	967.99	4,456.91	2.66	9.38	275
(상급종합)	10,506.24	20,121.25	4.61	6.99	42
일반병원	597.67	1,130.55	8.64	13.11	2,056
치과병원	1,108.53	6,021.74	24.78	22.24	178
한방병원	327.65	892.81	9.55	18.27	138
병원급	809.40	3,621.56	9.08	14.54	2,692
일반의원	159.86	287.45	27.49	25.9	26,098
치과의원	146.97	189.27	29.89	23.84	14,247
한의원	91.52	114.03	24.02	33.01	11,673
방사선/병리검사	380.15	1,395.16	24.47	36.92	411
의원급	142.87	264.87	27.35	27.31	52,429
공중보건	7.31	118.18	1.02	13.36	3,160
앰뷸런스	19.33	107.39	2.06	8.67	76
유사의료	19.55	40.18	9.03	10.9	1,784
그 외 기타	1,128.42	14,772.18	30.77	248.54	178
공중보건 및 기타	50.08	2,735.43	4.80	47.88	5,198
총계	164.62	1,144.95	24.59	30.11	60,319

의료기관의 규모 혹은 등급별로 영업이익(사업수익-사업비용)의 추이를 살펴보면, 영업이익은 각 등급별로 해당 산업분류에서 존재하는 의료기관의 영업이익을 평균값으로 도출한 것이며,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은 기관의 영업이익에서 의료기관의 총 근로자수(상용직, 일용직, 무급가족종사자 등)를 나누어 준 값을 활용한 것이다. 따라서 해당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근로자 1인이 얼마만큼의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혹은 1인당 창출되는 부가가치)를 판단할 수 있다.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에서 치과의원으로, 1인당 이익은 1년간 약 3,000만 원 수준이다. 다음으로 일반의원(약 2,750만 원), 치과병원(약 2,480만 원) 순서로 영업이익이 큰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종합병원과 일반병원 및 한방병원은 영업이익의 평균치가 의원급 혹은 다른 보건업사업장에 비하여 월등히 높으나, 근로자 1인당 창출되는 가치라 할 수 있는 영업이익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병원급 평균 1인당 900여만 원/의원급 평균 1인당 2,730여만 원).

<표 4-11> 경제총조사 유형자산 분야 변수 현황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토지	(1) 연초잔액	477	2,693.8	9,551.7
	(2) 연간증가액	167	597.5	2,736.1
	(3) 연간감소액	60	209.7	945.8
	(5) 연말잔액	499	2,749.8	9,595.9
건물	(1) 연초잔액	471	5,113.1	10,043.8
	(2) 연간증가액	220	899.5	2,944.9
	(3) 연간감소액	107	343.7	816.1
	(4) 연간감가상가비	318	220.8	433.3
	(5) 연말잔액	488	5,121.9	9,840.0
구축물	(1) 연초잔액	282	341.4	1,162.3
	(2) 연간증가액	139	360.9	1,793.6
	(3) 연간감소액	54	61.3	270.7
	(4) 연간감가상가비	204	72.3	281.8
	(5) 연말잔액	318	403.7	1,825.7
기계장치 용광로	(1) 연초잔액	355	1,071.0	3,631.0
	(2) 연간증가액	202	477.3	1,631.5
	(3) 연간감소액	75	330.2	1,071.4
	(4) 연간감가상가비	279	342.3	1,014.6
	(5) 연말잔액	396	899.9	3,560.3
선박 차량운반구	(1) 연초잔액	432	79.2	159.8
	(2) 연간증가액	200	40.8	55.2
	(3) 연간감소액	106	31.3	79.4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4) 연간감가상가비	329	26.8	45.3
	(5) 연말잔액	455	66.5	148.8
기타	(1) 연초잔액	508	1,533.3	6,197.9
	(2) 연간증가액	312	656.2	3,360.9
	(3) 연간감소액	107	585.5	2,977.3
	(4) 연간감가상가비	390	386.3	1,326.5
	(5) 연말잔액	529	1,459.4	6,288.2
건설 중인 자산	(1) 연초잔액	153	2,231.2	12,070.8
	(2) 연간증가액	114	964.0	2,774.6
	(3) 연간감소액	55	3,796.8	16,390.1
	(5) 연말잔액	213	1,131.4	6,305.5
합계	(1) 연초잔액	593	8,978.4	20,589.8
	(2) 연간증가액	403	1,903.3	6,015.3
	(3) 연간감소액	274	1,285.4	7,937.4
	(4) 연간감가상가비	457	743.9	1,838.2
	(5) 연말잔액	601	8,984.4	19,650.3

<표 4-12> 경제총조사 무형자산 분야 변수 현황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산업재산권	(1) 연초잔액	157	17.7	167.8
	(2) 연간증가액	43	12.1	76.2
	(3) 연간감소액	1	12.0	.
	(4) 연간감가상가비	47	2.2	12.9
	(5) 연말잔액	179	17.8	159.9
저작권	(1) 연초잔액	20	-	-
	(2) 연간증가액	3	-	-
	(3) 연간감소액	-		
	(4) 연간감가상가비	11	-	-
	(5) 연말잔액	48	-	-
[2]소프트웨어	(1) 연초잔액	51	90.4	446.9
	(2) 연간증가액	14	938.8	2,650.6
	(3) 연간감소액	-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4) 연간감가상가비	31	37.9	124.2
	(5) 연말잔액	81	204.7	1,148.7
개발비	(1) 연초잔액	86	19.6	70.5
	(2) 연간증가액	49	21.5	83.3
	(3) 연간감소액	-		
	(4) 연간감가상가비	53	3.8	19.1
	(5) 연말잔액	111	22.7	96.0
기타자산	(1) 연초잔액	103	1,708.8	8,146.6
	(2) 연간증가액	56	374.9	1,783.6
	(3) 연간감소액	-		
	(4) 연간감가상가비	75	96.8	812.0
	(5) 연말잔액	137	1,384.9	7,671.9
합계	(1) 연초잔액	324	571.2	4,650.9
	(2) 연간증가액	95	375.9	1,711.7
	(3) 연간감소액	67	0.2	1.5
	(4) 연간감가상가비	160	54.7	558.3
	(5) 연말잔액	335	632.9	4,971.4

<표 4-13> 경제총조사 사업실적 분야 변수 현황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매출액	합계			
	주사업영업수익	27,020	1,745.1	13,501.8
	주사업사업수익	7,638	366.4	1,643.9
	주사업보조금합계	5,202	459.4	1,904.1
	주사업보조금정부	1,913	15.1	169.7
	주사업보조금단체및기관	2,199	114.7	529.9
	주사업보조금상부기관	2,012	63.6	546.7
	주사업이외수익	2,532	117.0	2,359.8
영업비용	합계			
	재료매입비			

구분		관측치	평균	표준편차
	급여총액	28,249	612.6	5,737.6
	퇴직급여	15,909	59.0	512.6
	복리후생비	20,146	68.4	522.2
	임차료			
	세금과공과			
	감가상각비	14,664	140.9	912.0
	경상연구개발비	4,907	25.3	312.7
	대손상각비	5,038	11.3	81.9
	기타 영업비용			
영업이익		60,319	164.6	1,145.0

제5절 건강보험 자료와 경제총조사 자료를 연계한 통계분석

1. 종사자당 사업이익 추이 분석

경제총조사 자료와 건강보험자료를 연계하여 시도할 수 있는 분석 중, 보건업종에서의 근로자 특성의 비율에 따른 사업이익의 추이를 분석한 결과 어떠한 직급 혹은 전문성을 지닌 근로자의 부가가치가 보건업종의 사업이익에 기여하는 비중이 높은지 판단할 수 있다. 경제총조사 자료는 사업이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보건업을 포함한 모든 업종(제조업, 건설업 등)에 대한 조사이므로 보건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의 특성만을 특별히 조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즉, 보건업 종사자는 의사, 약사, 간호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등의 특성을 가진 근로자가 사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와 결합함으로써 사업이익을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병원의 등급별, 근로자의 특성별 1인당 사업이익의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각 특성별 보건업 종사자가 병원의 사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추출하였다.

경제총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의 비율이었으나(<표 4-10> 참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결합함으로써 의사 1인당 영업이익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표 4-14> 참고). 이를 통하여 보건업 사업장에 주된 이익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표 4-14> 업종별 사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원)

	경제총조사(근로자 1명)		심평원자료 결합(의사 1명)	
	1인당 영업이익 평균	표준편차	의사 1인당 영업이익 평균	표준편차
종합병원	2.91	9.07	24.77	82.13
(일반종합)	2.66	9.38	25.70	87.76
(상급종합)	4.61	6.99	20.57	33.12
일반병원	8.64	13.11	109.22	169.95
치과병원	24.78	22.24	150.74	156.94
한방병원	9.55	18.27	75.47	168.94
병원급	9.08	14.54	90.05	144.49
일반의원	27.49	25.9	128.30	135.97
치과의원	29.89	23.84	122.62	109.82
한의원	24.02	33.01	84.68	96.23
방사선/병리검사	24.47	36.92	155.98	304.48
의원급	27.35	27.31	122.89	161.62
공중보건[6]	1.02	13.36	3.44	50.9
앰뷸런스	2.06	8.67	-	-
유사의료[7]	9.03	10.9	-4.97	32.57
그 외 기타	30.77	248.54	30.92	42.04
공중보건 및 기타	4.80	47.88	9.80	41.84
총계	24.59	30.11	112.86	126.74

주: 경제총조사에서 영업이익과 근로자수를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자료에서는 의료인의 수(의사)를 사용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사현황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근로자 1인당 기여율과 매우 다른 결과를 나타냈다. 의사 1인당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112백만 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방사선, 치과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의 순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들 의료기관에 해당하는 의사는 1인당 약 12,000만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방병원과 한의원 및 종합병원은 상대적으로 의사 1인당 영업이익의 크

6) 공중보건은 보건소만 해당됨.
7) 유사의료 업종에 대한 정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에서의 구분이 상이하기 때문에 해석상의 주의를 요함.

기가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 중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인턴의 혹은 수련의의 비중이 다른 병원보다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종합병원과 의원급의 의사 1인당 수익성에는 차이가 컸으며, 이는 의료인의 노동생산성이 어떤 구분의 사업체에 소속되어 있는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표 4-15> 업종별 종사자 구성별 사업이익 추이

(단위: 백만 원)

	의사	의사 간호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종합병원	25.01	7.0	6.1	5.6	5.3	5.1
(일반종합)	25.70	6.7	5.7	5.3	5.0	4.7
(상급종합)	20.57	9.1	8.3	7.9	7.6	7.5
일반병원	109.22	34.3	21.4	20.5	19.2	17.1
치과병원	150.74	142.1	122.0	117.9	113.7	113.6
한방병원	75.47	32.3	19.0	18.9	18.6	18.2
병원급	100.29	38.2	26.2	25.2	23.9	22.3
일반의원	128.30	105.7	44.4	42.7	40.9	37.8
치과의원	122.62	120.9	79.4	79.4	79.4	79.4
한의원	84.68	80.7	50.8	50.8	50.8	50.8
방사선/병리검사	156.41	122.0	96.8	70.0	41.8	41.8
의원급	117.35	104.5	55.8	54.8	53.6	52.1
공중보건	3.44	0.9	0.8	0.8	0.7	0.7
앰뷸런스						
유사의료	-4.97	-5.0	-0.1	-0.1	-0.1	-0.1
그 외 기타	30.92	16.8	15.4	12.5	12.4	12.4
공중보건 및 기타	3.63	1.0	0.9	0.9	0.8	0.8

주: 경제총조사에서 영업이익을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자료에서는 의료인의 수를 사용하였다.

<표 4-16> 업종별 의사 1인당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는 사업장의 비중

병원급		의원급		공중보건/기타	
구분	1인당 영업이익 손해 비율	구분	1인당 영업이익 손해 비율	구분	1인당 영업이익 손해 비율
종합병원	29.70%	일반의원	2.10%	공중보건	6.20%
상급종합	14.30%				
일반종합	32.10%				
일반병원	10.50%	치과의원	1.70%	앰뷸런스	
치과병원	5.10%	한의원	1.70%	유사의료	14.30%
한방병원	15.80%	방사선/병리검사	4.70%	그 외 기타	0.00%
병원급	12.70%	의원급	1.90%	공중보건/기타	6.20%

주: 경제총조사에서 영업이익을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자료에서는 의료인의 수(의사)를 사용하였다.

한편, 보건업 사업장을 구분하여 의사 1인당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가지는 사업장의 비중을 살펴보아, 각 구분별 손해보는 사업장의 비중을 알아볼 수 있다. 병원급에서는 12.70%의 사업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원급은 1.9%의 사업장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세부적으로 종합병원은 약 29.70%의 사업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일반종합병원 등급의 병원이 가장 많은 손실을 나타내고 있다(32.10%의 병원이 음의 순이익을 보임). 이는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인턴, 레지던트 등 수련의의 수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방병원은 15.8%의 사업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의 병원을 살펴보면, 방사선 및 병리검사 사업장 중 4.70%의 사업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치과병원과 한방병원은 1.70%의 사업장이 이익을 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보건업 사업장 중 1인당 영업이익을 보지 못하는 병원급의 사업장이 의원급보다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가 큰 보건업 사업장일수록 수익성 측면에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8] 이에 대한 결과는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 자료와의 직접적인 연계를 통한 분석결과이므로, 세부적으로

8) 일반적으로 병원급 보건업 사업체는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직원에게 적용되는 비용이 인건비로 처리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의원급 사업체는 개인사업체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의사의 인건비를 비용으로 산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분석결과에 대한 해석시 유의하여야 한다.

변수에 대한 정의 및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향후 연구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2. 보건업 사업장의 사업비용과 수익(심결급여액) 비율 추이

경제총조사 자료에서는 사업장별 사업비용과 사업수익 및 영업이익을 모두 조사하고 있으나, 조사과정에서 사업장이 자의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보건업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할 수 있는 자료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제공하는 병원별 심결급여액 자료를 결합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결국 병원의 수익은 심결급여액이라 할 수 있으므로 이를 수익으로 간주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업종별 평균 사업비용(경제총조사 자료)와 평균 심결급여액(건강보험 자료)을 계산하여 비용과 수익의 크기를 판단할 수 있었으며, 비용과 수익의 비율을 계산하여 각 업종별 수익성을 판단하였다. 각 항목별 계산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진다.

$$Average\ Cost = \frac{\sum_{i}^{n} Cost_i}{n}$$

$$Average\ Revenue = \frac{\sum_{i}^{n} Revenue_i}{n}$$

$$CR\ ratio = \frac{Average\ Revenue}{Average\ Cost}$$

$CR\ ratio$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경우는 수익이 더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업종의 사업장에서는 수익성이 좋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면 수익성이 낮은 업종으로 볼 수 있다. <표 4-17>을 통해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병원급 혹은 의원급에서 비용 대비 수익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업종은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의원, 한의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방병원 및 한의원은 비용 대비 수익이 1을 넘기고 있으나, 치과병원과 치과의원의 경우에는 비용 대비 수익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치과의 경우 비급여 항목이 많아 건강보험 수익이 상대적으로 낮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분석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17> 업종별 사업비용, 평균 심결급여액, 비용 대비 수익

	관측치	평균 사업비용	평균 심결급여액	비용 대비 수익 (평균)	비용 대비 수익 (중앙값)
종합병원	309	47,411.5	58,621.1	0.83	0.72
상급종합	42	198,306.3	163,491.6	1.02	0.87
일반종합	267	37,914.6	28,580.3	0.71	0.80
일반병원	1,242	4,054.8	4,316.0	0.97	0.79
치과병원	176	3,244.8	5,844.6	0.23	0.16
한방병원	133	1,404.1	2,699.5	1.01	0.47
병원급	1,863	11,050.1	10,781.7	1.03	0.71
일반의원	24,473	397.6	348.3	1.77	1.34
치과의원	13,784	94.7	267.2	0.52	0.41
한의원	10,985	143.9	166.4	1.14	0.95
방사선/병리검사	265	1,488.6	3,264.4	4.65	0.52
의원급	49,507	262.8	308.7	1.30	0.96
공중보건	1,526	166.0	559.3	3.66	0.91
앰뷸런스	0				
유사의료	5	9,337.5	44.2	242.11	146.51
그 외 기타	18	8,641.9	1,906.4	69.78	0.49
공중보건 및 기타	1,549	294.1	402.2	5.20	0.91

주: 경제총조사에서 영업비용을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자료에서는 수익자료인 심결급여액을 사용하였다.

3. 사업비용이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에 미치는 영향

의료의 질과 비용에 대한 연구문헌에서는 비용을 건강보험 청구금액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건강보험 청구금액은 실제 투입비용이라기보다는 건강보험이라는 공보험제도 하에서 인정되는 비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투입비용을 부분적으로 적용하고자 한다.

경제총조사에는 인건비 및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보고하고 있다. 그 중에서 뇌졸중을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는 뇌졸중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크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통계청의 2010년 사망통계에 의하면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은 인구 10만 명당 53.2명으로 암에 이어 사망원인

2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도 매우 높은 편이다.[9] 한편, 2009년도에 뇌졸중으로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은 환자는 총 524,689명이었으며 이는 2005년에 비해 18.5% 증가한 수치이다. 진료비는 8,703억 원으로 2005년 대비 54.7%가 증가하였다.[10] 둘째는 뇌졸중은 일단 발생하면 사망 또는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통해 과학적 근거가 분명한 예방 및 치료방법이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뇌졸중과 관련된 다양한 임상 의학회가 모여 '뇌졸중 진료지침'을 발간하였으며 실제 진료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뇌졸중 관련 평가를 받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이들 사업자의 사업비용의 평균값은 85,221백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하여 평균값 이상의 사업장을 고비용 사업장으로 정의하고, 평균값 이하의 사업장을 저비용 사업장으로 정의하였다. 보건업 사업장에서 보고되고 있는 사업비용과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표 4-18> 병원의 비용구조와 평가등급의 관계 비교

평가등급	고비용사업장		저비용 사업장	
	사업장수	고비용사업장 전체 대비 비율(%)	사업장수	저비용사업장 전체 대비 비율(%)
1등급	55	94.83	40	28.57
2등급	1	1.72	38	27.14
3등급	1	1.72	28	20.00
4등급	0	0.00	16	11.43
5등급	0	0.00	7	5.00
분류불가	1	1.72	11	7.86
전체	58	100.00	140	100.00

주: 경제총조사에서 사업비용을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자료에서는 뇌졸중관련 평가등급을 사용하였다.

결국 저비용으로 1등급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장의 비중은 전체 저비용사업장 중 약 28%만이 달성하고 있었으며, 고비용사업장은 약 95%의 사업장이 1등급을 달성할 수 있었다. 즉, 비용과 평가등급은 정의 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있

9) 뇌졸중임상연구센터, 『뇌졸중 진료지침』, 2012.
1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년도 뇌졸중 적정성 평가 보고서』, 2010.

는데, 비용이 높아질수록 높은 평가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를 이용하여 실제 투입 비용과 진료의 질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세울 수 있는 가설은 다음과 같다.

H_0: 비용의 과소와 의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없다.

H_1: 비용의 과소와 의료의 질은 상관관계가 있다.

이러한 귀무가설을 검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회귀분석식을 선정할 수 있다.

$$Y_i = \alpha + \beta_1 Cost_i + \beta_2 CT_i + \beta_3 MRI_i + \beta_4 Bed_i + \beta_5 Neuro_i + \beta_6 NeuroSurgery_i + \beta_7 CV_i + \epsilon_i$$

이때 Y는 병원에서 수취한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으로서 1부터 5까지 부여되고 있으며, $Cost$는 병원의 사업비용 총계 변수이다. CT는 CT장비 보유대수, MRI는 MRI장비 보유대수, Bed는 총병상수, $Neuro$는 신경과 입원환자수, $NeuroSergery$는 신경외과 입원환자수로 구성된다. CV는 병원의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변수로서 지역통제 가변수, 상급병원 가변수로 구성된다. 위와 같은 분석모형을 본 연구에서는 로짓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8>에서 보이는 등급 간 병원의 분포가 일정치 않아, <표 4-19>에서는 병원의 등급(Y)을 1등급인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을 구분하여 종속변수를 선정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표 4-19> 사업비용별 평가등급

등급	고비용사업장		저비용 사업장	
	사업장수	고비용사업장 전체 대비 비율	사업장수	저비용사업장 전체 대비 비율
1등급	55	94.8%	40	28.6%
2, 3, 4, 5, 기타 등급	3	5.2%	100	71.4%
전체	58	100.0%	140	100.0%

주: 경제총조사에서 사업비용을 사용하였고, 건강보험자료에서는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을 사용하였다.

<표 4-20>의 로짓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병원 사업비용이 상승할수록 평가등급이 개선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신경과 및 신경외과 입원환자수가 많을수록

높은 평가등급을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상급병원일수록 평가등급이 높아진다는 해석을 할 수 있다. 한편, CT 혹은 MRI 장비의 보유대수와 평가등급 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CT와 MRI의 경우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치만 확보되어 있다면 질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현실적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4-20> 병원의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로짓분석 결과)

Variable	로짓모형1	로짓모형2
사업비용	0.0182** (0.0089)	0.0173** (0.00866)
CT 보유대수	0.256 (0.346)	0.21 (0.352)
MRI 보유대수	-0.817 (0.55)	-0.832 (0.569)
총병상수	0.00273 (0.00184)	0.00232 (0.0019)
신경과 입원환자수	0.00185*** (0.00062)	0.0017*** (0.00061)
신경외과 입원환자수	0.00164*** (0.0006)	0.00169*** (0.00061)
광역시 여부		-0.143 (0.441)
상급병원 여부		1.97* (1.14)
상수항	-4.52*** (0.821)	-4.19*** (0.853)
관측치	186	186
Pseudo 결정계수	0.485	0.501

주: *는 10%의 유의수준, **는 5%의 유의수준, ***는 1%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총조사에서 사업비용, 광역시 여부을 사용하였고, 건강보험 자료에서는 뇌졸중 관련 평가등급, CT 보유대수, MRI 보유대수, 총병상수, 신경과 입원환자수, 신경외과 입원환자수, 상급병원 여부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출처에 대해서는 <표 4-1>을 참조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보면, 뇌졸중 치료만을 위한 비용이 아닌 전체 비용을 분석모형에 포함한 한계가 있지만, 실증분석 결과로 볼 때 병원이 비용을 많이 지출할수록 평가등급이 높아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등급 병원 95개 중

42.1%(40개)는 저비용 병원이었으며 이는 전체의 20.2%를 차지하였다. 이는 비용을 많이 지출하지 않고도 치료의 질을 담보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가감지급(Pay for Performance) 사업의 실증적 근거가 될 수 있다.

4. 향후 분석가능 연구주제

본 장에서는 경제총조사 자료와 타 기관 생성 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의미있는 분석작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제총조사의 충분한 확장가능성을 증명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보건업 자료와의 연계를 통하여 추가로 분석이 가능한 주제를 제시하여, 경제총조사의 활용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추가분석이 가능한 주제는 다음과 같다.

① 경제총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영업비용 항목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구분하거나, 경제총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사항만을 활용하여 구분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자료의 연계를 통하여 의료기관 종별(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의원 등), 지역별, 병상 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특히, 전체 영업비용의 각 요소별 구성비(예를 들면, 급여총액이 몇 %를 차지하는지)를 의료기관 특성(종별, 지역별, 병상 규모별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는 작업이 가능하게 된다.

② 방사선/병리검사, 공중보건 및 기타 등의 구분은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구분이지만, 실제 의료산업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업종을 배제한 후 분석을 실시하는 것이 유의미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의료산업에 적합한 대상 선정 후 분석을 진행할 수 있다.

③ 사업수익 대비 심결급여액의 비율을 통하여 경제총조사의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만약 경제총조사의 사업수익(심결급여액와 비급여액의 합)이 건강보험심시평가원의 심결급여액보다 작은 기관이 있다면 응답을 허위로 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전체 사업수익 중 비급여로 인한 사업수익을 분석해볼 수 있는 중요한 통계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로 본 산업구조 변화

제1절 서론

산업구조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 간의 구성비율과 구조관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산업구조를 파악한다는 것은 각종 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구성상태와 경제활동 내에서의 각 산업의 구성비율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양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또 그 구성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국민경제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 및 그 장래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얻고자 하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1940년 영국의 경제학자 C.G. 클라크(Clark)는 산업을 제1차·제2차·제3차 산업의 3가지로 분류하고 한 나라의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노동인구와 소득의 비중이 제1차 산업에서 제2차 산업으로 다시 제3차 산업으로 이동한다(페티의 법칙)는 역사적인 경향을 실증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산업구조의 분석을 공업 부문에 한정하여 분석한 유명한 이론으로 호프만의 법칙(Hoffmann's law)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논의해본다. 호프만은 1931년 공업 부문을 소비재산업과 투자재산업으로 나누고 경제의 발전에 따라 소비재산업의 투자재산업에 대한 부가가치액 및 종사자수의 비율(호프만 비율)이 하락한다는 것을 산출하여 호프만 법칙으로 명명하였다.[11)]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산업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많은 연구가 있는데, 산업구조 변화에 관한 연구 중 Chenery, Feldman et al.(1979), Torii and Fukasaku(1979) 등을 활용한 연구들로 김광석, 홍성덕(1990), 민경휘(1993), 조병도 등(1999), 이진면·홍성덕(1999), 최한주, 이기훈(2010) 등이 있다. 이들 연구는 1960년 이후 2000년 중 10~30년간을 대상으로 국내 수요변화, 수출변화, 기술변화, 수입대체 등의 요인의 기여를 통한 산업구조 변화를 설명하였다. 조병도, 정준호(2011)는 Miller and Blair(2009)의 모형을 도입하여 2개의 분해식을 산술평균하여 이론적으로 이상적인 값을 갖는 모형, 그리고 가중치 적용에 따른 오차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모든 식에 라스파이레스(Laspayres) 방식과 파쉐(Paasche) 방식을 산술평균한 방식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자료에는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을 포괄하고 있다.

11) 호프만은 소비재산업은 그 산업의 상품의 최저 75%가 가계에 판매되는 것으로, 투자재 산업은 그 산업의 상품의 최저 75%가 기업에 판매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소비재산업에는 식품·음료·의복·수송기계·화학공업이 해당된다고 가정했다.

본 연구는 산업구조 추이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나, 경제총조사 자료가 2010년을 기준으로 2011년에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산업구조 변화 또는 추이를 분석할 수 없다. 이에 불가피하게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연간자료 및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부가가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추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해본다.

제2절 총공급과 총수요 추이와 산업별 국내 산출액 비중 개요

여기서는 총공급과 총수요 추이와 산업별로 국내 산출액 비중의 추이를 제시해본다. 먼저 총공급과 총수요의 추이를 살펴보면(<표 5-1> 참고), 2010년 재화 및 서비스의 총공급액(=국내산출액+수입)은 3,733.1조 원으로 전년 대비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에서 대외부문이 차지하는 수출입비중은 2010년 32.8%로 전년의 31.8%보다 1.1%p 상승하였다.[12)]

<표 5-1> 총공급 및 총수요 추이

연도	국내 산출 (A)	수입 (B)	총공급(A+B) =총수요(C+D)	국내수요(C)			수출 (D)	수출입 비 중 (B+D)
				중간수요	최종수요	계		
85년	86.8	13.2	100.0	-	-	87.4	12.6	25.8
90년	87.8	12.2	100.0	50.3	38.6	88.8	11.2	23.4
95년	86.8	13.2	100.0	48.1	40.2	88.3	11.7	24.9
00년	85.3	14.7	100.0	48.6	36.9	85.5	14.5	29.2
05년	86.1	13.9	100.0	50.7	35.0	85.7	14.3	28.2
07년	85.3	14.7	100.0	51.1	34.2	85.3	14.7	29.4
08년	82.5	17.5	100.0	52.1	31.3	83.4	16.6	34.1
09년	84.4	13.9	100.0	52.5	31.2	83.7	16.3	30.2
10년	83.7	16.3	100.0	52.8	30.6	83.4	16.6	30.5
(조 원)	(3,124.0)	(609.1)	(3,733.1)	(1,971.4)	(1,143.1)	(3,114.5)	(618.6)	(1227.7)

12) 수출입비중(%)=[(수출액+ 수입액)/총공급]*100

다음은 산업별 자료를 이용하여 국내 산출액 비중의 추이를 살펴본다(<표 5-2> 참고). 2010년 산업구조(산출액 구성비)는 제조업 비중이 2009년 47.7%에서 50.2%로 확대된 반면, 서비스업 비중은 39.9%에서 37.7%로 축소되었다. 산출액 추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산업구조 변화를 추론할 수 있을 것이다.

농림어업의 경우, 1985년 7.5%를 차지하다가 2010년 현재 1.7%에 불과하다. 광업도 1985년 0.7%를 차지하다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10년 현재 0.1%에 불과한 실정이다. 제조업은 1985년 50.0%에서 연도별로 등락하다가 2010년 현재 2010년 현재 50.2%로 큰 변화가 없다. 서비스업은 1985년 29.5%에서 계속 증가하여 2010년 현재 37.7%에 이른다.

다음은 후술하는 산업별 부가가치 추이에 앞서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를 1985년부터 2008년까지의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본다(<표 5-3> 참고). 농림어업의 부가가치율은 1985년 66.8%에서 2008년 51.6%로 하락, 광업 역시 1985년 61.5%에서 2008년 58.4%로 하락하고 있다. 제조업도 1985년 24.8%에서 2008년 21.7%로 약간 하락하며, 서비스업의 부가가치율도 1985년 64.2%에서 2008년 57.5%로 하락하여 대부분의 산업에서 하락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5-2> 산업별 국내 산출액 비중의 추이

산업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조 원)	구성비 (%)
농림어업	**7.5**	**5.1**	**3.8**	**2.8**	**2.1**	**1.8**	**47.9**	**1.7**	**51.0**	**1.8**	**52.9**	**1.7**
광업	**0.7**	**0.5**	**0.4**	**0.2**	**0.2**	**0.1**	**3.9**	**0.1**	**3.8**	**0.1**	**3.7**	**0.1**
제조업	**50.0**	**49.6**	**47.6**	**46.0**	**46.3**	**46.5**	**1,338.3**	**48.8**	**1,324.5**	**47.7**	**1,569.8**	**50.2**
소비재업종	**20.7**	**17.4**	**12.5**	**9.8**	**7.4**	**6.8**	**180.2**	**6.6**	**191.1**	**6.9**	**200.0**	**6.4**
기초소재업 종	**18.8**	**17.1**	**17.4**	**17.1**	**19.4**	**19.9**	**622.9**	**22.7**	**571.0**	**20.6**	**686.6**	**22.0**
석유 및 석탄제품	4.3	2.1	2.2	3.8	3.7	4.0	137.1	5.0	106.5	3.8	136.2	4.4
화학제품	6.3	6.3	6.4	6.4	6.7	6.7	195.3	7.1	188.1	6.8	223.7	7.2
제1차 금속제품	4.9	5.1	5.0	4.1	5.7	5.9	195.2	7.1	176.6	6.4	218.9	7.0
조립가공업종	**10.5**	**15.0**	**17.7**	**19.2**	**19.5**	**19.9**	**535.2**	**19.5**	**562.3**	**20.3**	**683.2**	**21.9**
전기 및 전자기기	4.5	6.4	7.9	10.2	9.2	8.8	239.3	8.7	268.9	9.7	340.4	10.9
수송장비	3.7	5.1	5.8	5.4	6.4	6.9	183.2	6.7	182.1	6.6	211.2	6.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10.4**	**12.2**	**11.6**	**9.4**	**9.5**	**9.3**	**246.0**	**9.0**	**253.1**	**9.1**	**265.4**	**8.5**
건설	8.1	10.5	9.8	7.1	7.3	7.0	181.0	6.6	188.5	6.8	188.3	6.0
서비스업	**29.5**	**30.3**	**34.1**	**39.4**	**40.0**	**40.4**	**1,053.3**	**38.4**	**1,091.6**	**39.3**	**1,177.4**	**37.7**
도소매	-	6.6	5.9	5.0	5.1	5.0	126.6	4.6	136.8	4.9	159.9	5.1
음식점 및 숙박	-	0.8	0.8	3.0	2.7	2.7	72.6	2.6	77.0	2.8	80.2	2.6

산업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7년	08년		09년		10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구성비	산출액 (조 원)	구성비 (%)
운수 및 보관	-	3.8	4.0	3.7	3.8	3.9	113.1	4.1	101.6	3.7	116.6	3.7
통신 및 방송	-	1.2	1.4	2.4	2.4	2.3	56.3	2.1	57.5	2.1	59.4	1.9
금융 및 보험	-	3.2	3.8	4.6	4.3	4.7	120.6	4.4	124.1	4.5	133.0	4.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6.3	8.6	10.7	9.9	9.8	250.5	9.1	258.8	9.3	275.3	8.8
공공행정 및 국방	-	3.3	3.1	3.1	3.3	3.4	87.6	3.2	93.4	3.4	95.3	3.0
교육 및 보건	-	3.5	4.8	4.4	5.6	5.9	154.8	5.6	168.7	6.1	178.2	5.7
사회 및 기타 서비스	-	1.6	1.7	2.6	2.8	2.8	71.2	2.6	73.7	2.7	79.4	2.5
기 타	1.8	2.3	2.5	**2.2**	**2.0**	**1.8**	**50.9**	**1.9**	**50.9**	**1.8**	**55.0**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2,740.1**	**100**	**2,775.0**	**100.0**	**3,124.0**	**100.0**

<표 5-3> 산업별 부가가치율 추이(~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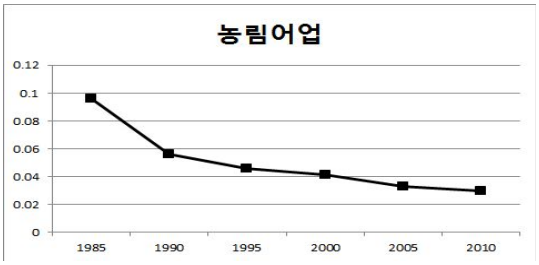
산업구분	85년	90년	95년	00년	05년	07년	08년
농림어업	**66.8**	**66.1**	**65.6**	**62.6**	**58.0**	**57.0**	**51.6**
광업	**61.5**	**67.4**	**68.5**	**63.4**	**58.2**	**59.2**	**58.4**
제조업	**24.8**	**27.2**	**31.0**	**27.4**	**25.4**	**24.3**	**21.7**
소비재업종	**24.6**	**25.6**	**30.8**	**28.7**	**29.7**	**29.0**	**28.0**
기초소재업종	**22.3**	**25.8**	**29.6**	**27.1**	**24.7**	**22.5**	**18.6**
석유 및 석탄제품	16.4	16.5	35.7	32.8	30.2	26.3	18.8
화학제품	25.8	27.9	30.0	24.6	23.0	21.4	18.3
제1차 금속제품	16.9	19.9	22.1	21.1	19.3	17.3	14.8
조립가공업종	**29.4**	**30.7**	**32.5**	**26.9**	**24.4**	**24.4**	**23.2**
전기 및 전자기기	27.9	27.7	33.6	27.3	24.9	24.4	22.5
수송장비	29.9	32.2	29.9	24.0	21.6	23.5	22.8
전력·가스·수도 및 건설업	**44.3**	**46.9**	**42.4**	**44.4**	**44.2**	**41.9**	**35.2**
건설	39.9	45.9	41.3	44.0	45.3	43.5	40.3
서비스업	**64.2**	**65.7**	**65.2**	**61.6**	**59.9**	**58.9**	**57.5**
도소매	-	68.4	65.9	63.0	59.6	59.3	60.5
음식점 및 숙박	-	61.4	53.0	40.5	40.1	40.4	39.2
운수 및 보관	-	51.9	50.5	41.7	42.8	40.5	34.1
통신 및 방송	-	81.6	79.8	58.5	48.7	45.4	43.5
금융 및 보험	-	67.6	71.1	68.8	62.7	58.0	56.3
부동산 및 사업서비스	-	69.0	66.3	71.3	68.3	68.4	67.9
공공행정 및 국방	-	54.9	60.0	68.2	68.9	68.1	67.0
교육 및 보건	-	76.2	73.8	66.2	68.5	68.0	67.5
사회 및 기타 서비스	-	59.3	57.7	46.4	50.2	50.4	50.8
전 산업	**41.4**	**42.8**	**44.7**	**43.0**	**41.2**	**40.1**	**3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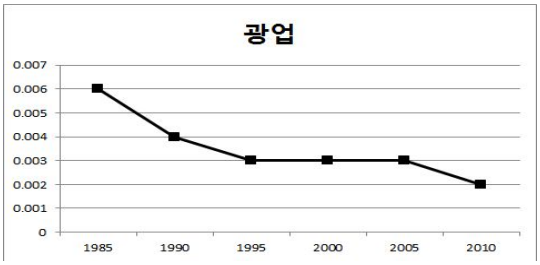
제3절 부가가치 및 사업체수, 종사자수 추이로 본 산업구조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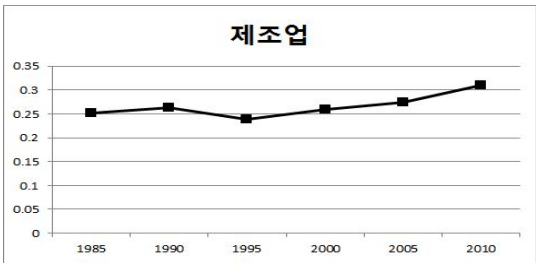
1. 전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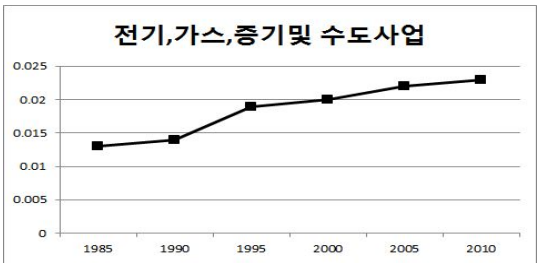
여기서는 산업별 사업체수, 종사자수, 부가가치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간접적으로 살펴본다. 이 자료들은 전국과 16개 광역시도 자료로 구분이 되어 있어 전국과 16개 광역시도로 구분하되, 기본적으로 산업별로 각 수치들을 제시하여 논의한다. 이하에서는 전국 기준으로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부가가치, 사업체수, 종사자수로 변화를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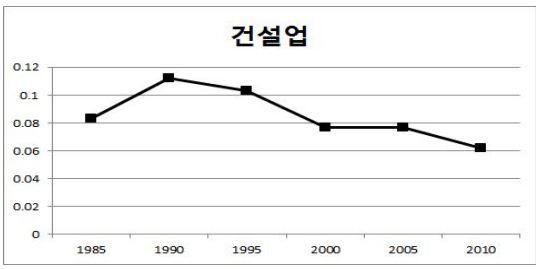
전국 기준으로 전 산업 총부가가치 대비 각 산업의 부가가치비중 추이를 1985년부터 2010년까지 자료를 가지고 그림으로 제시한 것이 [그림 5-1]이다. [그림 5-1]에 따르면,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은 1985년 대비하여 점차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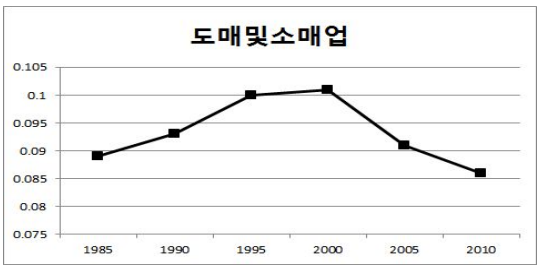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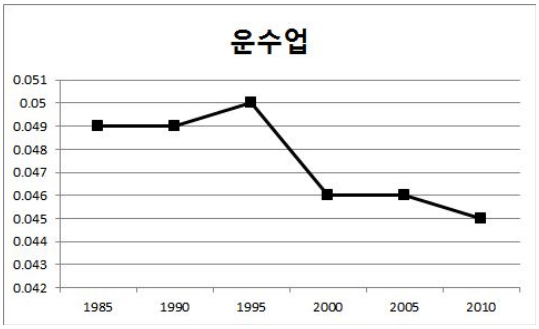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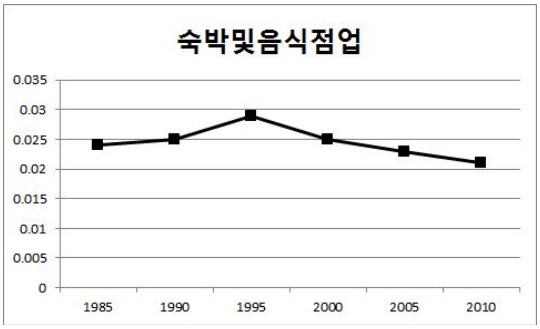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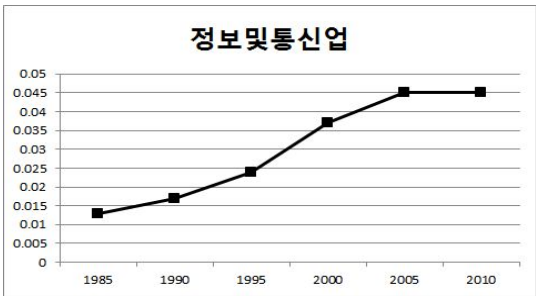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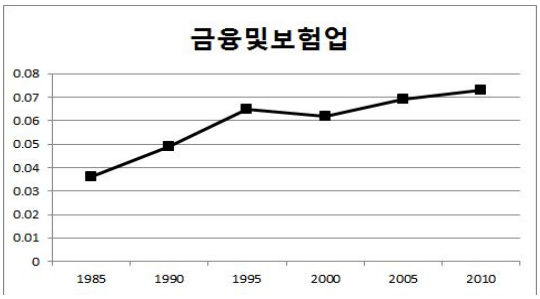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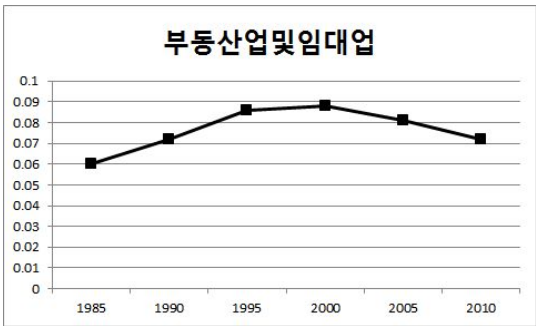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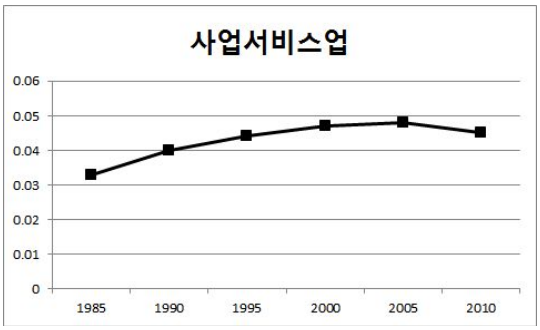

운수업
0.051
0.05
0.049
0.048
0.047
0.046
0.045
0.044
0.043
0.042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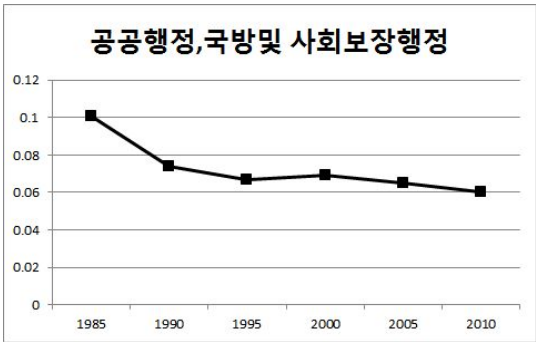

숙박및음식점업
0.035
0.03
0.025
0.02
0.015
0.01
0.005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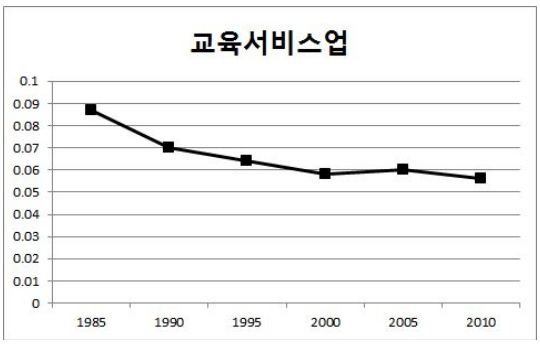

정보및통신업
0.05
0.045
0.04
0.035
0.03
0.025
0.02
0.015
0.01
0.005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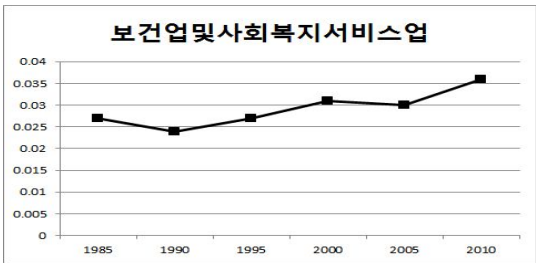

금융및보험업
0.08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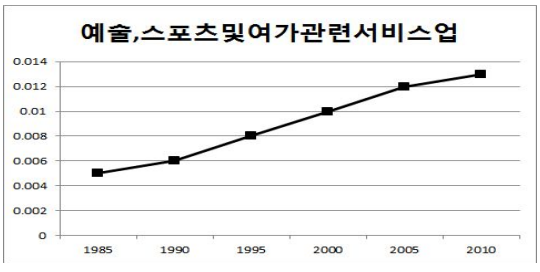

부동산업및임대업
0.1
0.09
0.08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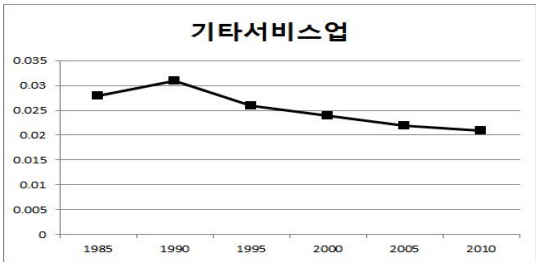

사업서비스업
0.06
0.05
0.04
0.03
0.02
0.01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공공행정,국방및 사회보장행정
0.12
0.1
0.08
0.06
0.04
0.02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교육서비스업
0.1
0.09
0.08
0.07
0.06
0.05
0.04
0.03
0.02
0.01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0.04
0.035
0.03
0.025
0.02
0.015
0.01
0.005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0.014
0.012
0.01
0.008
0.006
0.004
0.002
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그림 5-1] 전국 기준 전 산업 대비 부가가치비중 추이

그리고 1985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산업은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7개 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산업(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은 비중이 증가하다가 하락하는 추세로 반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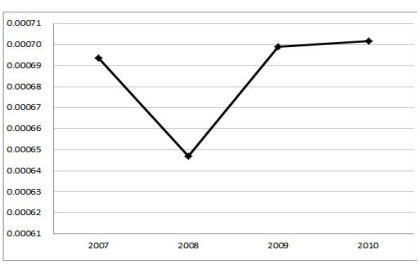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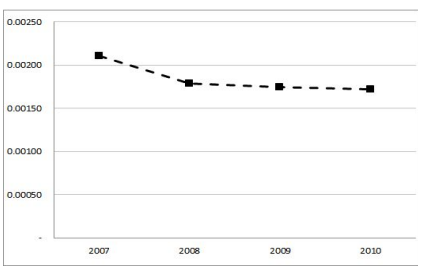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산업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쇠퇴하고,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성장하는 산업으로 나타나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변화를 잘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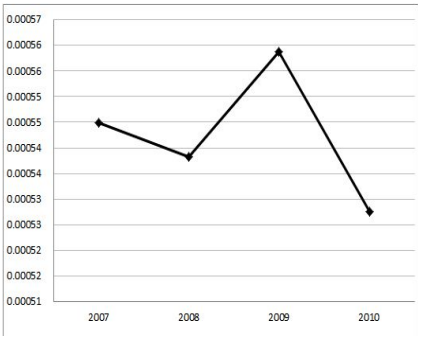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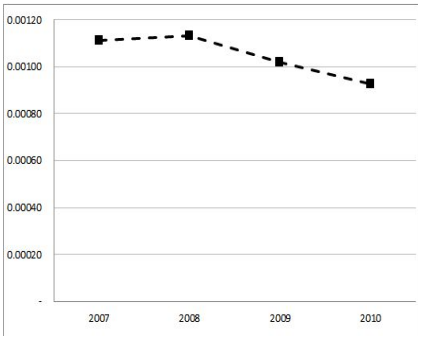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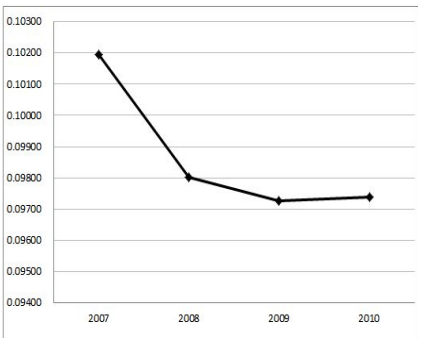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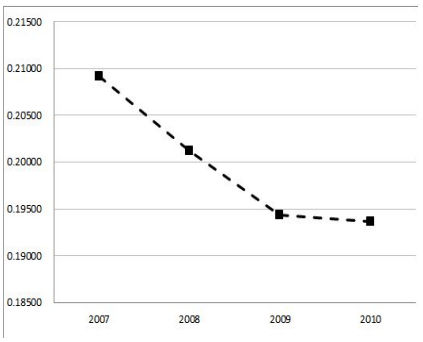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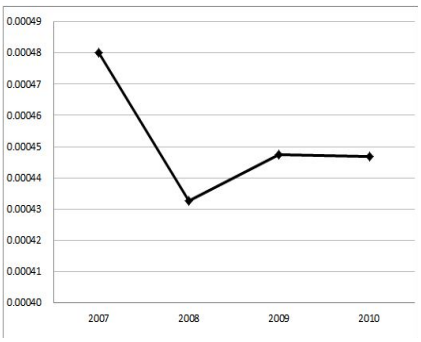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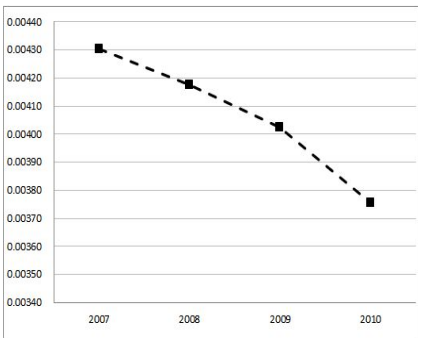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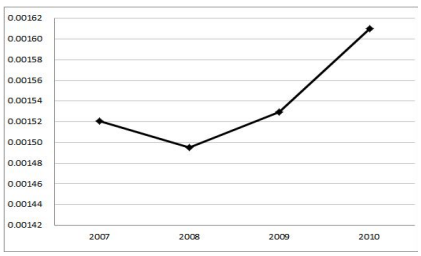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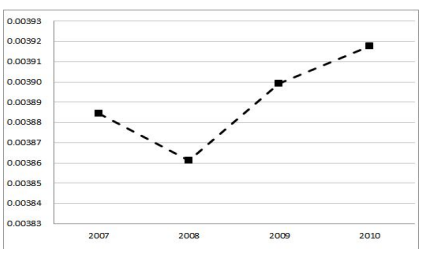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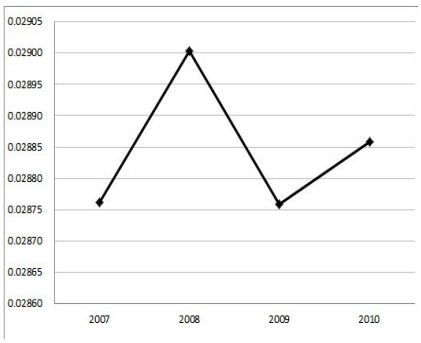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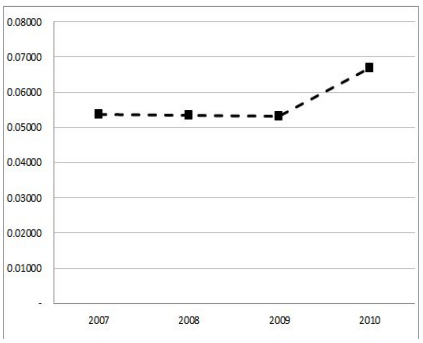
<표 5-4> 산업별 부가가치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추이: 전국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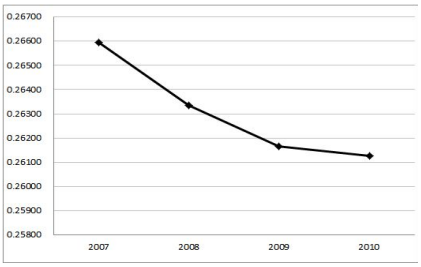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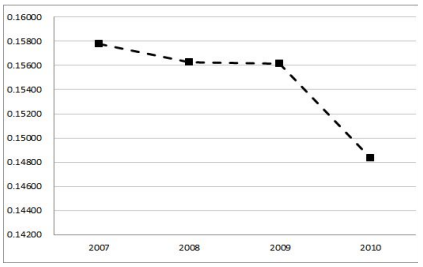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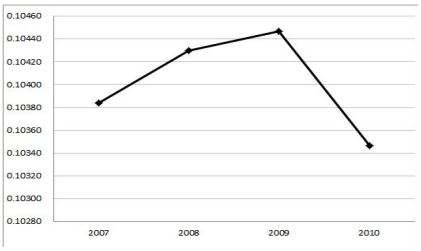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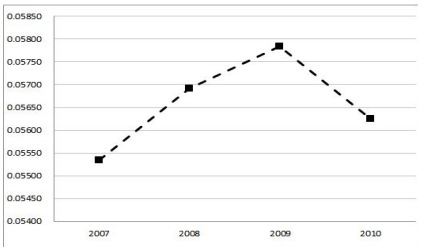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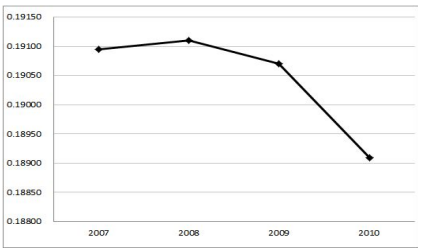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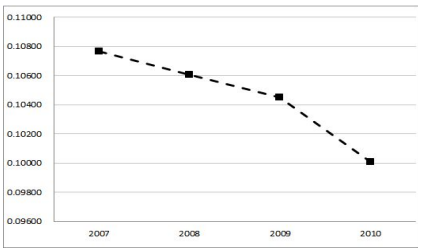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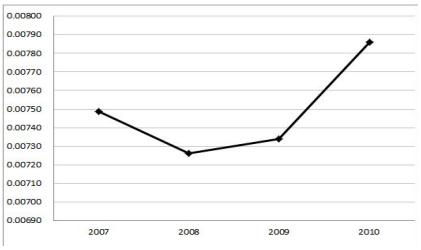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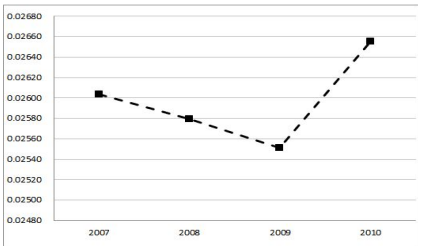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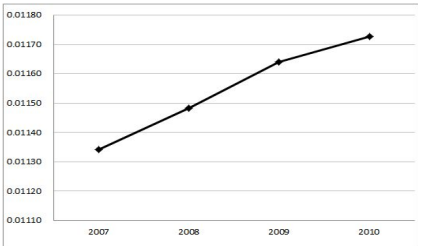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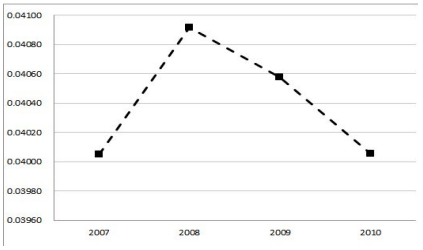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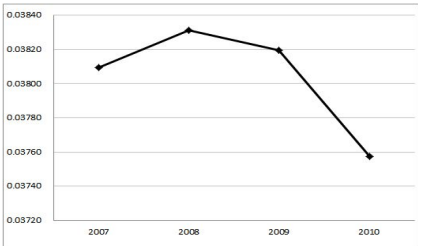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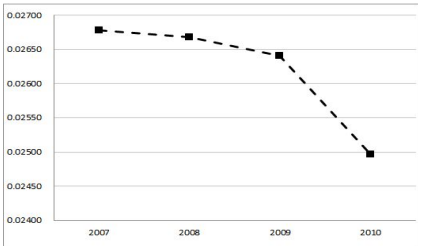
산업	전 산업 대비 부가가치 비중						1985 대비 2010 증감률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총부가가치(기초가격)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0.000
농림어업	0.096	0.056	0.046	0.041	0.033	0.030	-0.693
광업	0.006	0.004	0.003	0.003	0.003	0.002	-0.707
제조업	0.252	0.263	0.239	0.259	0.274	0.311	0.235
기초소재형	0.103	0.104	0.098	0.105	0.098	0.094	-0.093
가공조립형	0.061	0.081	0.090	0.115	0.146	0.189	2.090
생활관련형	0.087	0.078	0.051	0.038	0.031	0.028	-0.67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13	0.014	0.019	0.020	0.022	0.023	0.784
건설업	0.083	0.112	0.103	0.077	0.077	0.062	-0.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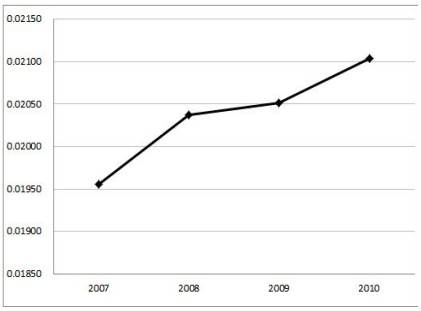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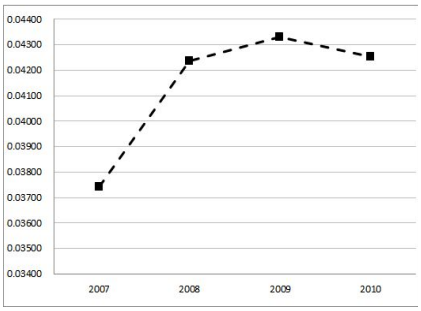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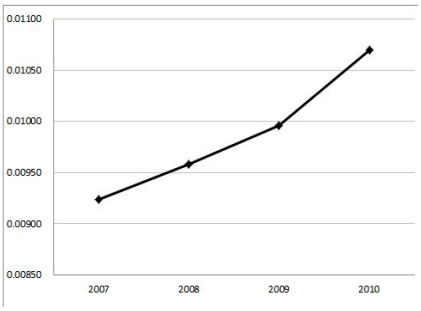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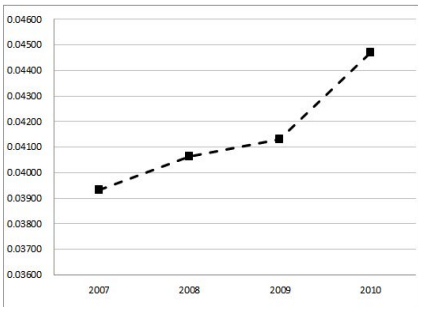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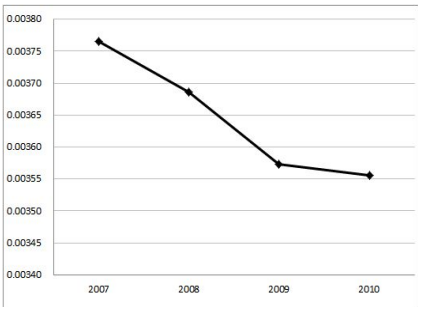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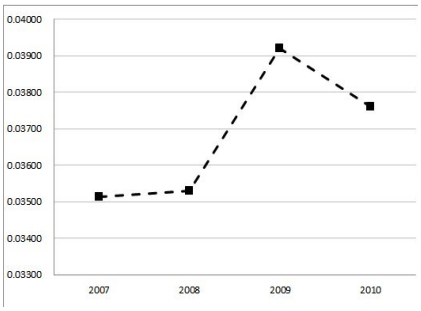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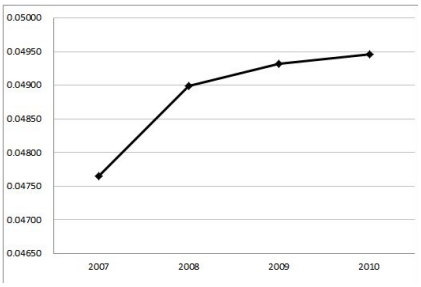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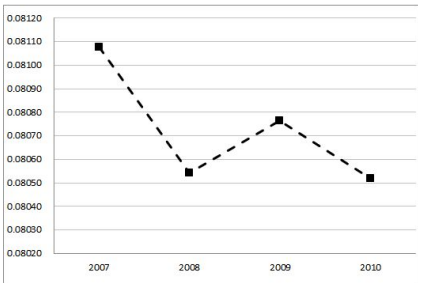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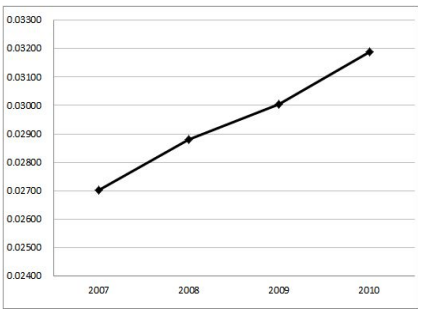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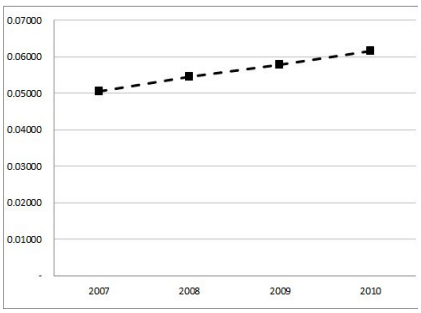
도매 및 소매업	0.089	0.093	0.100	0.101	0.091	0.086	-0.029
운수업	0.049	0.049	0.050	0.046	0.046	0.045	-0.086
숙박 및 음식점업	0.024	0.025	0.029	0.025	0.023	0.021	-0.130
정보 및 통신업	0.013	0.017	0.024	0.037	0.045	0.045	2.437
금융 및 보험업	0.036	0.049	0.065	0.062	0.069	0.073	1.0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60	0.072	0.086	0.088	0.081	0.072	0.201
사업서비스업	0.033	0.040	0.044	0.047	0.048	0.045	0.38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101	0.074	0.067	0.069	0.065	0.060	-0.401
교육서비스업	0.087	0.070	0.064	0.058	0.060	0.056	-0.35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27	0.024	0.027	0.031	0.030	0.036	0.3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05	0.006	0.008	0.010	0.012	0.013	1.561
기타 서비스업	0.028	0.031	0.026	0.024	0.022	0.021	-0.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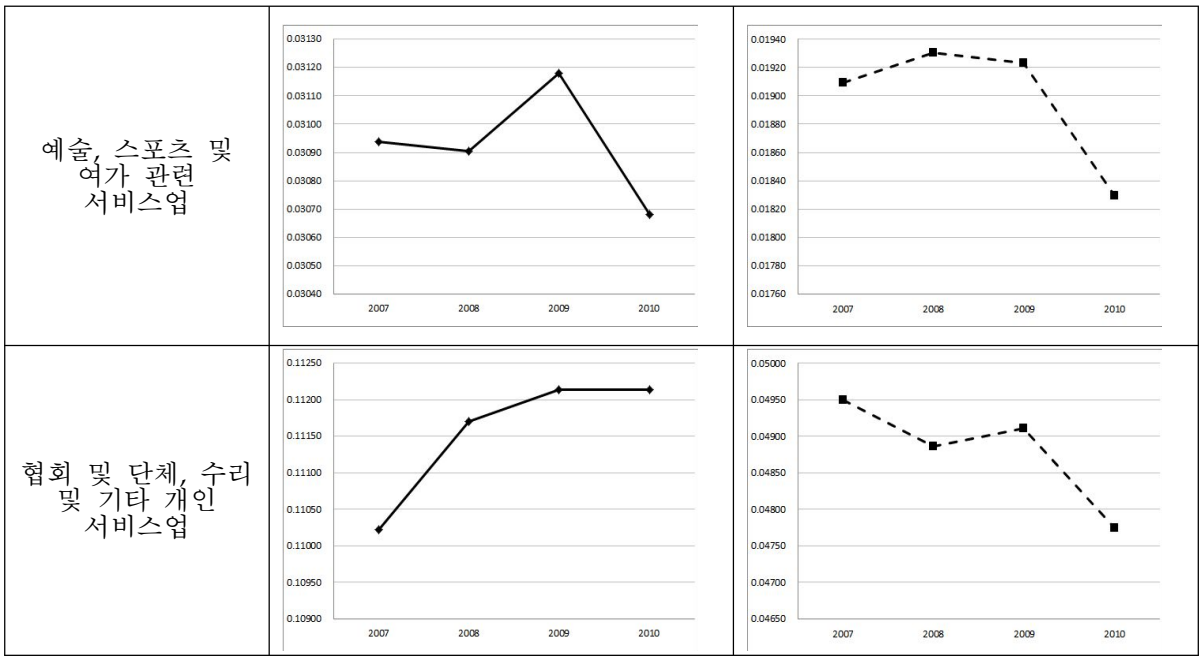
[그림 5-2]에 제시된 산업별 사업체수 추이를 전 산업 대비 비중으로 보면, 제조업(부가가치는 2007년 대비 2008년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증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 등은 감소하고 있다. 이에 반해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금융보험업(부가가치 비중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부가가치 비중 감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의 산업은 사업체수가 계속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종사자수 추이에서는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에서 확연하게 감소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기타 산업들은 특이한 추세를 발견할 수 없었다.

	사업체수	종사자수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그림 5-2] 전국 기준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추이

먼저 산업구조를 현재 시점에서 경제총조사의 결과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제시해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사업체수는 3,355천 개이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및 소매업이 877천 개(26.1%)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635천 개(1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376천 개(11.2%)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수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2010년 말 기준 전국의 종사자수는 17,647천 명으로 제조업 3,418천 명(19.4%), 도매 및 소매업 2,618천 명(14.8%), 숙박 및 음식점업 1,766천 명(10.0%), 교육 서비스업 1,421천 명(8.1%) 등의 순이었다. 사업체수 기준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산업구조 변화를 살펴본다(<표 5-5> 참고). 전 산업은 2007년 3,262,925개에서 3,355,470개로 2.8% 증가하였다. 이를 산업별로 구분하여 설명해보면, 19개 산업 중에서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등 4개 산업은 절대적으로 사업체수가 2007년 대비하여 2010년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 사업체수 감소는 사업장의 해외 진출 등이 증가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판단된다. 나머지 15개 산업은 사업체수의 절대 규모가 2007년에 비하여 2010년에 증가하였다. 한편, 전 산업 대비 사업체 비중을 구하여 전술한 사업체수 증감 여부와 대조해본 결과,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산업은 사업체수가 증가했음에도 전 산업의 사업체수 대비 비중은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의 사업체수 증

가에 비해 이들 산업의 사업체수 증가 정도가 작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서는 먼저 종사자수에 기초하여 산업구조를 현재 시점의 경제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간략하게 제시해본다. 종사자 규모별로 보면, 300명 이상 사업체가 1,311조 7,690억 원(30.3%), 10~49명이 1,103조 2,220억 원(25.5%), 100~299명이 614조 7,380억 원(1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5-5> 산업별 사업체수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추이: 전국 기준

산업	사업체수				전 산업 대비 사업체비중				2007 대비 2010 증감률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전 산업	3,262,925	3,264,782	3,293,558	3,355,470	1.000	1.000	1.000	1.000	-
농업, 임업 및 어업	2,263	2,112	2,302	2,354	0.001	0.001	0.001	0.001	0.012
광업	1,778	1,757	1,840	1,770	0.001	0.001	0.001	0.001	-0.032
제조업	332,617	320,053	320,374	326,813	0.102	0.098	0.097	0.097	-0.045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566	1,412	1,474	1,499	0.000	0.000	0.000	0.000	-0.06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4,962	4,882	5,038	5,402	0.002	0.001	0.002	0.002	0.059
건설업	93,846	94,688	94,716	96,833	0.029	0.029	0.029	0.029	0.003
도매 및 소매업	867,784	859,794	861,736	876,654	0.266	0.263	0.262	0.261	-0.018
운수업	338,812	340,522	344,071	347,179	0.104	0.104	0.104	0.103	-0.004
숙박 및 음식점업	623,064	623,915	628,078	634,500	0.191	0.191	0.191	0.189	-0.01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24,425	23,706	24,178	26,375	0.007	0.007	0.007	0.008	0.050
금융 및 보험업	37,011	37,493	38,341	39,353	0.011	0.011	0.012	0.012	0.034
부동산업 및 임대업	124,299	125,078	125,804	126,081	0.038	0.038	0.038	0.038	-0.014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63,808	66,500	67,558	70,601	0.020	0.020	0.021	0.021	0.0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30,146	31,287	32,812	35,910	0.009	0.010	0.010	0.011	0.15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12,287	12,033	11,768	11,929	0.004	0.004	0.004	0.004	-0.056
교육서비스업	155,498	159,940	162,454	165,964	0.048	0.049	0.049	0.049	0.0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8,174	94,027	98,976	107,012	0.027	0.029	0.030	0.032	0.180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00,952	100,900	102,697	102,948	0.031	0.031	0.031	0.031	-0.00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359,633	364,683	369,341	376,293	0.110	0.112	0.112	0.112	0.017

다음은 종사자수 기준으로 2007년 대비 2010년의 산업구조 변화를 분석해본다(<표 5-6> 참고). 전 산업은 2007년 15,943,674명에서 17647028명으로 10.7% 증가하였다. 이를 2007년 경제활동인구 24,216천 명, 2010년 경제활동인구 24,748천 명에 대한 비중으로 계산해보면, 각각 65.8%에서 71.3%로 약 5.5%p 증가한 것이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19개 산업 중에서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 3개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산업의 종사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제조업 사업체수가 감소하였음에 비추어 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증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전 산업 대비 종사자수 비중을 구하여 전술한 종사자수 증감 여부와 비교해보면,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교육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의 5개 산업은 종사자수가 증가했음에도 전 산업의 종사자수 대비 비중은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에 비해 이들 산업의 종사자수 증가 정도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표 5-6> 산업별 종사자수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추이: 전국 기준

산업	종사자수				전 산업 대비 종사자 비중				2007 대비 2010 증감률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전 산업	15,943,674	16,288,280	16,818,015	17,647,028	1.000	1.000	1.000	1.000	-
농업, 임업 및 어업	33,652	29,140	29,362	30,418	0.002	0.002	0.002	0.002	-0.183
광업	17,762	18,447	17,147	16,377	0.001	0.001	0.001	0.001	-0.167
제조업	3,334,889	3,277,271	3,269,339	3,417,698	0.209	0.201	0.194	0.194	-0.074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68,632	68,029	67,661	66,267	0.004	0.004	0.004	0.004	-0.128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 복원업	61,931	62,895	65,576	69,132	0.004	0.004	0.004	0.004	0.009
건설업	854,432	872,821	894,504	1,180,659	0.054	0.054	0.053	0.067	0.248
도매 및 소매업	2,515,629	2,544,849	2,626,339	2,617,891	0.158	0.156	0.156	0.148	-0.060
운수업	882,475	927,042	972,831	992,546	0.055	0.057	0.058	0.056	0.016
숙박 및 음식점업	1,716,607	1,727,882	1,757,715	1,766,290	0.108	0.106	0.105	0.100	-0.070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415,054	420,129	429,109	468,585	0.026	0.026	0.026	0.027	0.020
금융 및 보험업	638,528	666,466	682,428	706,859	0.040	0.041	0.041	0.040	0.000
부동산업 및 임대업	426,978	434,607	444,185	440,556	0.027	0.027	0.026	0.025	-0.068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96,795	689,741	728,398	750,393	0.037	0.042	0.043	0.043	0.136
사업시설관리 및	626,958	661,749	694,417	788,674	0.039	0.041	0.041	0.045	0.137

산업	종사자수				전 산업 대비 종사자 비중				2007 대비 2010 증감률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560,283	575,148	659,265	663,673	0.035	0.035	0.039	0.038	0.070
교육 서비스업	1,292,672	1,311,869	1,358,311	1,420,892	0.081	0.081	0.081	0.081	-0.00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806,735	889,988	972,196	1,084,758	0.051	0.055	0.058	0.061	0.215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04,425	314,394	323,404	322,881	0.019	0.019	0.019	0.018	-0.042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789,237	795,813	825,828	842,479	0.050	0.049	0.049	0.048	-0.036

특히, 2007년 대비 2010년의 종사자수가 현저하게 증가한 산업을 찾아보면, 건설업의 경우 854,432명에서 1,180,659명으로 38.2%나 증가하였다. 교육 서비스업도 2007년 1,292, 672명에서 2010년 1,420,892명으로 약 9.9% 증가하였고,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2007년 806,735명에서 2010년 1,084,758명으로 약 34.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건설업에 상당히 많은 인력이 종사하고 있으며, 그 증가정도 역시 작지 않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교육 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현저한 증가는 사교육에 대한 심한 의존과 인구고령화 진행 및 부모 부양의식의 변화로 인한 초래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의 종사자수 증가도 환경복원 등을 비롯한 국민들의 환경질에 대한 높은 수요와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들의 경제적인 유인에 따른 반응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2. 16개 광역시도 기준

지금까지 전국 기준으로 부가가치 추이,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를 각각 1985년과 2007년 대비 2010년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이제는 부가가치 추이와 사업체수 및 종사자수 추이를 전국을 비롯한 16개 광역시도의 추이를 함께 논의해본다.

먼저 부가가치의 추이를 16개 광역시·도 기준 추이를 주요 산업을 중심으로 일별해본다(<표 5-7> 참고). 이해의 편의를 돕기 위해 7개 광역시(서울특별시 포함)와 9개 도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첫째, 농림어업의 경우 지역과 무관하게 16개 광역시도에서 모두 1985년 부가가치 대비 2010년 증가율이 음(-)로 나타나서

있다. 둘째, 광업의 경우,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와 인천이, 도 단위에서 제주도가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상에서 농림어업과 광업의 부가가치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셋째, 제조업은 전국 기준으로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광역시 중에서 광주가 유일하게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9개 도 중에서는 제주도를 제외하고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어 전국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넷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와 울산, 9개 도 중에서는 경기와 경남이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건설업의 경우 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와 울산만이 양(+)의 증가율, 9개 도 중에서는 경기와 충북만이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도소매업은 광역시는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음에 반해 9개도는 강원, 전북, 경북, 제주 등 4개 도에서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었다. 이는 도소매업의 경우, 인구집중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큰 것을 확인해 주는 결과라고 보인다. 일곱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광역시 중에서는 광주와 울산만이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으나, 9개 도 중에서는 강원, 충북, 제주 등 3개 도만이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제주의 경우 증가율이 16개 광역시도 중에서 단연 높은 1.226%로 나타나서 관광 제주임을 확인해준다. 여덟째, 정보 및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 2개 산업은 모든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및 금융업 중심의 산업구조 재편이 전국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또한 같은 맥락에서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역시 전국적으로 상당히 높은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어 최근의 관련 산업이 상당히 커져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도 충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어 전술하였듯이 고령화 및 부양의식 약화에 따라 사회복지서비스업 비중이 점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서비스업 역시 충남과 전남을 제외한 14개 시도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업서비스산업도 작지 않은 비중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사업체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을 살펴본다(<표 5-8> 참고). 첫째, 농림어업의 경우 전국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증가하였는데, 광역시 중에서는 서울과 광주, 울산이 양(+)의 증가율, 9개 도에서는 충남과 제주만이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농림어업의 경우 9개 도를 중심으로 2007년 대비 2010년 사업체수가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광업의 경우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과 광주, 울산, 도 단위에서 전남, 경북, 제주도가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

고 있다. 셋째, 제조업은 전국 기준으로 사업체수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경북을 제외한 모든 광역시도에서 전국 기준과 마찬가지로 2007년 대비 2010년 사업체수 증가율이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넷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은 광역시는 모두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고, 9개 도는 대부분이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다섯째, 건설업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섯째, 도소매업은 전국 기준을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모두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인구밀집 여부와 무관하게 도소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일곱째, 숙박 및 음식점업에서는 광역시 중에서는 인천, 9개 도 중에서는 경남이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는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출판, 영상 ,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은 전국 기준으로는 사업체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엇갈리고 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은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도 광주를 제외하고는 모두 양(+)의 증가율을,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은 교육 서비스업(울산 제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은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종사자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증가율을 분석한다(<표 5-9> 참고). 16개 시도에서 모두 음(-)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산업은 제조업(전북 제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전북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사업체수 감소 추세와 거의 같은 결과이다. 반면에 16개 지역이 모두 양(+)의 증가율을 보여주는 산업은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개 산업이었다.

제4절 소결

지금까지 산업구조 변화를 경제총조사 자료와 이전의 조사자료를 비교하여 부가가치, 사업체 및 종사자수에 근거하여 분석해보았다. 물론 경제총조사 자료가 단년도 조사이기 때문에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변화 추이를 보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이전 다른 자료와 연계하여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로서 개략적인 추이는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현재 시점에서 우리나라에서 나타나고 있는 산업구조의 모습을 추론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제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산업구조 변화 추이 분석이 유용할 것이라는 점에서, 첫째 종사자수 조사와 취업자수 또는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차이가 좁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사업체수와 종사자수가 동시에 조사되어 사업체·산업·지역별 고용인원 추세를 파악할 수 있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 전체의 고용 및 취업유발 효과 추정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경제총조사 자료에서 직접 부가가치액 도출이 가능하도록 하여 장기적으로 GDP 추정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경우 조사예산 절감도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경제총조사 자료가 계속 누적될 경우, 정확한 산업구조 변화 추이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표 5-7>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부가가치의 1985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단위: %)

산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농림어업	-0.067	-0.005	-0.039	-0.003	-0.021	-0.016	-0.005	-0.002
광업	-0.004	0.000	-0.001	0.000	0.001	0.000	-0.001	-0.002
제조업	0.059	-0.086	-0.086	-0.159	-0.184	0.050	-0.047	-0.019
기초소재형	-0.010	-0.009	-0.029	-0.183	-0.086	-0.014	-0.004	-0.041
가공조립형	0.128	0.000	0.052	0.069	-0.004	0.123	0.019	0.023
생활관련형	-0.059	-0.077	-0.109	-0.045	-0.094	-0.059	-0.062	-0.001
전기, 가스 , 증기 및 수도사업	0.010	0.002	0.020	0.000	0.022	0.006	0.009	-0.004
건설업	-0.021	-0.058	-0.021	0.001	-0.025	-0.106	-0.130	0.009
도매 및 소매업	-0.003	0.022	0.016	0.025	0.010	0.007	0.016	0.001
운수업	-0.004	-0.034	0.018	-0.024	0.125	-0.020	-0.013	-0.010
숙박 및 음식점업	-0.003	0.009	0.005	0.012	0.002	-0.007	0.000	0.000
정보 및 통신업	0.032	0.079	0.020	0.026	0.023	0.016	0.023	0.004
금융 및 보험업	0.037	0.083	0.047	0.049	0.028	0.035	0.039	0.008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12	0.010	0.024	0.047	0.017	0.016	0.044	-0.002
사업서비스업	0.013	0.034	0.017	0.026	0.011	0.021	0.021	0.000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40	-0.031	-0.029	-0.018	-0.015	-0.020	0.011	0.002
교육 서비스업	-0.031	-0.015	-0.019	-0.007	-0.017	-0.015	-0.006	0.00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9	0.003	0.032	0.017	0.008	0.031	0.034	0.007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08	0.005	0.009	0.011	0.007	0.004	0.005	0.001
기타 서비스업	-0.006	-0.018	-0.013	-0.005	0.007	0.000	0.000	0.002

<표 5-7-계속>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부가가치의 1985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단위: %)

산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림어업	-0.086	-0.080	-0.156	-0.112	-0.133	-0.093	-0.135	-0.069	-0.222
광업	-0.002	-0.056	-0.012	-0.001	-0.001	-0.009	-0.002	-0.002	0.001
제조업	0.099	0.010	0.250	0.363	0.060	0.138	0.123	0.028	-0.011
기초소재형	-0.028	0.017	0.043	0.072	0.036	0.148	-0.097	-0.090	-0.002
가공조립형	0.203	0.023	0.210	0.336	0.061	0.033	0.227	0.155	-0.002
생활관련형	-0.075	-0.030	-0.004	-0.045	-0.036	-0.043	-0.006	-0.038	-0.007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2	0.009	0.006	0.028	0.009	0.045	0.026	0.000	0.019
건설업	-0.043	0.004	-0.020	0.006	0.022	0.003	0.016	0.014	0.008
도매 및 소매업	-0.017	0.022	-0.009	-0.041	0.020	-0.025	0.004	-0.004	0.039
운수업	0.011	-0.019	-0.008	-0.011	0.003	0.011	0.004	0.007	0.008
숙박 및 음식점업	-0.002	0.000	0.004	-0.027	-0.014	-0.036	-0.007	-0.002	0.025
정보 및 통신업	0.034	0.019	0.013	0.005	0.019	0.009	0.012	0.013	0.020
금융 및 보험업	0.034	0.035	0.024	0.011	0.038	0.021	0.020	0.025	0.04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22	0.030	0.007	-0.027	0.013	0.000	0.009	0.023	0.024
사업 서비스업	0.019	0.014	0.015	-0.032	0.011	-0.001	0.007	0.009	0.01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63	-0.025	-0.075	-0.084	-0.021	-0.013	-0.036	-0.032	0.002
교육 서비스업	-0.022	-0.019	-0.054	-0.067	-0.053	-0.064	-0.047	-0.035	-0.03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10	0.018	0.010	-0.007	0.017	0.012	0.001	0.019	0.03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11	0.032	0.007	0.004	0.007	0.005	0.005	0.006	0.041
기타 서비스업	-0.004	0.005	0.000	-0.007	0.004	-0.005	0.002	0.000	-0.006

<표 5-8>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사업체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단위: %)

산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농업, 임업 및 어업	0.00001	0.00001	-0.00005	0.00000	-0.00002	0.00007	-0.00006	0.00009
광업	-0.00002	-0.00002	0.00000	-0.00003	-0.00002	0.00002	0.00000	0.00000
제조업	-0.00454	-0.01077	-0.00389	-0.00090	-0.00862	-0.00462	-0.00346	-0.0024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003	-0.00009	-0.00001	-0.00007	-0.00005	-0.00007	-0.00011	-0.00002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009	0.00002	0.00014	-0.00019	0.00002	-0.00001	0.00005	0.00032
건설업	0.00010	-0.00132	0.00044	0.00043	0.00163	-0.00023	0.00190	-0.00029
도매 및 소매업	-0.00469	-0.00517	-0.00261	-0.00592	-0.00351	-0.00317	-0.00638	-0.00377
운수업	-0.00037	0.00200	-0.00073	0.00440	-0.00351	-0.00426	0.00170	0.00026
숙박 및 음식점업	-0.00186	-0.00004	-0.00103	-0.00697	0.00015	-0.00220	-0.00777	-0.00207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0.00037	0.00165	-0.00016	0.00030	-0.00004	-0.00026	0.00025	-0.00018
금융 및 보험업	0.00039	0.00059	0.00026	0.00097	0.00022	0.00039	0.00083	0.00044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052	-0.00112	0.00133	-0.00194	0.00038	0.00058	-0.00080	0.0001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149	0.00346	0.00086	0.00050	0.00076	-0.00028	0.00227	0.00176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146	0.00145	0.00145	0.00118	0.00175	0.00162	0.00249	0.00177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0021	-0.00005	-0.00010	-0.00006	-0.00002	-0.00012	-0.00024	-0.00043
교육 서비스업	0.00180	0.00246	0.00162	0.00263	0.00180	0.00389	0.00186	-0.00226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487	0.00364	0.00332	0.00383	0.00482	0.00618	0.00666	0.0046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0026	0.00052	-0.00323	0.00038	0.00168	0.00065	-0.00022	-0.0016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193	0.00278	0.00241	0.00147	0.00258	0.00183	0.00104	0.00370

<표 5-8-계속>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사업체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단위: %)

산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 임업 및 어업	0.00002	0.00020	0.00000	-0.00014	0.00034	0.00036	0.00014	0.00002	-0.00232
광업	-0.00001	-0.00010	-0.00002	-0.00010	-0.00005	0.00013	0.00002	-0.00002	0.00014
제조업	-0.00398	-0.00288	-0.00263	-0.00203	-0.00341	-0.00304	0.00057	-0.00274	-0.00348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009	0.00013	-0.00001	0.00001	0.00013	0.00009	0.00004	0.00002	0.00007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007	0.00025	0.00018	0.00013	0.00018	0.00024	0.00009	0.00012	0.00020
건설업	-0.00031	0.00020	0.00063	-0.00003	0.00268	0.00096	0.00086	0.00044	0.00047
도매 및 소매업	0.00006	-0.00323	-0.00732	-0.00581	-0.00812	-0.00999	-0.00558	-0.00542	-0.00304
운수업	-0.00148	-0.00248	-0.00166	0.00212	-0.00146	0.00154	-0.00093	-0.00282	-0.00224
숙박 및 음식점업	-0.00394	-0.00162	-0.00210	-0.00497	-0.00013	-0.00076	-0.00341	0.00261	-0.00004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0.00042	-0.00020	0.00015	0.00003	0.00001	0.00014	-0.00013	-0.00003	0.00061
금융 및 보험업	0.00031	0.00041	-0.00007	0.00055	0.00039	0.00057	0.00015	0.00016	0.00040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298	-0.00157	0.00277	0.00122	0.00223	-0.00001	0.00019	0.00085	-0.00128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0.00158	0.00105	0.00168	0.00089	0.00013	0.00072	0.00034	0.00123	0.00090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173	0.00114	0.00161	0.00133	0.00117	0.00134	0.00136	0.00059	0.0040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0007	-0.00024	-0.00042	-0.00115	-0.00024	-0.00022	-0.00047	-0.00022	-0.00186
교육 서비스업	0.00174	0.00167	0.00075	0.00082	0.00119	0.00043	0.00016	0.00169	0.00175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0526	0.00500	0.00431	0.00670	0.00571	0.00603	0.00519	0.00612	0.0046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0009	0.00022	0.00204	-0.00064	-0.00040	0.00079	0.00009	-0.00488	0.0002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158	0.00204	0.00012	0.00107	-0.00034	0.00066	0.00133	0.00226	0.00083

<표 5-9>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종사자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단위: %)

산업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농업, 임업 및 어업	-0.00039	0.00002	-0.00010	0.00005	-0.00013	-0.00006	-0.00016	-0.00008
광업	-0.00019	0.00004	0.00004	-0.00007	-0.00005	-0.00006	0.00000	0.00013
제조업	-0.01550	-0.02581	-0.01003	-0.00783	-0.02654	-0.00334	-0.00274	-0.02146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055	-0.00069	-0.00001	-0.00038	-0.00054	-0.00067	-0.00154	-0.0002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003	0.00001	-0.00021	-0.00029	0.00025	-0.00041	-0.00018	0.00016
건설업	0.01331	0.02263	0.00448	0.00619	0.01327	0.01252	0.02520	0.00844
도매 및 소매업	-0.00943	-0.01223	-0.00893	-0.01098	-0.00592	-0.01930	-0.01704	-0.00419
운수업	0.00089	0.00197	-0.00141	0.00363	0.00046	-0.00134	0.00413	0.00414
숙박 및 음식점업	-0.00758	-0.00781	-0.00322	-0.01294	-0.00373	-0.00866	-0.01188	-0.00208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0.00052	0.00321	-0.00117	-0.00044	-0.00065	-0.00062	-0.00121	-0.00056
금융 및 보험업	0.00001	0.00226	-0.00031	0.00288	0.00051	-0.00051	-0.00167	0.00025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182	-0.00433	0.00184	-0.00295	-0.00308	0.00011	0.00011	0.0006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509	0.00928	0.00266	0.00058	0.00196	-0.00162	0.00424	0.0016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537	0.00703	0.00251	0.00688	0.00587	0.00813	0.00563	-0.0021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0247	-0.00013	0.00236	0.00720	0.00176	0.00276	-0.00013	0.00383
교육 서비스업	-0.00056	-0.00092	0.00067	0.00022	0.00131	0.00112	-0.01089	0.00278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1087	0.00695	0.01362	0.01221	0.01522	0.01448	0.01190	0.00961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0080	-0.00016	-0.00214	-0.00135	0.00004	-0.00081	-0.00113	-0.00089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176	-0.00132	-0.00064	-0.00260	-0.00001	-0.00170	-0.00265	0.00011

<표 5-9-계속> 전국 및 16개 광역시도의 산업별 종사자수의 2007년 대비 2010년 비중 차이

(단위: %)

산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농업, 임업 및 어업	-0.00007	0.00026	-0.00022	-0.00232	-0.00059	-0.00279	-0.00002	-0.00038	-0.01160
광업	-0.00027	-0.00345	-0.00025	0.00002	-0.00006	-0.00089	-0.00012	-0.00007	0.00077
제조업	-0.01733	-0.00519	-0.00346	-0.00037	0.00401	-0.00815	-0.01222	-0.01465	-0.0025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0.00057	-0.00057	-0.00015	-0.00129	0.00065	-0.00097	-0.00039	-0.00044	-0.0005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0.00003	0.00045	0.00061	0.00042	0.00032	0.00016	0.00015	-0.00007	0.00031
건설업	0.00374	0.01201	0.00942	0.00650	0.01319	0.02744	0.02235	0.00936	0.02811
도매 및 소매업	-0.00326	-0.01107	-0.01184	-0.00936	-0.01615	-0.01601	-0.00933	-0.00600	-0.01133
운수업	0.00115	-0.00142	-0.00245	0.00086	-0.00083	0.00311	-0.00049	0.00181	-0.00392
숙박 및 음식점업	-0.00697	-0.01080	-0.00819	-0.01196	-0.00780	-0.00932	-0.01071	-0.00291	-0.01186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	0.00001	-0.00107	-0.00076	-0.00074	-0.00186	-0.00176	-0.00142	-0.00082	0.00452
금융 및 보험업	-0.00042	-0.00281	-0.00506	0.00002	0.00019	-0.00171	-0.00284	-0.00149	-0.00372
부동산업 및 임대업	-0.00322	0.00044	0.00370	0.00106	-0.00159	-0.00114	-0.00055	-0.00023	-0.00016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0.00818	0.00296	0.00238	-0.00097	-0.00020	0.00225	0.00013	0.00238	0.00139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0.00605	0.00629	-0.00148	0.00760	0.00510	0.00484	0.00462	0.00204	0.00473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0.00346	0.00655	0.01122	0.00225	0.00334	-0.00060	0.00538	0.00157	-0.00453
교육 서비스업	0.00178	-0.00324	-0.00290	-0.00198	-0.00433	-0.00321	-0.00346	0.00064	-0.0000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0.01022	0.01500	0.01199	0.01389	0.01268	0.01350	0.01198	0.01181	0.0158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0.00108	-0.00238	0.00002	-0.00045	-0.00070	0.00015	0.00026	-0.00256	0.00016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0.00137	-0.00195	-0.00257	-0.00320	-0.00537	-0.00488	-0.00329	0.00001	-0.00557

<표 5-10> 경제활동인구와 사업체조사의 종사자수 비교

시도별	경제활동인구(단위 : 명)				종사자수(단위 : 명)				경제활동인구 - 종사자수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2007	2008	2009	2010
계	24,216,000	24,347,000	24,394,000	24,748,000	15,943,674	16,288,280	16,818,015	17,647,028	8,272,326	8,058,720	7,575,985	7,100,972
서울특별시	5,148,000	5,122,000	5,064,000	5,180,000	4,005,831	4,079,277	4,177,336	4,487,357	1,142,169	1,042,723	886,664	692,643
부산광역시	1,682,000	1,659,000	1,639,000	1,633,000	1,157,853	1,165,574	1,182,236	1,204,764	524,147	493,426	456,764	428,236
대구광역시	1,200,000	1,185,000	1,200,000	1,218,000	732,128	739,022	766,886	786,487	467,872	445,978	433,114	431,513
인천광역시	1,311,000	1,317,000	1,355,000	1,390,000	765,760	765,014	790,202	827,748	545,240	551,986	564,798	562,252
광주광역시	659,000	663,000	673,000	688,000	456,575	464,104	488,781	499,215	202,425	198,896	184,219	188,785
대전광역시	709,000	722,000	724,000	728,000	429,632	450,857	468,501	492,722	279,368	271,143	255,499	235,278
울산광역시	528,000	545,000	544,000	553,000	406,846	404,866	413,831	434,280	121,154	140,134	130,169	118,720
경기도	5,585,000	5,713,000	5,761,000	5,913,000	3,334,921	3,438,570	3,558,659	3,749,152	2,250,079	2,274,430	2,202,341	2,163,848
강원도	684,000	686,000	694,000	685,000	448,200	466,538	479,165	490,109	235,800	219,462	214,835	194,891
충청북도	710,000	726,000	739,000	753,000	480,060	498,337	513,176	533,545	229,940	227,663	225,824	219,455
충청남도	1,021,000	996,000	991,000	1,003,000	622,870	641,731	665,433	702,560	398,130	354,269	325,567	300,440
전라북도	848,000	848,000	842,000	835,000	502,261	512,017	544,469	565,803	345,739	335,983	297,531	269,197
전라남도	920,000	923,000	924,000	904,000	519,017	535,252	560,699	569,925	400,983	387,748	363,301	334,075
경상북도	1,376,000	1,382,000	1,385,000	1,400,000	829,586	844,659	868,182	927,308	546,414	537,341	516,818	472,692
경상남도	1,539,000	1,565,000	1,568,000	1,576,000	1,073,152	1,101,580	1,140,329	1,173,377	465,848	463,420	427,671	402,623
제주도	295,000	296,000	293,000	289,000	178,982	180,882	200,130	202,676	116,018	115,118	92,870	86,324

제6장 소지역 통계 제공방안

제1절 서론

근래에 들어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정책들이 다양해지고 고도화되고 있는 추세이며 또한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들도 지역 발전을 위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정책을 개발하여 시행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정책 개발을 위한 근거 자료로서 뿐만이 아니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다양한 산업활동을 하는 주민들에게 자신에 거주하는 소지역에 대한 경제 정보는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소규모 지역에 대한 경제 정보의 요구는 점점 커지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소지역 경제 정보에 대한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2010년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사용하여 시군구에 대한 통계를 지도로 나타낼 수 있는 간편한 프로그래밍 기법을 고안하여 일반 이용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시군구 단위의 각종 통계들을 지도를 통하여 시각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적인 관계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2010년 경제총조사의 자료에 대한 상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출액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제시하여 소지역 통계에 사용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모형에 기반한 추정방법에 이용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여러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자영업의 대표적인 업종인 숙박 및 음식점업에 대한 경제총조사의 마이크로 자료를 획득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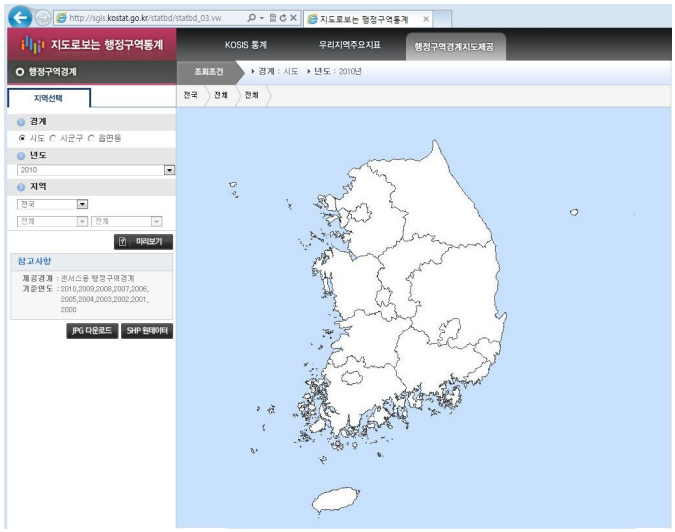
제2절 R을 이용한 소지역 통계에 대한 지리정보 분석

1. 행정지도자료

시군구에 대한 통계를 지도에 나타내는 지리정보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행정구역에 대한 지도자료(Administrative Areas)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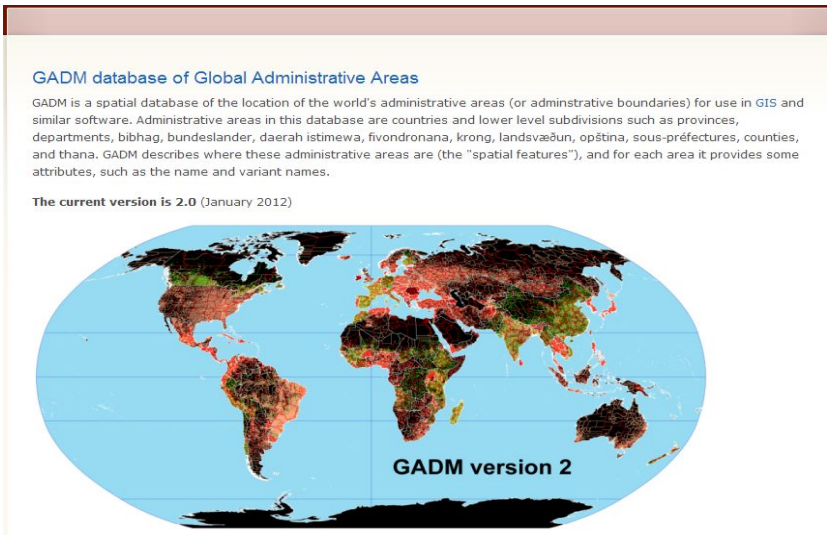
한국 통계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Web을 이용한 통계지리정보 서비스(http://sgis.kostat.go.kr/)에서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된 세 가지 수준의(시도 수준, 시군구 수준, 읍면동 수준) 행정구역 지도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http://sgis.kostat.go.kr/statbd/statbd_03.vw; [그림 6-1] 참고).



[그림 6-1] 통계청(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행정구역 지도자료

통계지리정보 서비스에서 행정구역 지도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지도자료의 형식은 "shapefile" 형식이다. 한 가지 레벨에 대한 지도자료는 3개의 파일로 구성되어 있다(xxx,shp ; xxx.dbf ; xxx.shx). 자료분석과 지리정보를 결합하기 위해서는 세 개의 파일이 하나의 디렉토리에 있어야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세 개의 행정구역 수준(시도 수준, 시군구 수준, 읍면동 수준)에 대하여 각각 지도자료가 따로 존재하므로 다른 디렉토리에 저장해야 한다.



[그림 6-2] GADM database of Global Administrative Areas(http://www.gadm.org/)

참고로 전 세계에 대한 행정구역 지도자료는 GADM database of Global Administrative Areas라는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http://www.gadm.org/; [그림 6-2] 참고). GADM database에서 한국 행정구역 지도자료도 얻을 수 있지만 생산된 통계자료와 행정구역을 매칭할 수 있는 중요한 코드인 한국 행정구역 분류부호가 지도자료에 없기 때문에 유용성이 떨어지지만 행정구역 지도자료를 여러 가지 형식으로 제공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2. R을 이용한 지도 작성

R 프로그래밍 언어(줄여서 R)는 통계 계산과 그래픽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이자 소프트웨어 환경이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대학의 로스 이하카와 로버트 젠틀맨에 의해 시작되어 현재는 R 코어 팀이 개발하고 있다. R은 GPL 하에 배포되는 S 프로그래밍 언어의 구현으로 GNU S라고도 한다. R은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과 자료분석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패키지 개발이 용이하여 통계학자들 사이에서 통계 소프트웨어 개발에 많이 쓰이고 있다.

본 장에서는 R에 대한 일반적인 이용방법은 지면의 제약상 생략한다. 자세한 R programming에 대한 내용은 다양한 매뉴얼, 통계 교재, 인터넷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R을 이용하여 "shapefile" 형식으로 된 지도자료로 지도를 그리려면 다음과 같은 패키지(package)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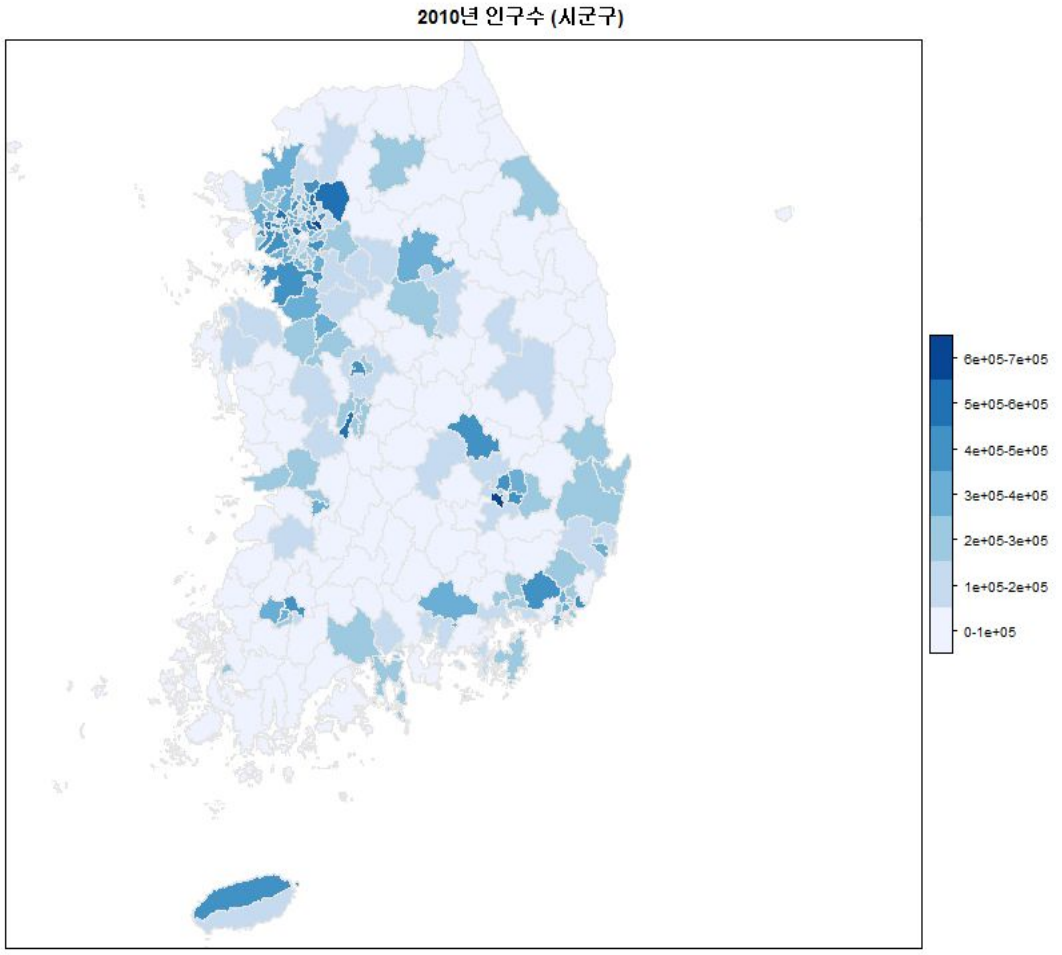
<표 6-1> "shapefile" 지도자료를 이용하여 R에서 지도를 그릴 때 필요한 패키지

패키지 이름	패키지 기능
maptools	Tools for reading and handling spatial objects
sp	classes and methods for spatial data
lattice	Lattice Graphic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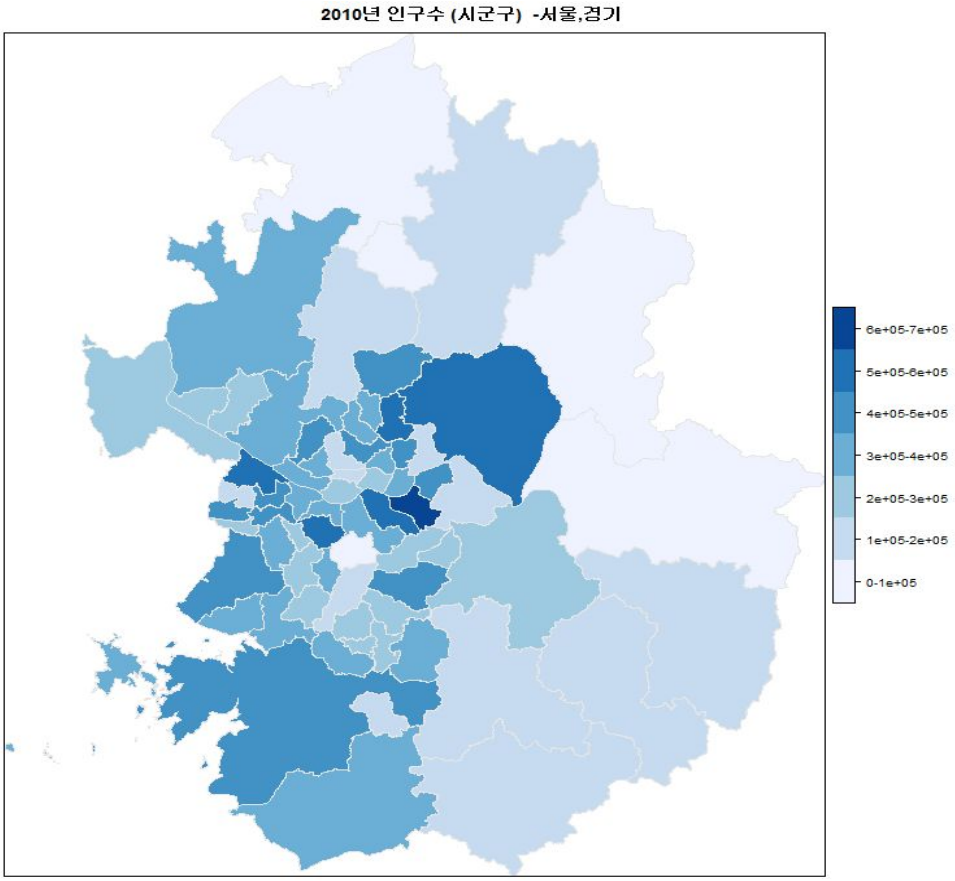
지도자료를 다운로드받아 저장을 하고 나서 R을 실행시키고 다음과 같은 3줄의 프로그램으로 시군구 행정구역 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시도행정구역 자료와 읍면동 행정구역 자료도 해당하는 지도자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쉽게 지도를 그릴 수 있다.

```
>setwd("c:\\mapdata\\level2")
>korea2 <- readShapePoly("korea-level-2.shp")
>plot(korea)
```

소지역 통계(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의 통계를 작성한 다음 시군구 통계 자료의 행정구역 분류부호와 지도자료에 있는 부호를 매칭하면 지도자료에 원하는 통계자료를 첨가할 수 있다. 이렇게 통계가 첨가된 지도자료를 이용하여 시도가 아닌 더 세밀한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자료를 지리정보화하여 보여줄 수 있다. [그림 6-3]과 [그림 6-4]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2010년 인구총조사에서 얻어진 시군구 인구를 행정구역 지도자료와 결합하여 R에서 지도를 그린 예이다.



[그림 6-3] R에서 작성한 전국 시군구별 2010년 인구 지도



[그림 6-4] R에서 작성한 서울, 경기 시군구별 2010년 인구 지도

제3절 음식점 및 숙박업에 대한 소지역 통계에 대한 지리정보 분석

현재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며 국내적으로도 내수시장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생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이렇게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따라서 취업이 어려워지며 실업률이 높아지는 상태이다. 한국경제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자영업이 선진국이나 경제 규모가 비슷한 국가들보다 전체 경제활동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국민의 경제활동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의 상황이 악화되고 있어 정부나 정치권에서 우려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 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대책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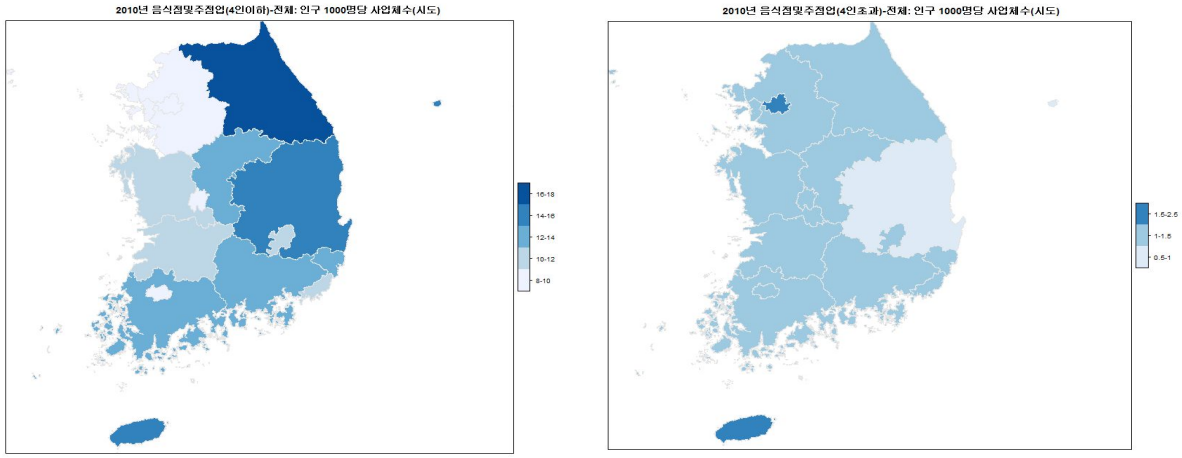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는 자영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에 대한 현황을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분석자료는 경제총조

사에서 조사한 업소의 수, 종사자, 매출액, 각종 사업비용 등 여러 가지 항목을 시군구 통계로 요약하고 이러한 소지역 통계를 지도자료와 결합하여 그 현황을 지도를 통해서 시각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인구총조사에서 사업체를 "4인 이하"와 "4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조사항목에 약간에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도 분석을 "4인 이하"와 "4인 이상"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또한 산업의 분류를 중분류에서 세세분류까지 나누어 비교적 규모가 큰 산업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시도별 총사업체수, 1,000명당 사업체수 매출액 중위수 현황, 시군구별 총사업체수, 1,000명당 사업체수, 매출액 중위수, 객석(객실) 중위수, 사업이익 중위수 등과 같은 항목의 통계를 지리 정보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분포 상황을 알아보았다. 여기서 중위수(median)은 해당 지역의 사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값들의 중위수를 의미한다.

1. 지리정보를 통한 음식점업에 대한 시군구 통계

[그림 6-5]의 왼쪽그림은 2010년 4인 이하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의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시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지방에 인구당 업소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인구당 소규모 음식접의 업소수가 적음은 기대하지 않았던 결과이다. [그림 6-8]을 보면, 서울의 경우에 4인 초과 음식점이 많은 것과도 대비되는 결과이다. 지역적으로 음식업의 규모가 다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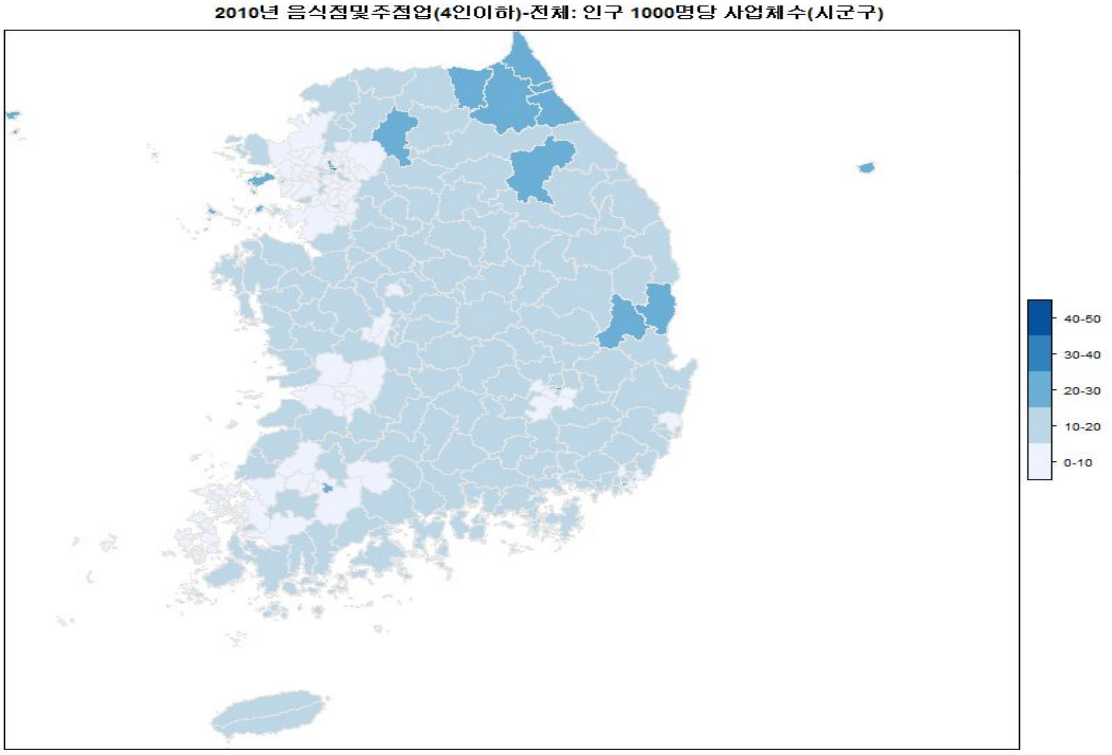
4인 이하 사업체 4인 초과 사업체

[그림 6-5]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음식점업

[그림 6-5]의 오른쪽그림은 2010년 4인 초과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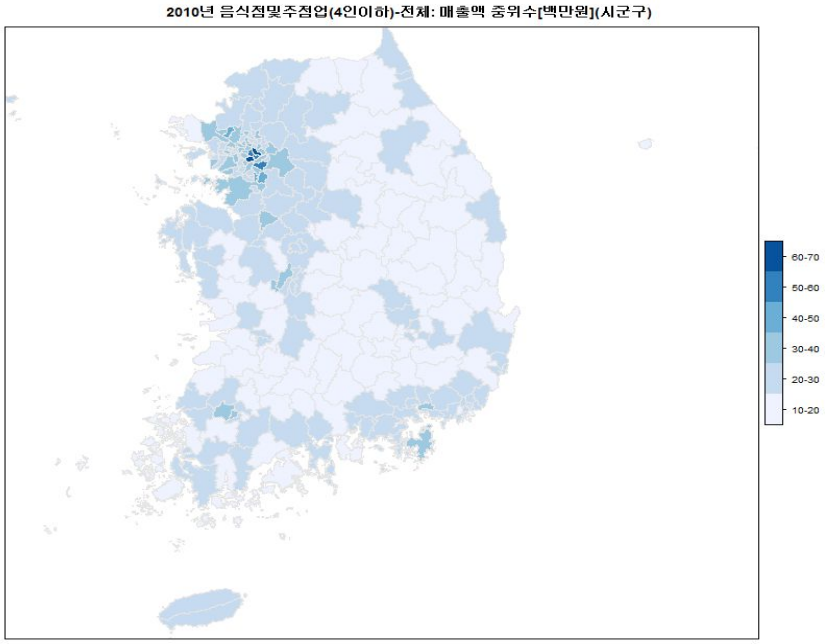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시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4인 이하 사업체가 강원도, 경상북도, 제주도 지방에 인구 당 업소수가 많은 것과는 반대로 4인 초과 사업체는 서울과 제주도 지방에 인구 당 사업체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4인 이하와 5인 이상의 경우가 대비되고 있다.

[그림 6-6]은 2010년 4인 이하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의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강원도, 경상북도 지방에 인구당 업소수가 많음을 나타낸다. [그림 6-5]에서는 강원도 지역의 4인 이하 음식점이 많은 것으로 보였지만, [그림 6-6]을 보면 강원도 전 지역에 위치하기 있기보다는 위락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설악산 부근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상북도의 특정 지역에 소규모의 음식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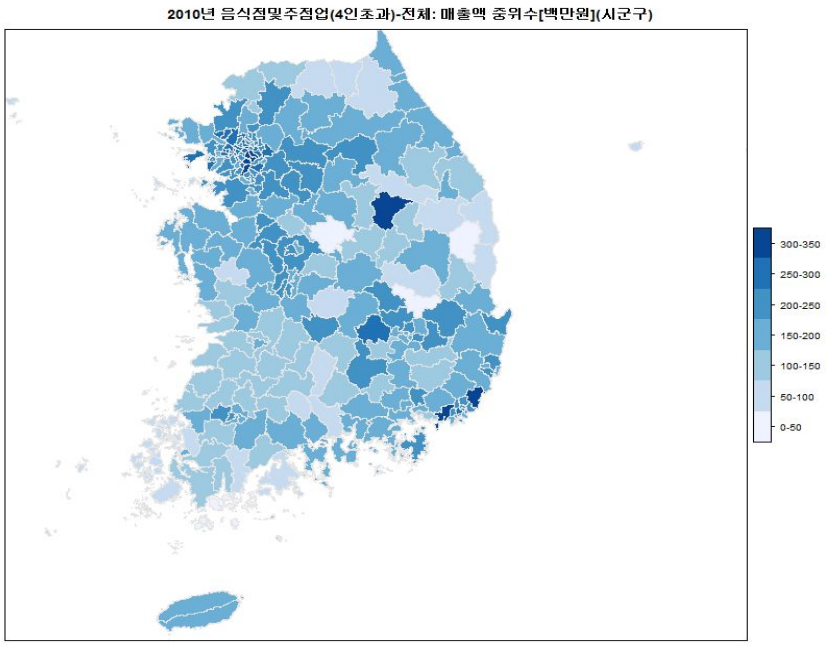
[그림 6-6]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그림 6-7]은 2010년 4인 이하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의 매출액 중위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수도권에 매출액 분포가 다른 지방보다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해안 부근과 수도권 부근의 소규모 음식점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매출액은 거주자가 많거나 관광객의 왕래가 많은 지역에 매출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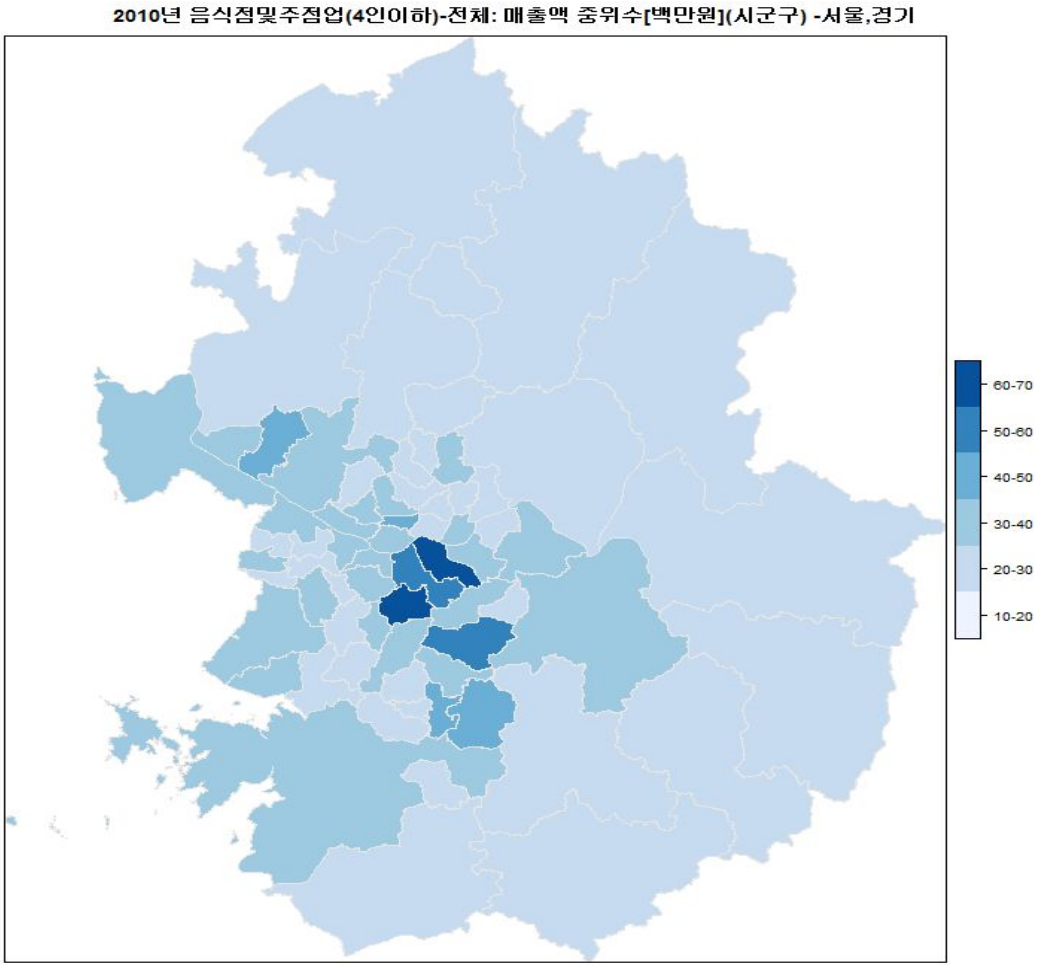
[그림 6-7]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그림 6-8]은 2010년 4인 초과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의 매출액 중위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수도권에 매출액 분포가 다른 지방보다 매우 높지만 부산, 강원도 정선 지역 등 매출의 분포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도시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음식점이 위치하고 매출액이 높음을 알 수 있어, 인구밀집도 및 소득수준과의 상관성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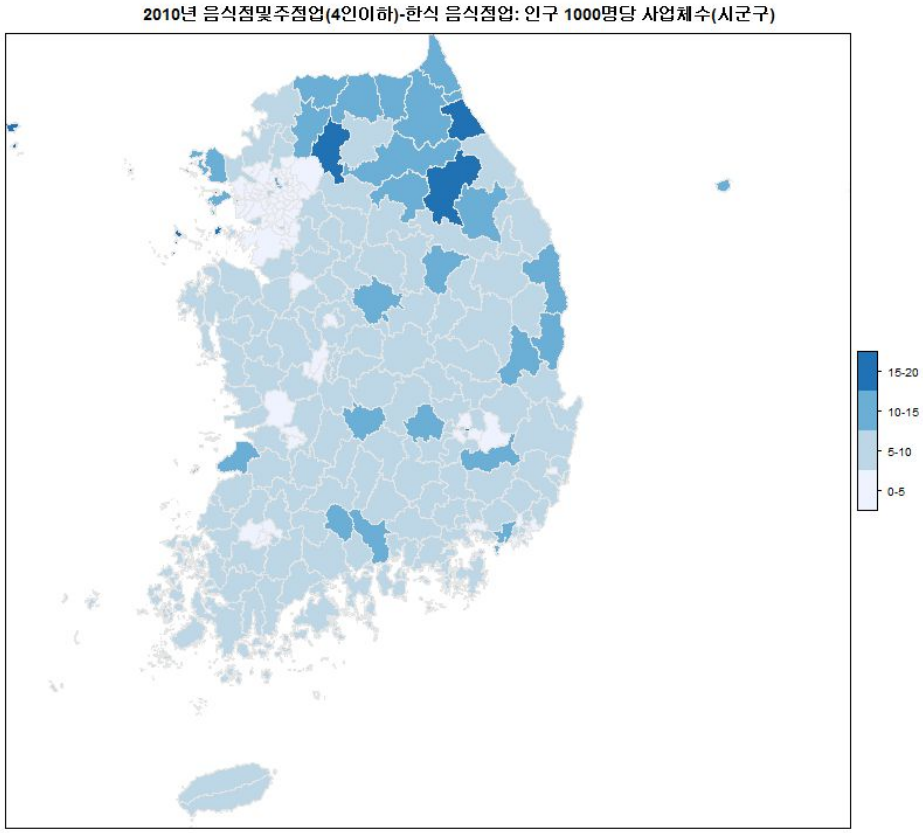
[그림 6-8]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음식점업-4인 초과 사업체

[그림 6-10]은 서울, 경기지방에 대하여 2010년 4인 이하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의 매출액 중위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에는 수도권에서는 서울 도심에 가까울수록 매출액 분포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강남구에는 4인 미만 음식점의 매출액이 높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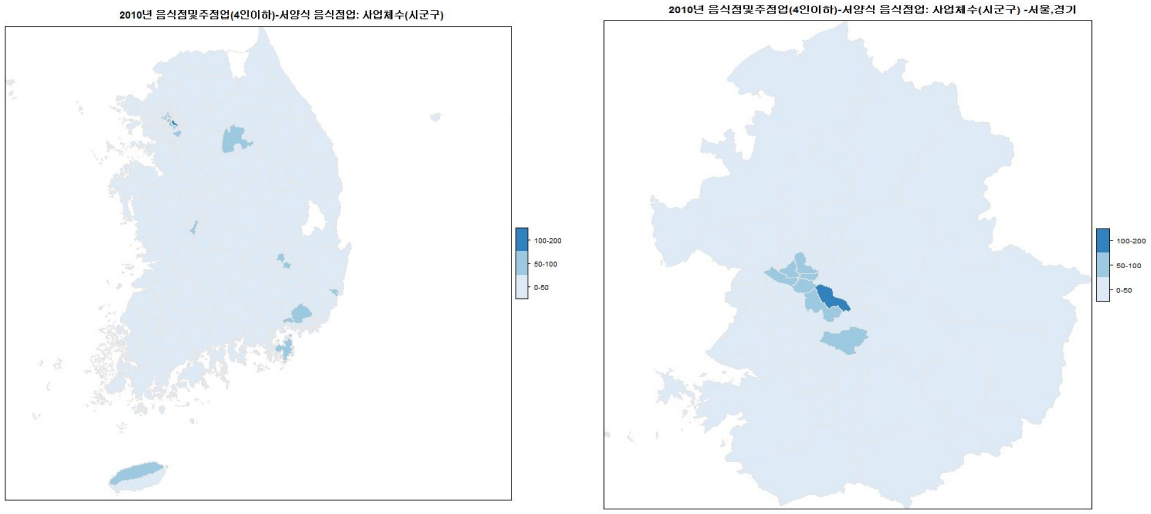


[그림 6-9]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서울, 경기

[그림 6-10]과 [그림 6-11]은 각각 2010년 4인 이하 한식 음식점업과 서양 음식점업의 인구 1000명 당 사업체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한식 음식점업은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만, 서양 음식점업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서울도심부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0]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한식 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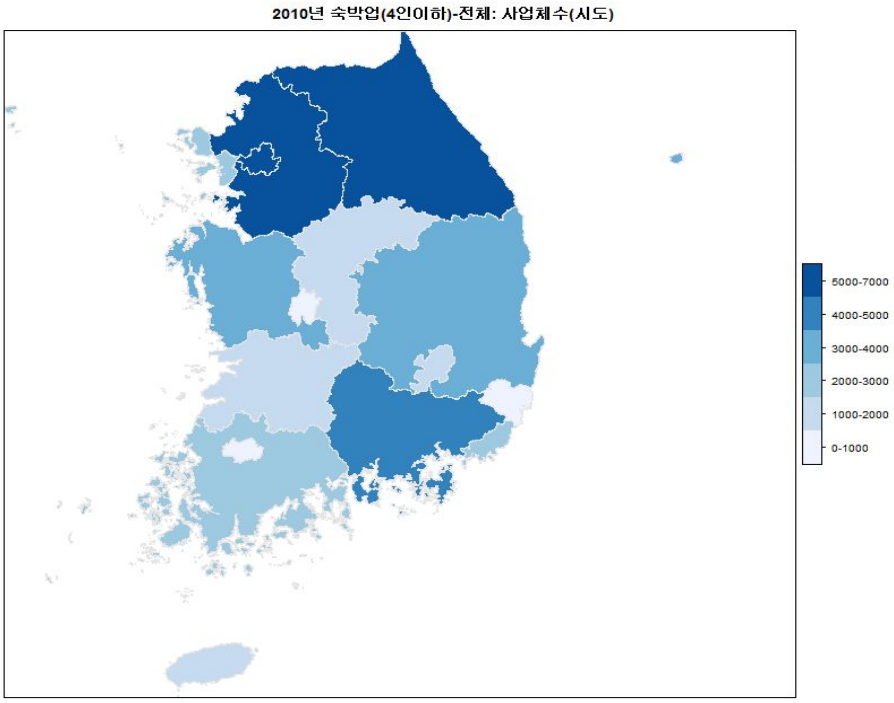


전국 시군구 서울경기 시군구

[그림 6-11]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서양 음식점업-4인 이하 사업체

2. 지리정보를 통한 숙박업에 대한 시군구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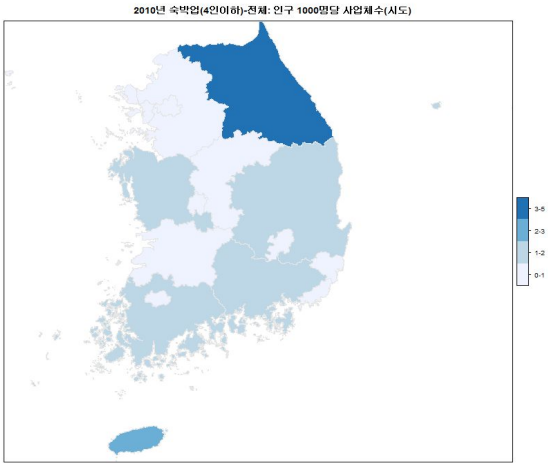
[그림 6-12]는 2010년 4인 이하 숙박업(산업분류코드 55000)의 총사업체수를 시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서울, 경기, 강원 지방에 5000개 이상의 업소가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한편, 상대적으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 대전, 광주, 울산에 4인 이하 숙박업이 적음을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의 숙박업이 상대적으로 대규모화하여 소규모 숙박업이 적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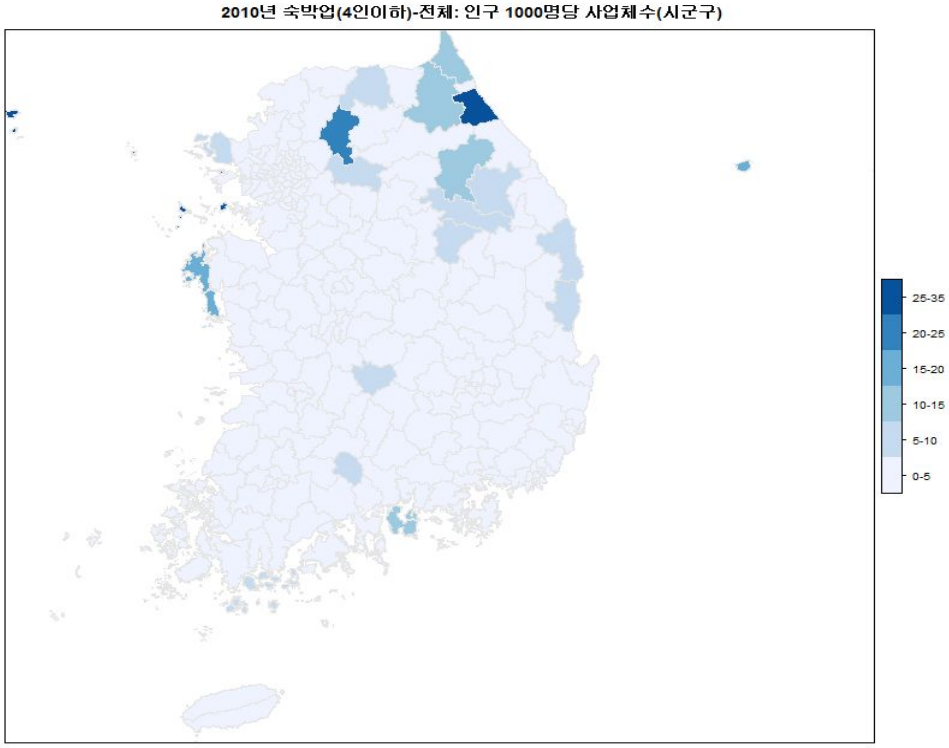
[그림 6-12] 시도별 총사업체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그림 6-13]은 2010년 4인 이하 숙박업(산업분류코드 55000)의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시도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강원 지방에 집중도가 다른 지방보다 높으며 이는 강원도가 관광산업이 발달된 이유로 추정된다. 제주도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가 상대적으로 많음을 보여주고 있어, 동일한 논리가 적용된다.

[그림 6-14]는 2010년 4인 이하 숙박업(산업분류코드 55000)의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강원 지방 중에서도 영동해안과 수도권과 근접한 영서지방에 집중도가 다른 지방보다 높다. 주로 관광산업이 발달한 지역에 숙박업이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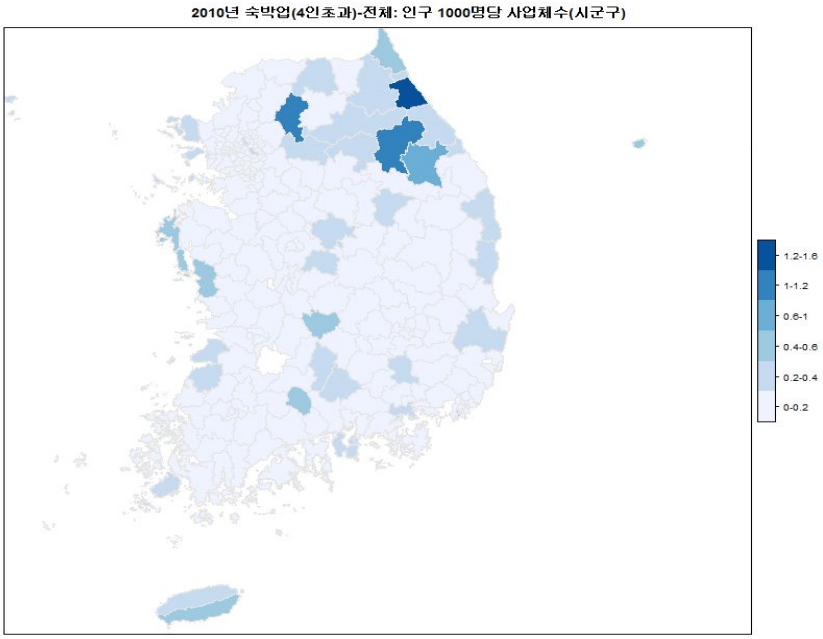
[그림 6-13] 시도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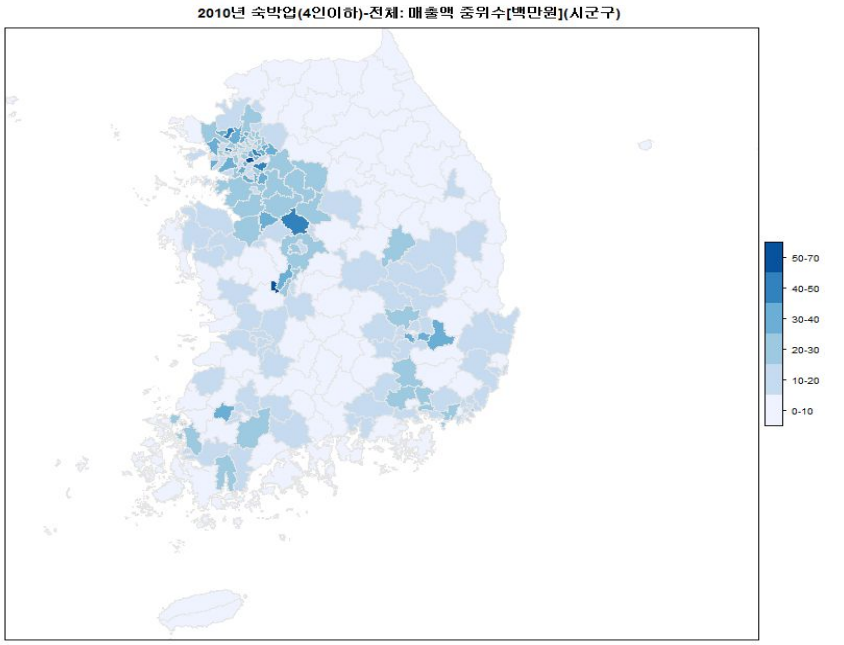
[그림 6-14]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그림 6-15]는 2010년 4인 초과 숙박업(산업분류코드 55000)의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4인 이하 사업체와 유사하게 강원 지방 중에서도 영동해안과 수도권과 근접한 영서 지방에 집중도가 다른 지방보다 높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집중도가 서귀포를 중심으로 한 남쪽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16]은 2010년 4인 이하 숙박업(산업분류코드 55000)의 매출액 중위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사업체가 집중된 강원 지방보다 수도권 지역이 사업체 매출의 중위수가 높은 것을 날 수 있다. 제주도 지역의 매출 중위수가 상당히 낮음을 알 수 있어, 관광특구의 설정이 반드시 매출액을 높여주지는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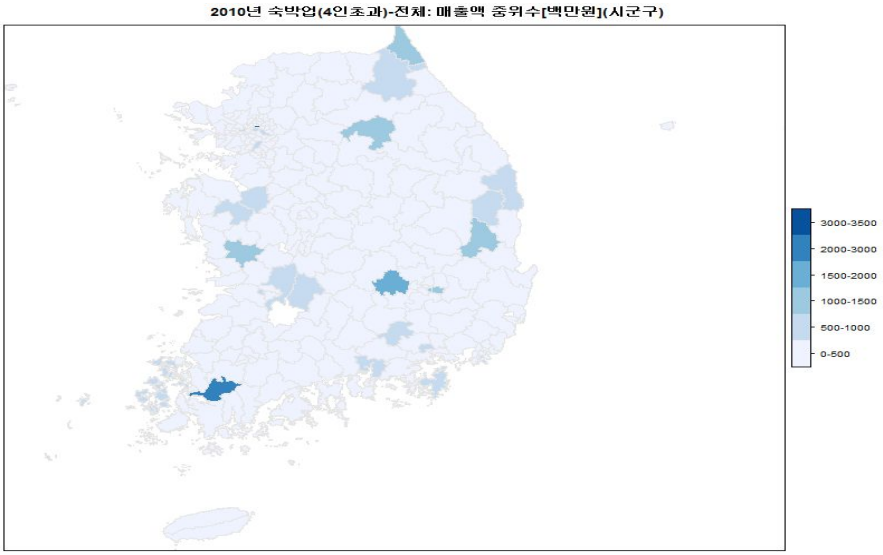
[그림 6-15]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사업체수-숙박업-4인 초과 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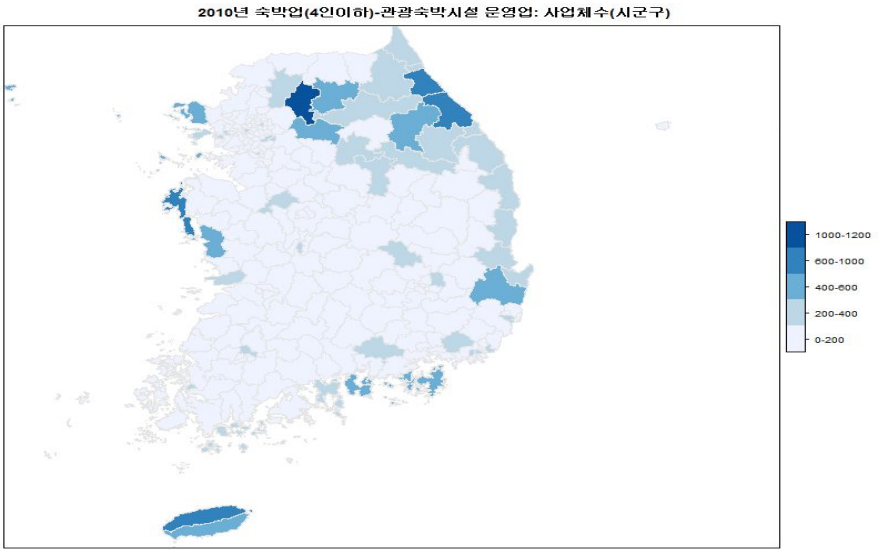
[그림 6-16]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숙박업-4인 이하 사업체

[그림 6-17]은 2010년 4인 초과 숙박업(산업분류코드 55000)의 매출액 중위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4인 이하의 숙밥업에서 매출액의 중위수가 다른 지방보다 수도권이 높은데 비하여 4인 초과 숙박업에서는 전국에서 특별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매출액의 중위수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6-18]은 2010년 4인 이하 관광숙박시설운영업(산업분류코드 55100)의 총 사업체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관광숙박시설운영업은 지역의 관광산업과 연관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강원지역을 포함한 동해안 인접지역, 서해안, 남해안, 제주도 등에 많은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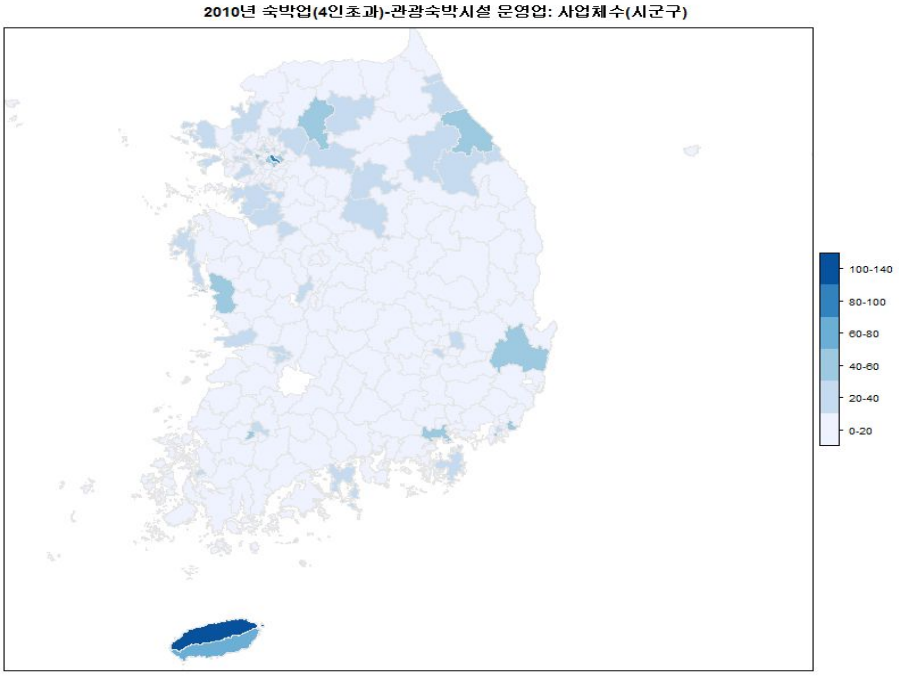


[그림 6-17] 시군구별 매출액 중위수-숙박업-4인 초과 사업체



[그림 6-18] 시군구별 총 사업체수-관광숙박시설운영업-4인 이하 사업체

[그림 6-19]는 2010년 4인 초과 관광숙박시설운영업(산업분류코드 55100)의 총 사업체수를 시군구별로 나타낸 그림이다. 4인 이하 사업체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고 있지만 서울 시내 지역, 제주도 지역에 사업체가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높은 분포를 보이고 있고, 특히 제주시를 중심으로 한 북쪽 지역이 더욱 밀집해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공항의 위치와도 연관이 있어 보인다.



[그림 6-19] 시군구별 총사업체수-관광숙박시설운영업-4인 초과 사업체

제4절 사업체 매출액의 소지역 통계를 위한 회귀모형 분석

지방자치제도가 발달하고 지역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여러 분야에서 소지역 통계에 대한 요구가 증가한다. 하지만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조사에서는 그 목적이나 표본수의 선정에 있어서 보통 시도별 통계를 생산하는 것에서 그친다. 이러한 표본조사의 자료를 가지고 소지역(예를 들면, 시군구)의 통계를 내는 것은 어려운 작업이다. 각 시군구에 추출된 단위들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가 흔히 일어나므로 활용할만한 정도를 가진 추정치를 생산해 내기는 어렵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조사통계 방법의 한 분야로서 소지역추정법(Small Area Estimation; SAE)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소지역

추정법은 다양한 통계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지만 흔히 두 가지 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하나는 전수조사나 행정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시군구에 대한 보조자료를 이용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통계적 모형(예를 들어, 회귀식)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 두 방법은 서로 혼합되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으며 소지역 추정에 중요한 도구이다.

2010년 경제총조사는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이므로 사실상 전국의 모든 사업체에 대한 사업체수, 종사자 현황, 매출 및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2010년 경제총조사에서 소지역(시군구)에 대한 모집단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하며 이러한 정보를 이용하여 전수자료에 대한 통계적 모형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파악하면 추후에 다른 표본조사나 새로운 조사에서 소지역추정을 할 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4인 이하 음식점업(산업분류코드 56000)만 고려하고 서울과 경기지역에 국한된 자료를 이용한다. 또한 관심 변수를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으로 하여 매출액에 대한 다른 항목들의 관계를 살펴보고 설명력 있는 회귀모형을 추정하려고 한다. 보통 사업체의 매출에 대한 조사는 조사 항목의 민감성(예를 들어, 영업이익은 낮게 응답하는 경우가 흔하다)과 사업체의 규모(예를 들어, 4인 이하 소규모 비법인 사업체는 정확한 매출의 파악이 힘들다)에 따라 비표본오차가 많이 포함되어 정확한 조사가 힘들다. 이러한 경우를 고려하여 매출액과 가장 관계가 강하고 비교적 조사하기 쉬운 변수를 회귀분석에 포함시켜 소지역 추정에 사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010년 총조사 자료에서 전체 자료를 기초 분석하여 때 응답하지 않았거나 결측치가 많은 항목은 제외하였다. 이러한 변수들은 관측값이 없거나 조사가 어려운 자료로 판단되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특히, 음식점 및 주점업에 대한 자료에서는 자산(유형, 무형)에 대한 항목에 결측값이 매우 많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1. 추출단위 회귀분석 모형 - 4인 이하 음식점업

첫 번째 고려할 모형은 사업체 단위, 즉 추출단위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하나의 사업체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y_i라고 하고 다른 항목들을 $x_{i1}, x_{i2}, ..., x_{ip}$라고 하자. 여기서 x_{ij}는 지역, 산업분류, 종사자수, 객석수, 각종 비용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모집단 회귀모형을 고려한다.

$$y_i = \beta_0 + \beta_1 x_{1i} + \beta_2 x_{2i} + ... + \beta_p x_{pi} + e_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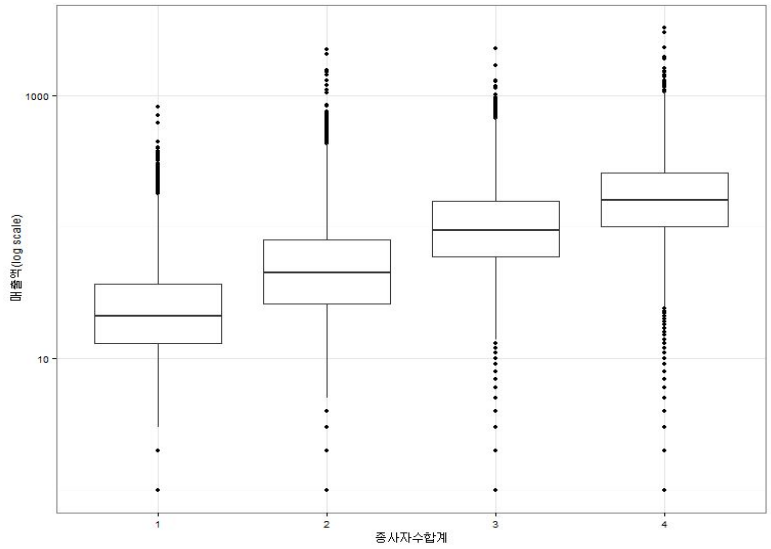
이러한 모형 중에서 사업체의 매출액 y_i를 잘 설명하는 회귀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첫 번째 분석으로 매출액과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2> 참고). 사업체의 매출액에 연관이 많은 자료는 사업비용, 매출원가, 사업이익, 임차료 등 이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에 관련된 변수를 조사하기 어려운 변수들임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사자수, 연간급여액 등의 상관계수가 0.5~0.6으로 비교적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비교적 표본조사에서 획득하기 쉬운 객석수, 면적, 사업연수 등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표 6-2> 추출단위 자료의 매출액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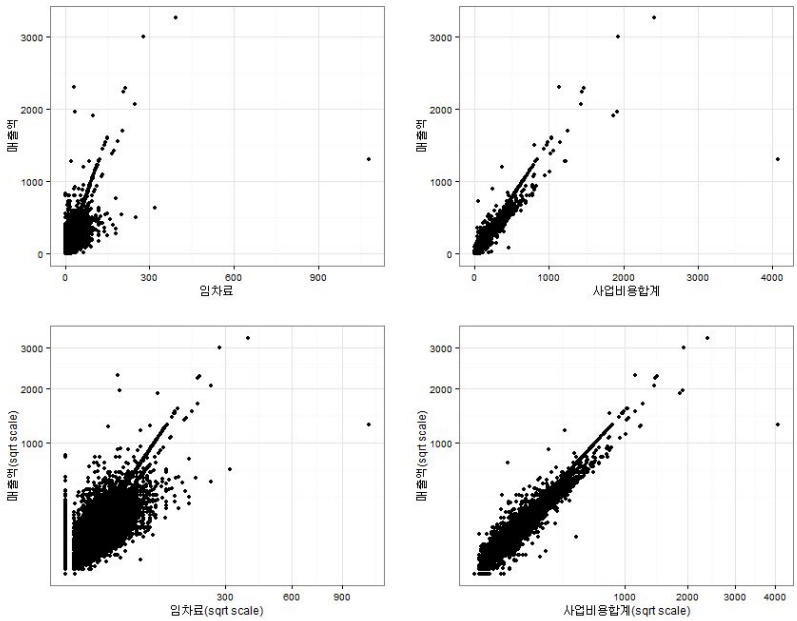
	매출액과의 상관계수
종사자수 합계	**0.5073**
연간총급여액	**0.6079**
사업비용 합계	**0.9725**
매출원가	**0.9505**
인건비	**0.7215**
임차료	**0.8344**
세금과공과	**0.5822**
기타 영업비용	**0.7116**
사업이익	**0.8906**
기말상품재고액	0.0972
연간영업개월수	0.2095
휴무일수	0.0977
평균 영업시간	0.0586
체인점 가입 여부	-0.1031
객석수	0.0848
건물연면적	0.0086
매장연면적	0.0076
사업연수	0.0553

자료분석 대상이 4인 이하 사업체이므로 종사자수 합계와 매출액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그림 6-20] 참고). 종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분포의 모양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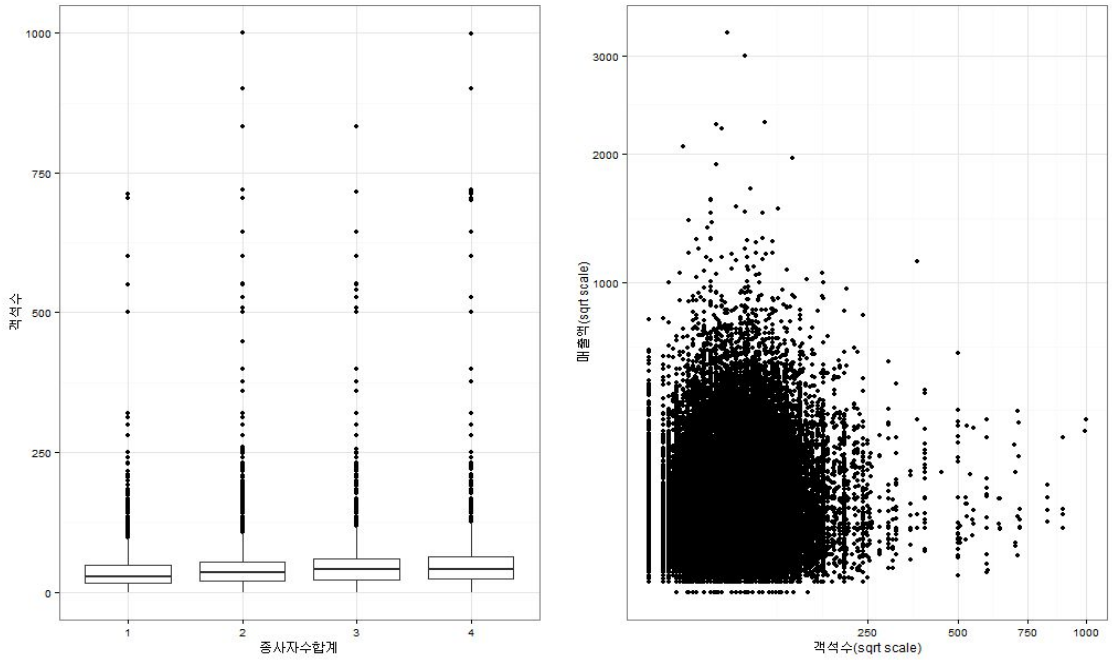
[그림 6-20] 추출단위 자료에서 종사자수에 대한 매출액 분포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21] 추출단위 자료에서 임차료, 사업비용합계와 매출액과의 관계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상관계수가 높게 나온 임차료, 사업비용 합계가 매출액과 어떤 함수 관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산포도를 그려 보았다([그림 6-21] 참고). 매출액과 사업비용 합계는 매우 강한 선형관계를 보여준다. 산포도에서 일

부의 자료가 일직선상에 정렬되어진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6-22] 추출단위 자료에서 객석수와 종사자수, 매출액과의 관계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표본 조사에서 조사하기 쉬우리라 예상되는 업소의 객석수는 종사자수 또는 매출액과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22] 참고).

사업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시군구 지역과 산업의 세세분류를 그룹을 나타내는 요인으로 포함시키고 종사자수 합계, 임차료, 연간영업개월수, 사업연수를 연속변수로, 체인점 가입여부를 이산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매출액이 1,000백만 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회귀식도 고려해보았다.

회귀분석의 결과 모든 계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종사자수 합계, 임차료, 연간영업개월수가 매우 유의하게 나왔다. 매출액이 1,000백만 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회귀식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추정결과는 <표 6-3>에 나와 있다), 종사자수 합계, 임차료, 연간영업개월수, 사업연수 모두 양의 회귀계수로 추정이 되었으나 체인점 가입 여부는 음의 계수를 보이고 있어 4인 이하 음식점업에서는 체인점을 가입했을 때 매출이 평균적으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두 회귀식 모두 70%를 넘는 설명계수를 보여준다.

업종별로 사업체의 매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한식점업을 기준으로 하고 종사자수의 합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식접업, 일식점업, 서양식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7.32, 17.33, 29.58(백만 원)이 한식점 사업체보다 낮다는 해석이 가능하다(<표 6-3> 참고). 전국적으로 한식점 이외의 업종들, 특히 서양식과 기타 외국 음식업의 사업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6-3> 추출단위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4인 이하)

독립변수	모든 자료를 사용한 회귀식 (n=97393)	매출액이 1,000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회귀식 (n=97336)
	회귀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한식점업	0.00(업종기준)	0.00(업종기준)
중식점업	-7.32(0.775)	-4.42(0.685)
일식점업	-17.33(1.207)	-22.68(1.070)
서양식	-29.58(1.254)	-32.40(1.111)
기타 외국음식	-35.66(2.973)	-37.81(2.470)
종사자수 합계	21.31(2.213)	18.45(0.192)
임차료	6.60(0.017)	7.09(0.017)
연간영업개월수	2.73(0.070)	2.33(0.062)
사업연수	0.17(0.035)	0.18(0.031)
체인점 가입 여부	-1.96(0.676)	-1.30(0.598)
R-square	0.73	0.77

2. 소지역 단위 회귀분석 모형 - 4인 이하 음식점업

두 번째 고려할 모형은 소집단 단위(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즉 추출 단위인 사업체 단위의 값을 소집단별로 합계를 낸 지역총합(small area total)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i번째 소집단에 속한 사업체에 대한 연간 매출액을 y_{ij}라면 지역총계는 그 지역에 속한 사업체의 값을 모두 더한 총합이다.

$$Y_i = \sum_j y_{ij}$$

다른 항목들도 지역총합을 구하여 $X_{i1}, X_{i2}, ..., X_{ip}$라고 하자. 여기서 X_{ik}는 산업분류, 종사자 총수, 객석 총수, 각종 총비용이 고려될 수 있다. 다음과 같은 모집단 회귀모형을 고려한다.

$$Y_i = B_0 + B_1 X_{1i} + B_2 X_{2i} + ... + B_p X_{pi} + u_i$$

이러한 모형 중에서 지역 매출 총합 Y_i를 잘 설명하는 회귀식을 찾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목적으로 소지역의 총합을 구할 때 산업세세분류, 즉 5개의 음식점업(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 외의 음식업)에 대해 각각 5개의 총합을 구하였다. 예를 들면, 동대문구에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 외의 음식업의 5개 총합이 계산된다.

첫 번째 분석으로 매출액 총합과 다른 총합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4> 참고). 사업체의 매출액 총합은 면적에 대한 변수를 제외한 모든 변수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것은 자료를 합계를 하면 흔히 나오는 현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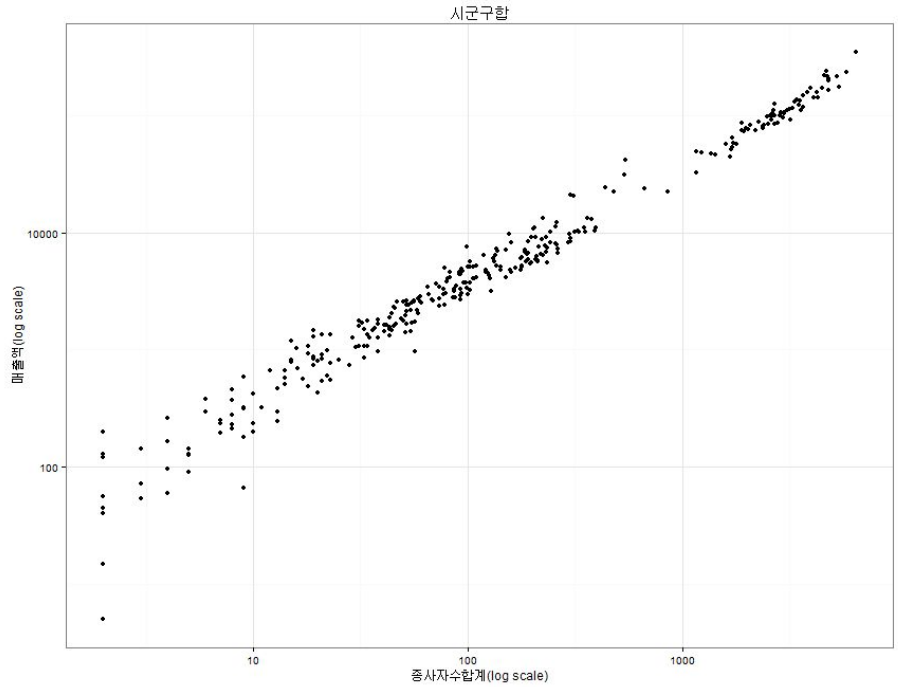
[그림 6-23]과 [그림 6-24]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액 총합, 종사자수 총합, 객석수 총합들은 매우 강한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진다(log scale). [그림 6-25]에서 볼수 있듯이 시군구별로 음식점 업종별의 총합을 보면 한식음식점의 매출액이 압도적으로 다른 업종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의 매출에 대한 총합에 대한 회귀분석을 업종을 요인으로 고려하고 종사자수 총합만을 고려하였다. 결정계수가 0.97인 매우 유의한 회귀식이 추정되었다.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지역의 각 업종의 매출총액은 평균적으로 44백만 원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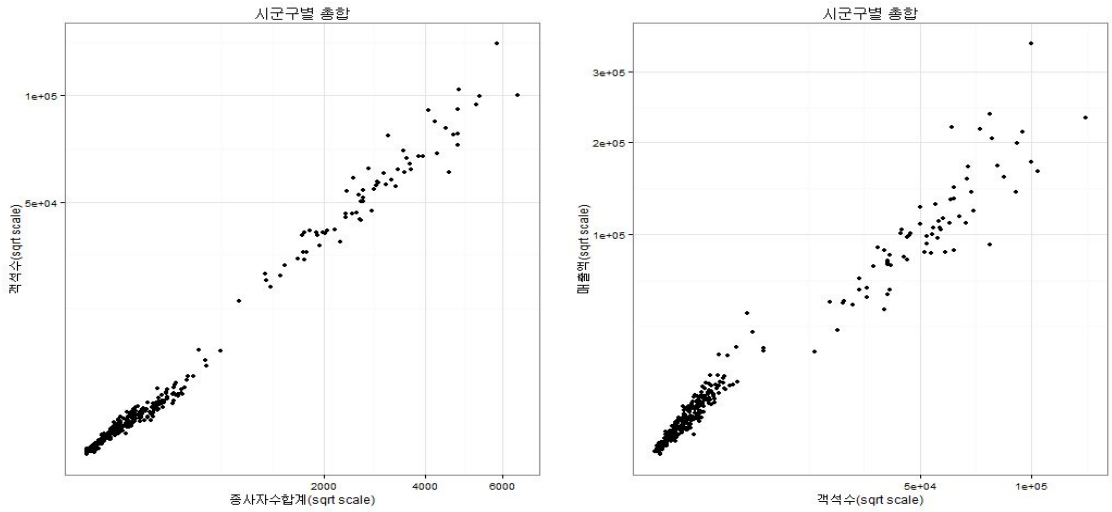
업종별로 지역별 매출액 총합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식점업을 기준으로 하고 종사자수의 합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식접업, 일식점업, 서양식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17075, 20529, 19539(백만 원)이 한식점 사업체보다 높다고 <표 6-5>의 회귀식의 계수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각 업종의 총종사자수를 볼 때 한식점업의 총종사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그림 6-26] 참고) 종사자수의 상당히 큰 차이를 고려하면 한식점이외의 업종들, 특히 서양식과 기타 외국 음식업의 사업체들의 매출액 총합은 한식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 6-4> 시군구 매출액 총합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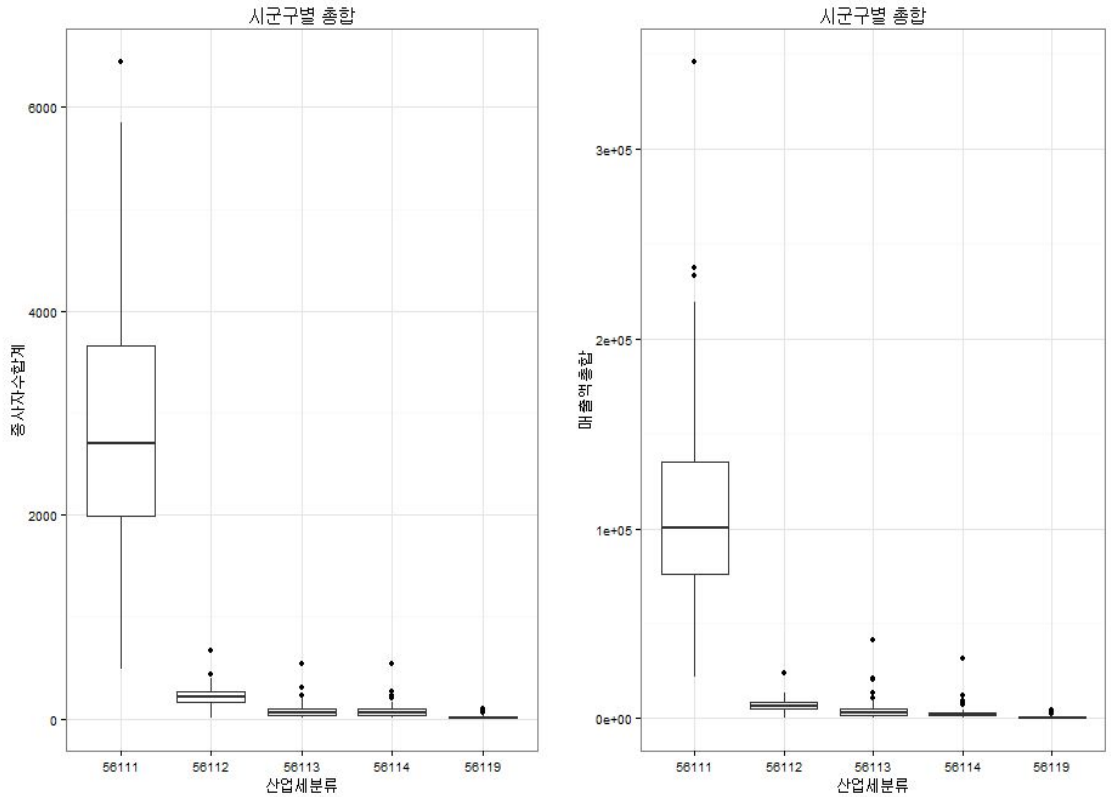
시군구 총합	매출액 총합과의 상관계수
종사자수 합계	0.9843
연간총급여액	0.9642
사업비용 합계	0.9998
매출원가	0.9998
인건비	0.9887
임차료	0.9980
세금과공과	0.9925
기타 영업비용	0.9958
사업이익	0.9991
기말상품재고액	0.6883
객석수	0.9598
건물연면적	0.6784
매장연면적	0.3064



[그림 6-23]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의 관계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24] 시군구 매출액 총합, 종사자수 총합, 객석수 총합의 관계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25] 업종에 따른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표 6-5> 총합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독립변수	매출액 총합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표준오차) (n=332)
한식점업	0.00(업종기준)
중식점업	17075.00(2612.051)
일식점업	20529.52(2702.886)
서양식	19535.09(2709.308)
기타 외국음식	19595.16(2790.821)
종사자수 합계	44.59(0.803)
R-square	0.97

3. 추출단위 회귀분석 모형 - 4인 초과 음식점업

4인 이하 사업체의 경우와 같이 첫 번째 고려할 모형은 사업체 단위, 즉 추출단위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매출액과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6> 참고). 사업체의 매출액에 연관이 많은 자료는 사업비용 합계, 재료매입비, 급여총액, 임차료, 감가상각비, 기타 영업비용 등이 상관계수가 0.8 이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비용에 관련된 변수를 조사하기 어려운 변수들임을 유의해야 한다. 다음으로 종사자수, 연간 급여액 등의 상관계수가 0.8로 비교적 큰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비교적 표본조사에서 획득하기 쉬운 객석수, 면적, 사업연수 등의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다. 종사자수 합계와 매출액의 관계를 더 자세히 알아보았다([그림 6-26] 참고). 종사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종사자수가 작으면 매출액의 변이가 커진다(log scale).

여러 가지 변수 중에 상관계수가 높게 나온 임차료, 사업비용 합계이 매출액과 어떤 함수 관계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산포도를 그려 보았다([그림 6-27] 참고). 매출액과 사업비용 합계는 매우 강한 선형관계를 보여준다. 표본조사에서 조사하기 쉬우리라 예상되는 업소의 객석수는 종사자수 또는 매출액과 상관관계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6-28]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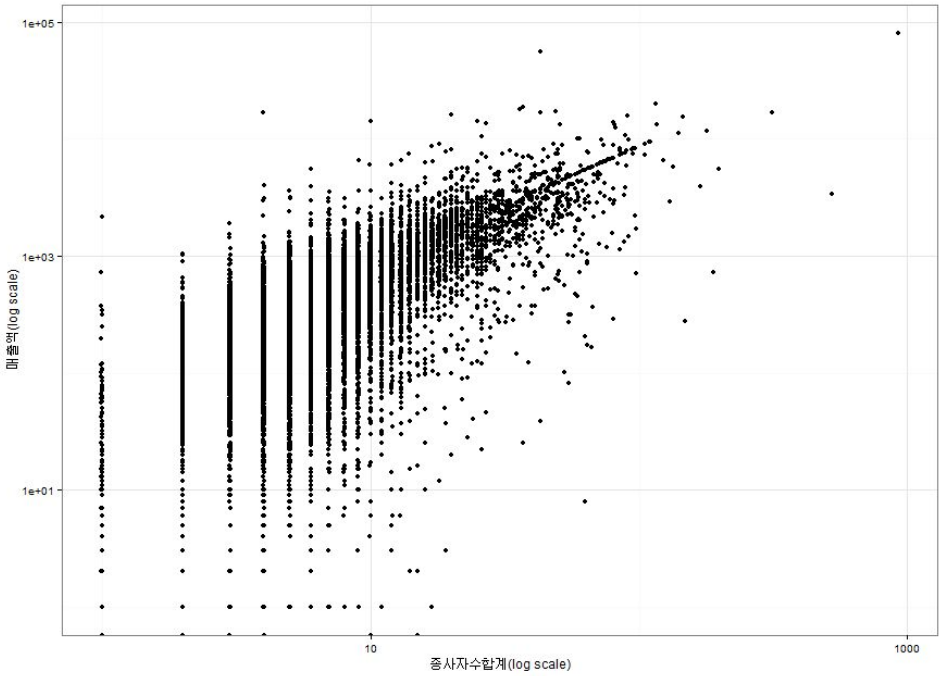
업종별로 사업체의 매출액 평균을 살펴보면 한식점업을 기준으로 하고 종사자수의 합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식접업, 일식점업, 서양식 사

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23.75, 2.93, 54.38(백만 원)이 한식점 사업체보다 낮다고 <표 6-7>의 회귀식의 계수를 해석할 수 있다. 전국적으로 한식점 이외의 업종들, 특히 서양식과 기타 외국 음식업의 사업체들이 비교적 영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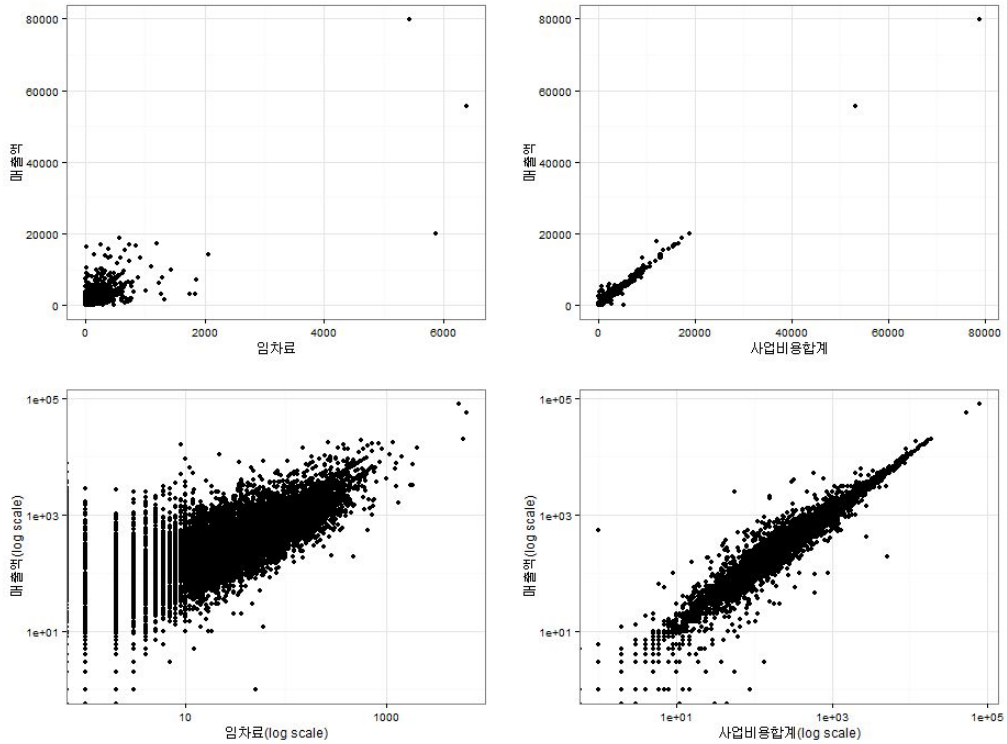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사업체 단위 모형에서는 4인 이하와 4인 초과에 대한 변수들의 관계가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났다. 단, 4인 이하 사업체와 다른 것은 대규모 매출 사업체(매출 50,000백만 원 이상)를 제외한 결과에서는 일식점업의 매출이 한식업보다 평균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6-6> 추출단위 자료의 매출액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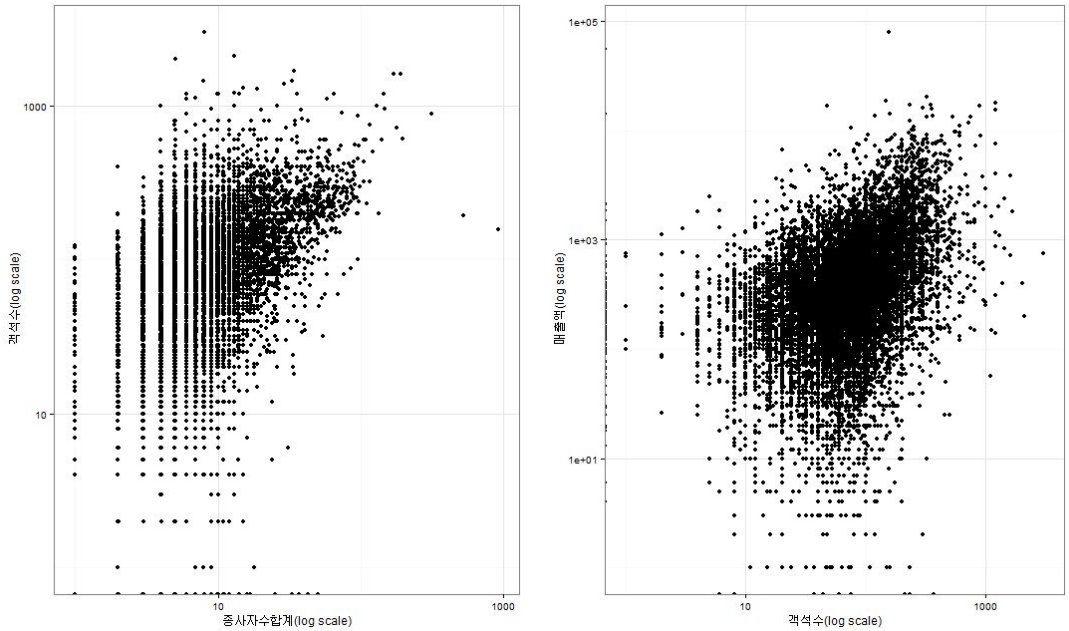
	매출액과의 상관계수
음식점 종사자수 합계	**0.7285**
음식점 연간총급여액	**0.8883**
음식점 이외 종사자수 합계	0.0121
음식점 이외 종사자수 연간총급여액	0.0136
사업비용 합계	**0.9909**
재료매입비	**0.8804**
급여총액	**0.8885**
임차료	**0.7622**
세금과공과	0.2900
감가상각비	**0.8115**
기타 영업비용	**0.8480**
사업이익	0.4278
연간영업개월수	0.1429
휴무일수	0.0684
평균 영업시간	-0.0218
체인점 가입 여부	0.0506
객석수	0.2946
건물연면적	0.3356
사업연수	0.1010



[그림 6-26] 추출단위 자료에서 종사자수에 대한 매출액 분포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27] 추출단위 자료에서 임차료, 사업비용 합계와 매출액과의 관계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28] 추출단위 자료에서 임차료, 사업비용 합계와 매출액과의 관계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표 6-7> 추출단위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4인 초과)

독립변수	모든 자료를 사용한 회귀식(표준오차) (n=21740)	매출액이 50,000백만 원을 초과하는 사업체를 제외한 회귀식(표준오차) (n=21674)
한식점업	0.00(업종기준)	0.00(업종기준)
중식점업	-23.75(12.895)	-36.76(13.114)
일식점업	-2.93(16.675)	11.54(15.737)
서양식	-54.38(16.083)	-10.32(15.287)
기타 외국음식	-56.36(31.228)	-53.07(29.467)
종사자수 합계	42.58(0.424)	41.58(0.464)
임차료	5.49(0.048)	4.23(0.053)
연간영업개월수	18.26(1.637)	24.83(1.551)
사업연수	9.18(0.914)	8.54(0.863)
체인점 가입 여부	22.58(11.138)	29.38(10.514)
R-square	0.73	0.61

사업체를 분석 단위로 하여 매출액을 종속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시군구 지역과 산업의 세세분류를 그룹을 나타내는 용인으로 포함시키고 종사자수 합계, 임차료, 연간영업개월수, 사업연수를 연속변수로, 체인점 가입여부를 이산변수로 포함시켰다. 또한 매출액이 50,000백만 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회귀식도 고려해보았다.

회귀분석의 결과 모든 계수는 유의수준 0.05에서 모두 유의하였으며 종사자수 합계, 임차료, 연간영업개월수가 매우 유의하게 나왔다. 매출액이 1,000백만 원이 넘는 사업체를 제외한 회귀식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추정결과는 <표 6-7>에 나와 있다). 종사자수 합계, 임차료, 연간영업개월수, 사업연수 모두 양의 회귀계수로 추정이 되었다. 4인 이하 사업체와는 반대로 체인점 가입 여부는 양의 계수를 보이고 있어 4인 이하 음식점업에서는 체인점을 가입했을 때 매출이 평균적으로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였다. 두 회귀식 60~70%의 설명계수를 보여준다.

4. 소지역 단위 회귀분석 모형 - 4인 초과 음식점업

이 절에서 고려한 모형은 서울, 경기 지방의 4인 초과 음식점업이며 소집단 단위(본 연구에서는 시군구), 즉 추출단위인 사업체 단위의 값을 소집단별로 합계를 낸 지역총합(small area total)에 대한 회귀모형이다. 4인 이하에 대한 분석과 동일하게 소지역의 총합을 구할 때 산업세세분류, 즉 5개의 음식점업(한식, 일식, 중식, 양식, 그 외의 음식업)에 대해 각각 5개의 총합을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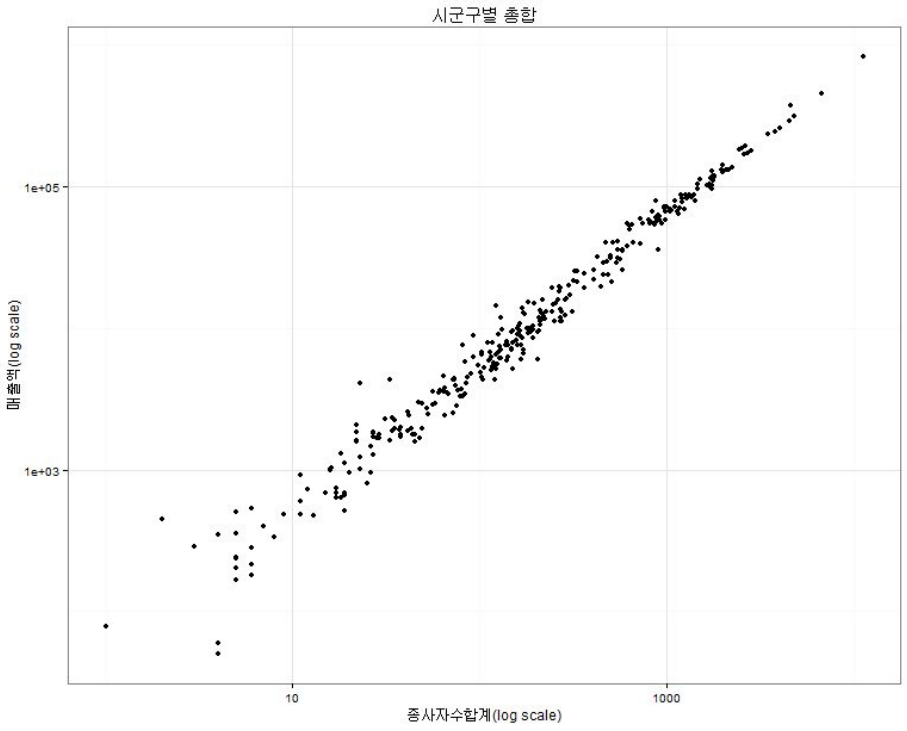
매출액총합과 다른 총합변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표 6-8> 참고). 사업체의 매출액총합은 모든 변수와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표 6-8> 시군구 매출액 총합에 대한 다른 항목의 상관계수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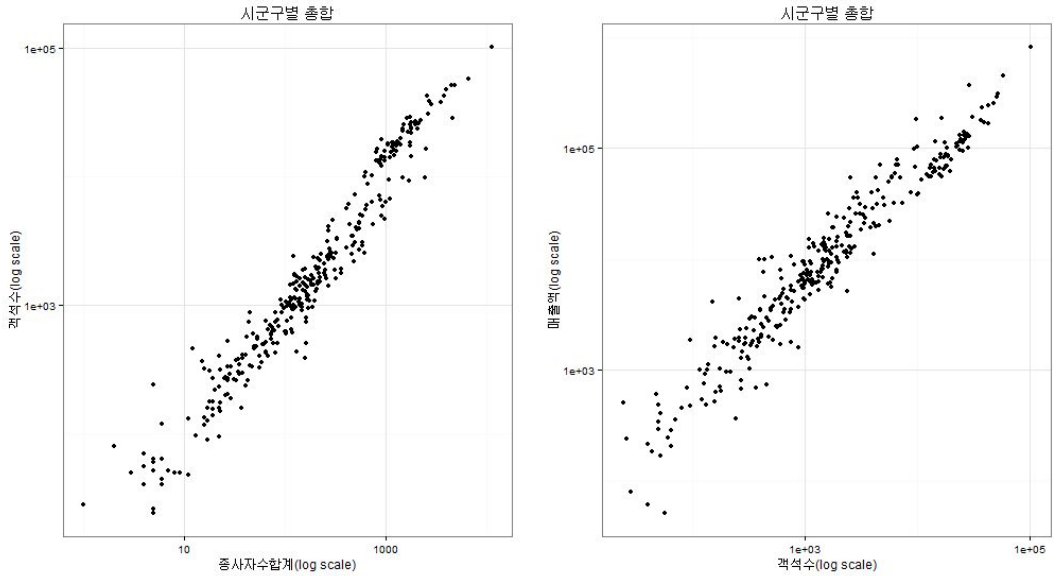
시군구 합계	매출액과의 상관계수
음식점 종사자수 합계	0.9953
음식점 연간총급여액	0.9931
음식점 이외 종사자수 합계	0.3186
음식점 이외 종사자수 연간총급여액	0.2999
사업비용 합계	0.9990
재료매입비	0.9879
급여총액	0.9930
임차료	0.9837
세금과공과	0.9604
감가상각비	0.8496
기타 영업비용	0.9431
사업이익	0.9520
객석수	0.9390
건물연면적	0.9562

[그림 6-29]와 [그림 6-30]에서 볼 수 있듯이 매출액 총합, 종사자수 총합, 객석수 총합들은 매우 강한 양의 직선 관계를 가진다(log scale). [그림 6-31]에서 볼 수 있듯이 시군구별로 음식점 업종별의 총합을 보면 한식음식점의 매출액이 다른 업종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군구의 매출에 대한 총합에 대한 회귀분석을 업종을 요인으로 고려하고 종사자수 총합만을 고려하였다. 결정계수가 0.99인 매우 유의한 회귀식이 추정되었다. 종사자수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지역의 각 업종의 매출총액은 평균적으로 71백만 원 증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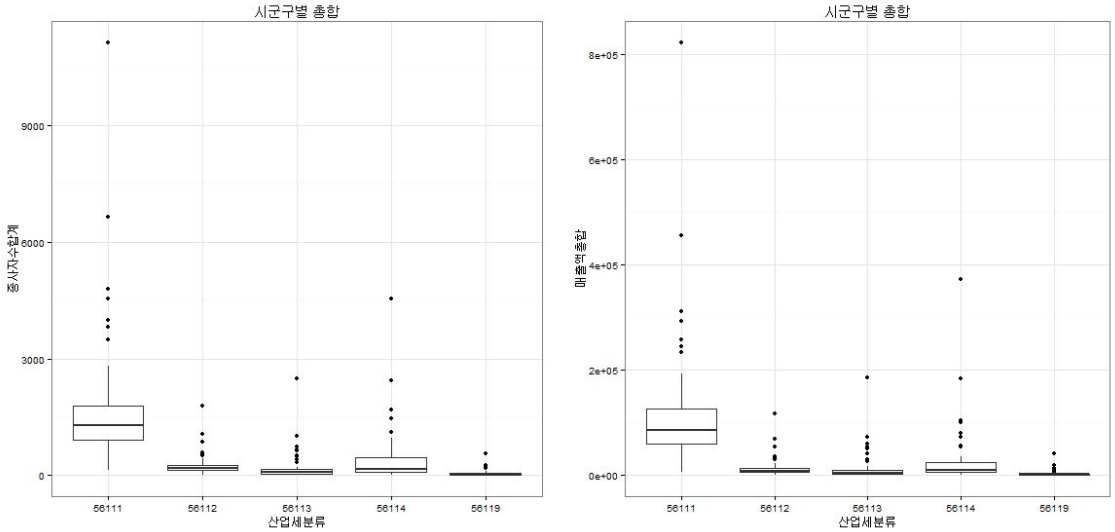
업종별로 지역별 매출액 총합의 평균을 살펴보면 한식점업을 기준으로 하고 종사자수의 합계가 같다고 가정했을 때 평균적으로 중식접업, 일식점업, 서양식 사업체의 연간 매출액이 각각 5979, 9472, 7191(백만 원)이 한식점 사업체보다 높다고 <표 6-9>의 회귀식의 계수를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지역별로 각 업종의 총종사자수를 볼 때 한식점업의 총종사자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므로([그림 6-31] 참고) 종사자수의 상당히 큰 차이를 고려하면 한식점 이외의 업종들, 특히 서양식과 기타 외국 음식업의 사업체들의 매출액 총합은 한식점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29]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의 관계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30] 시군구 매출액 총합, 종사자수 총합, 객석수 총합의 관계
(4인 이하 음식점업, 서울-경기)



[그림 6-31] 업종에 따른 시군구 매출액 총합과 종사자수 총합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표 6-9> 총합 자료에서 매출액에 대한 선형회귀 분석결과
(4인 초과 음식점업, 서울-경기)

독립변수	매출액 총합에 대한 회귀계수 추정치 (표준오차) (n=322)
한식점업	0.00(업종기준)
중식점업	5979.66(1290.853)
일식점업	9472.39(1310.731)
서양식	7191.67(1255.061)
기타 외국 음식	8711.16(1428.663)
종사자수 합계	71.72(0.440)
R-square	0.99

5. 소결

서울, 경기 지역에 있는 음식점업종에 대한 매출액을 관심 변수로 고려하고 2010년 경제총조사에 있는 여러 가지 항목들과의 관계를 선형회귀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추출단위 모형과 소지역단위 모형 모두 매출액에 대해서는 종사자수가 매우 중요한 예측 변수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다른 표본조사에서 매출액에 관련된 소지역 추정을 할 경우 2010년 경제총조사에서 구할 수 있는 소지역(시군구)의 업종별 종사자수 총합을 이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소지역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매출액에 대한 회귀모형은 4인 이하 사업체 자료와 4인 초과 자료에서 대부분 유사였으나 체인점 가맹 여부에 대한 효과는 반대로 나타났다. 사업체별 매출액의 평균을 업종별로 분석했을 때 한식점업이 타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의 수와 종사자의 수도 타 업종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또한 지역별 매출 총합도 한식점업이 압도적으로 타 업종에 비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7장 프랜차이즈 사업체 실태와 경쟁력 분석

제1절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1세기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사회 환경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물적자본의 투입에 의한 경제성장 패러다임은 지적자본과 인적자본이 중심이 되는 경제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어 산업화 경제에서 지식기반 경제로 전환되고 있다. 또한 과거 규모의 경제를 토대로 한 소품종 대량생산 패러다임은 다양한 소비자들의 선호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변화되고 있다. 산업구조 역시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에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중심이 되는 산업구조로 변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는 급변하는 경제·사회 환경에 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이 자영업을 창업하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진출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의 14.7%를 차지하고, 경제활동인구 중 22.8%를 점하고, 취업자 중 23.1%를 구성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이 본격화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 취업자 532만 명 중 급여소득자 320만 명이 2010년부터 은퇴(한국 평균 은퇴연령 55세)를 하기 시작했으며 오는 2018년까지 매년 30만~40만 명이 은퇴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문제는 건강과 평균여명에 비추어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함에도 더 이상 급여소득자로 활동하기 어려워, 소득 획득활동이 창업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에 있다. 이는 2011년 10월 기준으로 50세 이상 자영업자가 310만 명을 넘었다는 통계청 발표에서도 간접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창업시장이 확대되면서 나타나는 자영업자 증가현상은 경험부족에 따른 프랜차이즈 가입이 증가하는 것과 연계되고 있다는 점에 특징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경험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창업전문가(프랜차이즈)들의 컨설팅을 통해서 그 동안 마련한 창업용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의 현상에 비추어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만의 컨설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고학력인 베이비붐 세대의 자발적인 상권 및 업종분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대두된다. 이에 부합하는 자료가 경제총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소매업 경영 사업체 조사 중 프랜차이즈 가맹현황(소매업) 자료라고 판단된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을 창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가장 많이 속한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결과를 제공함으로써 베이비붐 세대에 진출하고 있는 각종 분야의 창업시장에 대한 정보 제공은 물론 실패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진출산업은 외식업계뿐만 아니라 여러 업종에 걸쳐 광범위하게 보급되고 있는 실정이며(홍기운, 1999), 그 중에서도 외식산업은 최근 급속한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이웅규(2006), 윤홍근(2001) 및 윤홍근・김장익(1998)에서와 같이 주로 외식업종에 국한되어 왔다. 또한 기업경영 차원에서 프랜차이즈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은 무엇보다도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관한 가장 많은 수의 사업체 자료를 분석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들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반면 본 연구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 기여도 분석을 통하여 경제학적으로 접근하고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생산함수와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최초의 시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지역별・산업별 분석은 향후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진출하려고 계획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유용한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제2절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분석

1. 산업별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

통계청에서 경제총조사 확정결과에 대한 보도자료에서 제시한 산업별 프랜차이즈 가입현황은 <표 7-1>과 <표 7-2>에 정리된 바와 같다.

<표 7-1> 소매업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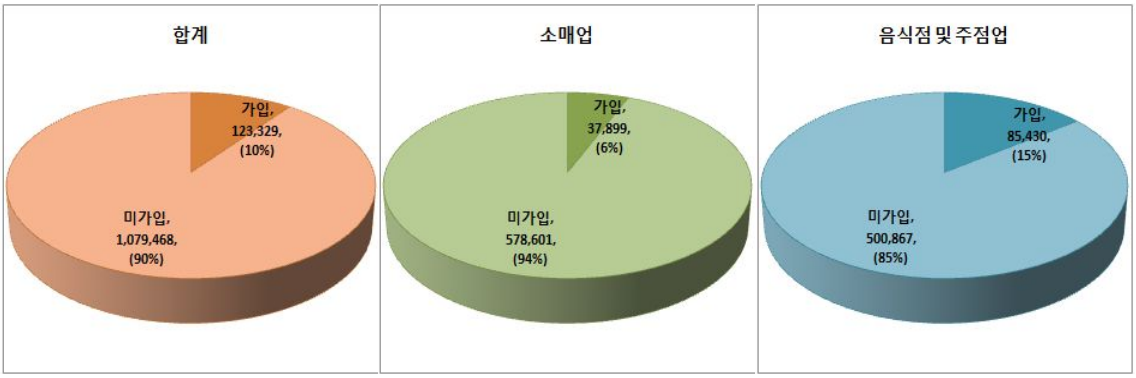
(단위: 개, %)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체인점 가입 여부				
	사업체수			구성비	
	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47. 소매업	616,500	37,899	578,601	6.1	93.9
471. 종합 소매업	109,086	16,537	92,549	15.2	84.8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98,651	2,788	95,863	2.8	97.2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5,922	-	35,922	-	100.0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7,918	8,847	129,071	6.4	93.6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60,145	1,113	59,032	1.9	98.1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5,332	2,311	33,021	6.5	93.5
477. 연료 소매업	19,986	-	19,986	-	100.0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2,212	6,053	96,159	5.9	94.1
479. 무점포 소매업	17,248	250	16,998	1.4	98.6

자료: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보도자료, p. 19 <표 15>.

소매업 전체 61만 6,500개 사업체 중 3만 7,899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도 있어 전체 사업체의 6.1%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중에서는 종합소매업의 경우 16,537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전체 사업체 중 15.2%를 차지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업체 소매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는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의 프랜차이즈 가입비중이 6.5%로 높았고, 3위는 섬유・의복・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으로 가입비중이 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수와 비중이 그려져 있다.



[그림 7-1]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와 비중

<표 7-2>에는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이 정리되어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 58만 6,297개 사업체 중 8만 5,430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14.6%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이 주요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표 7-2>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 현황

(단위: 개, %)

산업세분류별	프랜차이즈 체인점 가입 여부				
	사업체수			구성비	
	계	가입	미가입	가입	미가입
56. 음식점 및 주점업	586,297	85,430	500,867	14.6	85.4
561. 음식점업	425,856	65,832	360,024	15.5	84.5
5611. 일반 음식점업	317,908	19,808	298,100	6.2	93.8
5612. 기관구내식당업	4,647	-	4,647	-	100.0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449	-	449	-	100.0
5619. 기타 음식점업	102,852	46,024	56,828	44.7	55.3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60,441	19,598	140,843	12.2	87.8
5621. 주점업	129,640	16,008	113,632	12.3	87.7
5622. 비알콜 음료점업	30,801	3,590	27,211	11.7	88.3

자료: 『경제총조사』 확정결과 보도자료, p. 24, <표 20>.

음식점 및 주점업 중에서는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비중(15.5%)이 주점 및 비알콜성음료점업의 가입비중(12.2%)보다 다소 높았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는 기타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102,852개 사업체 중 46,024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전체 사업체 중 4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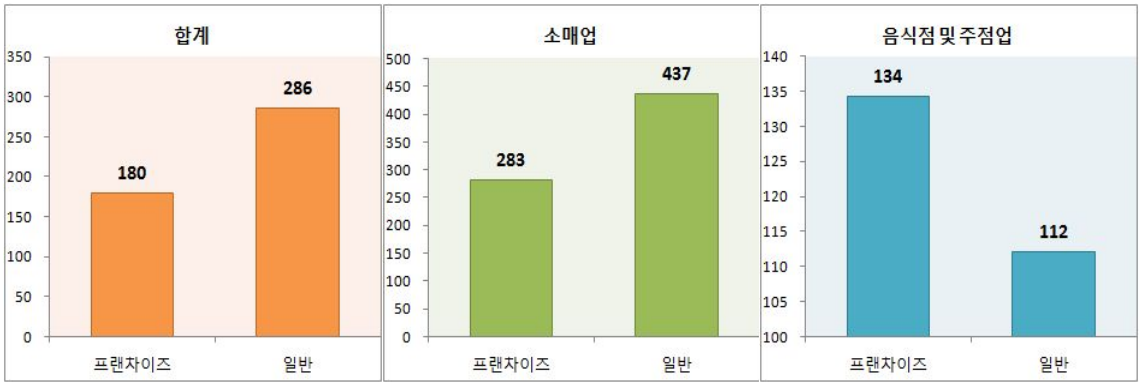
다.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의 경우 주점업(12.3%)이나 비알콜 음료점업(11.7%)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비알콜 음료점업에 속하는 커피전문점의 경우 예상보다는 프랜차이즈 가입비중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프랜차이즈 사업체 규모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규모가 일반 사업체 규모에 비하여 클 것인가?"라는 질문이 중요한 것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영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즉, 만약 프랜차이즈 사업체 규모가 동종업종에 속한 일반 사업체보다 크다면 프랜차이즈 창업을 계획하는 경우 자본 투입량이 증가하므로 사업 창업자에게는 그만큼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다양한 차원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규모와 동종 업종의 일반사업체의 규모와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2.1 업종별(산업 세분류별) 프랜차이즈 규모: 매출액

우선 사업체 평균 매출액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를 비교하여 보자. [그림 7-2]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7-2]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매출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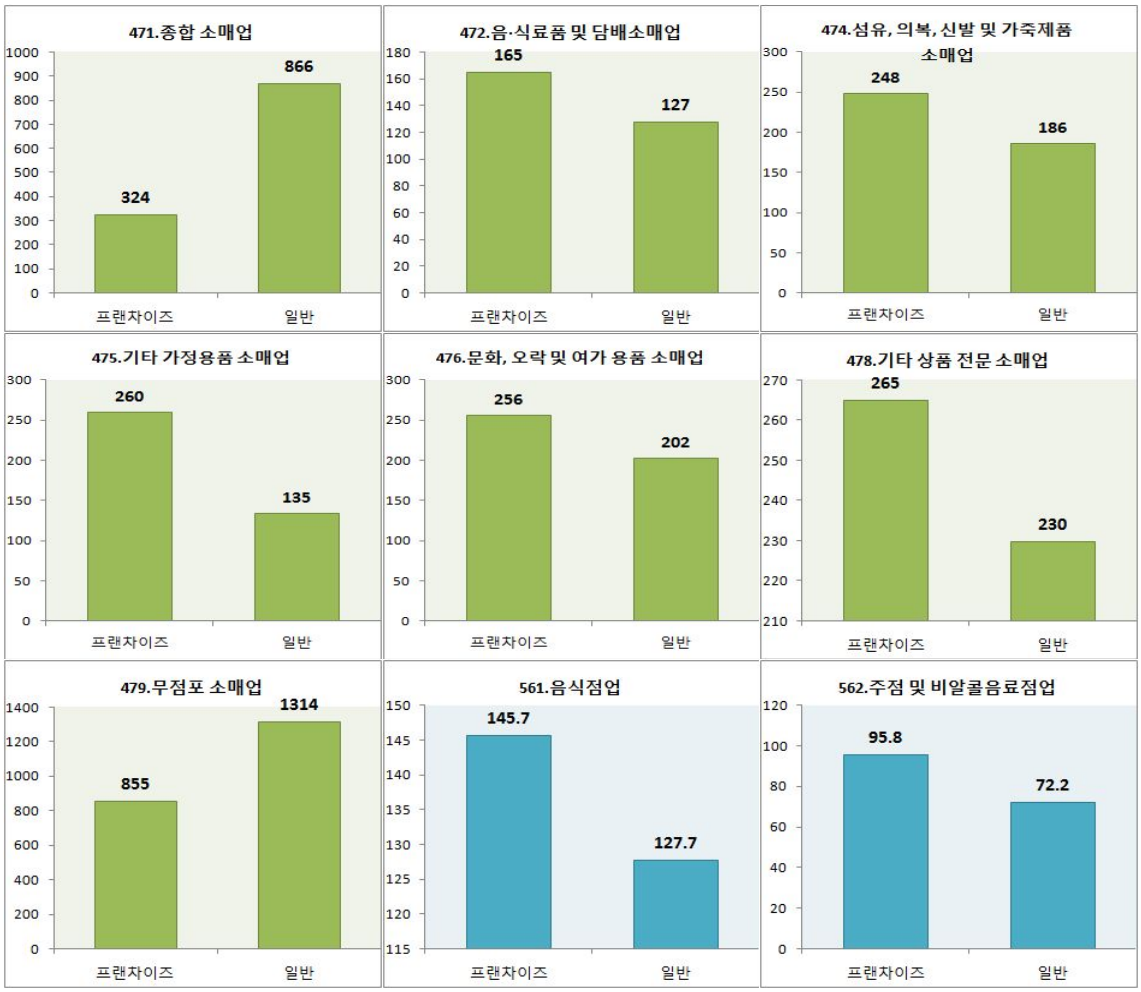
<표 7-3>에는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은 2억 7,540만 원이고,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억 2,750만 원으로서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1억 1,530만 원)보다 3.7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3>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 평균 매출액

(단위: 백만 원)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매출액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427.5	282.5	437.0
471. 종합 소매업	784.1	323.6	866.4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8.5	164.5	127.4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719.5		719.5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90.2	248.4	186.2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36.8	259.5	134.5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05.6	256.4	202.1
477. 연료 소매업	2,579.6		2,579.6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31.8	264.8	229.7
479. 무점포 소매업	1,307.5	854.9	1,314.1
56. 음식점 및 주점업	115.3	134.3	112.1
561. 음식점업	130.5	145.7	127.7
5611. 일반 음식점업	125.6	203.0	120.4
5612. 기관구내식당업	787.8		787.8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293.0		293.0
5619. 기타 음식점업	115.9	121.1	111.8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75.1	95.8	72.2
5621. 주점업	73.6	89.6	71.3
5622. 비알콜 음료점업	81.4	123.8	75.8
전 산업	275.4	179.8	286.3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 7,98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2억 8,630만 원)보다 1억 650만 원 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료 소매업(477 산업)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을 비교하면, 소매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보다 작은 반면,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3]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세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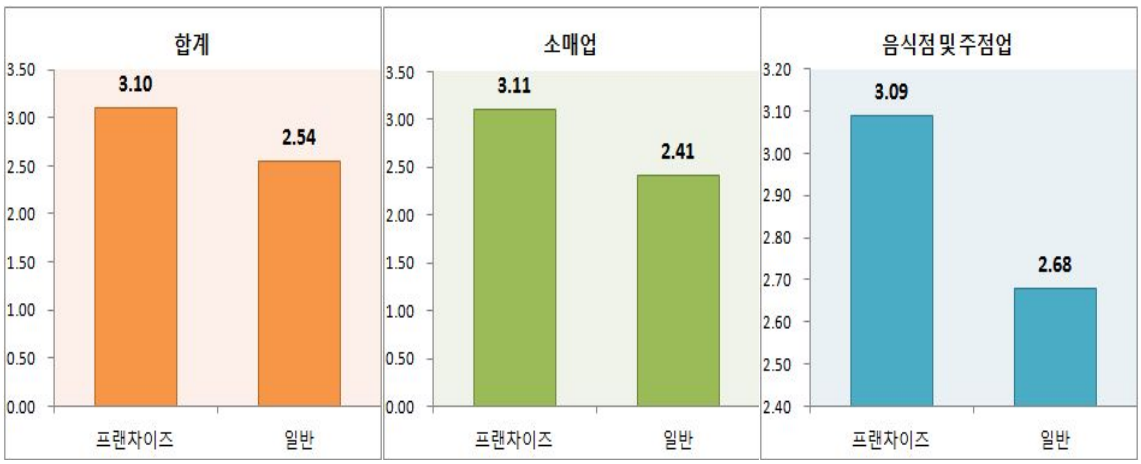
[그림 7-3]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매출액 기준

세부업종별로 보면 종합소매업(471 산업)과 무점포 소매업(479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매업 중에서는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억 4,84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1억 8,62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매출액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업(561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억 30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1억 2,040만 원)보다 8,260만 원이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매출액 격차를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만 비교하였을 때 소매업의 평균 매출액(2억 8,250만 원)이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평균 매출액(1억 3,430만 원)보다 2.1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세분류별로 사업체 평균 매출액을 보면 무점포 소매업(8억 5,490만 원)으로 가장 큰 매출액을 내고 있고, 다음으로 종합 소매업(3억 2,360만 원),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2억 5,950만 원), 문화 및 여가용품 소매업(2억 5,640만 원) 등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에 음식점 및 주점업에 속하는 업종들의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매출액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업종별(산업 세분류별) 프랜차이즈 규모: 종사자수

이번에는 사업체 종사자수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자.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를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2.6명이고,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2.74 명으로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2.45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4]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규모가 매출액 기준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7-4]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종사자수 기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3.10 명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2.54 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에는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가 정리되어 있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4>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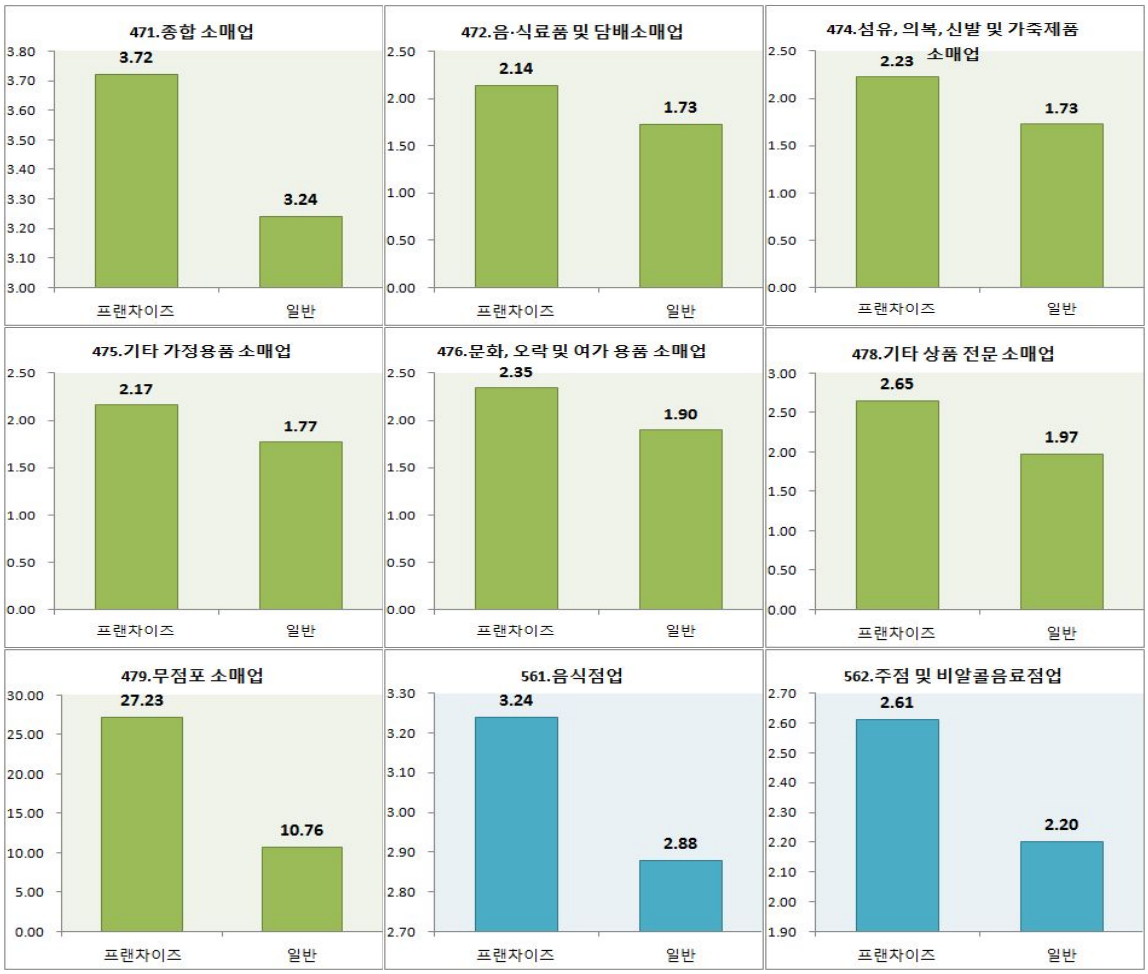
(단위: 명)

산업소분류별			평균 종사자수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2.45	3.11	2.41
	471. 종합 소매업		3.31	3.72	3.24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74	2.14	1.73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51		2.51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76	2.23	1.73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78	2.17	1.77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93	2.35	1.90
	477. 연료 소매업		3.91		3.91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01	2.65	1.97
	479. 무점포 소매업		11.00	27.23	10.76
56. 음식점 및 주점업			2.74	3.09	2.68
	561. 음식점업		2.93	3.24	2.88
		5611. 일반 음식점업	2.93	3.97	2.86
		5612. 기관구내식당업	7.49		7.49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5.48		5.48
		5619. 기타 음식점업	2.71	2.92	2.53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25	2.61	2.20
		5621. 주점업	2.20	2.30	2.19
		5622. 비알콜 음료점업	2.44	3.99	2.24
전 산업			2.60	3.10	2.54

특히, 소매업 중에서는 무점포 소매업(479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27.23명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10.76명)보다 16.47명 많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종사자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 중에서는 음식점업(561 산업)이나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562 산업) 모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와의 격차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만 비교하였을 때 소매업의 평균 종사자수(3.11명)와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평균 종사자수(3.09명)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세분류별로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를 보면 무점포 소매업(27.23명)으로 가장 많은 종사자를 고용하고 있고, 다음으로 종합 소매업(33.72명), 음식점업(3.24명)

이 3명 이상의 종사자를 고용하여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에 나머지 업종의 경우 평균 종사자수가 3명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5]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규모가 종사자수 기준으로 세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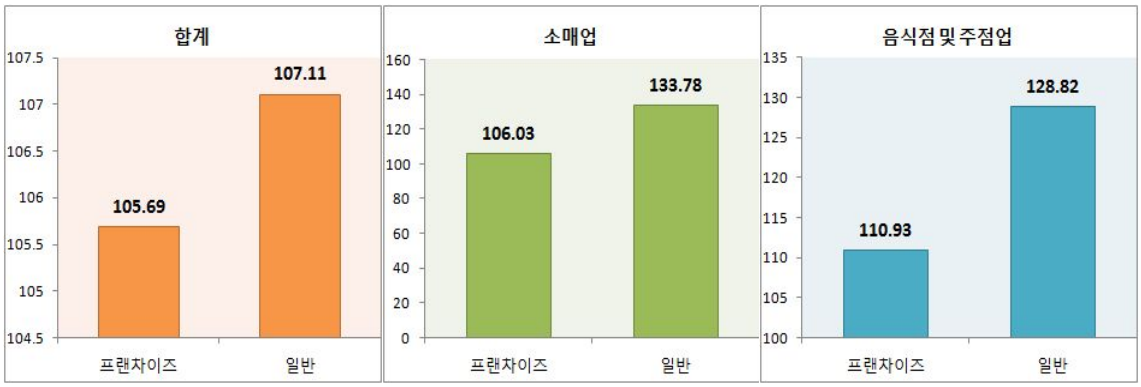


[그림 7-5]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종사자수

전반적으로 종사자수로 볼 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나 미가입사업체를 불문하고 3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 업종별(산업 세분류별) 프랜차이즈 규모: 건물면적

이번에는 사업체 건물면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의 규모를 비교하여 보자. [그림 7-6]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규모가 건물면적 기준으로 그려져 있다.



[그림 7-6]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건물면적 기준

<표 7-5>에는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29.22㎡이고,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32.07㎡으로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당 평균 건물면적(126.2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09.42㎡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131.48㎡)보다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모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보다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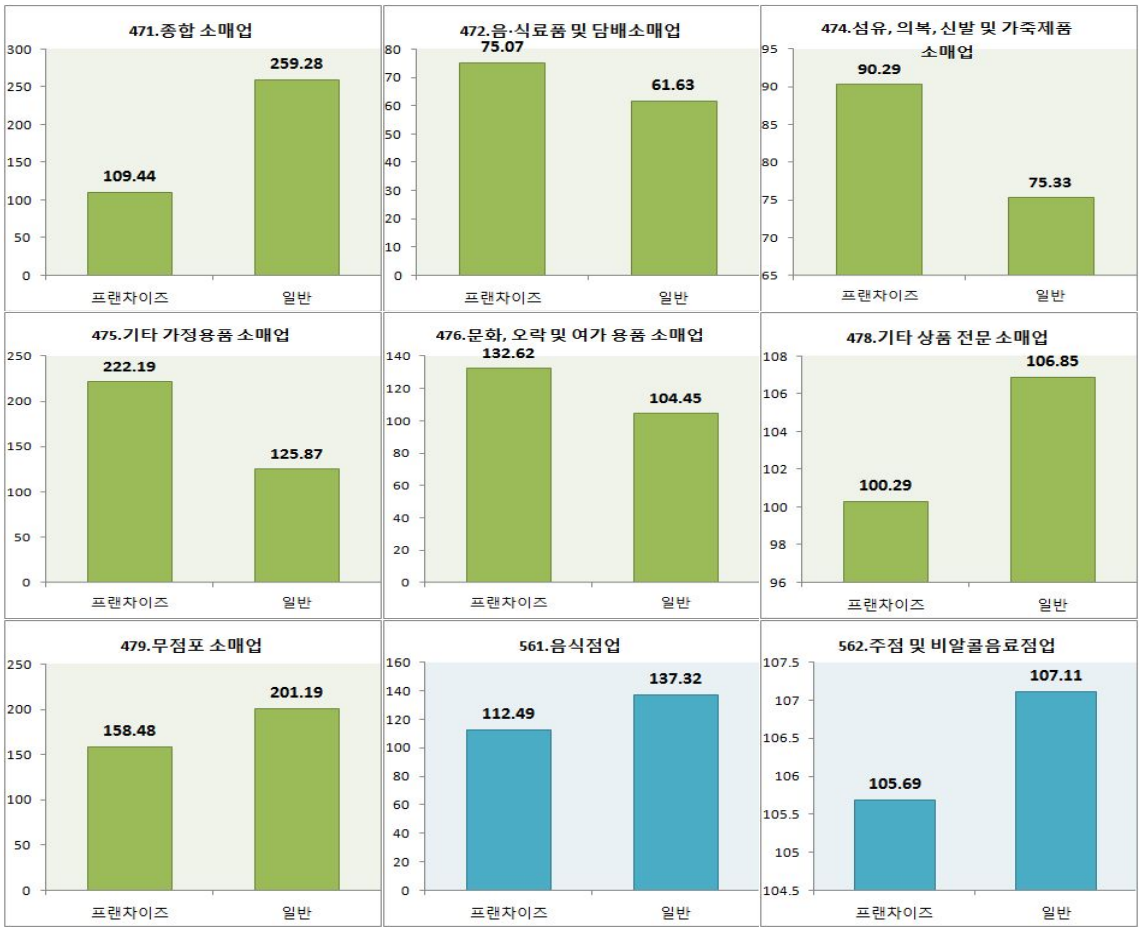
산업 세분류별로 보면, 소매업 중에서는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이 222.19㎡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125.87㎡)보다 96.32㎡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건물면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종합소매업(471)의 경우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이 209.28㎡으로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109.44㎡)보다 99.84㎡ 더 넓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건물면적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 중에서는 음식점업(561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이 가입사업체보다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알콜 음료점업(5622)의 경우 예상대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매장면적(122.47㎡)이 미가입사업체(108.03㎡)보다 다소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5>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평균 사업체 건물면적

(단위: ㎡)

산업소분류별			평균 사업체 건물면적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132.07	106.03	133.78
	471. 종합 소매업		236.57	109.44	259.28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62.01	75.07	61.63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04.97		104.97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76.29	90.29	75.33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27.66	222.19	125.87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06.29	132.62	104.45
	477. 연료 소매업		471.85		471.85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06.47	100.29	106.85
	479. 무점포 소매업		200.57	158.48	201.19
56. 음식점 및 주점업			126.21	110.93	128.82
	561. 음식점업		133.48	112.49	137.32
		5611. 일반 음식점업	145.05	166.39	143.64
		5612. 기관구내식당업	414.48		414.48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213.82		213.82
		5619. 기타 음식점업	84.65	89.29	80.89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06.93	105.69	107.11
		5621. 주점업	106.27	101.93	106.89
		5622. 비알콜 음료점업	109.71	122.47	108.03
전 산업			129.22	109.42	131.48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만 비교하였을 때 소매업의 평균 건물면적(106.03㎡)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평균 건물면적(110.49㎡)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세분류별로 사업체 평균 건물면적을 보면 기타 가정용품(222.19㎡)이 가장 넓은 매장면적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무점포 소매업(158.48㎡), 문화·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132.62㎡)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그림 7-7]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규모가 건물면적 기준으로 세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그림 7-7]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규모: 건물면적

제3절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 기여도

1. 산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매출액

1.1 업종별 총매출액 비교 :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본 장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생산에서의 기여도와 고용창출에서의 기여도 등의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우선 총매출액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기여도를 정리한 것이 <표 7-6>이고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정리한 것이 <표 7-7>이다. 전체 사업체의 총매출액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 산업의 총매출액은 331조 원이고, 그 중 소매업(47 산업)의 총매출액은 263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79.5%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의 총매출액은 67조 원으로 총매출액의

20.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은 22조 원으로 전체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을 해당 업종의 전체 매출액에 대비한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 16.98%로 소매업(47 산업)의 4.06%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세 업종별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 비중을 해당 업종 전체 매출액과 대비하여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음식점업(561 산업)이 17.28%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562 산업)이 15.60%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음식점업 내에서는 기타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체 비중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소매업에 속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산업 전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가입업체의 비중은 미미한 가운데, 섬유 및 의복산업(474 산업)이 8.38%로 그나마 높고 다음으로 문화 및 여가용품산업(476 산업)이 8.15%로 그 뒤를 잇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총매출액으로 볼 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가 국민경제나 관련 업종의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7%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6> 산업별 총매출액: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총매출액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263,580,496	10,706,291	252,874,205
	471. 종합 소매업		85,534,827	5,352,100	80,182,727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674,147	458,637	12,215,510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5,844,541		25,844,541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6,230,139	2,197,740	24,032,399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8,229,910	288,768	7,941,142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7,265,347	592,434	6,672,913
	477. 연료 소매업		51,556,420		51,556,420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3,693,675	1,602,886	22,090,789
	479. 무점포 소매업		22,551,490	213,726	22,337,764
56. 음식점 및 주점업			67,565,817	11,471,869	56,093,948
	561. 음식점업		55,527,218	9,593,773	45,933,445
		5611. 일반 음식점업	39,913,468	4,020,263	35,893,205
		5612. 기관구내식당업	3,567,745		3,567,745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31,563		131,5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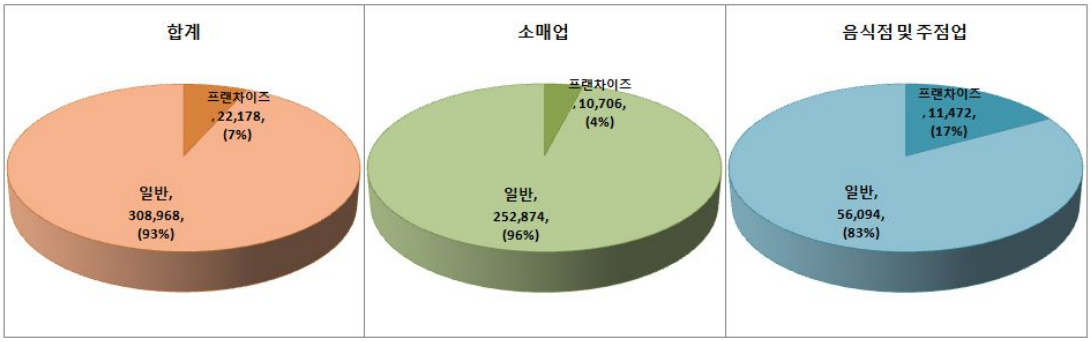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총매출액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5619.기타 음식점업	11,914,442	5,573,510	6,340,932
	562.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2,038,599	1,878,096	10,160,503
		5621.주점업	9,534,987	1,433,652	8,101,335
		5622.비알콜 음료점업	2,503,612	444,444	2,059,168
전 산업			331,146,313	22,178,160	308,968,153

<표 7-7> 산업별 총매출액 비중: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총매출액		
			전체 (백만 원)	가입 사업체 비중(%)	미가입 사업체 비중(%)
47. 소매업			263,580,496	4.06	95.94
	471. 종합 소매업		85,534,827	6.26	93.74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674,147	3.62	96.38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5,844,541	0.00	100.00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6,230,139	8.38	91.62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8,229,910	3.51	96.49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7,265,347	8.15	91.85
	477. 연료 소매업		51,556,420	0.00	100.00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3,693,675	6.77	93.23
	479. 무점포 소매업		22,551,490	0.95	99.05
56. 음식점 및 주점업			67,565,817	16.98	83.02
	561. 음식점업		55,527,218	17.28	82.72
		5611. 일반 음식점업	39,913,468	10.07	89.93
		5612. 기관구내식당업	3,567,745	0.00	100.00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31,563	0.00	100.00
		5619. 기타 음식점업	11,914,442	46.78	53.22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2,038,599	15.60	84.40
		5621. 주점업	9,534,987	15.04	84.96
		5622. 비알콜 음료점업	2,503,612	17.75	82.25
전 산업			331,146,313	6.70	93.30

[그림 7-8]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 규모와 비중이 그려져 있다.



[그림 7-8]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과 비중

2.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고용기여도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국민경제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가를 고용창출에서의 기여도 측면에서 살펴보게 될 것이다. 핵심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가 고용창출에 미치는 기여도는 미가입사업체와 비교하여 더 큰가?"이다. 더욱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고용창출을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2.1 업종별 종사자수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전체 사업체의 종사자수를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 산업의 총종사자수는 3,122,206 명이고, 그 중 소매업(47 산업)의 총종사자수는 1,513,345명으로 전체 종사자수의 48.5%를 차지하고 있고,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의 총종사자수는 1,608,751명으로 총종사자수의 51.5%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는 382,096명으로 전체의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를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수에 대비한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 16.4%로 소매업(47 산업)의 7.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세세업종별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 비중을 해당 업종 전체 종사자수와 대비하여 그 비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기타 음식점업(5619 산업)의 종자자수는 134,323명으로 해당 업종 전체 종사자수의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비알콜 음료점업(5622 산업)의 종사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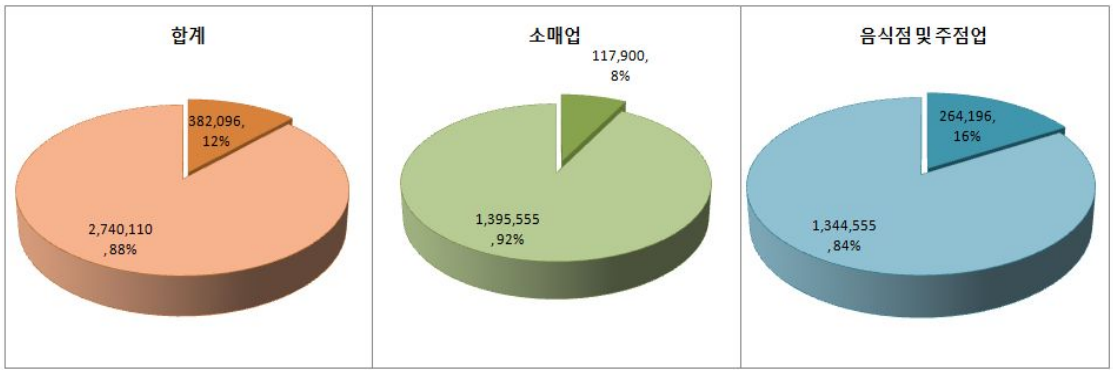
는 14,325명으로 해당 업종 전체 종사자수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주점업(5621 산업)이 12.9%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전반적으로 소매업에 속한 업종의 경우 해당 산업 전체 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프랜차이즈 가입업체의 비중은 미미한 가운데, 종합소매업(471산업)의 종사자수는 61,479명으로 해당 업종 전체 종사자수의 17%를 차지하고 있다.

<표 7-8>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종사자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 명)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총종사자수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1,513,455	117,900	1,395,555
	471. 종합 소매업		361,256	61,479	299,777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71,411	5,978	165,433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90,229		90,229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42,432	19,764	222,668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06,928	2,415	104,513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68,126	5,422	62,704
	477. 연료 소매업		78,054		78,054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05,326	16,034	189,292
	479. 무점포 소매업		189,693	6,808	182,885
56. 음식점 및 주점업			1,608,751	264,196	1,344,555
	561. 음식점업		1,248,220	213,035	1,035,185
		5611. 일반 음식점업	932,616	78,712	853,904
		5612. 기관구내식당업	34,805		34,805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2,461		2,461
		5619. 기타 음식점업	278,338	134,323	144,015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360,531	51,161	309,370
		5621. 주점업	285,379	36,836	248,543
		5622. 비알콜 음료점업	75,152	14,325	60,827
전 산업			3,122,206	382,096	2,740,110

[그림 7-9]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 규모와 비중이 그려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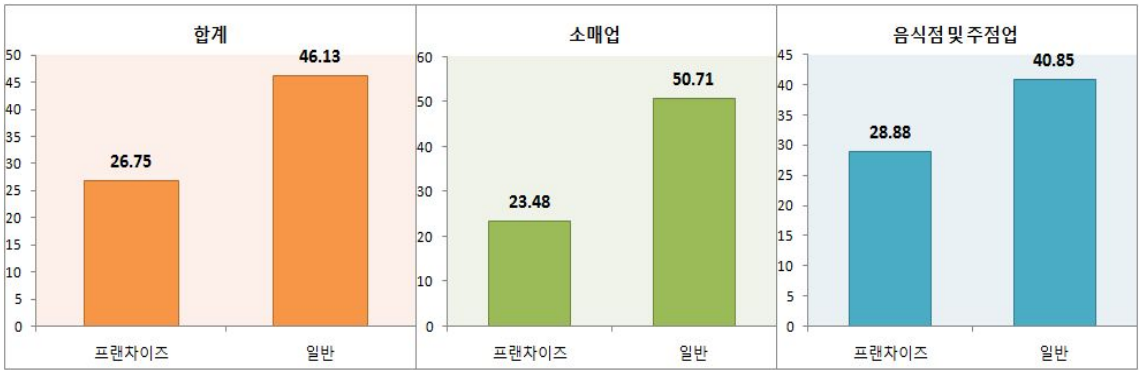


[그림 7-9]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와 비중

결론적으로 총종사자수로 볼 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가 국민경제나 관련 업종의 총종사자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2.2% 정도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 업종별 연간급여액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여기서는 사업체 연간급여액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비교하여 보자. [그림 7-10]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연간 급여액이 그려져 있다.



[그림 7-10]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연간급여액 vs 일반사업체의 연간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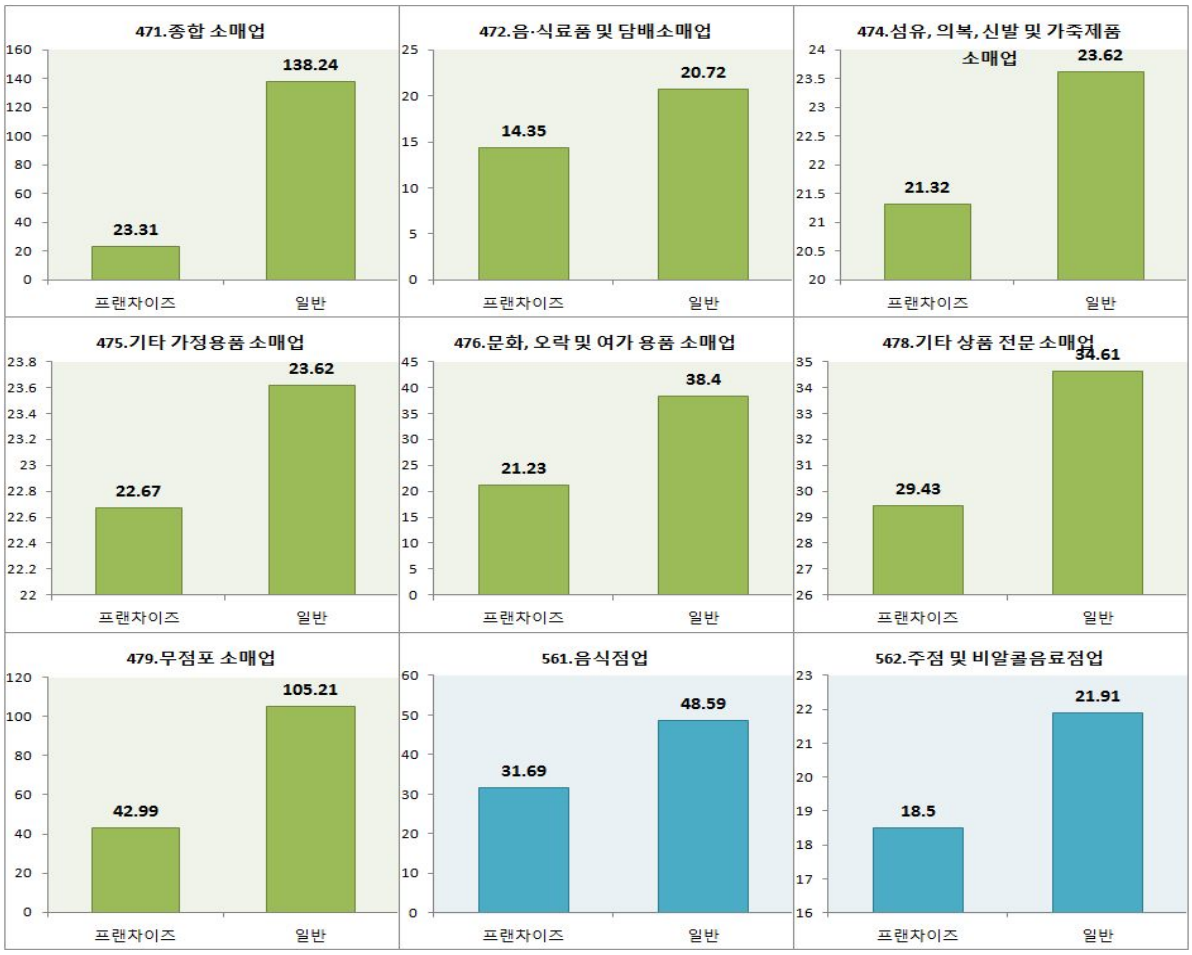
<표 7-9>에는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이 정리되어 있다.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전체 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은 4,293만 원이고,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연간급여액은 4,724만 원으로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당 평균(3,840만 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1]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 사업체의 사업체 평균 연간급여액이 세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표 7-9> 산업별 평균 연간급여액: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연간급여액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47.24	23.48	50.71
471. 종합 소매업	92.46	23.31	138.24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0.37	14.35	20.72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48.13		48.13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3.36	21.32	23.62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23.59	22.67	23.62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36.05	21.23	38.40
477. 연료 소매업	65.19		65.19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4.06	29.43	34.61
479. 무점포 소매업	104.19	42.99	105.21
56. 음식점 및 주점업	38.40	28.88	40.85
561. 음식점업	44.83	31.69	48.59
5611. 일반 음식점업	44.15	44.43	44.12
5612. 기관구내식당업	175.65		175.65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77.39		77.39
5619. 기타 음식점업	34.66	24.88	46.12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1.37	18.50	21.91
5621. 주점업	19.18	14.40	20.05
5622. 비알콜 음료점업	28.47	30.02	28.13
전 산업	42.93	26.75	46.13



[그림 7-11]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연간급여액 vs. 일반사업체의 연간급여액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은 2,675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4,613만 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모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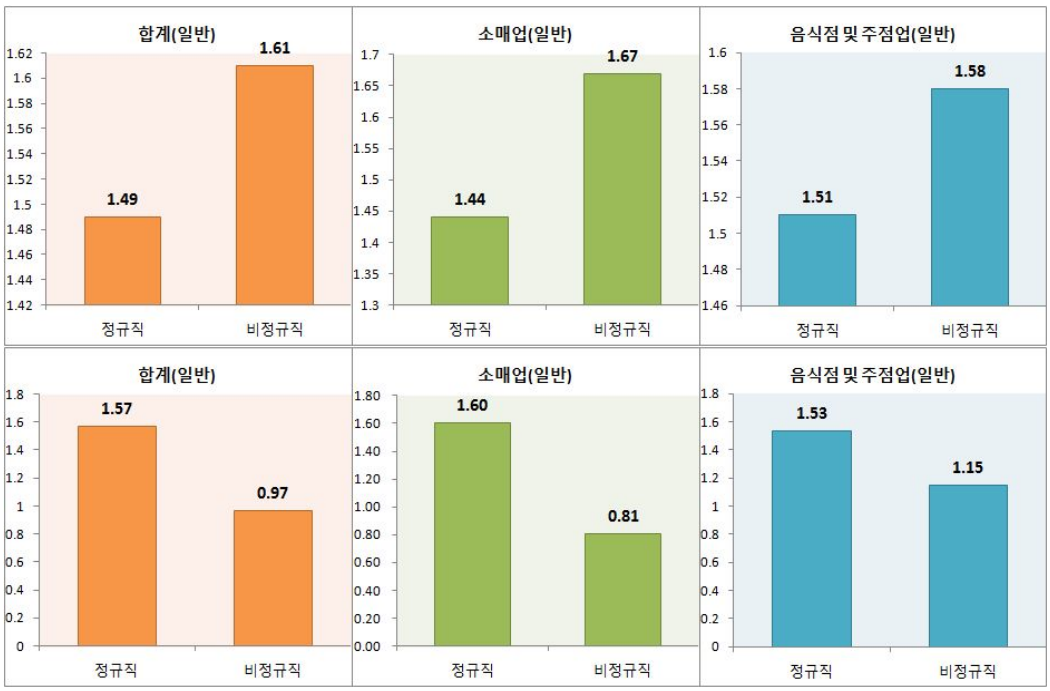
산업세분류별로 보면, 소매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약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단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업(5611 산업)과 비알콜 음료점업(5622 산업)의 경우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중에서는 종합 소매업(471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이 13,824만 원으로서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2,331만 원)의 5.9배나 큰 것으로 나타나 가

장 큰 평균 연간급여액 격차를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무점포 소매업(479)의 경우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이 10,521만 원으로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4,299만 원)의 2.4배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3 업종별 정규직 대 비정규직 고용비중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 사업체

여기서는 사업체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고용형태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연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여타 일반사업체에 비하여 안정적인 일자리인 정규직 일자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가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업종별 고용형태를 살펴봄으로써 관련 정보를 정리하게 될 것이다.

[그림 7-12]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그려져 있다. <표 7-10>에는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종사자 고용형태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정규직은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비정규직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를 포함한다.



[그림 7-12] 프랜차이즈사업체의 고용형태 vs. 일반사업체의 고용형태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전체 사업체의 고용형태를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고용형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 사업체당 1.61명으로 정규직(1.49명)보다 많았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사업체당 1.57명으로 비정규직(0.97명)보다 많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고용형태가 미가입사업체에 비하여 불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별로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을 비교하여 보면 소매업의 비정규직(1.67명)과 정규직(1.44명)의 차이가 음식점 및 주점업의 비정규직(1.58명)과 정규직(1.44명)의 차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세분류별로 보면, 소매업의 경우 종합소매업(471 산업)과 무점포 소매업(479 산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 종사자수가 비정규직 종사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소매업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는 2.44명으로 정규직 종사자 1.28명의 2배 정도에 이르고, 무점포 소매업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는 24.54명으로 정규직 종사자 2.69명의 9.1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수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타 음식점업(5619 산업)과 비알콜음료점업(5622 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수가 정규직 종사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종사자가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형태별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비교하여 보면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는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비중이 높은 반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는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비중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표 7-10> 산업별 고용형태 비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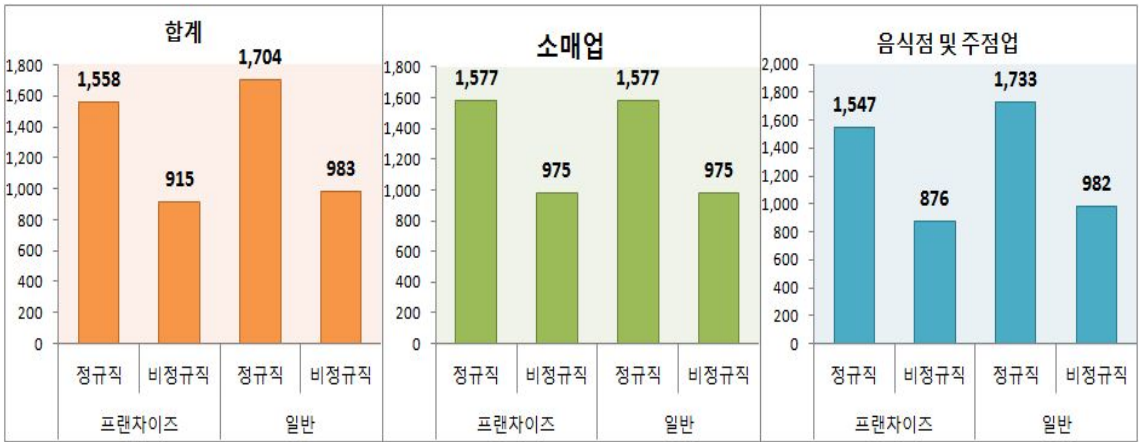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가입		미가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47. 소매업		1.44	1.67	1.60	0.81
	471. 종합 소매업	1.28	2.44	2.21	1.03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24	0.91	1.16	0.56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01	0.50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44	0.80	1.29	0.43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42	0.75	1.21	0.56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57	0.78	1.37	0.53
	477. 연료 소매업			2.57	1.33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종사자수			
			가입		미가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87	0.78	1.52	0.45
	479. 무점포 소매업		2.69	24.54	3.28	7.48
56. 음식점 및 주점업			1.51	1.58	1.53	1.15
	561. 음식점업		1.57	1.67	1.64	1.24
		5611. 일반 음식점업	2.07	1.90	1.62	1.25
		5612. 기관구내식당업			5.71	1.78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3.38	2.10
		5619. 기타 음식점업	1.35	1.57	1.40	1.14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34	1.27	1.27	0.93
		5621. 주점업	1.24	1.06	1.25	0.94
		5622. 비알콜 음료점업	1.78	2.21	1.34	0.89
전 산업			1.49	1.61	1.57	0.97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2.4 업종별 정규직 대 비정규직 임금 비교: 프랜차이즈 vs 일반사업체

여기서는 사업체 종사자들의 고용형태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하고 고용형태별 임금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비교하게 될 것이다. 고용형태별 임금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과연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여타 일반사업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불할지 아니면 낮은 임금을 지불할지 여부가 될 것이다. 또한 분석의 초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격차가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사업체 중 어느 사업체가 더 큰가?"를 밝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림 7-13]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그려져 있다.



[그림 7-13]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평균임금 vs. 일반사업체의 평균임금

<표 7-11>에는 산업소분류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종사자 평균임금이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구분되어 정리되어 있다. 정규직은 상용근로자와 자영업자를 포함하고, 비정규직은 임시 및 일용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 기타 종사자를 포함한다.

정규직 평균임금과 비정규직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text{정규직 평균임금} = \frac{\text{정규직 총급여액}}{\text{정규직 종사자수}}$$

$$\text{비정규직 평균임금} = \frac{\text{비정규직 총급여액}}{\text{비정규직 종사자수}}$$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전체 사업체의 평균임금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1,557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91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1,703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983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직에서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았으며, 비정규직에서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균임금 격차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가 미가입사업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로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을 비교하여 보면 소매업의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음식점 및 주점업 평균임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소매업의 비정규직 평균임금(975만 원)과 정규직 평균임금(1,577만 원)의 격차가 음식점 및 주점업의 비정규직(876만 원)과 정규직(1,546만 원)의 격차보다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1> 산업별 고용형태별 평균임금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원, %)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임금			
	가입		미가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47. 소매업	15,773,790	9,753,269	16,859,150	9,853,018
471. 종합 소매업	14,220,090	9,411,233	16,755,670	8,478,887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14,378,090	8,692,274	15,312,120	9,955,098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7,927,550	11,849,160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임금			
			가입		미가입	
			정규직	비정규직	정규직	비정규직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6,143,490	10,518,280	13,565,730	8,438,335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7,933,050	11,915,510	16,756,000	10,947,750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5,614,860	9,669,223	16,297,080	9,348,955
	477. 연료 소매업				20,066,610	12,955,180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6,809,790	10,858,770	17,661,970	10,737,760
	479. 무점포 소매업		15,720,050	8,376,394	19,050,600	9,345,120
56. 음식점 및 주점업			15,469,060	8,761,694	17,327,850	9,815,705
	561. 음식점업		15,811,420	8,979,920	17,839,800	10,010,460
		5611. 일반 음식점업	15,818,960	9,866,363	16,663,540	10,201,540
		5612. 기관구내식당업			25,780,660	10,810,440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7,153,960	8,630,861
		5619. 기타 음식점업	15,805,240	8,525,931	21,867,450	8,793,256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3,644,000	7,803,358	15,453,900	9,332,579
		5621. 주점업	14,311,940	8,499,382	14,418,870	9,667,333
		5622. 비알콜 음료점업	12,778,830	6,626,078	18,050,130	8,314,938
전 산업			15,576,900	9,152,337	17,039,870	9,832,362

주: 괄호 안은 비중을 나타냄.

산업세분류별로 보면, 소매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 평균임금이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매업의 경우 비정규직 평균임금과 정규직 평균임금 격차도 업종별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에도 모든 업종에서 정규직 평균임금이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에도 비정규직 평균임금과 정규직 평균임금 격차도 업종별로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평균임금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이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평균임금보다 각각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제4절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 분석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일반 사업체에 비하여 과연 어느 정도의 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 것인가?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이 중요한 이유는 장기적으로 국가경제 차원에서 프랜차이즈와 같은 산업조직이 지속가능성이 있을지 여부는 바로 사업체의 경쟁력에 의하여 결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개별 사업자의 관점에서 보면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이 일반 사업체에 비하여 나을 것이 없다면 굳이 프랜차이즈 형태의 사업을 창업하는 것보다는 일반사업체로 사업을 시작하는 것이 더 나은 전략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자 한다. 우선 모든 사업체의 가치는 영업이익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영업이익 관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다음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영업이익률 관점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당연히 매출액과 같은 외형 규모에 비례하여 커질 것이므로 사업체의 수익성을 엄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출액을 고려한 영업이익률을 보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1. 산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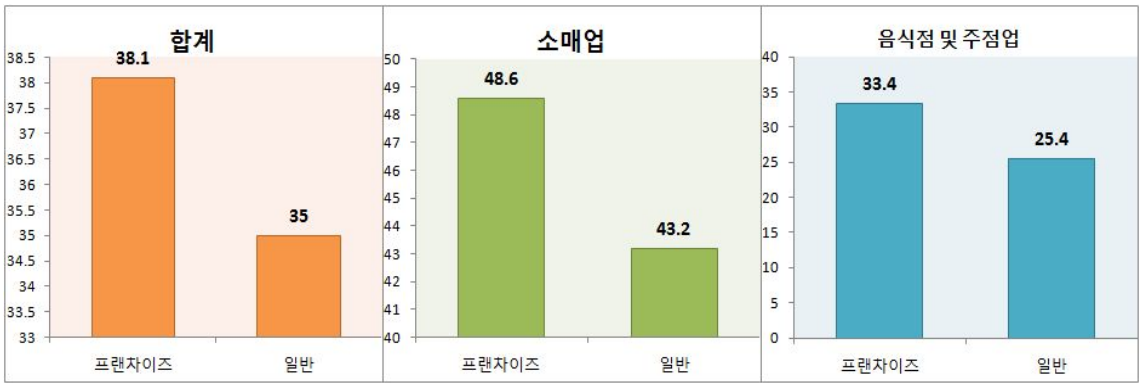
1.1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영업이익의 척도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일반사업체(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다음 식과 같이 산정된다.

$$\text{프랜차이즈 평균영업이익} = \frac{\text{프랜차이즈 산업 총영업이익}}{\text{프랜차이즈 업체수}}$$

$$\text{일반사업체 평균영업이익} = \frac{\text{일반사업체 산업 총영업이익}}{\text{일반사업체 업체수}}$$

[그림 7-14]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이 그려져 있다.



[그림 7-14]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

<표 7-12>에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업체의 평균은 3,530만 원이고,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영업이익은 4,360만 원으로서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2,650만 원)보다 1,71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3,81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3,500만 원)보다 31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 vs 미가입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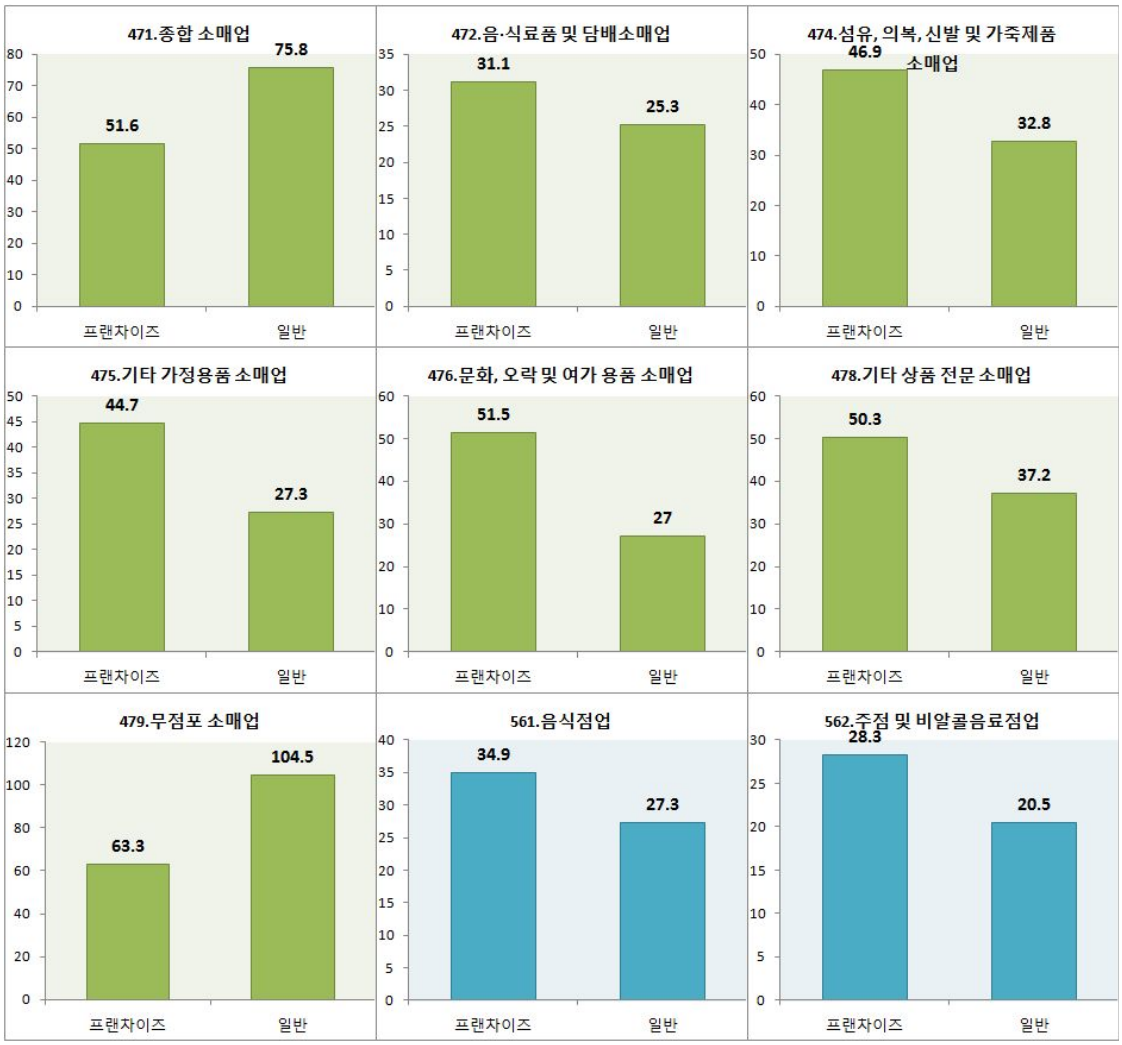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43.6	48.6	43.2
	471. 종합 소매업	72.1	51.6	75.8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25.5	31.1	25.3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39.7		39.7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33.7	46.9	32.8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27.6	44.7	27.3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8.6	51.5	27.0
	477. 연료 소매업	103.5		103.5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37.9	50.3	37.2
	479. 무점포 소매업	103.9	63.3	104.5
56. 음식점 및 주점업		26.5	33.4	25.4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561. 음식점업		28.5	34.9	27.3
		5611. 일반 음식점업	29.9	46.3	28.8
		5612. 기관구내식당업	40.5		40.5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26.1		26.1
		5619. 기타 음식점업	23.4	30.0	18.0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21.5	28.3	20.5
		5621. 주점업	22.5	28.6	21.7
		5622. 비알콜 음료점업	17.0	26.9	15.6
전 산업			35.3	38.1	35.0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47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4,86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4,320만원)보다 54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3,34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2,540만원)보다 840만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음식점 및 주점업이 소매업에 비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이익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음식점 및 주점업에서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더 많은 장점을 이용할 수 있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산업 세분류별로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을 보면 종합소매업(471 산업)과 무점포소매업(479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산업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영업이익이 미가입사업체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만 비교하였을 때 소매업의 평균 영업이익(4,860만 원)이 음식점 및 주점업의 평균 영업이익(3,340만 원)보다 1,52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무점포 소매업(6,330만 원)으로 가장 큰 영업이익을 내고 있고, 다음으로 종합 소매업(5,160만원), 문화 및 여가용품 소매업(476 산업, 5,150만 원) 등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반면에 음식점 및 주점업에 속하는 업종들의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은 대체로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5]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이 세부 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그림 7-15]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

1.2 업종별 평균 영업이익률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미가입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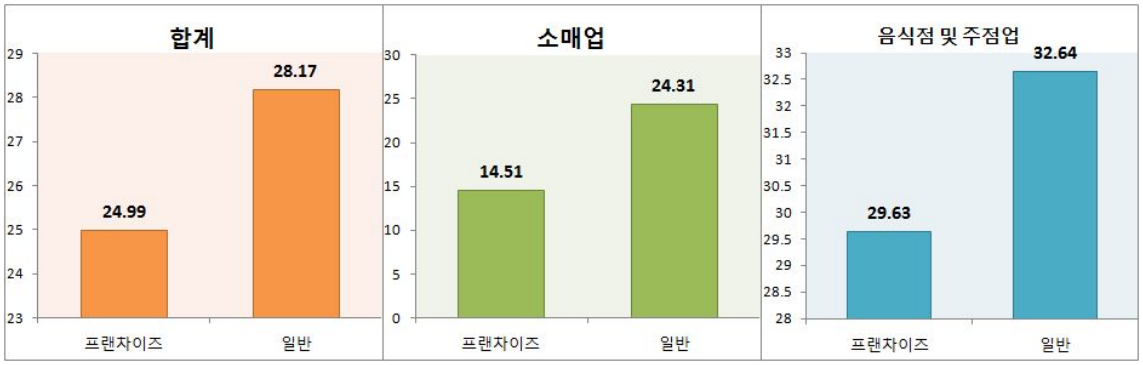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영업이익률의 척도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일반사업체(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다음 식과 같이 산정된다.

$$\text{프랜차이즈 평균영업이익률} = \frac{\text{프랜차이즈 산업 영업이익률 합계}}{\text{프랜차이즈 업체수}}$$

$$\text{일반기업 평균영업이익률} = \frac{\text{일반기업 산업 영업이익률 합계}}{\text{일반기업 업체수}}$$

[그림 7-16]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

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그려져 있다.



[그림 7-16]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률

<표 7-13>에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업체의 평균은 27.84%이고,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99%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28.17%)보다 3.1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13> 산업별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23.70	14.51	24.31
471. 종합 소매업	23.95	10.61	26.34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30.18	15.03	30.62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17.34		17.34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27.62	17.45	28.32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32.53	22.70	32.72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25.95	22.73	26.17
477. 연료 소매업	-25.67		-25.67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26.48	16.06	27.14
479. 무점포 소매업	-27.64	14.00	-28.25
56. 음식점 및 주점업	32.20	29.63	32.64
561.음식점업	31.44	28.72	31.94
5611. 일반 음식점업	31.34	26.12	31.69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5612. 기관구내식당업	12.97		12.97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23.83		23.83
		5619. 기타 음식점업	32.59	29.83	34.83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34.21	32.70	34.42
		5621. 주점업	34.80	35.03	34.77
		5622. 비알콜 음료점업	31.70	22.30	32.95
전 산업			27.84	24.99	28.17

업종별로 보면 주점업(5621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미가입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03%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34.77%)보다 미미하게나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47 산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을 비교하면, 후자가 전자보다 평균 영업이익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는 소매업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14.51%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24.31%)보다 9.8%나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29.63%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32.64%)보다 불과 3.01%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세분류별로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률을 보면 주점업(5621 산업)이 가장 높은 영업이익률(34.80%)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기타 음식점업(5619 산업)으로 32.59%,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산업)이 32. 53%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과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 격차가 가장 큰 산업은 종합 소매업(471 산업)으로 15.63%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472 산업)의 경우도 15.59% 포인트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그림 7-17]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사업체 평균 영업이익이 세부 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그림 7-17]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영업이익률 vs. 일반사업체의 영업이익률

2.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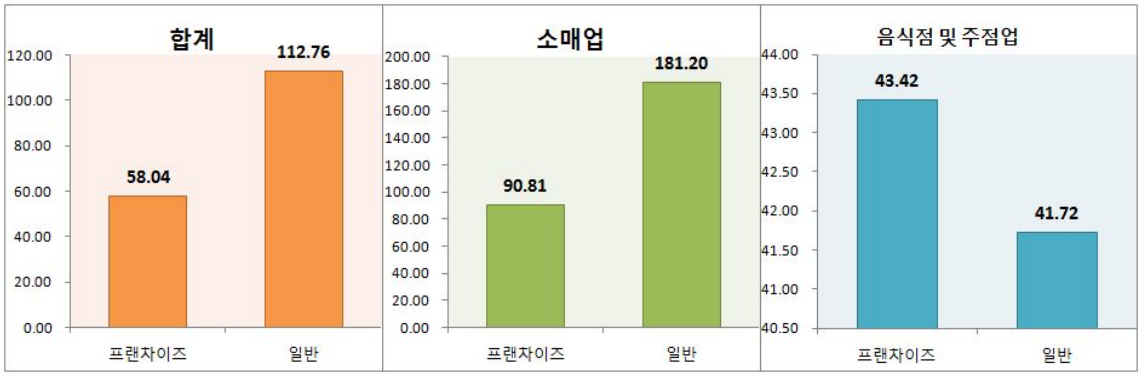
우리가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업체의 경쟁력 결정에 있어 노동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생산성이 곧 실질임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은 미가입사업체와 비교하여 더 클 것인지 혹은 작을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과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2.1 업종별 노동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노동생산성(labor productivity)의 척도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정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업체 노동생산성} = \frac{\text{사업체 매출액}}{\text{사업체 종사자수}}$$

특정 업종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해당 업종에 속한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평균으로 추계된다. [그림 7-18]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그려져 있다.



[그림 7-18]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vs. 일반사업체의 노동생산성

<표 7-14>에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업체의 노동생산성 평균은 노동자 1인당 10,606만 원이고,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5,804만 원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11,276만 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47 산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을 비교하면, 전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후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의 4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로서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소매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

의 노동생산성보다 미미하게나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세분류별로 사업체 평균 노동생산성을 보면 연료소매업(477 산업)이 가장 높은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66,052만 원)을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정보통신장비 소매업(473 산업), 종합 소매업(471 산업), 무점포 소매업(479 산업), 기타 상품전문 소매업(478 산업)이 그 뒤를 잇고 있다. [그림 7-19]에는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사업체 평균 노동생산성이 세부업종별로 그려져 있다.

<표 7-14> 산업별 노동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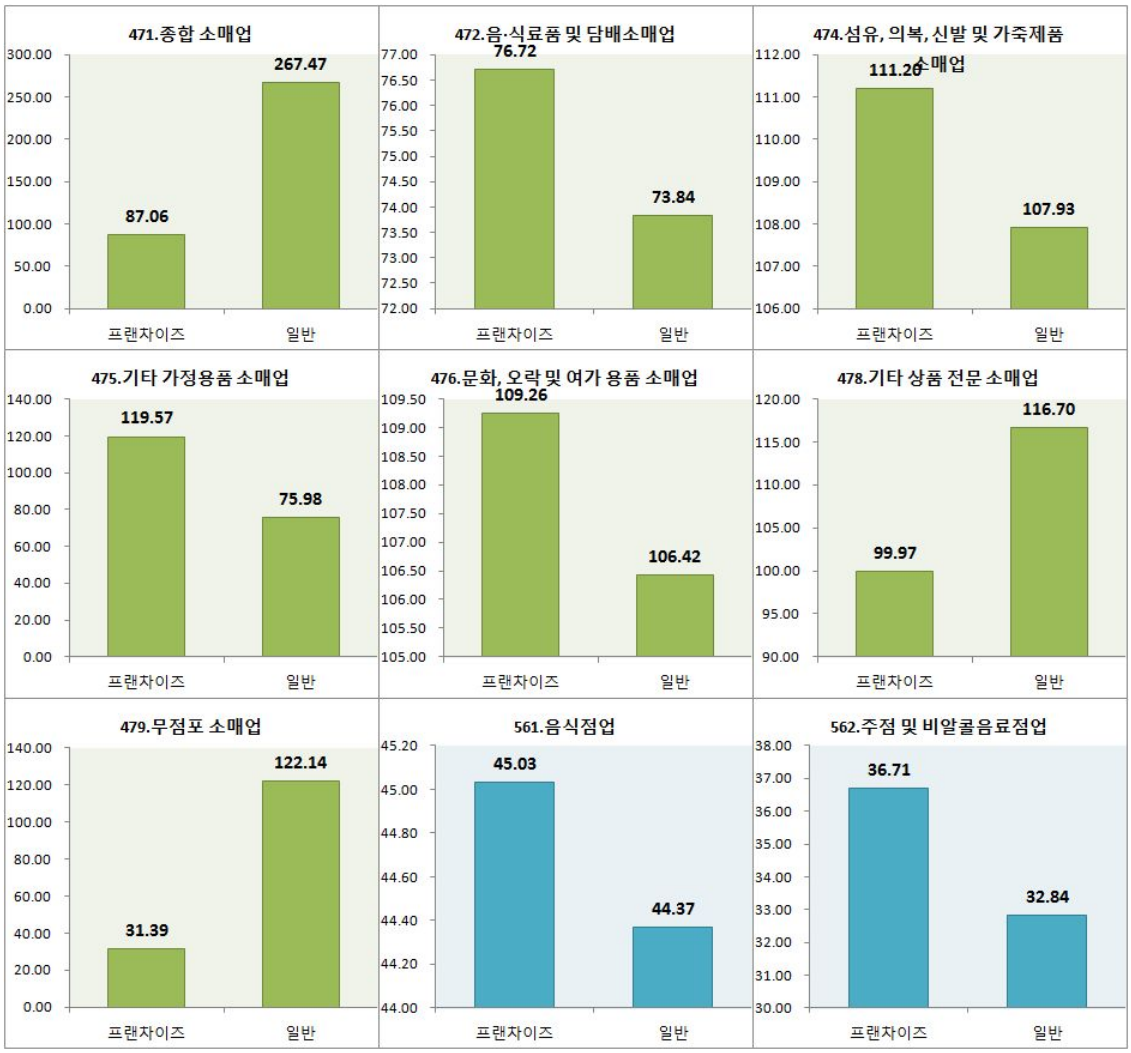
(단위: 백만 원/명)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노동생산성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174.16	90.81	181.20
471. 종합 소매업	236.77	87.06	267.47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73.94	76.72	73.84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86.43		286.43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08.20	111.20	107.93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76.97	119.57	75.98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06.65	109.26	106.42
477. 연료 소매업	660.52		660.52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15.40	99.97	116.70
479. 무점포 소매업	118.88	31.39	122.14
56. 음식점 및 주점업	42.00	43.42	41.72
561. 음식점업	44.49	45.03	44.37
5611. 일반 음식점업	42.80	51.08	42.03
5612. 기관구내식당업	102.51		102.51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53.46		53.46
5619. 기타 음식점업	42.81	41.49	44.03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33.39	36.71	32.84
5621. 주점업	33.41	38.92	32.60
5622. 비알콜 음료점업	33.31	31.03	33.85
전 산업	106.06	58.04	112.76

이번에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보자. 우선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을 비교하여 보면 소매업의 노동생산성(1인

당 9,082만 원)이 음식점 및 주점업의 노동생산성(1인당 4,342만 원)보다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세 업종별로 보면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산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섬유·의복산업(474 산업), 문화·오락산업(476 산업)이 상위권을 점하고 있다.

세세산업별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소매업의 경우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472 산업), 섬유·의복산업(474 산업), 문화·오락산업(476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나머지 업종은 반대로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19] 업종별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노동생산성 vs. 일반사업체의 노동생산성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세세 산업별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

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을 비교하면, 일반 음식점업(5611 산업)과 주점업(5621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기타 음식점업(5619 산업)과 비알콜음료점업(5622 산업)의 경우 반대로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지역별 노동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2.2.1 행정구역별 노동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표 7-15>에는 지역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정리되어 있다. 전체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행정구역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7개 광역시의 노동생산성 평균이 114.45로 9개 도의 노동생산성 평균인 98.31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다. 특히, 광역시 중에는 서울시와 인천시의 노동생산성이 100보다 높았고, 도 가운데에는 경기도와 경상남도의 노동생산성이 10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6개 시도의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를 비교한 결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생산성(58.04)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112.76)의 절반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16개 시도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가장 곳은 서울이고, 다음으로 인천시와 경기도가 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절반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지역별 격차가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지역별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매장의 시설, 판매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표 7-15> 행정구역별 노동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체 노동생산성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광역시		114.45	58.76	122.17
	서울시	134.83	62.76	145.37
	부산시	88.49	53.64	92.16
	대구시	95.71	55.53	101.05

	인천시	111.39	57.16	119.73
	광주시	97.43	54.70	103.96
	대전시	96.39	55.10	102.80
	울산시	92.54	51.28	97.52
도		98.31	57.38	104.05
	경기도	110.07	59.83	119.16
	강원도	84.09	57.37	87.06
	충청북도	92.42	55.84	97.04
	충청남도	92.75	56.80	97.37
	전라북도	87.82	51.78	91.96
	전라남도	85.87	52.99	88.91
	경상북도	87.65	54.05	91.22
	경상남도	100.27	55.57	106.16
	제주도	85.90	55.21	88.66
전 산업		106.06	58.04	112.76

2.2.2 경제권역별 노동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표 7-16>에는 경제권역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정리되어 있다.

<표 7-16> 경제권역별 노동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

지역	사업체 노동생산성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수도권	121.91	60.85	131.78
충청권	93.71	55.97	98.83
경북권	91.52	54.83	95.88
경남권	93.74	54.16	98.40
전라권	89.36	53.41	93.45
강원권	84.09	57.37	87.06
전 산업	106.06	58.04	112.76

전체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권역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이 121.91로 비수도권의 노동생산성이 100보다 낮은 것에 비하여 크게 높다는 점이다. 비수도권 중에는 경남권의 노동생산성이 93.74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충청권(93.71)과 경북권(91.52)이 높은 것으

로 드러났고, 전라권(89.36)과 강원권(84.09)은 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를 비교한 결과 프랜차이즈 업체의 노동생산성(58.04)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112.76)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로 살펴보아도 모든 권역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가 미가입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양자 간 노동생산성 격차가 가장 큰 권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것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권역별 격차가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권역별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점인데,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매장의 시설, 판매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3.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자본생산성

우리가 사업체의 자본생산성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사업체의 경쟁력의 결정과정에서 자본생산성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또한 자본생산성이 곧 자본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문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은 미가입사업체와 비교하여 더 클 것인지 혹은 작을 것인지 여부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자본생산성과 미가입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자본은 유형자산으로 측정된다.『경제총조사』에서는 유형자산의 연말 잔액으로 측정되는데, 연말 잔액과 유형자산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연말 잔액=연초 잔액+연간증가액-연간감소액-연간감가상각비

유형자산=①토지+②건물+③구축물+④기계장치・용광로・요+⑤선박・차량운반구+⑥기타(공구・가구・비품)+⑦건설 중인 자산

단, 유형자산은 사업체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 이외 법인이면서 사업체 구분이 단독사업체인 경우에만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조직형태가 회사법인 또는 회사이외 법인이면서 사업체 구분이 본사, 본점 등인 사업체는「본사조사표」에 작성하도록 되어 있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법인인 경우가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3.1 업종별 자본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본 절에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자본생산성(capital productivity)의 척도에서 비교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특정사업체의 자본생산성 공식은 다음과 같다.

$$\text{사업체 자본생산성} = \frac{\text{사업체 매출액}}{\text{사업체 유형자산}}$$

특정업종의 평균 자본생산성은 해당 업종에 속한 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의 평균으로 추계된다. <표 7-17>에는 업종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자본생산성이 정리되어 있다.

<표 7-17> 산업별 자본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백만 원)

산업소분류별			사업체 자본생산성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47. 소매업			181.07		181.07
	471. 종합 소매업		102.63		102.63
	472. 음·식료품 및 담배 소매업		99.68		99.68
	473.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274.17		274.17
	474.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134.97		134.97
	475.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126.02		126.02
	476.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155.04		155.04
	477. 연료 소매업		136.52		136.52
	478.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164.35		164.35
	479. 무점포 소매업		263.93		263.93
56. 음식점 및 주점업			28.78	1.72	28.80
	561. 음식점업		31.11	1.72	31.14
		5611. 일반 음식점업	23.50		23.50
		5612. 기관구내식당업	54.61		54.61
		5613. 출장 및 이동 음식업	11.37		11.37
		5619. 기타 음식점업	52.39	1.72	52.63
	562.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16.65		16.65
		5621. 주점업	26.43		26.43
		5622. 비알콜 음료점업	10.91		10.91
전 산업			156.85	1.72	156.87

업종별 자본생산성 비교분석 결과,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법인체인 경우는 소매업의 경우 없고, 음식점 및 주점업(561 산업)에 국한되어 있고, 특히 기타 음식점업(5619산업)에 한정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음식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자본생산성(1.72)은 일반 사업체의 자본생산성(52.63)에 비하여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지역별 자본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3.2.1 행정구역별 자본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표 7-18>에는 행정구역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자본생산성이 정리되어 있다.

<표 7-18> 행정구역별 자본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백만 원)

지역		사업체 자본생산성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광역시		184.50	1.72	184.54
	서울시	219.73	1.72	219.79
	부산시	86.99		86.99
	대구시	139.87		139.87
	인천시	81.71		81.71
	광주시	106.14		106.14
	대전시	126.76		126.76
	울산시	82.28		82.28
도		117.98		117.98
	경기도	136.96		136.96
	강원도	140.67		140.67
	충청북도	88.23		88.23
	충청남도	87.29		87.29
	전라북도	114.01		114.01
	전라남도	94.07		94.07
	경상북도	74.96		74.96
	경상남도	120.31		120.31
	제주도	48.40		48.40
전 산업		156.85	1.72	156.87

행정구역별 자본생산성은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법인체인 수가 절대적으로 작

아 서울시의 경우만 자본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이 일반 사업체에 비하여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을 16개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비교한 결과 서울시의 자본생산성(219.73)이 가장 높았고, 강원도(1440.96)와 대구시(139.87) 및 경기도(136.96)가 상위권을 점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대전시(126.76), 전라남도(120.31), 경상북도(114.01), 울산시(106.14)가 중위권을 점하고 있으며, 하위권에는 제주도(48.40), 전라북도(74.96), 광주시(82.28), 충남(87.29), 충북(88.23)이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2 경제권역별 자본생산성 비교: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표 7-19>에는 경제권역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자본생산성이 정리되어 있다.

<표 7-19> 경제권역별 자본생산성지수: 프랜차이즈 사업체 vs 일반사업체

(단위: 백만 원/백만 원)

지역	사업체 자본생산성		
	전체	가입사업체	미가입사업체
수도권	185.80	1.72	185.84
충청권	98.21		98.21
경북권	107.13		107.13
경남권	98.43		98.43
전라권	99.99		99.99
강원권	140.67		140.67
전 산업	156.85	1.72	156.87

경제권역별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법인체인 수가 절대적으로 작아 수도권의 경우만 자본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이 일반 사업체에 비하여 크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체 사업체의 자본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수도권의 자본생산성(185.80)이 가장 높았고, 2위는 강원권(140.67), 3위는 경북권(107.13), 4위는 전라권(99.99), 5위는 경남권(98.43), 6위는 충청권(98.21)으로 나타났는데 하위 3개 경제권의 자본생산성은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5절 실증분석

본 절에서는『경제총조사』자료 중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관련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생산, 영업 등의 기업활동과 그러한 기업활동의 성과로 나타내는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의 결정요인을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게 될 것이다. 제4절까지의 분석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제활동과 그러한 경제활동의 성과인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 대하여 기술적으로 분석(descriptive analysis)을 수행하였다고 하면 본 절에서는 관련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하게 될 것이다.

1.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

1.1 전체 산업 생산함수 추정

여기에서는 사업체 단위의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를 추정한다. 생산함수란 사업체가 노동과 자본과 원재료 등 생산요소(factor inputs)를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최종생산물(outputs)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와 최종생산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로 정의된다.

□ 생산함수 추정방정식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 + \beta_m X_m + \gamma_1 Z_1 + ... + \gamma_n Z_n + \delta D + \epsilon \quad (7\text{-}1)$$

단, 여기서 종속변수 y는 사업체의 매출액 변수이며, 종속변수(y)는 매출액으로 측정된다. $(X_1,...,X_m)$은 사업체의 생산요소 투입량 변수벡터, $(Z_1,...,Z_n)$은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벡터, D변수는 프랜차이즈 가입에 따른 더미변수를 나타내는데, 프랜차이즈 가입시 1의 값을 갖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X_1,...,X_m)$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지적자본 투입량 등이 있다. 여기서 노동투입량(L)은 다음과 같이 종사자수와 연간 영업개월수의 곱으로 측정된다(노동투입량(L)=종사자수×연간영업개월수). 자본투입량(K)은 사업체의 유형자산으로 측정되며 지적자본 투입량(K_N)은 사업체의 무형자산 연말

잔액으로 측정된다. $(Z_1,...,Z_n)$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 전자상거래 여부 및 매출액 대비 비율,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 변수 등이 있다. 사업체 활동기간(Z_1)은 현재시점에서 설립연도와 월을 차감하여 추계된다. 전자상거래 여부(Z_2) 변수는 전자상거래가 사업체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자상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 전 산업 생산함수 추정결과

전 산업 사업체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본에 속한 사업체수는 9,352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본자료의 수가 10,000개 미만으로 떨어진 이유는 자본변수의 경우 법인사업체만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이론과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산출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자본은 모두 수준변수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측정단위는 노동의 경우 명, 매출액과 자본의 경우 백만 원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석하면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가 6.295라는 것은 노동을 1단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 매출액은 629만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변수(K)의 경우 추정계수는 0.611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의 생산성이 0.611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본을 1단위 증가시키는 경우 매출액이 0.611단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단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변수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7.9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업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체 연혁이 1개월 증가하는 경우 매출액이 792.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10.811로 통계적으로도 매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매출액이 1,081.1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산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0>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7-20> 전 산업(도소매업, 음식점 및 주점업) 생산함수 추정결과

설명변수	전 산업
	종속변수: 매출액
노동투입량	6.295***
(L)	(26.587)
자본투입량	0.611***
(K)	(57.517)
사업체 활동기간	7.926***
($YEAR$)	(7.851)
전자상거래 여부	10.811***
($ECOMMERCE$)	(5.250)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	-1349.855
($FRANCHISE$)	(-0.343)
상수항	801.238***
(C)	(6.485)
adj R^2(조정 결정계수)	0.339
N(관측치수)	9352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1.2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

여기에서는 자료를 산업별로 분류한 다음 산업별로 생산함수를 추정한다. 1차적으로는 소매업과 음식점업으로 양분하여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방정식을 추정하게 될 것이다. 2차적으로는 소매업은 471산업~479산업으로 분류하고 음식점업은 561산업과 562산업으로 구분하여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방정식을 추정하게 될 것이다.

□ 추정방정식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 + \beta_m X_m + \gamma_1 Z_1 + ... + \gamma_n Z_n + \delta D + \epsilon$$

단, 여기서 y는 사업체의 매출액 변수, $(X_1,...,X_m)$은 사업체의 생산요소 투입량 변수벡터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지적자본 투입량 등이 있다. $(Z_1,...,Z_n)$은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벡터로써 여기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기업의 영업활동 기간, 전자상거래 여부 및 매출액 대비 비율,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 변수 등이 있다. D 변수는 프랜차이즈 가입에 따른 더미변수를 나타내는데, 프랜차이즈 가입시 1의

값을 갖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 도소매업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도소매업 사업체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본에 속한 사업체수는 7,870개로 나타났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이론과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산출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자본은 모두 수준변수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측정단위는 노동의 경우 명, 매출액과 자본의 경우 백만 원으로 측정되었다.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는 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내는데, 연료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이 5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정보통신장비 소매업(28.789), 3위는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28.529), 4위는 음식료품 및 담배소비업(18.078), 5위는 문화·오락 소매업(17.906)으로 나타났으며 무점포 소매업의 노동생산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1a>와 <표 7-21b>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7-21a>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도매업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노동투입량	6.704*** (25.265)	13.312*** (6.659)	18.078*** (11.119)	28.789*** (20.443)	6.859*** (4.569)
자본투입량	0.629*** (54.164)	0.560*** (29.805)	0.135 (0.717)	1.365*** (3.778)	0.404*** (7.011)
사업체 활동기간	7.541*** (6.458)	14.598** (3.175)	-1.812 (-0.773)	-1.945 (-1.545)	0.390 (0.167)
전자상거래 여부	6.746** (2.968)	-2.993 (-0.115)	-7.950 (-1.095)	16.432*** (4.348)	-2.782 (-0.411)
체인점 가입 여부					
상수항	1198.383*** (8.119)	240.724 (0.421)	879.236*** (3.314)	523.292** (3.098)	1288.932*** (4.622)
adj R^2	0.351	0.787	0.146	0.238	0.100
N	7,870	697	722	1,599	666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표 7-21b>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표 계속)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용품 소매업	연료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노동투입량	28.529***	17.906***	59.700***	8.381***	5.408***
	(16.461)	(9.361)	(16.749)	(4.061)	(10.883)
자본투입량	0.303*	0.320	0.185	2.411***	3.265***
	(2.316)	(1.748)	(1.699)	(6.448)	(12.094)
사업체 활동 기간	-0.744	-3.972	-4.011	2.443	13.273
	(-0.628)	(-1.820)	(-1.625)	(0.856)	(1.810)
전자상거래 여부	-1.507	9.525	-7.604	1.080	20.612*
	(-0.401)	(1.546)	(-0.411)	(0.158)	(2.105)
체인점 가입 여부					
상수항	47.266	837.276**	1047.915**	713.188*	-690.626
	(0.278)	(3.155)	(2.755)	(2.061)	(-0.641)
adj R^2	0.318	0.181	0.255	0.086	0.193
N	663	428	1,019	815	1,261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기타 변수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도매업과 종합 소매업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종합 소매업의 사업체 연혁이 매출액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도매업과 정보통신장비 소매업과 무점포 소매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무점포 소매업의 경우가 전자상거래 여부가 매출액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2>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7-22> 음식점 및 주점업 세부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종속변수	매출액	매출액	매출액
노동투입량	4.620***	4.598***	4.553***
	(33.463)	(31.172)	(8.232)
자본투입량	0.017	0.016	0.062
	(1.817)	(1.640)	(1.054)
사업체 활동기간	2.096***	1.958***	2.453
	(4.647)	(4.040)	(1.240)
전자상거래 여부	-2.153	-1.579	-7.349
	(-0.783)	(-0.520)	(-1.197)
체인점 가입 여부	-283.484	-308.970	
	(-0.458)	(-0.479)	
상수항	123.662**	156.586**	5.267
	(2.643)	(2.891)	(0.049)
adj R^2	0.460	0.462	0.263
N	1,482	1,245	237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본에 속한 사업체수는 1,482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음식점업에 속한 사업체는 1,245개이며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에 속한 사업체는 237개이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는 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내는데, 전체 표본의 경우 추정계수가 4.620으로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19.3)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음식점업이나 주점업으로 구분하여도 노동생산성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자본 생산성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가 양(+)의 값을 가지나 도소매업의 자본생산성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 유의성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려우나, 단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점업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추정계수의 값은 음식점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3>에 정리되어 있다. 사업체 규모를 종사자 5인을 기준으로 5인 미만 사업체와 5인 이상 사업체로 구분한 결과 전자는 4,583개 사업체이고, 후자는 4,769개 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생산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는 노동의 생산성을 나타내는데,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추정계수가 25.769로 5인 이상 사업체의 노동생산성(5.698)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노동의 한계생산물이 노동투입량이 증가하면서 체감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7-23> 사업체 규모별 생산함수 추정결과

설명변수	5인 미만 사업체	5인 이상 사업체
	종속변수: 매출액	
노동투입량 (L)	25.769*** (8.399)	5.698*** (17.742)
자본투입량 (K)	0.627*** (12.957)	0.605*** (42.606)
사업체 활동기간 ($YEAR$)	-1.944** (-3.072)	14.009*** (7.867)
전자상거래 여부 ($ECOMMERCE$)	-0.251 (-0.209)	20.840*** (5.456)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 ($FRANCHISE$)		-1,675.768 (-0.321)
상수항 (C)	496.658*** (4.661)	905.304*** (3.932)
adj R^2(조정 결정계수)	0.051	0.351
N(관측치 수)	4583	4769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자본 생산성의 경우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

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5인 이상 사업체에만 적용되는 것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5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추정계수가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활동기간이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종업원수가 일정 수 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체에 대해서만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전자상거래가 매출액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사업체가 일정 규모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 산업별 사업체 경쟁력 결정요인 분석

여기에서는 사업체 경쟁력의 결정요인에 대하여 분석할 것이다. 사업체의 경쟁력은 영업이익과 영업이익률로 측정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쟁력과 미가입사업체의 결정요인은 무엇이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를 규명하는 것이 될 것이다.

2.1 영업이익 함수 추정

2.1.1 전체 산업 영업이익 함수 추정

□ 영업이익 추정방정식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 + \beta_m X_m + \gamma_1 Z_1 + ... + \gamma_n Z_n + \delta D + \epsilon$$

단, 여기서 y는 사업체의 영업이익 변수로서, 종속변수(y)는 영업이익으로 측정된다. $(X_1,...,X_m)$은 사업체의 생산요소 투입량 변수벡터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노동투입량, 자본투입량, 지적자본 투입량 등이 있다. 이때 노동투입량(L)은 다음과 같이 종사자수와 연간 영업개월수의 곱으로 측정된다. 자본투입량(K)은 사업체의 유형자산으로 측정된다. 지적자본 투입량(K_N)은 사업체의 무형

자산 연말잔액으로 측정된다. 평균임금은 급여총액을 종사자수로 나누어 측정한다. $(Z_1,...,Z_n)$은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벡터로서 여기에 포함되는 변수로는 사업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변수인 기업의 영업활동기간, 전자상거래 여부 및 매출액 대비 비율,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 변수 등이 있다. 사업체 활동기간(Z_1)은 현재시점에서 설립연도와 월을 차감하여 추계된다. 전자상거래 여부(Z_2) 변수는 전자상거래가 사업체의 영업이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전자상거래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변수를 설명변수로 포함시켰다. D 변수는 프랜차이즈 가입에 따른 더미변수를 나타내는데, 프랜차이즈 가입시 1의 값을 갖고 가입하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다.

□ 전 산업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전 산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4>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전 산업 사업체의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본에 속한 사업체수는 9,346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표본자료의 수가 줄어든 이유는 자본변수의 경우 법인사업체만이 자료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이론과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투입량(L) 변수의 추정계수는 0.062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계수의 의미는 노동을 1단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6.2만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노동 1단위 증가에 의한 영업이익의 증가분이 작은 것은 노동 1단위 추가투입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자본변수(K)의 경우 추정계수는 0.091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의 한계수익성이 0.091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본을 1단위 증가시키는 경우 영업이익이 0.091단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본의 한계수익성이 노동의 한계수익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본이 노동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7-24> 전 산업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종속변수	전 산업
	영업이익
노동투입량	0.062**
	(2.921)
자본투입량	0.091***
	(94.838)
사업체 활동기간	0.392***
	(4.296)
평균임금	1.970***
	(4.563)
전자상거래 여부	0.485**
	(2.617)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	84.611
	(0.239)
상수항	-74.461***
	(-5.636)
adj R^2	0.505
N	9,346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이 어렵다. 단지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0.392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업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체 연혁이 1개월 증가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39.2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0.485로 통계적으로도 매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48.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2 산업별 영업이익 함수 추정

□ 추정방정식

$$y = \alpha + \beta_1 X_1 + \beta_2 X_2 + ... + \beta_m X_m + \gamma_1 Z_1 + ... + \gamma_n Z_n + \delta D + \epsilon$$

단, 여기서 y는 사업체의 경쟁력을 나타내는 영업이익 변수이고 설명변수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다.

□ 도소매업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도소매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5a>와 <표 7-25b>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7-25a>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도매업	종합 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	정보통신장비 소매업	섬유, 의복, 신발 및 가죽제품 소매업
노동투입량	0.052*	0.491	0.745***	0.562***	0.204
	(2.235)	(1.395)	(6.377)	(7.978)	(1.078)
자본투입량	0.095***	0.090***	-0.054***	0.068***	0.089***
	(93.793)	(27.138)	(-3.992)	(3.791)	(12.194)
사업체 활동기간	0.317**	2.584**	-0.059	-0.510***	0.410
	(3.097)	(3.187)	(-0.352)	(-8.123)	(1.385)
평균임금	3.489***	11.591*	2.192*	-0.189	1.781
	(6.562)	(2.004)	(2.054)	(-0.510)	(1.898)
전자상거래 여부	0.378	-1.026	-0.417	-0.089	0.356
	(1.904)	(-0.225)	(-0.804)	(-0.472)	(0.417)
체인점 가입 여부					
상수항	-88.173***	-503.132***	-27.788	37.372***	-76.024*
	(-5.681)	(-3.909)	(-1.171)	(3.492)	(-1.998)
adj R^2	0.543	0.718	0.073	0.079	0.191
N	7869.000	696.000	722.000	1599.000	666.000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도소매업 사업체의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본에 속한 사업체수는 7,869개로 나타났다.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는 노동의 한계수익성을 나타내는데, 기타 가정용품소매업의 노동의 한계수익성이 1.464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연료소매업(1.244), 3위는 문화·오락 소매업(0.816), 4위는 음식료품 및 담배 소비업(0.745), 5위는 정보통신장비 소매업(0.562)으로 나타났으며 여타 산업의 경우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7-25b> 도소매업 세부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	문화, 오락 및 여가 용품 소매업	연료 소매업	기타 상품 전문 소매업	무점포 소매업
종속변수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
노동투입량	1.464***	0.816***	1.244***	0.366	0.009
	(9.291)	(4.894)	(10.929)	(1.711)	(0.254)
자본투입량	0.039***	0.019	0.022***	0.094*	0.153***
	(3.314)	(1.206)	(6.462)	(2.412)	(8.191)
사업체 활동기간	-0.021	-0.219	0.018	0.100	0.523
	(-0.199)	(-1.149)	(0.230)	(0.335)	(1.024)
평균임금	1.533***	4.430***	3.185***	2.735	8.413***
	(3.366)	(4.087)	(5.181)	(1.832)	(4.251)
전자상거래 여부	-0.448	-0.311	0.225	-0.757	0.355
	(-1.321)	(-0.581)	(0.383)	(-1.070)	(0.524)
체인점 가입 여부					
상수항	-70.084***	-84.042**	-89.128***	-31.006	-192.507*
	(-4.049)	(-2.897)	(-5.894)	(-0.714)	(-2.457)
adj R^2	0.166	0.092	0.225	0.017	0.073
N	663.000	428.000	1019.000	815.000	1261.000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자본투입량(K)의 추정계수는 자본의 한계수익성을 나타내는데, 무점포 소매업의 자본의 한계수익성이 0.153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도매업(0.095), 3위는 기타 상품전문소매업(0.094), 4위는 종합소매업(0.090), 5위는 섬

유・의복・신발 및 가죽소매업(0.089)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난 산업은 도매업과 종합 소매업뿐이었으며, 그 중에서도 종합 소매업의 사업체 연혁이 영업이익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 산업은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는 모든 산업에 있어 통계적 유의성이 없어 전자상거래가 영업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음식점 및 주점업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자료를 이용한 사업체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표 7-26>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다.

<표 7-26> 음식점 및 주점업 세부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음식점 및 주점업	음식점업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
노동투입량	0.240***	0.253***	-0.185
	(8.172)	(9.595)	(-0.780)
자본투입량	-0.036***	-0.036***	0.004
	(-18.310)	(-21.106)	(0.159)
사업체 활동기간	0.410***	0.406***	0.021
	(4.269)	(4.679)	(0.024)
평균임금	-0.832**	-0.514	-1.644*
	(-2.775)	(-1.633)	(-2.028)
전자상거래 여부	0.239	0.296	0.151
	(0.408)	(0.545)	(0.057)
체인점 가입 여부	39.883	42.348	
	(0.303)	(0.367)	
상수항	-15.973	-21.426	28.747
	(-1.423)	(-1.914)	(0.596)
adj R^2	0.219	0.304	-0.001
N	1477.000	1241.000	236.000

주: 괄호 안은 t-값을 나타내며, *는 유의수준 10%, **는 유의수준 5%, ***는 유의수준 1%를 각각 나타냄.

음식점 및 주점업 사업체의 영업이익함수를 추정한 결과 표본에 속한 사업체

수는 1,477개로 나타났으며, 그 중 음식점업에 속한 사업체는 1,241개이며 주점 및 비알콜 음료점업에 속한 사업체는 236개이다. 산업별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는 노동의 한계수익성을 나타내는데, 전체 표본의 경우 추정계수가 0.240으로 도소매업의 노동생산성(0.595)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업이나 주점업으로 구분하는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노동의 한계수익성은 0.253으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데 반해,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의 경우 추정계수의 통계적 유의성도 없고 부호도 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생산성의 경우 추정계수의 부호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음(-)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 음식점과 주점업의 경우 자본의 경우 한계수익성은 0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음식점업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가지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점업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은 다소 떨어지나 추정계수의 값은 음식점업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양(+)의 값을 갖고 있지만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2 기타 영업이익률 함수와 1인당 매출액 함수 추정

본 보고서에는 보고하지 않고 있지만 산업별 영업이익률 함수와 1인당 매출액 함수를 추정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추정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 이는 영업이익률을 결정하는 요인이 많은데 그들 요인이 설명변수에 포함되지 못한 데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제6절 프랜차이즈 사업실태 요약

본 연구에서는 21세기에 진입하며 세계 경제·사회 환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수가 증가하면서도 그에 걸맞게 경쟁력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우려되는 것이 자영업을 창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퇴직자들이 프랜차이즈 사업체로 진출하는 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들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의

일방적인 컨설팅에 의존하여 창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어 창업 이후 짧은 기간 안에 폐업이나 업종전환 등으로 사업자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프랜차이즈 창업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를 분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을 평가함으로써 프랜차이즈 사업을 창업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사업체가 가장 많이 속한 소매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를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분석함으로써, 거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분석하고 미시적으로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쟁력을 분석하고 있다.

소매업 전체 61만 6,500개 사업체 중 3만 7,899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도 있어 전체 사업체의 6.1%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중에서는 종합소매업의 경우 16,537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전체 사업체 중 15.2%를 차지하여 프랜차이즈 가입업체 소매업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 58만 6,297개 사업체 중 8만 5,430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14.6%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이 주요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는 기타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102,852개 사업체 중 46,024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전체 사업체 중 4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은 2억 7,540만 원이고,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4억 2,750만 원으로서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1억 1,530만 원)보다 3.7배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 7,98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2억 8,630만 원)보다 1억 650만 원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료 소매업(477 산업)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을 비교하면, 소매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보다 작은 반면,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 중에서는 기타 가정용품 소매업(475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억 4,84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1억 8,620만 원)보다 1억 2,500만 원이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매출액 격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 중에서는 일반음식점업(561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2억 30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1억 2,040만 원)보다 8,260만 원이나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평균 매출액 격차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를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2.6명이고,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2.74명으로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2.45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는 3.10명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2.54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모든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가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종사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종사자수로 볼 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나 미가입사업체를 불문하고 3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을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29.22㎡이고, 소매업(47 산업)의 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32.07㎡으로 음식 및 주점업(56 산업) 사업체당 평균 건물면적(126.21㎡)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09.42㎡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131.48㎡)보다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모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보다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은 22조 원으로 전체산업 매출액 331조 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액을 산업별로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 11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 67조 원의 16.98%를 차지하고 있고, 소매업(47 산업)의 경우 10조 원으로 전체 매출액 263조 원의 4.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업종별로 음식점업 내에서는 기타 음식점업의 프랜차이즈 사업체 비중이 4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는 38만 2,096명으로 전체 종사자 312만 명 2,206명의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를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수에 대비한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 16.4%로 소매업(47 산업)의 7.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우선 기타 음식점업(5619 산업)의 종자자 수는 134,323명으로 해당 업종 전체 종사자수의 48.3%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다음으로 비알콜 음료점업(5622 산업)의 종사자수는 14,325명으로 해당 업종 전체 종사자수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그 뒤를 주점업(5621 산업)이 12.9%로 그 다음을 잇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은 2,675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4,613만 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에서 모두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세분류별로 보면, 소매업의 경우 모든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주점업의 경우 단 두 업종을 제외하고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음식점업(5611 산업)과 비알콜 음료점업(5622 산업)의 경우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연간급여액이 미가입사업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과 음식점·주점업 전체 사업체의 고용형태를 업종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전체 사업체의 고용형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 사업체당 1.61명으로 정규직(1.49명)보다 많았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사업체당 1.57명으로 비정규직(0.97명)보다 많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고용형태가 미가입사업체에 비하여 불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산업 56)의 경우 정규직과 비정규직 종사자수는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타 음식점업(5619 산업)과 비알콜 음료점업(5622 산업)의 경우 비정규직 종사자수가 정규직 종사자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 최근 호황을 누리고 있는 치킨집이나 커피 전문점의 경우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종사자가 더 많이 고용되고 있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전체 사업체의 평균임금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1,557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915만 원으로 나타났으며,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1,703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983만 원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규직에서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았으며, 비정규직에서도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았다. 단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평균임금 격차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가 미가입사업체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

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영업이익의 척도에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3,81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3,500만 원)보다 31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소매업(47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4,86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4,320만 원)보다 54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3,34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2,540만 원)보다 84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체의 평균은 27.84%이고,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99%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28.17%)보다 3.1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주점업(5621 산업)을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의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영업이익률이 미가입사업체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이 35.03%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34.77%)보다 미미하게나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체의 노동생산성 평균은 노동자 1인당 10,606만 원이고,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5,804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11,276만 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매업(47 산업)과 음식점 및 주점업(56 산업)을 비교하면, 전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이 후자의 평균 노동생산성의 4배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음식점 및 주점업의 노동생산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업종에서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로서 노동생산성을 비교한 결과, 소매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낮게 나타난 반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이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보다 미미하게나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행정구역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7개 광역시의 노동생산성 평균이 114.45로 9개 도의 노동생산성 평균인 98.31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지역별 격차가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지역별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매장의 시설, 판매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제활동과 그러한 경제활동의 성

과인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에 대하여 관련 변수들의 인과관계를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생산함수(production function)란 사업체가 노동과 자본과 원재료 등 생산요소(factor inputs)를 생산 공정에 투입하여 최종생산물(outputs)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생산요소와 최종생산물의 관계를 나타내는 함수로 정의된다. 사업체 단위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론과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산출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과 자본은 모두 수준변수로 측정되었으며 각각의 측정단위는 노동의 경우 명, 매출액과 자본의 경우 백만 원으로 측정되었다. 이에 따라 해석하면 노동투입량(L)의 추정계수가 6.295라는 것은 노동을 1단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 매출액은 629만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변수(K)의 경우 추정계수는 0.611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의 생산성이 0.611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본을 1단위 증가시키는 경우 매출액이 0.611단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단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7.926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업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체 연혁이 1개월 증가하는 경우 매출액이 792.6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10.811로 통계적으로도 매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매출액이 1,081.1만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이론과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투입량(L) 변수의 추정계수는 0.062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추정계수의 의미는 노동을 1단위 추가로 투입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6.2만 원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노동 1단위 증가에 의한 영업이익의 증가분이 작은 것은 노동 1단위 추가투입의 한계수입이 한계비용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본변수(K)의 경우 추정계수는 0.091로 양(+)의 값을 갖고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자본의 한계수익성이 0.091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자본을 1단위 증가시키는 경우 영업이익이 0.091단위 증가하는 것을 나타낸다. 자본의 한계수익성이 노동의 한계수익성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본이 노동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

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하기 어렵다. 단지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타 변수의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YEAR*) 변수의 추정계수가 0.392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업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사업체 연혁이 1개월 증가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39.2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변수(*ECOMMERCE*)의 추정계수가 0.485로 통계적으로도 매유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48.5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8장 결론 및 활용방안

제1절 연구 요약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에서 조사한 2011년도 경제총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여러 주제 및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경제총조사 자료에 대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경제총조사는 우리나라의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므로 경제센서스 자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및 산업별 특성에 대한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중소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지원, 지역 발전, 산업정책 수립 등 각종 국가 경제정책 수립에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 자료의 활용성 제고를 위하여 여섯 가지의 주제를 중심으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각 주제별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자 현황 및 규모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

경제총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대다수 자영업자가 속해 있는 영세사업자라 할 수 있는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업종별 현황을 살펴보았다. 조사대상 전체 사업체수 335만 5천 개 중 5인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체수는 256만 3천 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76.4%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5인 미만 개인사업체 종사자수는 454만 1천 명으로 전체 종사자수 1,764만 7천 명의 2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로는 5인 미만 개인사업체의 산업별 사업체 및 종사자수에서 도매 및 소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의 비중이 전체 산업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특히, 숙박 및 음식업의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91.4%)는 5인 미만 개인사업체 구성비(76.4%) 대비 약 15% 이상 높다는 점에서 숙박 및 음식업종의 영세성을 확인할 수 있다.

숙박 및 음식점업의 평균 급여액은 업체당 종사자수 규모와 고용형태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업체당 규모면에서 종사자수가 증가할수록 급여가 증가하였고, 상용종사자의 임금이 임시근로자의 임금에 비해 약 2.3배 높게 나타나서, 고용형태에 따라 임금격차가 크게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업체당 종사자수에 따라 규모별 수익특성을 살펴보면, 매출액 구성비는 4인 이하 업체와 5인 이상 업체 간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이익률은 4인 이하 업체의 구성비(74.6%)가 5인 이상 업체의 구성비(25.4%)에 비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1인당 매출액은 4인 이하 사업체에 비해 5인 이상 사업체가 2배 이

상 높은 반면, 1인당 영업이익률은 4인 이하 사업체가 5인 이상 업체에 비해 오히려 높은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으로 4인 이하 업체의 수익성이 5인 이상 업체에 비해 오히려 높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영업이익률에 대한 응답자의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가능성도 있으므로, 업체 규모에 따른 이익률의 차이에 대한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을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한 결과, 2007년도 기준 자영업주 비중은 전체 취업자의 25.8%를 차지하고 있는 등 OECD 국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OECD 국가 중 한국보다 자영업 비중이 높은 국가는 그리스, 멕시코, 터키 등 세 개의 국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그리스를 제외하고는 한국에 비해 소득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은 국가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이 소득수준 대비 한국의 자영업주 비중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그 동안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한 생계형 자영업의 증가에 기인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 것으로 판단된다.

2. 가공통계 개발방안

우리나라 최초로 작성된 사업체 전수자료인 2010년 기준 경제총조사의 원시자료로부터 '광업 및 제조업' 부문과 '서비스업' 부문에 대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하였다. '광업 및 제조업' 부문의 경우 부문 전체의 일반집중도는 높지 않은 편이나, 개개의 중분류 산업 중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광업 지원 서비스업'과 '담배 제조업', '음료 제조업',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기타 운송 장비 제조업' 등의 집중도가 높았다. 이들 산업들은 대체로 단순 평균 집중도에 비해 가중 평균 집중도가 높으며, 매출액 기준 상위 100대 기업들이 주로 분포되어 있는 산업과 유사하다. 이는 산업의 특성상 매출액 규모가 큰 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시사한다. 또한 세세분류 산업들에 대한 산업집중도 분석의 결과 경쟁적 시장이 형성된 산업의 비중이 2009년에 비해 증가하고 집중형 산업의 비중은 소폭 하락하였으나 고위집중형 산업의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 또한 여전히 규모가 큰 산업이 고집중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인다.

'서비스업' 부문의 경우 세세분류 산업들에 대한 산업집중도 분석의 결과 경쟁적 시장이 형성된 산업의 비중이 24.6%이고 고위집중형 산업의 비중은 21.6%이다. 이는 2009년 기준 조사에서와 전혀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의 차이는 전수조사와 표본조사의 차이와 기업 단위 집계방식의 차이, 그리고 제1부 산업의 매출을 고려한 점 등에 기인했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살펴야

할 것이다. 경쟁적 구조를 가진 대분류 산업으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과 '교육 서비스업'이 있고, 과점형 구조를 가진 산업으로는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과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이 있다.

3. 경제총조사와 연계방안 - 심평원 건강보험 자료와의 연계

의료산업에 대한 문헌연구는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통하여 환자의 의료이용양상 및 결과(outcome)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보건의료산업의 전체적인 개황은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 자료를 결합하여 가용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통계청의 경제총조사 자료의 통합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었는데, 특히 통계청은 의료산업 전반의 시장구조 분석 등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와 경제총조사 자료연계가 필요함을 역설하였으나, 심평원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지만 실제 연계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고 국정감사 등의 내부 사정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여 자료통합에는 4개월이 소요되었다. 구체적인 자료연계는 연구기간의 종료시점에 가까운 2012년 10월 18~19일의 2일간에 통계청의 3인이 심평원을 방문하여 자료연계를 시도하였다. 자료 연계율은 55,770개 중 93%에 다다르고, 연계코드는 사업자등록번호이었으며, 식별자료를 제외하고 엑셀형태로 반출하였다.

자료연계를 통하여 분석이 가능해진 부분은 다음과 같다. 먼저, 건강보험 재정 관련 거시적 분석이 가능해졌다. 진료비의 증가 요인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비급여에 대한 비중을 분석할 수 있다. 둘째, 보건의료시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특히, 의료기관의 수익구조를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의료기관의 진료행태에 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셋째,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데, 이는 시계열 자료가 구축된 이후 분석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경제총조사만을 이용하여 분석이 가능한 대표적인 지표로서 병원 등급별 종사자 1인당 영업이익을 볼 수 있는데, 경제총조사의 특성상 상용직과 임시직 등에 대한 분석은 가능하지만, 직종(의사, 간호사, 조무사 등)에 대한 분석은 한계가 존재한다. 분석결과 근로자 1인당 영업이익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에서 치과의원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인당 이익은 1년간 약 3,000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직종별 영업이익에 대한 분석은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 자료와의 결합이 이

루어진 이후에 진행할 수 있었다. 종사자당 사업이익의 추이를 분석하였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를 결합하여 의사 1인당, 의사와 간호사 1인당 영업이익 등의 크기를 분석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보건업 사업장에 주된 이익을 기여한다고 볼 수 있는 의료인력이 영업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을 판단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사현황 자료를 결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근로자 1인당 기여율과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의사 1인당 영업이익은 평균적으로 112백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방사선, 치과병원, 일반의원, 치과의원 등의 순으로 영업이익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들 의료기관은 의사 1인당 12,000만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보건업 사업장을 구분하여, 의사 1인당 영업이익이 음의 값을 가지는 사업장의 비중을 도출할 수 있는데, 병원급에서는 약 13%의 사업장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의원급은 약 2%의 사업장만이 손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경제총조사의 비용자료와 건강보험 자료에서의 수익 자료를 활용하여 실제 병원의 수익성을 판단할 수 있다. 병원급 혹은 의원급에서 비용 대비 수익의 값이 1보다 큰 값을 가지는 업종은 상급종합병원과 한방병원, 일반의원, 한의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병원의 비용구조와 평가등급과의 관계 등의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는 지금까지 분석된 적이 없었던 새로운 연구결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

4.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로 본 산업구조 변화

산업구조란 한 나라의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각종 산업 간의 구성비율과 구조·관계를 말한다. 즉, 각종 산업의 국민경제에 있어서의 구성상태와 경제활동 내에서의 각 산업의 구성비율을 파악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 나라 경제의 생산양식과 특징을 파악하고, 그 구성의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국민경제의 특성과 역사적 발전과정 및 그 장래에 대한 판단의 기초를 얻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조사된 경제총조사 자료가 2010년을 기준으로 2011년에 최초로 이루어진 조사라는 점에서 산업구조 변화 또는 추이를 분석할 수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전국사업체조사에서 조사된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4년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연간자료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1985년부터 2010년까지의 경제활동별 지역 내 총부가가치 연간자료를 이용하여 산업구조 추이를 간접적으로 파악하였다.

부가가치의 전국 기준으로 본 산업구조 변화를 보면, 농림어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 교육 서비스업, 기타 서비스업 등이 쇠퇴하고, 제조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정보 및 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사업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

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이 성장산업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한편, 사업체수 추이로 본 산업구조 변화는 제조업(부가가치는 2007년 대비 2008년의 전 산업 대비 비중 증가),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산업 등은 감소하였고,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금융보험업(부가가치 비중 증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부가가치 비중 감소),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등은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종사자수 추이에 따르면,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서 확연하게 감소 추세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가가치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과 광업의 부가가치가 지역단위에서도 점차 감소하며, 도소매업의 경우는 인구집중 지역에서 부가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도 충남을 제외한 15개 지역에서 비중이 증가하여 고령화에 따른 결과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사업체수 측면에서 보면, 농림어업이 9개 도를 중심으로 2007년 대비 2010년 사업체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 서비스업은 전국 기준으로는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별로는 엇갈리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금융 및 보험업은 충북을 제외한 15개 시도에서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종사자수 측면을 보면, 16개 시도에서 모두 비중이 감소한 산업은 제조업(전북 제외),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전북 제외),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인데, 이는 사업체수 감소 추세와 거의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16개 지역이 모두 비중이 증가한 산업은 건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 2개 산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5. 소지역 통계 제공방안

경제총조사는 전국의 모든 사업체를 조사하여 한국의 경제 주체들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지니고 있는 조사이다. 이러한 사업체의 정보를 이용하여 거시적인 관점에서 관심이 있는 전국 단위의 여러 가지 통계들을 생산해 내어 한국의 경제 전반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도 매우 중요한 일이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경제총조사가 사업체에 대한 전수조사이기 때문에 평범한 표본조사가 제공할 수 없는 작은 지역에 대한 통계를 생산해 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시군구를 소지역 단위로 정하고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영업자가 주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음식점 및 숙박업에 대한 다양한 소지역 통계를 지도에 표시하는 지리정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리적 정보를 이용하여 사업체가 전국에 어떻게 분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매출액이 지역에 따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시군구 통계 지도를 보면 음식점 및 숙박업은 전국 인구에 대비하여 골고루 분포되어 있으나 매출액은 서울 및 경기 그리고 일부 관광사업이 발달된 지역과 그 외의 지역에 큰 격차를 보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전수조사인 경제총조사의 자료를 이용하여 음식점업의 매출액과 다른 조사 항목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들을 찾아보려고 노력하였다. 회귀분석은 두 개의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하나는 추출단위 회귀모형이고 다른 하나의 모형은 소지역단위 회귀모형이다. 분석결과 소지역단위 모형에서 매출액을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수는 종사자수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모형들은 경제 관련 표본조사에서 소지역 통계 추정에 이용될 수 있다.

6.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와 경쟁력 분석

소매업 전체 61만 6,500개 사업체 중 3만 7,899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어 전체 사업체의 6.1%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및 주점업 전체 58만 6,297개 사업체 중 8만 5,430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14.6%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음식점 및 주점업이 주요 프랜차이즈 창업시장임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음식점업 가운데서는 기타 음식점업의 경우 전체 102,852개 사업체 중 46,024개 사업체가 프랜차이즈에 가입하여 전체 사업체 중 44.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 7,98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2억 8,630만 원)보다 1억 650만 원 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 연료 소매업을 제외하면 평균적으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매출액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종사자수로 볼 때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나 미가입사업체를 불문하고 3명 정도에 머무르고 있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에도 사업의 영세성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은 109.42㎡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건물면적(131.48㎡)보다 협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사업의 국민경제 기여도를 보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매출

액은 22조원으로 전체 산업 매출액 331조 원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는 38만 2,096명으로 전체 종사자 312만 명 2,206명의 12.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총종사자수를 해당 업종의 전체 종사자수에 대비한 비중을 살펴보면 음식점 및 주점업의 경우 16.4%로 소매업의 7.8%보다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은 2,675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연간급여액(4,613만 원)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고용형태는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비정규직이 사업체당 1.61명으로 정규직(1.49명)보다 많았다. 반면에, 프랜차이즈 미가입사업체의 경우 정규직이 사업체당 1.57명으로 비정규직(0.97명)보다 많았다. 따라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고용형태가 미가입사업체에 비하여 불안정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이 미가입사업체의 평균임금보다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와 미가입사업체의 경쟁력을 영업이익의 척도에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은 3,810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3,500만 원)보다 310만 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업체의 평균은 영업이익률은 27.84%이고,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은 24.99%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영업이익률(28.17%)보다 3.18%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은 노동자 1인당 5,804만 원으로서 미가입사업체의 평균 노동생산성(노동자 1인당 11,276만 원)의 절반 수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을 행정구역별로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7개 광역시의 노동생산성이 9개 도의 노동생산성보다 크게 높다는 점이다. 흥미로운 것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지역별 격차가 미가입사업체의 노동생산성의 지역별 격차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경우 매장의 시설, 판매 제품 및 서비스 등이 상당히 표준화 되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사업체 단위의 생산함수를 추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이론과 같이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산출고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 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단지,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일반사업체보다 매출액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타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 활

동기간이 길수록 사업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할수록 매출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 단위의 영업이익함수 추정결과, 첫째로 생산요소의 투입량 증가에 비례하여 영업이익이 미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로 자본의 한계수익성이 노동의 한계수익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체의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데 있어 자본이 노동보다 더 영향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가 관심을 갖는 사업체의 프랜차이즈 가입 여부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어 의미있는 해석을 할 수는 없다. 단지,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프랜차이즈 가입사업체의 경우 미 일반사업체보다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변수의 경우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사업체 활동기간이 길수록 사업체 매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업체가 전자상거래를 하는 경우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2절 연구결과 시사점 및 활용방안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었던 결과는 각 주제별로 다르게 나타나며, 각각의 주제에 대한 시사점은 해당 분야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자영업자 현황 및 규모 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자영업주의 신규진입 및 시장경쟁력에 대한 정책 입안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가공통계를 개발하면서 산업별 집중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통계청 이외의 타 기관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계를 통하여 기존에는 수행할 수 없었던 분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으며, 산업구조에 대한 변화를 추정할 수 있었다. 또한 경제총조사는 전수조사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소지역 단위의 통계를 제공할 수 있으며, 이를 토대로 보다 정교한 지방정부의 정책입안이 가능해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 후 주로 창업을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사업장과 관련한 일반사업체와 프랜차이즈 사업장의 수익성 및 각종 경제적 지표를 비교할 수 있으며, 잠재적인 프랜차이즈 창업주에게 창업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경제총조사의 활용성이 높다. 각 주제별 세부적인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1. 자영업자 현황 및 규모에 따른 특성 비교 연구

분석모형과 산업에 따라 결과에 다소 차이는 있으나, 한국의 적정 자영업주 비중이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추정되어, 자영업 부

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창업 지원을 통한 신규 자영업주의 시장 진입 정책을 넘어서 자영업 부문의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한 보다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보다 적극적인 입구전략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신규 자영업주의 진입촉진을 통하여 경쟁의 강화 및 비효율적인 자영업 부문의 시장퇴출을 유도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시장진입을 통한 경쟁촉진정책만으로는 과잉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경쟁력 있는 잠재적 자영업주에 대한 새로운 일자리의 창출은 적극 유도하되, 정부지원 기준의 강화를 통해 자영업 부문으로의 무분별한 진입을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이 적극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하여 예비 자영업주의 창업지원보다는 근로 능력 향상 등을 통한 취업 확대가 보다 유효한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자영업주의 과잉상태에서 창업촉진을 통한 자영업 부문의 고용창출·유지 노력이 오히려 고용의 질적 저하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출구전략으로서 한계 자영업자의 폐업지원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정 규모를 넘어서면서 한계화된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을 피할 수 없게 되어,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자영업 부문에서 퇴출된 인력들이 안착할 수 있는 사회복지 차원의 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진다. 또한 퇴출되는 자영업주로 인한 실업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고용흡수력이 높은 사업체로 하여금 인력수요를 늘릴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공제제도 가입확산 및 다양한 사회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는 인센티브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는 세원 발굴 및 과세 투명화, 소득세 부담률의 조정 등의 세제정책을 통해 과잉화되어 있는 자영업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유도하는 정책수단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한국의 자영업주 과잉 정도는 업종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 세부업종별로 자영업주의 결정 요인의 분석과 함께 업종의 특성이 잘 반영된 차별화된 정책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체 자영업 과잉 규모에 비해 숙박 및 음식업에서의 과잉 규모가 더욱 크다는 점에서 숙박 및 음식업의 자영업주 과잉 해소 필요성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물론 본 연구의 분석 대상 업종이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분석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나, 업종의 특성과 현실을 고려한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자영업주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효율적인 대안제시가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

2. 가공통계 개발방안

본 연구에서는 원시자료를 기업 단위 자료로 집계하는 방식에 대한 고찰을 하였다. 기존의 방식은 주산업만을 고려하여 사업체 및 기업의 매출액을 집계하는 방식으로 주산업의 매출액이 과장될 수 있으며 부산업들의 매출액은 반영되지 않는 한계점을 갖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주산업뿐만 아니라 제1부 산업을 고려하고, 주산업과 제1부 산업의 매출액 비중을 이용하여 정확한 매출액을 집계할 수 있는 기업 단위 집계방식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에 따르면, 먼저 여러 조사표로 조사되고 저장된 형태의 원시자료를 병합하여 통합자료를 생성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조사표들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조사항목들을 위주로 병합하게 된다. 산업의 특성에 따른 조사표별 고유 조사항목들에 대한 병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였다. 또한 통합자료의 크기가 매우 큰 경우 SAS 나 R 같은 분석 소프트웨어의 응용이 메모리 부족으로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CR3와 HHI를 비롯한 기존의 여러 집중도 통계량과 지표들을 기반으로 산업집중통계를 산출한 후 이들 통계량과 지표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기존 지표들은 서로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또한 지표들과 산업 내 기업수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는 지표들이 기업수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으며 기업수의 영향을 적게 받는 집중도 지표의 개발이 필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경제총조사와 연계방안 - 심평원 건강보험자료와의 연계

단일 구조로 되어 있는 독립적인 통계조사들은 해당 조사의 범위와 대상이 개별적으로 한정되어 있어 현황진단 및 정책개발에 필요한 정보 분석과 통계분석을 하는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마이크로 자료 수준의 경제총조사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연계자료 구축은 보다 심도 깊은 연구 및 정책개발에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경제총조사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의 연계를 통한 의료산업을 분석한다면, 지금까지 분석할 수 없었던 많은 연구를 추가로 진행할 수 있었으며, 실제로 현안 이슈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여 정책 입안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제총조사에서 조사하고 있는 병원의 회계정보는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립병원을 분석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결정적인 변수이므로 경제총조사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활용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는 결여되어 있는 회계와 사업체 자료(종사자수, 모기업 정보, 기업연령 등)를 결합한다면 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연계자료를 이용한 통계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이러한 사항을 고려한다면, 보건업 자료뿐만이 아니라 광업제조업조사(구 광업제조업통계조사), 기업활동조사, 도소매 및 서비스업총조사, 전국사업체조사, 병원실태조사, 보건복지패널 등의 자료와 연계하여 주요 정책을 개발할 수 있으며, 분야 혹은 업종별 장단기적인 정책목표의 유효성 검증에 활용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유일한 사업체 전수조사인 경제총조사를 보다 많은 데이터베이스와 결합하여 연구 및 정책입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속적인 경제총조사와 다른 통계자료와의 연계자료 구축을 통한 시계열 자료를 구축할 수 있다면, 더욱 많은 통계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부가가치로 본 산업구조 변화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부가가치 측면에서 정보 및 통신업과 금융 및 보험업 등 2개 산업은 모든 지역에서 다른 산업에 비하여 현저하게 비중이 높아 정보통신 및 금융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한편, 사업체수 측면에서 건설업은 서울특별시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였고, 도소매업은 전국 기준을 비롯한 16개 시도에서 그 비중이 하락하였는데, 이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도소매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경제활동인구 조사결과 및 취업자수와 종사자수 조사결과를 비교한 결과, 분석대상기간 내내 그 차이가 점차 줄어들고 있어 경제총조사의 효용성이 제고되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경제총조사 자료를 통해 정확한 부가가치 추출이 가능하게 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이는 GDP 추정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 전체적인 조사 관련 예산 절감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결국 경제총조사 자료를 이용한 산업구조 변화 추이 분석의 유용성 및 향후 과제로서,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조사결과를 통해 사업체·산업·지역별 고용 추세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5. 소지역 통계 제공방안

경제총조사에 대한 소지역통계 제공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면서 얻은 경험은 지리정보를 이용하여 소지역 통계를 제공하면 소규모 지역의 지리적인 특징이나 다른 지역과의 차이를 상대적인 개념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리정보 시스템을 이용한 통계 제공은 숫자만 보여주는 통계표와는 달리 많은 정보를 빠르고 쉽게 인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통계청에서도 지리정보 시스

템을 이용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이 시도 단위의 정보를 제공하고 시군구 단위의 소지역 정보 제공은 매우 드문 실정이다. 시도 단위의 통계만 보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보를 다른 지역과 비교하여 그 차이와 특성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 통계청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는 지리정보 시스템에 시군구 통계를 더 많이 제공하면 국민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6.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실태와 경쟁력 분석

본 연구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체에 대하여 다각도로 분석한 결과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살펴보면, 베이비붐 세대를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에 진출하려는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중앙정부는 프랜차이즈 사업에 대한 보다 다양한 측면에서 전문적이고 심도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도록 하여야 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통계청의 KOSIS 등을 이용하여 지역별·산업별 프랜차이즈의 실태와 경쟁력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의 후속 연구로서 소지역 통계 제공에서 제시된 GIS 기법과 본 연구의 결과를 결합하여 지역별·산업별 프랜차이즈의 실태와 경쟁력 등에 관한 정보를 통계청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는 tool-kit을 개발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관할지역 내에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현황을 파악하여 지역 내에서 프랜차이즈 사업체를 창업하려고 하는 자영업자들에게 프랜차이즈 사업체와 일반사업체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는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세부업종별로 프랜차이즈 사업체의 사업 규모와 영업이익 등의 경제성 들을 자영업 창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경우 본 연구결과를 이용하면 지역별로 해당기업이 속한 업종의 경우 차이점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비용 등 다양한 차원에서 비교하여 추후 마케팅 전략의 수립과 실천계획을 세우는 데 유용한 자료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금재호・류재우・전병유・최강식(2003),「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상과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김광석, 홍성덕(1990), 「장기적 산업성장 및 구조 변화 요인 분석(1955~85)」, 한국개발연구, 제12권 제1호, 3~29.

김우영(2000).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자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노동경제논집』제23권 특별호, 56~80.

류재우・최호영(1999), 「우리나라 자영업 부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제22권 제1호, 109~140.

류재우・최호영(2000), 「자영업부문을 중심으로 한 노동력의 유동」,『노동경제논집』제23권 제1호, 한국노동경제학회, 137~165.

문유경・성지미・안주엽(2002),「여성 자영업자의 현황과 대책방안」, 연구보고서 230-20, 한국여성개발원.

민경휘(1993),「한국산업의 연관구조 변화와 대일 비교-중화학공업 육성기를 중심으로」, 연구총서 93-08, 산업연구원.

성지미・안주엽(2002). 「자영업의 경제적 성과 및 주관적 평가의 결정요인」.『노동정책연구』, 제2권 제3호, 101-136.

윤홍근(2001), 「국내 외식 프랜차이즈의 현황 및 세계화의 문제점」, 『지역개발연구』, 제6권 제1호, 159-174.

윤홍근・김장익(1998), 「프랜차이즈 산업의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외식경영학연구』, 창간호, 267~297.

이웅규(2006), 「외식기업 프랜차이즈 창업에서의 소비자주권에 관한 연구」, 『외식산업경영연구』, 제2권 제2호, 27~50.

이재형(2008), 「우리나라의 산업집중 및 시장구조 실태분석」, 통계개발원

이재형・양정삼・이상무(2011), 「시장구조조사」, 한국개발연구원

이진면・홍성덕(1999), 「산업성장과 구조변화에 대한 기여도 분석(1975-1995)」정책연구시리즈 99-05, 한국개발연구원.

전병목(2005), 「소득세 부담과 자영업자 규모 변화」,『재정포럼』, 107호, 24~43.

전병유(2003), 「자영업 선택의 결정 요인에 관한 연구」,『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149～179.

전인우・유정식・최성호・이창민・윤성미(2005),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개선방안」, 중소기업연구원.

조병도 외(1999), 「한일경제의 산업성장과 생산구조변화의 요인 분석」, 정책연구, 제 19권 제2호, 213～268.

조병도・정준호(2011),「산업연관분석을 이용한 한국경제의 산업구조 변화와 성장요인 분석(1995～2008)」, 산업경제연구, 제24권 제6호, 3433～3456.

조영무(2005). 「자영업 위기 해법은 없나」.『LG주간경제』, LG경제연구원, 31～35.

중소기업연구원(2005),「새로운 소상공인 정책의 모색」,정책연구 05-01.

최한주・이기훈(2010), 「IO-SDA를 이용한 우리나라 산업의 성장 요인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3권 제2호, 727～747.

통계청(2011),「2010년 기준 사업체조사 및 경제총조사 조사지침서」.

통계청(2011),「2010년 기준 개인사업체 현황 및 특성 분석」.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 연도.

통계청 「총사업체통계조사」, 각 연도.

홍기운(1999), 『최신 외식산업개론』, 대왕사.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2012), 「개인사업자 창・폐업 특성 및 현황 분석」, KB경영정보 리포트 2012-12호.

Acs, A. D. Audretsch and D. Evans.(1994). "*Why does the Self-employment Rate Vary Across Countries and Over Time*?" Discussion Paper No. 871. Center for Economic Policy Research.

Baltagi, B. H.(2005). "*Econometric Analysis of Panel Data*", 3rd ed. Chichester, UK: John Wiley.

Blanchflower, D. and A. J. Oswald.(1998). "What Makes an Entrepreneur," *Journal of Labor Economics*, 16(1), 26~60.

Chenery, H.(1979), "*Structural Change and Development Policy*", Oxford University Press.

Dennis, W.(1996). "Self-employment: When Nothing Else is Available?" *Journal of Labor Research*. 17(4), 645～661.

Hsiao, C.(1986). “*Analysis of Panal Data*”,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ILO), 노동통계, http://laborsta.ilo.org/ 각년도

Long, J. E.(2001). "The income tax and self-employment." *National Tax Journal*, 35(1), 31~42.

Lucas, R.(1978). "On the Size of Distribution of Business Firms." *Bell Journal of Economics*, 9(2), 508~523.

Miller, R.E., Blair, P.D.,(2009) “*Input - Output Analysis: Foundations and Extensions*” 2nd Ed. Cambridge University Press.

OECD, Factbook, Economic, Environmental and Social Statistics, 각 연도.

Parker, S. and M. Robson.(2004). "Explaining International variations in self-employment: Evidence from a panel of OECD countries." *Southern Economic Journal*. 71(2). 287~301.

Robertson, P. E.(1998). "*Growth Accounting. Growth Theory and the East Asia Miracle*." Working Paper.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12~17.

Robson, M. T. and C. Wren.(1999). “Marginal and Average Tax Rates and the Incentive for Self-Employment." *Southern Economic Journal*, 65(4), 757~773.

Stanley J. Feldman, David McClain and Karen Palmer(1987), “Sources of Structur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1963-78: An Input-Output Perspective”, *The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9, No. 3, 503~510

Tayor, M.(1996). "Earnings. Independence or Unemployment: Why become Self-employ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58(2), 253~265.